

건축

칼럼 세계경기에 있어서 외국설계자의 참여
시론 건축사업의 당면과제와 해야 할 일
특 별 기 고 WTO와 건축환경(1)
특 별 기 고 '96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발표
외 언 어 건축의 건축가 - 강 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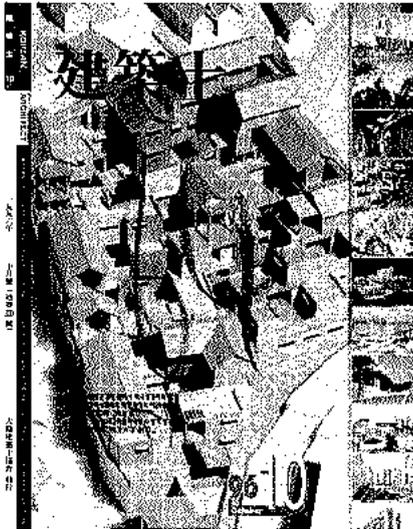
96

October

10



建築士



표지사진 /

발행인 김규태
 편집기획 편집위원회
 위원장 조정상
 위원 방철린, 승호상, 심영섭, 원대연
 편집·취재 양원석, 정효상, 조한국, 윤태일, 김광미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장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등록번호 서울 라-26(월간)
 등록 1967년 3월23일
 U. D. C : 69/72(054-2) : 0612(519)
 인쇄인 이봉수/정문사 (02)266-4555

Publisher : Kim Gyu-Tae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Cho Jeong-Sang
 Member : Bang Cheol-Fin, Seung Hchih-Sang, Shim Young-Seop, Won Dai-Yun
 Assistant Editor : Business Expansion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4
 Fax : (02)586-8823
 Registered Number : Seoul Ra-26
 Registered Date : 23, March 1967
 U. D. 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02)266-4555

■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차례

1996년 10월호 통권 330호

| | |
|--------------------------------|-----|
| 편집 | |
| 설계경기에 있어서 외국설계자의 참여 / 이범재 | 20 |
| 사론 | |
| 건축사협회의 당면과제와 해아할 일(1) / 최찬환 | 22 |
| 특별기고 | |
| WTO와 건축환경(1) / 박서홍 | 26 |
| 특집 : '96 한국건축분회대상 수상작 발표 | 36 |
| 중공건축물부문 수상작 | |
| 대 상 / 대법원 청사 | 42 |
| 본 상 / 수원아외음의당 | 43 |
| 진로쿠어스 맥주공장 건축동 | 44 |
| 용문 청소년수련원 | 50 |
| 태평양파크 빌라트 | 56 |
| 분당주공아파트 | 60 |
| 신내지구 9단지 아파트 | 62 |
| 우수상 / SBS 탄현제작센터 | 64 |
| 포스코 철골조아파트 | 66 |
| 계획건축물부문 수상작 | |
| 최우수상 / 흔적 | 70 |
| 우수상 / 전통의 굴레를 넘어서 | 71 |
| 청담 | 72 |
| 장려상 / 부분에서 전체로 외 | 73 |
| 기고 | |
| 건설산업기본법 공청회 유감 / 김영석, 유경철, 이충기 | 80 |
| 설계자와 시방서(1) / 이중호 | 84 |
| 일하며 생각하며 | |
| 큰 협회 새롭고 창조적인 리더를 기다리며 / 윤여옥 | 88 |
| 건축기행 | |
| 중국 고건축 기행(3) / 김도경 | 91 |
| 기획연재 | |
| 한국의 건축가 강 윤(1) / 김승재 | 98 |
| 해외건축 | |
| 유럽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4) / 박호순 | 102 |
| 현상설계경기 | |
| 충북과학교육원 | 112 |
| 통계 | |
| 96년도 8월분 설계도서신고 현황 | 118 |
| 협회·건축계 소식 | 120 |

| | |
|----------------------------------------------------------------------------------------------------|-----|
| COLUMN | |
| Foreign Architects' Participation in Design Competition / Lee Beom-Jae | 20 |
| FOCUS | |
| KIRA's Present Questions & Tentative Measure / Choi Chan-Hwan | 22 |
| SPECIAL FEATURE | |
| Architecture Environment & WTO / Park Suh-Hong | 26 |
| SPECIAL : KOREAN ARCHITECTURE AWARDS '96 | |
| PRIZE WORKS - PROFESSIONALISTS PART | |
| Grand Prize / The Supreme Court | 42 |
| Second Prize / Outdoor Music Pavilion in Suwon | 43 |
| Jinro Coores Brewing Office & Visitor Center | 44 |
| Yongmoon Youth Training Center | 50 |
| Taepyeongnyang Park Villart | 56 |
| Pundang KNHC Apartment | 60 |
| Apartment Complex in Shinae District | 62 |
| Superior Prize / SBS Tanhyun Drama Studio | 64 |
| POSCO Apartment in Steel Structure | 66 |
| PRIZE WORKS - THE SUBMITTED WORKS PART | |
| Award of Excellence-1st / Trace | 70 |
| Award of Excellence-2nd / Takes off a Bride | 71 |
| Purity and Honesty | 72 |
| Selected Prize / Parts to whole. etc. | 73 |
| FEATURE | |
| Public Hearing on Construction Industry-Basic Law / Kim Young-Suk, Yoo Kyeong-Churl, Lee Chung-Kee | 80 |
| Architect & Specificatons(1) / Lee Chung-Ho | 84 |
| ESSAY | |
| Waiting to leader that Fresh & Creative / Yoon Yeo-Wook | 88 |
| ARCHITECTURE TRAVEL | |
| Travels of chinese Traditional Architecture(3) / Kim Do-Kyung | 91 |
| SERIAL | |
| Korean Architects - Kang Yoon(1) / Kim Seung-Je | 98 |
| OVERSEAS ARCHITECTURE | |
| Catholic Church & Monastery Building in Europe(4) / Park Hyo-Soon | 102 |
| COMPETITION | |
| Chungbuk Science - Education Center | 116 |
| STATISTICS | |
| | 118 |
| NEWS | |
| | 120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강북구건축사회/933-3425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강동구건축사회/484-6840 · 강서구건축사회/604-7168 · 평진구건축사회/446-5244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종로구건축사회/735-0905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서초구건축사회/552-8468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노원구건축사회/933-8076 · 양천구건축사회/653-2892 · 중랑구건축사회/437-7356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구로구건축사회/852-2275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경기도건축사회/(0331)47-6129~30
- 수원지역건축사회/(0331)43-6662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49-2638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5-5445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51)876-0458 · 송탄지역건축사회(0333)666-6153 · 고양지역건축사회/(0344)63-8902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63-2337 · 오산시지역건축사회/(0336)635-0545 · 광명건축사회(02)694-5845 · 안산건축사회/(0345)80-9130 · 시흥지역건축사회/(032)694-4721
- 강원도건축사회/(0361)54-2442
- 춘천지역건축사회/54-2442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43-7290 · 강릉지역건축사회(0391)41-7371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33-5081 · 삼척지역건축사회/(0394)31-8708 · 영월지역건축사회/(0273)374-2659 · 철원지역건축사회/52-3307
- 충청북도건축사회/(0431)56-2752 · 53-7342
- 충주지역건축사회/(0441)847-3082 · 제천지역건축사회/(0443)43-6253 · 옥천지역건축사회/(0475)33-350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641)32-2755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635-2217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34-3387 · 공주지역건축사회/(0416)54-3355 · 서산지역건축사회/(0455)64-8500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87-6007~8
- 익산지역건축사회/(0653)52-3796 ·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33-2000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31)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8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62)33-2000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포항지역건축사회/(0562)44-6029 · 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51-1537~8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57-7464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4-2541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34-5560 · 문경지역건축사회/(0581)53-6677 · 상주지역건축사회/(0582)32-5868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칠곡지역건축사회/(0545)974-7025 · 영천지역건축사회/(0536)34-8256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1
- 울산지역건축사회/(0522)74-8836 · 진주지역건축사회/(0561)745-6403 · 통영지역건축사회/(0557)645-7423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5-5882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4848 · 거창지역건축사회/(0598)43-6030 · 양산지역건축사회/(0523)84-3050 · 거제지역건축사회/(0553)635-3432 · 삼천포지역건축사회/(0583)33-9779
-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62-2233

설계경기에 있어서 외국설계자의 참여

Foreign Architects' Participation in Design Competition

우리 설계사무소는 외국 설계자들의 체인점으로...?

이범재 /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Lee Beom-Jae

근간 몇년간에 걸쳐 많은 설계경기가 치루어져왔다.

갑자기라고 할 정도로 많은 설계경기가 몇년 사이에 급증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아마 설계경기의 공정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가지의 차후 책임성있는 의무감에서 벗어나려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관·공사의 많은 부분이 설계경기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인맥과 지연에 의한 설계수주를 지양하고 공정한 기회를 각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설계경기의 기회가 확대되어, 많은 무명의 건축가나, 소규모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대단히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 일부에서는 너무 소규모의 건축에서부터 설계경기가 이루어져서 소모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우려하기도 하였다.

대규모의 공공성 건축에 대한 설계경기는 꾸준히 있어 왔었기에 1차는 공개경기로 하고 2차는 입선된 작품들 중에서 제한경기를 하는 방식들이 많이 애용되고 있다.

어찌되었건 어두운 밑실에서 서로의 득실을 따져서 알지도 못하게 수의계약을 하여 설계계약을 획득하기가 어려웠던 과거의 시절보다는 그래도 얼마나 개방성있고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공정성이 생긴 것인가를 따진다면, 우리 건축계로서는 전반적으로 환영하여야 할 발전이라고 하겠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국책사업이나, 국가적 사업을 중심으로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많이 늘어나서, 건축계에서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것들이 많다. 여기서 나타난 몇가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우리의 설계경기가 이대로 좋은 것인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 멀지 않은 근래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설계경기가 가끔 행하여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발주하는 공공성을 질게 가진 건축물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건축환경에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 기대되는 바이었다. 그래서, 국제공항 설계경기에

서는 외국의 설계자와 협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도 하였고, 때에 따라서는 외국의 설계자에게도 참가의 자격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설계자는 협동의 형식으로, 또는 공동의 형식으로 참여하였고, 그래서 당선되기도 하고, 낙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느새 외국의 설계자들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우리나라 설계자는 그것을 구입하였다가 그대로 포장을 바꾸어서 제출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것이 처음에는 대규모의 프로젝트에만 나타나다가 현금이 이르러는 점차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설계경기가 나오면 벌써 어떤 사무소는 미국의 어떤 사무소와 몇만불로 계약하였다, 어떤 설계자는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를 접촉한다는 등, 점차 '다국적'화하는 추세이다.

건축에서의 국제화라는 것은 쌍방교환의 태도와 쌍방향성의 국제화이지, 일방적 수용의 국제화는 아닌 것이다. 우리의 확고한 능력과 태도의 확립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웬만한 설계경기에 참여하려는 젊은 건축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설계경기에 어떠한 외국설계자가 참여하였는가 하는 정보를 얻어서, 참가여부에 참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것을 보았다. 결국 외국의 설계자와 조인트하기 위한 재정적 능력과,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 대규모 사무소들이 외국의 설계자와 협동한다고 한다면, 그에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중소규모의 설계사무소들은 포기하는 경향이 많다.

물론 이러한 데에도 굴하지 않고 자체적인 경험과 본인의 건축적 발전을 위하여 모든 금전적, 환경적인 불리함을 참으면서도 설계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없지 않은 것은 경의를 표할만 하다고 하겠다.

문제는 외국설계자와 협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설계자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이를 본인들의 이름으로 하여 설계경기에 제출하는 데에 대한 윤리적인 시각인 것 같다.

건축을 비즈니스의 하나로 보던말던 그것은 본인들의 생각나름이지만, 소위 몇몇 대규모 사무실의 시각은 외국설계자를 이용하더라도 수주를 하여 사무실의 외형적

명성을 높이거나, 경영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는데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는 미국사람에게, 어떤 프로젝트는 프랑스사람에게 하는식으로 마치 상품을 고르듯이 하는 것이다.

원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제조하고 가공하여 국제적인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생산품을 만들어 이를 국제시장에 내놓아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재벌들이, 완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시장에서 판매하고 이 이익을 가지고 부(富)를 취하여 오는 것과 같은 패턴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생산회사가 외국산 자동차를 완제품으로 수입하여 판다면, 자기의 살을 자기가 값아먹는 것이 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지난 10여년동안 많은 투자를 하여 외국에서 공부해 온 건축가들이 많다고 본다. 경제가 나아지면서 점차 외국의 설계와 외국건축가를 접할 기회도 다양해졌고,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유용한 인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외국의 건축과 건축가들에게서 전수한 것들을 우리 건축계를 위해 십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을 단순히 외국인 설계자와의 접촉매개체로 사용한다던가, 또는 그들의 뒷바라지를 위한 소모적 매개체로 사용한다면 너무 아깝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외국설계자에게서 얻어야 되는 것은 상품으로 하면 원자재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이다. 외국의 기술과 그들이 발전시켜온 하드웨어의 것은 우리가 십분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면, 아이디어나 생각, 건축에 대한 과정들은 어렵지만 우리가 만들어 내어야 하는 것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금명간 우리의 설계 사무소들은 외국설계자들의 체인점으로 전락하고 말것이다.

이것이 우리 설계사무소들의 앞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형성될 것인가?

건축사협회의 당면과제와 해야할 일(1)

KIRA's Present Questions & Tentative Measure

최찬환 /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Choi Chan-Hwan

1. 서론

밖으로는 국제화, 개방화, UR과 WTO체제출범 등의 국제환경의 변화와 함께 안으로는 정보화 규제완화와 경쟁력제고를 위한 체질개선과 전문화, 건설업계의 EC화, CM제도 그리고 종합건설업면허제의 추진 등의 일련의 과동과 회오리속에 우리 건축계는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건축사협회가 창립된지 30여년이 지났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그 설립목적은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사의 품위보전,

업무개선과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하도록 되어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있는 시점에서 건축사협회는 이와같은 내외적인 환경과 여건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시련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아가야 할 것인지가 큰과제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대한건축사협회가 당면한 현실적과제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요점정리해 보고자 한다.

2. 건축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 논의

1)건축의 성격

건축은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인가? 아니면 수익성과 사업성을 앞세운 경제활동인가? 그것도 아니면 이 두가지의 성격이 복합되어 있는 것인가? 복합되어 있다면 어느정도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논리적 해석도 없이 극히 애매모호하기만 하다.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이 우선한다면 소속이 문화체육부에 가깝고 경제논리가 우선한다면 경제부처의 하나인 건설교통부에 소속되는 것이 옳다. 건축설계와 공사감리는 시공(건설)과는 성격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건설이라는 틀 속에 묶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축이 경제논리에 더 많이 지배받고 예측되어 있으며 그와같은 인식속에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고 수많은 논란이 거듭되어 왔다.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이 질적인 것에 관심을 둔다면 경제논리는 양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게 되며 지금까지 정부는 건설행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적정책을 우선하여 왔다. 몇차례 문제가 되었던 종합건설업면허제에 대한 논쟁은 건축사협회가 건축설계를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의 성격이 크다고 보고 전문성과 역할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내세운 반면 건설회사는 규모경제와 자본에의한 종합화와 경제활동의 논리를 주장하는 등 건축설계에 대한 양자의 시각차가 현저하였던 것을 경험하였다. 건축설계가 디자인으로서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면 건축사는 이에 비중을 두고 활동해야 할 것이며 일반인에게도 그 중요성을 알려야 하고 경제활동을 더욱 중요시 한다면 그에 걸맞은 활동을 해야한다.

오늘의 우리가 건축을 해석하는 관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 인식과 태도가 건축의 성격을 규정하게 된다. 건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앞으로 큰 과제임에 틀림없다.

2) 건축사업무성격과 역할분담 그리고 책임한계

건축사업무는 크게 설계와 공사감리로 구분할 수 있다. 건축물을 기획·계획·설계·공사감리·시공·유지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할 주체가 누구이며 그 주체는 어떤 업무를 어디까지 책임지고 의무를 져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개념정립과 함께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것이 불분명하였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매우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구명되지 못하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건축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원인행위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이든지 처벌·업무정지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건축사가 도맡아 해왔다는 피해의식과 불만이 팽배해 있으며 민주화 사회에서 이와같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일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의 역할분담과 책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때문으로 본다. 건축사협회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와같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3) 건축사협회의 회원

건축사자격과 면허를 받고 건축사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 사무소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된다.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는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되므로 자격과 면허를 받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건축사업무를 하지 못할뿐 아니라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엄밀히 말하자면 건축사협회는 등록 건축사협회에 해당된다. 개방화와 더불어 세계각국의 서로 다른 제도 속에서 배출된 수많은 건축사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마당에 건축사협회는 모든 건축사를 회원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보다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협회안에서 등록건축사와 비등록건축사를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크게 문호를 개방하고 건축사를 모두 영입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 자세로 그리고 외국건축사의 문호개방에 앞서 국내 건축사의 일치 단결된 화합의 새로운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부의 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힘을 결집하는 것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4) 건축사시험제도

오랫동안 시행하여 오던 건축사자격시험제도를 금년부터 건축사자격시험과 건축사예비시험으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였다. 건축사자격시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늦은 감이 있을 뿐 아니라 이번의 제도개선이 극히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외국의 경우 건축사자격이 대학교육과정과 연계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대학졸업(5~6년제)동시에 자격이 부여되는 국가(예:프랑스, 독일)가 있는가 하면 대학졸업후 실무경력 2년이면 주어지는 국

가(예:미국, 영국, 싱가포르, 일본등)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4년제 대학졸업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가져야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합격률은 엄청나게 낮다. 그야말로 왜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하는지 모르겠다. 건축실무분야에서는 기술인력난과 자격을 가진 전문기술자가 극히 부족한데 건축사자격의 배출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개방화가 되면 외국에서는 아주 쉽게 자격을 취득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격취득이 어려운 관문을 거쳐야 한다면 그야말로 불공정한 셈이 될 뿐 아니라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자격있는 기술인력이 많아져 국내수요는 물론 해외진출의 여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와 반대로 인력부족에 허덕인다면 해외기술인력이 국내시장을 잠식하는데 기여를 하는셈이 된다. 상호 형평의 원칙은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자격시험을 치는 의사·약사 등은 생명을 취급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매우 높은 반면 건축사는 그와 대조적으로 극히 합격률이 낮다는 점에 여러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험에 의해 자격과 면허를 함께 취득하도록 되어있고 면허와 등록이 이어지게 된 현재의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격은 능력제도이며 면허와 등록은 업무수행에 대한 것이므로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허와 등록은 일정한 실무기간을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설계사무소의 지나친 난립을 방지하고 설계사무소에 많은 수의 건축사자격자가 실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축사가 수주를 위한 대외활동과 사무소경영에 시간을 보내고 실제 설계업무는 건축사보 등의 도움에 많이 의존한다면 설계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업무수행은 건축사자격이 없는 건축사보 등이 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건축설계의 실제적인 실무작업이 건축사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며 자격을 가진 건축사가 설계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건축의 질은 높아진다. 건축사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건축사자격이 곧 면허와 등록으로 이어지는 폐단은 하루속히 지양되어야 한다.

3. 건축사협회의 과제

1) 설계의 해외진출 확대방안

개방화는 안쪽빛장을 풀고 외국업체를 무한정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해외진출의 기회가 많아져야 하며 상호기술교류를 통해 모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설계분야에 대한 해외진출이 극히 미미한데 비해 국내 대형건축물에 대한 설계는 외국설계회사가 많이 수행하고 있다. 말하자면 설계의 역조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외래문화의 수입과 건설업체의 국내진출의 교두보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극히 안타까운 일이며, 설계의 해외진출은 건설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며, 설계와 시공이 상호보완하고 파급상승하는 시너지작용을 할 수 있으며, 문화의 수출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 전략적으로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건설회사의 해외건설은 70년대부터 붐을 이루고 지속되어 왔고 그로 인하여 국가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고 지금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설계는 극히 취약하다. 따라서 기존 해외진출건설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에 대한 정보와 함께 특수한 전략을 마련하여 설계와 시공이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설계에 대한 정책지원이 요망된다.

2) 정보센터의 설립, 운영

우리는 지금 세계화와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다. 하루하루가 급변하고 있으며, 또한 무수한 정보속에 살고 있다. 건축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건축계의 현황과 세계의 움직임을 즉각 전달할 수 있는 건축정보센터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의 각종자료와 교육을 통한 상호 정보교류를 위해 정보센터를 설립해야한다. 특히 건축설계가 용역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정보센터는 경쟁력확보, 질적수준향상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3) 정보시스템과 데이터 뱅크운영

국내·외적으로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건축설계를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위한 Data Bank를 설치하여, 건축설계사무소에 설치, 운영할 수 없는 시설이나 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여,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어 필요한 정보, 자료, 기술력을 축적하고 향상, 설계과정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센터와 Data Bank는 하나의 System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개별사무소단위로 할수 없는 공동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성격이다. 우리건축계에도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뱅크의 구축은 회원모두의 절대절명의 관심사이다. 따라서 창작 건축물의 질을 높이고 건축실무의 효율화를 이루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건축정보시스템과 데이터 뱅크는 절실히 필요하다. 정보시스템은 내외부에서 생성되는 각종자료들을 단순히 수집, 관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떤 체계에 의해 가능한 한 빨리, 적기에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가공하고 설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에 있다. 이에대한 데이터뱅크와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노력은 각 설계사무소에서 힘을 모아 개발하고, 건축사협회와 각 단체를 창구로 하여 현안들을 연구해야 한다. 한 예로 설계사무소가 설계도면을 건축사협회에 제공하고 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강구될 수 있다.

4) 건축연구소의 설립

건축분야의 연구소를 두어 Think Tank의 역할을 하도

록한다. 현재 건축관련 분야 연구소는 국토계획·지역계획·도시계획 및 국가정책제도에 관한 연구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국토개발연구원과 건축재료·시공·환경 등을 건설기술중심으로 하는 건설기술연구원이 있으며, 근간에 주택산업연구원 등 몇 개의 특수목적의 연구소가 있으나, 건축의 기초이론분야와 설계·공사감리 등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건축연구소를 설립하여 건축분야에 대한 기초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건축사협회의 권익신장 방안

1) 설계제도의 개선

① 보수요율의 체계화 및 정비

설계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맨 첫째로 계획설계를 작성하는데 설계계약을 선행치 않으므로써 비능률적인 폐단이 있다. 더구나 그 의뢰인마저 건축주 본인이 아니고 시공자나 소위 부로커인 경우까지 있어 보상가능성 없이, 또한 실현 가능성 없이 공여되는 계획설계의 양과 여기에 쏟는 설계자들의 노력과 경비는 실로 엄청나다. 10개의 프로젝트를 계획설계하여 하나를 수주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라면 건축설계사무소의 출혈과 경영은 짐작할 만하며, 이것은 결국 설계의 질적 수준이 낮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하나의 설계사무소의 문제로 국한치 않고 전체로 계산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를 하는 셈이다. 따라서 설계계약을 선행치 않은 모든 계획안은 그 작성과 유통을 금하게 하고 법정 용역비가 보상된 계획안은 협회에 등록, 보존하여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건축설계의 용역설계비 요율을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실적회비 산정 기준표와 건축설계용역 요율표의 문제, 덤핑과 보수율에 의한 인정과세, 해외에 통용될 수 있는 계약서와 시방서 등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법적대응력도 미비하여 보험 등 보증제도도 거의 되지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건축설계용역 전문회사와 어찌 대응할 수 있겠는가? 이웃나라 일본은 실비정산 건축설계용역요율로 바꿔 시행하고 있는지 1년이 넘었다.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필요하다고 본다. 개방화가 되면 외국의 건축설계요율은 공사비의 7~8%정도로 예상된다. 이 설계비 요율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새롭게 대처해야할 업무개선이요. 외국건축사사무소는 국내건축사사무소와 합동으로 업무수행을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고부가가치의 알짜는 외국설계회사가 하고 국내 설계사무소는 별 수입도 없이 굶은일과 치닥거리만 할 수는 없지않는가? 그리고 고급인력이 소모되는 기획·계획·기본설계 등에 대한 용역요율이 책정되어야 하고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회원상호간 계약전의 업무에 대한 신고를 하는 등 정보활용으로 업무가 중복되는 불이익과 낭비를 없애야 한다.

② 자료의 공유화 공동이용

설계자료를 자료화 작업을 하여, 자료를 보관하여 필요한 부분을 서로서로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자료관리, 도서자료관리, 시방서, 디테일의 코드화 등을 들 수 있다.

2) 감리제도의 개선

① 인력공유 FULL계

설계·감리기술인력의 수요예측을 통한 종합적인 인력수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설계·감리업무 수행에 있어서 고급 기술력을 가진 자가 실제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도록 한다. 설계 및 감리관련 협회에서 기술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설계·감리기술 발전을 위한 교육 등의 기능강화로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고급기술인력을 육성한다. 또한 설계·감리기술자 전산화에 의한 건설기술자 관리를 위한 DATA BASE화로 적재적소에 기술인력 활용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고 기술인력의 현장의 고정배치 보다는 적정공기에 체크할 수 있는 감리인력의 공유full계가 바람직하다.

② 설계감리와 시공감리의 구분

설계감리는 설계자가 필수적으로 하고 시공감리는 대형건축물은 필수적으로, 소형건축물은 선택적으로 하되 1차로 시공자가 자기책임하에 자주감리하고 감리자가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또 시공감리는 전수감리가 아닌 표본감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홍보

건축사신문을 발간하여 회원 및 일반인들에게 배부하도록하여, 건축물에 대한 인식과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하여, 국제설계경기 등의 설계경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건축문화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있을 뿐만아니라, 이것을 체계화한 것이며, 국민에게 가장 근접한 실용공간 예술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건축이 국민재산의 증진과 생활환경의 창조에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게 하고 건축사의 역할과 기여가 크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4)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호

건축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 증진 시키는 일이다. 각 개인의 회원으로서 청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집적된 권익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기본적인 권리나 이익의 면에서 별 이상 없는 듯 하지만, 창작권, 경제권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인 권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침해 또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창작권 내지는 저작권에 있어서 설계자는 건축주와 허가 관청으로부터 거의 일방적인 침해를 받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의 개선과 관공서의 각종 심의와 협의과정에서 받고 있는 불이익은 많은 부분이 건축사협회

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 건축사협회는 개별건축사 사무소가 수행하기 어려운 공동사업을 펼치고, 실질적으로 모든 건축사의 이익을 위하고, 대변하는 꼭 필요한 협회가 되어야 한다.

5) 분쟁조정기구설치

빈발하고 있는 건축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건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 등의 사법절차에 앞서 행정절차로 간소화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6) 건축사사무소의 실무수행체제로 대응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축수요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만큼, 건축실무 역시 프로젝트마다 요구되는 수요에 가장 효과적인 실무수행체제로 대응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또한 국제설계경기와 같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에서는 사업관리기능(CM)을 발휘할 수 있는 실무수행체제로 대응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 건축사의 역할이 설계만이 아니라, 건축주에 대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설계 이외에 사업수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효과적인 새로운 전문적인 서비스상품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건축사들이 이러한 방향에서 조직적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과 실무기반을 만들어 나갈 책임이 건축사협회에 있다. 이와같이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설계자협회의 성격으로부터 시급히 탈피하여 종합건축용역서비스협회의 성격으로 바뀌어야 하며 21세기 변화 그리고 새로운 건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건축사도 지금까지 수행하여 왔던 단순히 설계와 공사감리업무에서 탈피하여 기획·컨설팅 등 업무영역을 넓혀가면서 수직적으로 전문화, 특성화하여야 한다.

7) 설계업무의 전문화와 협력체제구축

외국건축업계와 경쟁력의 우위에 서려면 먼저 전문화가 필수적이며 분업화와 협력체제를 필요로 한다. 먼저 설계와 시공간의 업무영역의 전문화, 설계회사의 전문화, 건설회사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건축설계는 그 업무특성상 전문화와 협력체제만 구축하면 설계과제별 대형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설계회사는 운영방법, 프로젝트의 성격과 내용 등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의 다양한 규모가 필요하며, 이들이 과제에 따라 융통성있게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여야 한다. 여건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조직보다는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다이나믹한 조직이 효과적이다.

결론을 대신하는 문제제기

며칠 후면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가 출범된지 만 3주년(12. 15)을 맞는다. 그리고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건설시장 개방이라는 현실은 이제 논의의 대상이 아닌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어 버렸다. 97년 1월 1일부터 정부조달시장이 전면 개방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내년부터 정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구매하는 물품입찰이나 공사발주(건축설계도 포함됨)에 외국업체의 참여가 전면 허용된다. 이는 지난 94년 한국을 비롯 미국, 일본, EC 등 24개국이 서명한 WTO정부조달 협정이 우리나라의 경우 97년부터 발효되는데 따른 것이다.

민간건설 및 건축설계의 경우는 이미 1994년에 체결한 WTO상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의해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GATS에서는 시장진입(외국건축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경우나 우리 건축사가 외국에 진출하는 경우)등과 같은 원칙적인 기준만을 다루고 있는데 반하여 AGP(정부

조달협정,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서는 세부적인 기술사양(Technical Specification)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침을 설정해 놓고 있다. 물론 민간시장에 적용되는 GATS의 기준에 당장에는 관급시장에 적용되는 AGP의 기준이 적용될리아 없지마는 급속한 국제질서로의 편입이 가시화 된다면 예측 못할 혼란이 생기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지난 3년간 정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정을 필두로 "조달제도 국제화추진 기획단"과 이어서 "건설제도 기획단"을 발족시켜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하지만 기획단에서 준비한 결과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음은 필자만의 느낌은 아니리라 믿는다.

건설회사에게 설계권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의 비약에서 시작된 정부의 아이디어는 급기야는 건축설계가 건설업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논리의 파탄을 가져오면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해외개방대책을 넘어선 자폐증(Autism)에 가까운 정신질환증세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부는 역사에 오점을 남길정도의 과오를 범하면서도 문제의 본질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1. 당국의 건축을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건축설계) 분야를 다루어야 될 부분은 서비스무역 분야의 과학기술처와 정부조달분야의 건교부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기의 조직 구성을 일견한 후 어느 누가 건축분야가 심도있게 검토, 연구되었으리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건축전공자는 한사람도 없이 급조된 조직에서 대한민국 건축정책이 좌지우지 되는 오늘의 우리비극.

-WTO의 무역 개념이 경제적 기준으로 되어 있다하여 건설부문을 건설경제과에 위임하는 오늘의 우리 모순.

-거기에 거대하게 군림하고 있는 재경원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오늘의 우리 현실.

WTO와 건축환경(I)

Architecture Environment & WTO

시장개방 100일을 앞둔 현황과 문제인식

박서홍 /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위원장, (주)희선종합건축사사무소
by Park Suh-Hong

WTO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국제화 개방화의 거센 물결은 우리의 건설시장은 물론 생활과 환경, 문화에 이르기까지 전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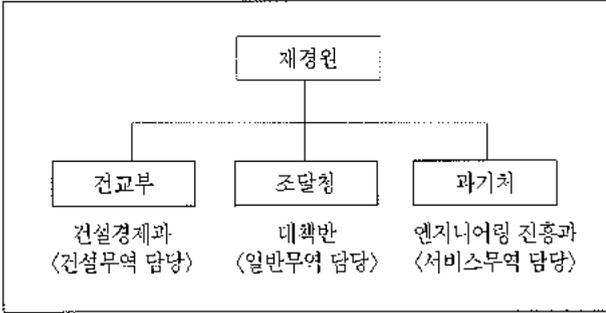
이러한 때에 우리의 건축은 어디로 가고 있나?

무한경쟁의 생존력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안타깝게도 우리 건축계는 강 건너 불보듯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 또한 전문업계의 성격과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없이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런 준비없이 휩쓸려 가고 있다.

이에 본지는 WTO 시장개방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고 있는 정부의 건설산업기본법제정을 건축의 입장에서 분석해보고, WTO체제에 우리건축이 어떻게 미래의 비전을 갖고 대처해야할 것인가를 가늠해 보고자 시장개방 100일을 앞둔 우리 건축계의 현황과 문제인식(I), WTO의 실체와 관계법해설(II) 등 2회에 걸쳐 연재코자 한다. <편집자 주>

〈표-1〉 정부개발대책 구성조직



전교부에서 마련한 건설제도 기획단(표-2)의 구성에 이르러선 정부 당국의 건축을 보는 이해의 정도가 확연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건축과 구분되는 건설의 산업경제적 중요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건설을 보는 시각이 왜 토목건설우위의 편차를 갖고 이루어져야 하는가.

나아가 전교부 내에 건축을 총괄하는 "건축국(局)" 하나 없는 오늘의 우리 현실은 어떻게 이해를 하여야만 하나. 시장규모면에서 보더라도 토목시장과 건축물 시장은 전체 구성에서 건축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 더구나 건축과 건설의 관계야말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연주되는 음악과 같은 관계이거늘 그 각각의 독자성과 유기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드는 편집광적인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1865년 M.I.T 대학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정의 내린 건설에 대한 건축의 상대적인 기준은 "이제 미국은 건축의 본질이 예술성에 있음을 인정한다" 그후 100년이상

〈표-2〉 기획단 구성('95)

| 건설제도기획단 | |
|--------------|------------------|
| 단장 | 건설교통부 차관 |
| 간사 | 건설지원실장 |
| 위원 (23명) | 주택도시국장 |
| | 건설기술심의관 |
| | 건설경제심의관 |
| | 주택심의관 |
| | 건축기획관 |
| | (주) 대우 장영수 회장 |
| | 자유건설 정현태 사장 |
| | 김기삼 전문건설협회 회장 |
| | 이동락 설비공사협회 회장 |
| | 삼성건설 최훈 대표이사 |
| | 아기만 건축사사무소 김석철대표 |
| | 김규태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
| | 한규봉 감리협회 회장 |
| | 이규방 국토개발연구원 부원장 |
| | 이상은 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 |
| | 이동성 주택산업연구원 부원장 |
| | 이태일 건설산업연구원 부원장 |
| | 심천구 시설안전기술공단부이사장 |
| | 김수삼 중앙대 교수 |
| | 산용식 변호사 |
| 최관환 시립대 교수 | |
| 남충희 쌍용건설 자문역 | |
| 이태식 한양대 교수 | |

전세계의 법과 제도의 기본이 되고 있다. 기획단 구성은 글자 그대로 건설제도만을 위한 개선 조직인 것이다.

건축은 어디쯤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표-3〉 우리나라 건설시장 규모전망('95)

| 연도 | | 1992 | 1996 | 1998 | 2001 | 2005 |
|-------|----|---------|---------|---------|---------|---------|
| 보통시장 | 공공 | 2539.7 | 3543.5 | 3922.7 | 3875.0 | 4523.8 |
| | 민간 | 1091.0 | 1332.6 | 1651.7 | 1815.3 | 2585.0 |
| | 합계 | 3530.7 | 4876.1 | 5574.4 | 5690.3 | 7108.8 |
| 건축물시장 | 공공 | 1662.2 | 1940.5 | 2204.7 | 2810.2 | 3468.2 |
| | 민간 | 8372.0 | 10827.5 | 12301.5 | 15680.3 | 19351.6 |
| | 합계 | 10034.2 | 12768.0 | 14506.2 | 18490.6 | 22819.8 |
| 전체 | | 13664.9 | 17644.1 | 20080.7 | 24180.9 | 29928.0 |
| 공공 | | 4201.9 | 5485.0 | 6127.4 | 6685.2 | 7992.0 |
| 민간 | | 9463.0 | 12160.1 | 13953.2 | 17495.6 | 21936.6 |

2. WTO 협상 태도에 문제가 있다.

지나간 얘기지만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건축설계와 건설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거국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WTO협상에 임했다. 불경 200여명에 이르는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여 법의 개념과 질서가 전혀 상이한(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계통의 법률이 없는 나라) 구미와의 협상 테이블에 마주하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건축 전문가가 다수 참여 하였음은 물론이며 결국 건축설계 분야에서 일본이 원하는 수준의 양보를 받아내야 말았다.(일본 양허표(표-4) 참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엔 건설개방에 안달이 난 것 같은 태도로 건축을 스스럼없이 덤처럼 넘겨주고 말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 변호사 한명 없이 협상을 종결지었다.(한국 양허표(표-5) 참조)

—국제법 협상을 하는데 해당 변호사 한명 없이 씩씩하게 해치우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

더욱이 건설(construction)과 달리 건축(architecture)

〈표-4〉 일본 양허표(정부조달협정)

| |
|------------------------------------------------------------------------------------------------------------------------------------------------------------------------------------------------------------------------------------------------------------------------------------------------------------------------------------------------------|
| <p>건축설계 서비스: 다음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양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설계 서비스중 최종 설계서비스 • 계약자문 서비스 • 기초 및 건물구조의 시공을 위한 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 • 건물기계,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 • 시공 및 설치 단계의 엔지니어링 서비스 <p>주) 최종설계서비스(Final Design Services of Architectural Design Services) 실시 설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됨</p> |
|------------------------------------------------------------------------------------------------------------------------------------------------------------------------------------------------------------------------------------------------------------------------------------------------------------------------------------------------------|

〈표-5〉 대한민국 양허표(정부조달협정)

| |
|---------------------------------------------------------------------------------------------------------------------------------------|
| <p>건축설계 서비스: 아무런 조건없이 양허함</p> <p>주) 건축설계서비스, Architectural Services는 전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CPC분류 8671이며 GNS/AW/120구분은 I. A.d로 되어있음.</p> |
|---------------------------------------------------------------------------------------------------------------------------------------|

에 대한 독자성 및 특별성을 인정하고 있는 WTO 체제의 기본을 망각한 이러한 태도는 역사의 평가를 받으리

라고 믿는다.

3. 정부의 재벌 우대정책은 개편 되어져야 한다.

93년 기준으로 30대 재벌의 계열회사는 604개로 총매출액은 88조 493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총자산은 221조 260억원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동년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은 38조 500억원임) 재벌들의 경제적 영향력은 보통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평가되는 것이 보통이다. 먼저 생산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광공업 부문 매출액의 35%, 부가가치의 30%, 유형고정자산의 3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화학 분야에서는 무려 50%의 압도적 비중으로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자금과 인력, 기술을 의미하는 생산요소중 자금 부분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은행대출의 20.2%(92년), 단자 대출의 41.3%(88년), 증권조달액의 51.6%(92년)에 달하며 30대 재벌이 영위하는 금융회사는 총 65개로 그들의 자본금은 시중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 전체 자본금의 45%(93년)에 이르는 금융산업 지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력 부문도 예외없이 독점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바 30대 재벌의 광공업 부문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90년)에 불과하지만 대졸이상 인력의 경우엔 전국 104개 4년제 대학 졸업생중(89년) 52%를 50대 재벌이 싹쓸이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현상은 과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와서 재벌의 시장지배력의 문제는 지금 한국경제 전반에 걸친 중대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WTO 체제하에서는 쉽게 조정, 변형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S건설이 1995년 입사예정인 서울 소재 각 대학에 요청하면서 선무공작을 벌였던 건축과 졸업예정자 수는 1,000명이었다. <표-6> 일개 하나의 건설회사가 재벌이라는 보기를 배경으로 당해년도 서울지역 건축과 졸업생을 전원 입사시키겠다는 오만한 발상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여 놓을 수 있는 퇴영적이면서 독과점적인 사고

<표-6> 건축(공)학과 학부 학생수(94년)

| | 대학수 | 입학정원 |
|-----|-----|--------|
| 서울 | 14 | 940명 |
| 수도권 | 26 | 1,835명 |
| 전국 | 64 | 4,890명 |

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모의 비대화와 문어발식 확장이 불러 일으키는 부정적인 효과는 우리 경제 전반에 무거운 짐으로서 부과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천민자본주의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아무리 그들이 주장하는 시너지 효과를 백번 고려한다 하더라도 재벌위주의 경제구조로 인해 국민경제가 과탄에 직면하고 있고 국민 대중의 이익을 외면하여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적 갈등구조를 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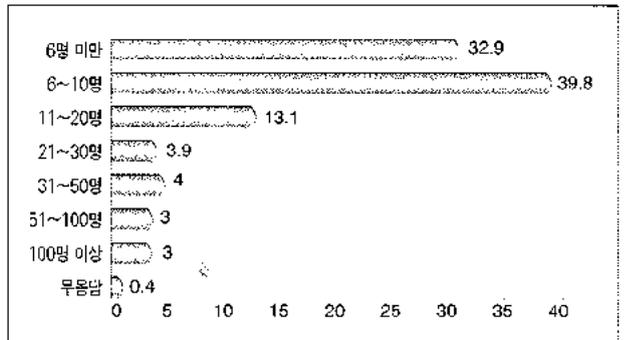
기시키는 재벌편향의 정책 및 사고는 개선되어야 한다.

4. 중소기업으로서의 건축설계업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헌법 123조 3항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과 운송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의 기업을 상업과 서비스업의 경우는 20인 이하를 중소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표-7>(건축설계업은 한개의 Project당 5명 내외의 고급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세계적인 관행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체 수는 90년 기준으로 총 148만개에 달하지만 이중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체 수는 67,679사이며 이는 전 제조업체의 98.3%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들 중소기업은 출하액에서 42.6%, 부가가치에서 44.3%, 수출액에서 40%를 집하고 있다. 이와같이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본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표-7>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구성비(95년 기준) 단위: %



자료: 대한건축사협회 설문조사

- ① 지역 경제에 기여하여 균형있는 발전에 공헌한다. 성공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나 지역경제의 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지역특성에 맞게 자발적으로 성장할수 있는 중소기업정책이 필요하다.
- ② 광범위한 고용을 창출한다: 중소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61.7%를 차지하고 있다.
- ③ 민족자본으로서의 역할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WTO 체제하에서의 자본의 아이덴티티는 우리민족이 최후로 고수해야할 성역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 ④ 산업구조를 개선시켜 준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백화점식 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분야의 전문화를 유도하여 전문분야의 기술개발을 주도하게 되며 이 결과는 국민경제의 저변을 튼튼하게 다져주는 역할을 한다.
- ⑤ 투자 효율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다: 의사결정 과정의 신속, 정확함 및 현장경험을 바탕으로한 투자는 최대의 투자효율을 얻을 수 있다.
- ⑥ 수출증가 기여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최근의 반도체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업의 한 번의 시행착오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건축의 경우는 주문생산) 수출과 서민층의 소

유 및 사용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문제는 대기업들이 M&A 기법을 활용해 재벌에 흡수하려는 술수를 피할 수 있을 만큼 중소기업의 보호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가 흔히 예로 드는 대만의 문제는 타산지석으로 삼기에 조금의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대만은 분배에 중점을 둔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실시하여 <부민정책>의 기본이념을 근간으로 하였고, 우리나라는 재벌위주의 성장주도 정책을 실시하여 <부국정책>을 기본틀로 하였다. 이 결과 대만의 중소기업은 수출지향의 경쟁력 높은 기업이 되었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수입대체에 급급하는 소극적 기업이 되고 말았다. 특히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절대적인 분야에서의(디자인 분야가 대표적) 대만과 한국의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지리라는 것은 이미 검증된 결과라 하겠다.

5. 건축사업과 변호사업의 형평성에 문제있다.

WTO 협정서에 포함된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는 건축이나 법무의 분야를 사업서비스 중의 전문직업 서비스(Professional Service)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법무서비스(Legal Service)나 건축서비스(Architectural Service) 등의 용어는 미국에서 만들어져 사용되어온 용어로서 공식성 보다는 직업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서 종래의 변호사나 건축사 업무의 공식성을 강조해온 우리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

이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개념이 이미 국제적으로 사용되어서 국제화된 용어이고 건축사나 변호사의 업무틀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볼 때에는 서비스라는 측면이 강하나 하여 별 다른 무리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법 체계나 사회관념상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변호사나 건축사의 문제가 시장개방 질충과정에서는 천양지차의 결과로 도출되고 말았다. 개방의 종류 및 수준이 명기되는 최종 양허표상에서 건축서비스는 거의 개방된 반면 법무서비스는 개방업종 자체가 제외된 상태로 협상이 종결되었다.<표-8>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법무서비스의 특수성과 현황 등을 이유로 강력한 개방불가 입장을 견지하여 드디어는 법조계에서 원하는 결과를 쟁취하고야 말았다.

이에 우리나라 법무서비스의 현황을 구체화 해봄으로써 건축서비스와의 형평성에서 간과되어 왔던 문제가 제기 되리라고 본다.

변호사 자격 : 변호사법(제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구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와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되어 있다.

WTO 추후 협상에 대비해 변호사법 개정령('96. 9)에서는 국적 조항이 삭제 되는 안이 준비중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민이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국내 변호사가 될 수는 없다.

변호사의 영업 : 동법 제6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자격을 부여 받은 변호사가 국내에서 개업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표-8> UR서비스분야 최종양허업종(15개 분야 78개 업종)

| 구분 | 업종수 | 양허업종 |
|-----------------------|-------------|----------------------------------------------------------------------------------------------------------------------|
| 1. 사업 서비스 (31개 업종) | 전문직 서비스 | 6 공인회계, 세무,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종합엔지니어링, 도시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 |
| |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 5 컴퓨터 설계자문, 소프트웨어 시행, 데이터 처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기타 컴퓨터 관련 서비스 |
| | 연구개발 서비스 | 1 인문·사회과학부문 R & D 서비스 |
| | 임대서비스 | 4 선박임대서비스, 항공기임대, 기타 운수장비임대, 기타 기계장비임대 |
| | 기타 사업 서비스 | 15 광고,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경영컨설팅, 사업관리, 기술적 진단, 농축산업관련자문, 과학기술자문, 국제회의의 용역, 기타 서비스, 이업관련자문, 평업관련자문, 장비유지 및 수선, 사진, 포장 인쇄서비스 |
| 2. 커뮤니케이션 (9개업종) | 통신서비스 | 7 전자사서함, 음성사서함, 온라인 정보검색, 전자적 데이터 교환, 고도 팩시밀리,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온라인 정보처리 |
| | 시청각 서비스 | 2 영화 및 비디오 제작·보급, 음반제작·배급서비스 |
| 3. 건설 | 5 | 일반건축, 일반토목, 설치 및 조립, 건축 마무리 공사, 기타 서비스 |
| 4. 유통 | 4 | 도매, 소매, 중개, 프랜차이즈 서비스 |
| 5. 환경 | 3 | 하수서비스, 폐기물처리, 기타 서비스 |
| 6. 금융 | 14 | 예금 및 관련업무, 대출 및 관련업무, 금융리스, 지급 및 송금, 지급보증,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 증권인수, 투자신탁, 금융결제, 투자자문,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재보험 및 재개보험 |
| 7. 관광 | 3 | 호텔, 여행알선, 관광안내서비스 |
| 8. 운송 | 해운 | 3 외항여객운송, 외항화물운송, 선박유지 및 수선서비스 |
| | 항공 | 1 항공보조 서비스 |
| | 도로운송 | 1 화물트럭킹 서비스 |
| | 운송보조 서비스 | 4 창고서비스, 화물운송대리, 기타서비스, 화물취급서비스 |

자료 : 대한민국 정부(UR 서비스 최종 양허표) 1993. 12.

법무부장관의 개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변호사의 자격 : 법무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던 자격부여(국내 변호사)가 새로운 법제정으로 국내 시험만 합격하면 가능하도록 문호개방(개정 법률 13조)

외국인 변호사의 영업 : 자격요건과 마찬가지로 국내 변호사의 개업허가 요건과 동일하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규제 : 동법 제90조 제2호에 의거 비변호사(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의 법률사무 종사는 금지되어 있다.(일본의 경우도 동일하다. 일본 변호사법 제72조)

변호사 업무의 독점적 영역 : 비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률가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부분, 계약, 회사 설립업무, 사채발행 등) 그 외의 모든 법률업무,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의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건축사법에서의 설계의 세부적 구분이 필요한 부분으로 간주됨. 계획설계는 비건축사에게 개방하고 인허가 부분의 기본 및 실시설계는 반드시 건축사만의 업무라는 영역구분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음)

동업행위의 규제 : 동법 제90조 제3항에 의거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제휴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률자문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명의 대여를 통한 제휴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변호사의 고용금지 및 공동경영 금지 : 장차의 WTO 협상에 대비하여 준비한 변호사법 개정령에서는 기존 변호사 자격 및 영업 행위에 대한 독점적 성격의 규정을 신설하였음.

<표-9> 동법 제27조 ③④항(96.9.입법예고안)

- ③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제휴·동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변호사사업을 영위하거나 변호사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을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된다.

변호사사무소의 대표 : 전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법무 법인의 대표는 변호사가 아니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법무서비스 분야는 미개방된 상태이므로 외국인 변호사의 경우 자연인이나 법인은 법무 법인의 운영자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외국인 변호사들이 관광비자 등을 발급받아 입국목적과는 다른 법률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나 외국인 합작 법인의 경우 회사의 고문이나 기타 임무를 띠고 입국하여 법률자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현실적인 규제방법이

WTO상의 인력이동, Movement of Personnel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제법상의 해석은 김영철 검사(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실)에 의함

없다.

법무서비스 개방을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각 : 법조인들이 보는 시각이 대체로 부정적인데 반하여 경제인들이 보는 시각은 긍정적인 측면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대세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가급적 개방의 시기를 늦추고 그 기간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개혁 및 국내 변호사 업무의 개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소송업무(대리) 중심의 종래의 변호사 업무의 영역을 소송의 업무까지 업역을 확대하여 선진화, 전문화를 추구하는 길만이 최선이라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

6. 건축사 자격과 면허체계의 정비 문제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6조(국내규제, Domestic Regulation) 4항에 의하면 "자격요건과 절차 및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규율을 정립한다" 또한 동 제7조 (인정, Recognition)에서는 "특정국내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두어서 자격이나 면허요건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격이나 면허의 요건이고 그 바탕을 형성하는 교육이 문제가 된다. 물론 GATS에서는 GATT(상품무역에 관한 다차간 협정)와는 달리 서비스라는 특이성을 감안하여 각국의 독특한 국내 규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규제를 인정하는 규제권리의 원칙을 정해놓고 있는 반면 국가정책목표(National policy objectives)범주의 규제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거론되는 규제(Regulation)의 뜻은 GATT상의 무역장벽(Barriers)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용어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의 건축사제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외국의 동등한 자격증을 국내자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제도(자격, 면허)의 규제(시험 등)가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이 된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건축사시험 · 자격 → 면허 → 등록 이라는 약간은 난해한 규범을 갖고 건축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점 불공정거래의 대상으로 지목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7. 건축교육의 문제는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외국의 건축사제도를 볼 것 같으면 표면으로 드러나 있는 복잡성 이전에 교육 및 교육제도에 대한 신뢰와 수준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표-10> 또 건축교육의 거의 모두가 설계교육에 집중되어 있어서 졸업후의 자격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축사 자격을 위한 수업연수에 있어서도 평균 6년이라는 기간이 별로 저항없이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4년제 교육기준은 GATS 제6조의 원칙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 reasonable, objective and impartial manner" 에 위배된다는 압력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

우리나라의 건축교육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① 거의 대부분의 건축과가 공학계열에 속해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 73개 건축과 중 72개 학과가 공과계열에 소속되어 있다. 일본의 제도를 거의 모방한 과거의 전통에 주된 이유가 있는데 예술적인 측면과 인문 사회 과학적 측면의 종합교육은 불가능하다.

② 각종 국가시험제도가 교육의 건전성을 방해하고 있

다.

기술자격의 종류에 속해있는 건축사 자격은 상식적기준에서 평가체계가 틀려야 하며 기술사 자격과의 관계에서도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건축사예비시험이 기사1급의 하위개념으로 전락해 있는 현행제도체계는 하루 빨리 개선 되어야될 요인을 갖고 있다.

<표 - 10>

외국의 건축교육과 건축사제도 비교표('95)

| 구 분 | 일 본 | 미 국 | 프 랑 스 | 영 국 | 독 일 |
|-----------|-----------------------------------------------------------------------------------------------------------------------------------------------------------|------------------------------------------------------------------------------------------------------------------------------------------------------|-------------------------------------------------------------------------------------------------------------------------------------------------------------------------------------------------------------------|-------------------------------------------------------------------------------------------------------------------------------------------------------------------------------|-----------------------------------------------------------------------------------------------------------------------------------|
| 학제 및 학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 4년, 대학원(석사 2년, 박사 3년, 논문박사) ○ 공대소 속의 우리와 학제 및 대학 동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제 학부 : B.S 등 ○ 5년제 학부 : B.Arch 등 ○ 전문대학원 : M.Arch 등 (3년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단일 학제 및 학위 · 2년 기초과정 (D.E.F.A) · 3년 공인 건축가과정 (D.P.L.G) · 1-2년 대학원 (C.E.A.A.D.E.A) ○ 학과과정 (5년) + 논문 (1년) + 실습 최소 3-6개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과정 (3년) + 1차 실무 (1년) + 석사과정 (2년) + 2차 실무 (1년) 후 Di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과대학 (11개) ○ 예술대학 (5개) ○ 전문대학 (45개) 등 소속에 따른 학제 및 건축사 종류 구분 |
| 입학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별 입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적인 입학전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졸업 후 바칼로레아 획득자 ○ 독자적인 입학전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과 독자적인 입학전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의 교육 후 시험을 통해 대학지원 자격 (Abitur) 취득 ○ 중앙에서 배정 |
| 졸업연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 4부 ○ 대학원 : 2년(석사) 2년(박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 : 4-5년 ○ 대학원 : 1-3.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5년 + 1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7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6년 (전문대학 3년) |
| 교과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건축설계 4학점 12시간 ○ 4학년시 대부분 전공 분류(강좌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학점, 12-15시간의 설계 및 2-3개 연계 과목으로 구성된 설계 스튜디오 중심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0개 단위과정 이수 8(기초과정) + 12(공인 건축가과정) ○ 전체 과정 시간의 2/3 이상이 설계 관련 과목 필수 ○ 교양 과목은 실무에 필요한 외국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 과목 없음 ○ RIBA 건축사 자격과 연계된 교과과정 편성 및 과정 통과 시험 ○ 공대 소속이 대부분이나 설계 교육 위주 (60%-9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 과목 없음 ○ 기초, 전공의 2개 과정 ○ 공대 소속이 대부분이나 설계 교육이 주체 |
| 건축사(가) 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졸업 후 일정 기간 (2년) 실무 경력 후 시험 자격 (우리와 동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학사 (B.Arch) 졸업시 4년 건축석사 (M.Arch) 졸업시 3년 실무 후 시험 자격 ○ 일부 지역 5-6년제의 경우 학위 취득과 동시에 응시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 대학 졸업시 D.P.L.G 학위 (공인 건축가 자격 부여) ○ 사립 대학인 경우 학교의 졸업장이 자격증 (예, DES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례 학과과정 시험 통과 시 학위 및 건축사 자격 부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시 건축사 자격 부여 ○ 2년의 실무 경험 후 소속 대학의 성격에 따라 3종류의 건축사 |
| 실습기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학교는 방학 중 실습 (학점 인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 중 월 2회로서 계속 할 수 있음 ○ 최소 250시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재학 중 실습 |
| 건축교육의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교육 체계와 비슷하게 설계, 구조, 설비를 포함한 종합적 교육과 설계 교수의 실무 참여로 충실한 설계 교육 가능 ○ 최근 학과의 재편과 유사 학과 통합의 경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학교 및 지역에 따른 다양한 학제 및 교과과정 ○ 건축교육의 다양성 및 경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과정 4000시간이 의무이나 학교에 따라 부가 2/3 응동 필수 (모든 대학 동일), 1/3 선택 과목 (대학 재량) ○ 국립 (23개교), 사립 (2개교) ○ 구조, 시공은 국립 토목 학교, 에콜 폴리테크닉, 에콜 센트랄 등에서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립 건축가 협회 (RIBA) 가 건축학교 전반의 교육 과정 및 평가 ○ 설계 과제 중심의 교과 운영 ○ 정부의 재정 지원 ○ 공학, 역사 등 전문 분야 대학원에서 이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과대학 소속이 대부분이나 건축교육의 주체는 설계 교육 ○ 모두가 국립 (주립) 으로 교육의 질 평준화 |

③ 인접분야간의 상호대립적 구조

건축의 기술적 속성을 중요시 하더라도 학문성과 전문성의 양면적 특징은 분석적 (Analytical Science) 시각이 아닌 종합적 (Synthetic Science) 시각을 요구한다. 각 분야의 전공분야가 강조된 영역확보 분위기가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교육목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④ 산학 협동의 필요성

실무와 교육과의 관계에서 어느 분야 보다도 비중을 두어야 할 설계교육에서 실증적이지 못한 교육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설계 담당교수의 실무참여의 기회 및 폭을 넓혀야 외국교수들과의 형평성 및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이점은 WTO상의 경쟁제한 조치의 기준에 해당이 될 수 있으므로 명쾌한 해석이 요구된다.

⑤ 교육기간 및 교육시간의 부족

1학년은 교양교육으로 4학년은 취업 및 시험준비 기간으로 제외되는 우리의 교육은 외국에 비해 거의 50% 수준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문직 자격의 요건으로 교육기간의 문제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충분하다.

⑥ 교육의 이념 및 목표

이제 우리나라는 건축사와 건축기술자를 분리 육성할 시기가 되었다. 건축사를 건축기술자로만 분류하는데 문제가 있다. 지난 30년 동안의 교육 및 사회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반전되고 있는 요즘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

기술과 설계교육의 문제는 20세기를 빛나게 장식했던 울름(ULM) 조형대학(Hochschule für Gestaltung)의 성장과 자멸해 가는 과정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20세기 기술문명이 부여한 두가지 상이한 임무, 기술과 디자인 사이의 갈등)이론과 실제 사이의 모순을 극복치 못하고 과학과 기술 위주의 커리큘럼에 의해 파멸해가는 필연적 과정은 오늘의 우리가 음미 해야만할 가치가 있는 선진국의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 기본법(안)의 문제

건설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입법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건축은 인간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적 영역이다. 사람이 매일의 삶을 과학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기술이 아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건축을 문화현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축을 기술 중심의 입장으로만 보는 시각은 마치 사람의 삶을 집단농장과 같은 생활로 유도해야 된다고 믿는 것과 동일하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오늘의 세계는 불확실성과 다양성의 가치에 의해 재편 되는 과정에 있다. 다양성의 강조는 확실성을 배제함은 물론 통합적 의미의 집중화도 거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① 경쟁력 강화를 전제로한 입법취지

GATS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서비스 부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또는 행정지침의 새로운 도입 또는 수정에 관하여 신속히 그리고 적어도 해마다 서비스부역 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AGP 전문에는 "자국의 서비스 제공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을 제정, 채택하거나 하여서는 아니된다." 등과 같이 투명성(Transparency)을 강조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전제를 의미하는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국가정책목표(AGP제6조, 국내규제)라는 기준의 범주에 드는지에 대한 검증과 아울러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적용 가능한 수준과 비교하여 각 서비스분야 및 업종에서의 서비스부역에 관한 전반적인 장벽의 수준(The overall level of barriers to trade in service)을 높여서는 아니된다」라는 GATS 제5조(경제통합) 4항의 기준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달리 말하자면 WTO 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각국의 해당 개별법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며 (전문직 서비스에 들어있는 건축설계 등은 각국의 고유한 기준에 따른다는 뜻이다.) 특히 우리의 건설산업기본법처럼 협정 체결 후에 제정이나 개정되는 법에선 협정이전의 기준보다

<표 - 11>

건축(공)학과 학제 및 학위제도(우리나라 '95)

| 구 분 | 전 문 대 학 | 대 학(교) | | | |
|---------------------|------------------------------------------------------------------------------------------------|-------------------------------------------|---------------------------|-------------------------------------|---------------|
| | | 학 부 | 석 사 | 박 사 | |
| 교육목표 | 중간기술자(Technician) 기술공학자(Technologist) 등 중견기술자 양성 | 건축가(Architect), 건축 기술자(Engineer) 등 전문가 양성 | 고도의 전문가, 건축공학자 양성 | | |
| 학위 | | 공학사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 선발방식 | 고등학교 내신성적에 의하거나, 내신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대학별 고사성적을 합성한 성적에 의하여 선발(단, 내신성적의 반영비율은 성적총점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 | 전공분야의 지식과 외국어 성적을 종합하여 평가 | 전공분야의 지식 및 제1외국어와 제2외국어 성적을 종합하여 평가 | |
| 최소 수학연한 | 2년 | 4년 | 2년 | 3년 | |
| 각종 기술 자격 응시자격 | 기사2급 | 졸업예정자 | | | |
| | 기사1급 | 졸업후 실무경력 2년 | 졸업예정자 | | |
| | 건축사 | 졸업후 실무경력 7년 | 졸업후 실무 경력5년 | 졸업후 연구경력2년 인정 | 졸업후 연구경력3년 인정 |
| | 기술사 | 졸업후 실무경력 9/11년 | 졸업후 실무경력 7/9 | 졸업후 연구경력2년인정 | 졸업후 연구경력3년 인정 |

자료 : 건축교육백서

국내 업종에 대한 보호나 규제 차원의 기준 강화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설계" 등과 같이 세부적인 기준과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서의 기준미비는 GATS 무국의 서비스분야별 분류목록(MTN, GNS/W/120)을 구속력 있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우리나라의 건축사법 등과 같은 다수의 개별법은 그 입지에서 혼란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고 본다.

② 건설산업기본법의 필요성

〈표-8〉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서비스와 건설서비스분야가 성격이나 내용은 다르다 할지라도 WTO체제하에서 한울타리 내에 포함된 이상, 여기에 맞추어서 설계분야와 건설분야가 망라된 기본법의 법제정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전문직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서비스와 건설서비스는 전혀 이질적인 두가지의 업종구분으로 되어있는 관계상 각각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그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명시하는 법체계나 법리가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기본법 제정의 당위성으로 해석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설계분야에 있어서 GATS의 제5조 4항, 제6조 5항, 4항, 6항, 제7조 1항, 5항과 제19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협상 등이며 특히, AGP의 제6조 기술사양(Technical Specification)의 항목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대한 명쾌한 언급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덧붙인다면 현행 건설업법을 개정해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건설업법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상위법개념의 건설산업기본법의 구상이 적절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건축분야와 건설분야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③ 건축과 건설의 구분

WTO체제의 CPC(중양상품분류)에 의할 것 같으면 건축분야는 867series로 시작되는 전문직서비스(Professional Services)로 되어 있고 건설분야는 51series로 시작되는 건설서비스(Construction Services)로 구분 되어있다.

〈표-12, 13, 14〉

건축분야(8671~8674)는 크게 4가지 분류로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선 설계행위의 분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설계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법체계상 건축분야에서는 8672, 8673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 건설사업관리자(제2조 6호, 7호, 제24조) 조항에 있어서도 상기의 개념을 적용함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시장접근에 대한 상업적 주제

GATS 제1조 제2항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서의 상업적 주제(Commercial presence)를 통한 서비스공급』에 근거하여 우리나라가 양허한 분야중 건축설계분야에서만 시장접근에 의한 상업적 주제의 필요가 강조되어 있다. 달리말해서 외국의 건축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사나 대표사무소 또는 법인 등의 영업형태를 우리나라에 별도로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건설의 경우에는 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의 경우 우리나라에 회사 등의 영업형태 없이도 영업을 가능하다. 따

〈표-12〉 정부조달협정(AGP) 부속서4. 서비스분야 양허표

| GNS/W/120 | CPC | 분야 및 업종 | |
|-----------|------|-----------------------------------------------------|-----------------|
| 1. A. d. | 8671 | Architectural Services | 건축설계서비스 (단서추가) |
| 1. A. e. | 8672 | Engineering Services | 엔지니어링 서비스 |
| 1. A. f. | 8673 | 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 | 종합엔지니어링 서비스 |
| 1. A. g. | 8674 |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 |

〈표-13〉 정부조달협정(AGP) 부속서5. 건설서비스 양허표

| CPC | 분야 및 업종 | |
|-----|-----------------------------------------------------|------|
| 511 | Pre-erection work construction sites | 정지작업 |
| 512 | Construction work for building | 건축 |
| 513 | Construction work for civil engineering | 토목 |
| 514 | Assembly and erection of prefabricated construction | 조립건축 |
| 515 | Special trade Construction work | 전문건설 |
| 516 | Installation work | 설비공사 |
| 517 | Building completion and finishing work | 마감공사 |

〈표-14〉 표-12의 Architectural Services의 단서(추가)

| 업종 | 추 가 |
|----------------------------|---------------------------------------------------------------------------------------------------------------------------------------------------------------------------------------------------------------------------------------------------------------------------------------------------------------------------------------------------------------------------------------------------------------------------------------------------------------------------------------------------------------------------------------------------------------------|
| 8671 Architectural Service | <p>Supply of services by foreign architects through joint contracts with architects licensed under Korean law will be allowed from January 1, 1996.</p> <p>Foreign architects licensed under their home country's law may acquire a Korean architect license by passing a simplified examination which covers only two of the regular test's six subjects : architectural laws and regulations and architectural design</p> <p>- '96. 1. 1부터 한국건축사와 공동계약에 의한 외국건축사의 건축설계서비스 공급은 허용</p> <p>- 외국건축사자격을 소지한 자는 6개 건축사 시험과목중 건축법규와 건축설계에 대한 시험만 합격하면 한국 건축사 자격취득 가능</p> |

(주) 표12, 13의 한글 번역은 대한민국 정부 공식번역문인.

라서 향후 토크제도 등의 시행에 있어서도 설계와 공사 주체의 독립적 구분은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⑤ 전문직 서비스의 성격

WTO체제상의 사업서비스 내에서 독특한 구성을 이루고 있는 전문직 서비스의 전문직 즉 Professional이라는 개념은 변호사, 건축사, 의사 등의 전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용어 개념이다. 외국의 대형 변호사 사무실(로펌 law firm)이나 대형 설계사무소의 구성에서도 전문

인들 끼리의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지 비변호사나 비건축사 등과 고용관계를 이루는 형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GATS에서도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만은 특별히 별도로 전문직 서비스에 관한 결정 (Decision concerning Professional Services) 조항을 두어서 자격 인정과 면허 등에 대한 국제통일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여 사업서비스 분야의 여타 업종과도 차별성을 부여하고 있다.

⑥ 용어의 개념과 해석

〈표-13〉건설분야 양허표상의 512. Construction Work for building은 건축물공사 혹은 건물시공을 뜻하는 것이지 "건축"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될 용어개념이다. 건축분야의 설계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도 각각 표-15과 같은 용어의 해석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표-15. 참조)

⑦ 각종 기술사양의 기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우리나라 건축계 전반에 걸쳐 가장 막중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현실적인 사항인데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용 언어에서부터 품질, 성능, 안전도, 설계도서의 기준, 전문용어 등 어느 한 항목이라도 단기간에 준비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여진다. 더욱이 성능 시방서 문제에 이르러선 유구무언 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도 말이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 같은 태도에 대한 안타까움의 거의 대부분이 이부분의 비중이라고 생각되어진다.

- 우리가 언제 성능 시방서를 만들어 보았던가?
- 우리가 언제 품질에 대한 기준을 공부해 보았던가?
- 우리가 언제 KS가 아닌 ISO 기준의 설계를 해 보았던가?
- 우리가 언제 안전도를 설정해 놓고 시작하는 도면을 작성해 보았던가?
- 우리가 언제 영어나 불어로된 설계도서(입찰서류 포함)를 만들어 보았던가?

혹자는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꿈같은 소리라고 치부해 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우선 당장은 대형 Project에만 해당이 되겠지만 대도시의 소주택에서부터 지방의 우사, 돈사의 설계에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각종 국가 제정법률이나 기준을 여러개 만들어서 편리한대로 적용시킬 수가 없을뿐더러 국가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기술사양의 기준 또한 여럿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비용면에서 보더라도 상당한 상승요인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 경제적인 측면 또한 간과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하겠다.

이상을 요약하면,

- 가. 건설산업기본법은 꼭 필요한 법이다.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설계의 규정은 필히 명시되어야 한다. 동일한 이유로 건설사업관리조항(속칭 CM조항) 등에서도 설계와 감리의 개념은 포함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표-15〉

| | |
|----|------------------------------------------------------------------------------------------------------------------------------------------------------------------------------------------|
| 설계 | Architectural Services : 건축설계 기획설계, 계획설계, 기본설계 등을 말한다. 일반적인 Design Service(건축설계)는 물론 Space Planning Service, Interior Design Service 및 단지 계획, 환경계획 경우에 따라 Master Plan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
| | Engineering Services : 기술용역 혹은 기술설계 토목(건축), 구조, 전기, 냉·난방, 소방 등 Consultant의 업무를 포함하며 실시설계를 의미한다. |
| | 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 : 일반용역 혹은 턴키설계 턴키방식으로 말주되는 사업의 설계를 의미한다. |
| 감리 | 현 우리나라의 감리를 Inspection(외국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이 수행)이라 한다면 CPC 86764 Technical Inspection Service(기술감리, 정부원문은 기술적 진단 서비스로 되어 있음)로 보아야 하고 경찰권에 해당하는 감독기능의 역할은 별도의 해석이 필요 |
| 관리 | CPC 86601 Project Management Services(사업관리 서비스)만이 양허되어 있고 CM은 해당 조항 없음. |

※ 일반적으로 Engineering Services의 정의는 공학적 설계(토목, 건축, 구조, 전기, 기계, 소방 등)를 의미하고, 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는 Architectural Service와 Engineering Services를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하지만 CPC 분류의 기준은 위와 같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포함되는 건축설계와 건설은 구분되어야 한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설계와 감리의 정의 및 기준에 대한 후속 위입조항이(건축사법이나 시행령) 없으므로 기본법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구체적 기준이 언급되어야 한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은 기술사양에 대한 기준을 명기하여야 한다.

바. 상기의 조건을 전제로 한다면 건축의 개념은 명확해질 것이고 Professional Services중의 건축설계만큼은 (다자간 협정의 협상태도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표-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Architects로 되어 있음) 비건축사(건설회사, 기업 등)의 업무영역이 될 수도 없으며 (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는 비건축사의 업무가 될 수도 있음) 불공정한 경제활동(공정거래위배)이라고 해석해서도 안됨은 물론이다.

급격한 WTO체제를 맞이하여 우리정부의 깊은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도 국제경쟁력이라는 화두에서 만큼은 철저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국의 기업이나 업종을 보호하려드는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들 나라들의 기본자세는 말로는 무한경쟁을 외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제약이 많은 경쟁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향후의 여러가지 후속협상에서나마 우리의 국가적, 민족적 Identity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모색이 바람직스럽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국내법 제정 및 개정에서 대기업위주의 편향적인 시각이나 국제사회 특히 서양의 보편주의만을 수용한다는 태도는 앞으로 전개될 우리의 민족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우리모두 공유하면서 대립적이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 조직체계하에서의 협력관계 이기를 희망한다.

'96한국건축문화大賞 수상작 발표

Korean Architecture Awards '96

우리 협회와 건교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한국건축문화大賞」의 올 해 수상작이 발표됐다. 총 311점(준공건축물부문 75점, 계획건축물부문 236점)이 출품되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준공건축물부문 대상에 대법원청사를 비롯해 33작품이, 계획건축물부문 최우수상에 혼적(이진수, 김현숙작)을 비롯해 45작품이 각각 입상했다.

'96한국건축문화대상은 71년 이후 우리 협회가 개최해온 「한국건축전」과 92년부터 건설부(건교부)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한국건축문화대상」을 94년부터 통합, 「환경과 조화, 인간중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5회째 개최되었다.

21세기 신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국내최대 규모의 행사인 「'96한국건축문화대상」은 역사의 그릇인 오늘의 건축물을 발표하여 이시대 건축문화의 표상으로 삼음으로써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함은 물론(특히 계획건축물부문은) 올해부터 신인·학생 구분을 없애고, 일반인까지 참가대상 폭을 넓힘으로써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의적절한 주제를 제시, 동일 주제에 대한 연구와 문제점해결을 찾게 함으로써 건축에 대한 인식을 확대, 우수한 건축물이 탄생될 수 있는 사회여건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 이 시대의 진정한 건축문화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준공건축물부문은 대상(대통령표창) 본상, 우수상, 입선, 공로상으로 구분 시상했다. 9월 17일(화) 오전 11시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있는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준공건축물부문 대상작품 설계자와 시공자에게는 트로피와 부상으로 해외건축시찰의 특전이 주어졌으며, 건축주에게는 트로피와 해당 건축물부착용 동판이 수여됐다. 특히 금년부터 정부가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선도적으로 공헌한 건축인에게 그 공을 격려하기 위해 대통령표창을 신설, 수상하게 됐다.

본상은 주거부문 3점, 비주거부문 3점으로 나누어 시상했으며, 대상과 같이 설계자, 시공자에게는 트로피와 해외시찰의 특전이, 건축주에게는 트로피와 건물부착용 동판이 수여됐다.

우수상은 설계부문과 시공부문으로 구분 시상했으며,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해외시찰의 특전이 주어졌다. 입선작에 대해서는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상패가 수여됐다.

올해 공로상은 1985년 창립이래 정부의 주택정책에 앞장서 집없는 서민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 영세민에게는 임대주택을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94년부터는 국기유공자 주거개선사업을 펼쳐 국기유공자 노후주택 212동을 보수하고 주택임차금을 전달하고 국기유공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수상했다. 계획건축물부문은 최우수상1점, 우수상2점, 장려상7점, 입선35점을 선정, 시상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최우수상은 상금 7백만원과 ARCASIA 잼버리 파견 특전이 주어졌으며, 우수상에는 상금 3백만원이, 장려상에는 상금 1백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준공 건축물 부문

▶ 작품접수 현황(75점)

- 접수마감 : 96. 8. 20(화)
- 주거부문 : 28점
- 비주거부문 : 47점

▶ 심사일자

- 1차심사(사진첨심사) : 96. 8. 23(금)
- 2차심사(현장심사) : 96. 8. 26(월)~30(금)

▶ 심사위원

- 위원장 : 한창진(전 대한건축사협회장, 한정건축 대표)
- 위 원 : 박철립(대우건설기술연구소 전무)
- 심우갑(서울대 건축공학과 교수)
- 안영배(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 이호진(전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 정 훈(서울경제신문사 부국장)
- 지 순(간삼건축 대표, 95년도 대상 수상자)

▶ 전시기간 및 장소

- 기간 : 96. 9. 17(화)~9.24(화)
-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서울600년기념관



전시회 개막식 테이프 컷팅 광경

▶ 수상작 현황

| 수상 구분 | 작 품 명 | 건 축 사 | 시 공 자 | 건 축 주 | 비 고 |
|------------------|-------------------------|---------------------------------------------|-----------------|--------------------------|-----|
| 대상 | 대법원청사 | (주)원도시건축 윤승중, 변용, 김석주 | 현대건설(주) | 대법원 | |
| | 대통령표창:(주)원도시건축 대표 | | 윤승중 | | |
| 본상 | 분당주공아파트 | 시명종합건축사사무소 안희상 | 현대산업개발(주) | 대한주택 공사 | 주거 |
| | 태평양파크빌라트 | (주)건원국제종합건축사 사무소 한현호 | 태평양개발(주) | 태평양개발(주) | |
| | 신내지구9안아파트 | 토원건축사사무소 최두호, 한남수, 최기철 | 진흥기업(주)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 |
| | 수원 아오름역당 | (주)삼우철계 조주환, 한종물 |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 수원시 | 비주거 |
| | 전로커머스매주공강 견학동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예스 박종기, 이영관 + 삼성엔지니어링(주) | 삼성엔지니어링(주) | 전로커머스매주 | |
| | 송문 청소년수련원 | 건축사사무소 아카관 김석철 | (주)한울종합건설 | (재)한국건설공사 유지현, 이강, 김현 | |
| 우수상 | SBS탄현제작센터 | 종합건축사사무소 아카관 김석철 | | | 설계 |
| | 포스코철골조아파트 | | 포스코개발(주) | | 시공 |
| 입선 | 일산주덕 |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 이상연 이상연 | 이정구 | | 주거 |
| | 고양 중앙 현대아파트 | 건축사사무소 벌아건축 김준호 | 현대산업개발(주) | | |
| | 분당 현대맨션 |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 정규식 | (주)현대산업개발 | | |
| | 동천동 개천아파트 | 건축사사무소 동이 손기찬 | 선경건설(주) | | |
| | 당산동 강마을아파트 | 동인환경 건축사사무소 윤태용 |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 | |
| | 일산주덕 | 경원위치 건축사사무소 김승희, 강원철 | 황한수 | | |
| | 고양 행신지구 동성아파트 |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나라 황강석 | (주)동성종합건설 | | |
| | 쌍용분당빌라 | 종합건축사사무소 거림 김길수 | 쌍용건설(주) | | |
| | 마산주덕 | 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김인철 | (주)파엔트탈건설 | | |
| | CUAB700 여저기수서 | 종합건축사사무소 전원 이혜옥 | 한솔건설(주) | | |
| | 갤러리현대 | 쌍자종합건축사사무소 정명옥, 비명길건축연구소 비명길 | (주)대원건설 | | |
| | 대신빌딩 | 건축사사무소 인우건축 함인선 | 동북건설(주) | | |
| 우노코페 | 건축사사무소 인우건축 함인선 | (주)나산종합건설 | | | |
| 클라스타워 | (주)삼우철계 김창수, 박승, 한상묵 |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 | | |
| 대구알리앙스에식장 | 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이성관 | (주)보성 | | | |
| 완실업 천안공장 | 양기주양 건축사사무소 최승원 | 효성중공업(주) | | | |
| 동일북지문화원 | 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김영섭 | 남원종합건설 (주) | 비주거 | | |
| 신도리로 이상공장 본관동 |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제 민현석 | 두산건설(주) | | | |
| 하저교회 | 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김인철 | (주)오림건설 | | | |
| (주)태양사옥 | (주)원도시건축 변용 | (주)태양 | | | |
| 선경그룹종합연구소 | (주)정림건축 | 선경건설(주) | | | |
| 삼보컴퓨터사옥 | (주)정림건축 | LG건설(주) | | | |
| 대전과학기술대학당 | (주)정림건축 | 삼양건설(주) | | | |
| 주영백화점 | (주)정림건축 |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 | | |
| 공로상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 | | | |

계획건축물부문

▶ 주제

- 2002년 월드컵축구 전용경기장
6만명 이상을 수용하여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서 대지위치, 시설물 규모는 작가가 임
의 설정하여 계획할 것.
- 북촌 마을 다시 그리기
· 설계내용 : 공동주택(10~15세대)
· 대지 : 북촌마을 구역내 몇개의 필지를 임의 선택(서
울시 종로구 가회동, 계동지역)
· 세대수 및 평형 : 임의, 단 현실성(현행법규, 지가, 임
대가 등)이 있는 구성
· 기타시설 : 법정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 작품접수 현황

- 접수마감 : 96. 9. 9(월)
- 주제1) 2002년 월드컵축구 전용경기장 : 29점
- 주제2) 북촌마을 다시 그리기 : 207점

▶ 심사일자

- 96. 9. 11(수)

▶ 심사위원

- 위원장 : 이종관(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위원 : 김광현(서울대 건축공학과 교수)
김인철(아르키움건축 대표)
김한근(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한건축 대표)
방철린(인토건축 대표)
승효상(이로제 건축 대표)
이리형(한양대 부총장)

▶ 전시기간 및 장소

- 기간 : 96. 9. 17(화)~9. 24(화)
-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내 서울 600년 기념관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규태 회장

| 수상 구분 | 작 품 명 | 성 명 | 소 속 |
|-----------|------------------------|------------------|--------------------------------------|
| 최우수상 | 흔적 | 이진수, 김현숙 | 건국대 건축공학과 4년 |
| 우수상 | 전통의 미래를 넘어 | 김종문, 한상범 | 액토건축사사무소 |
| | 칭답 | 천 보, 김대연 | 홍익대 대학원, 홍익대 건축공학과 4년 |
| 장려상 | 부분에서 전체로 | 정문화, 김종원 | 한양대 건축공학과 4년 |
| | 도시형 집합주거 | 김민성 | 부경대 건축과 3년 |
| | 삶의 연속성을 찾아 | 장민영 | 코아건축사사무소 |
| | 향 | 백정현, 송현모 | 서울산업대 건축설계학과 졸업, 홍익대 산업대학원 건축설계학과 |
| | 몽유기회도 | 강덕희, 김홍근 | 동국대 건축공학과 4년 |
| | 복춘마을 다시그리기 | 구분호, 이훈 | 일진건축사사무소, 동국대 건축공학과 4년 |
| | AQUADIUM | 이종환, 조승현 | 홍익대 건축과 3년 |
| 입 선 | 일상회복 | 이우영, 금창영 | 경북대 건축공학과 |
| | 진보를 위한 퇴행 | 김성균, 조영욱 | 경북대 건축공학과 |
| | Keep & Change | 송대호, 윤중국 | 동아대학교 건축과4년, 동아대학교 대학원 |
| | 비움에 두 마당 | 심우열, 김민정 | 동신대 건축공학 3년, 1년 |
| | 정주한다는 것에 관해 | 이은락, 김세경 | 동아대 건축학과 4년 |
| | OVERALL | 김진오, 김찬용 | 국민대 건축과 |
| | 하늘을 읊 | 김광일, 박현균 | 단국대 건축공학과 |
| | 1996, 기희마을 | 하원진, 장세훈 | 부경대학교 건축과 3년 |
| | 길이 있는 풍경 | 이승렬, 이정훈 | 동위대 건축공학과 4년 |
| | 후(後) | 김상석, 박진호 | 부경대 건축공학과 |
| | 길, 마당 그리고 마을 | 전자용, 장경모 | 광주대 건축과 3년 |
| | 발상전환 | 정재용, 장경철 |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
| | 진희 | 박종학, 김상현 |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4년 |
| | 이음동위어 | 김희원 | 인천대 건축공학과 |
| | 들어나보기, 내디보기 | 장종남, 김현주 | 부경대 건축공학과 3년 |
| | Single-Wing House | 김차선, 김지원 |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
| | 일변자의 가능성 | 고막선, 박명원 | 부경대학교 건축공학과 2년 |
| | 복춘마을 다시그리기 | 이수영, 김재호 | 동아대 건축공학과 4년 |
| | 우리를 영원하게 하는것은... | 김형수, 이정화 | 부경대 건축공학과 4년 |
| | 도시·주거·삶 | 안미선 | 전북대 건축공학과 3년 |
| | 아보트경기장 | 강봉준 | 숭실대 건축공학과 |
| | 희상 | 한남수, 김성오 | 부경대 건축공학과 3년 |
| | 마을만들기 | 이동식, 고수정 | 부경대학교 건축과 |
| | 정서 | 김연주, 박순홍 | 홍익대 건축과 |
| | 여울목 | 이재명, 김영산 |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
| | 여백 | 양장민, 박현수 | 동양공전 건축공학과 |
| | 삶 엮보기 | 김남숙, 권혁만 | 강원대 건축공학과 |
| | 복춘 다시그리기 | 김형진, 임채경 | 부경대 건축공학과 |
| | Remember The~ Thing | 송기훈, 신혜선 | 건축모임 기가 |
| | 흔적 | 박동수, 허장렬 | 충북대 건축공학과 |
| | 인물로우저 | 류상열, 윤신 | " |
| | 큰 나무가 있는 동네 | 김현준, 김태영 | 대림산업 연구개발부 이노체건축 |
| 새옹 | 서정일, 김혁준 | 시간건축, 동국대 건축과 4년 | |
| 남겨진 골목 | 장선도, 한소현 | 성림건축, 인천대학교 | |
| 문번호에서 문패로 | 이지운 | 한양대 건축공학과 | |

준공건축물부분

■ 박칠림 / 대우건설기술연구소 전문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건 그나라의 종교, 문화, 기술 등 모든 것을 종합해 빚어낸 작품이 곧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예부터衣食住는 인간의 삶의 기본요소가 되고 그중에서도 역사적, 시대적 평가를 받아온 것이 바로 住, 건축물이다.

건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한국, 일본, 미국, 유럽의 건축물 중 어느 것이 가장 문화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볼 수 있다.

주거부에서 우리의 전통한옥과 사찰건축은 이미 동양의 조용하고 신비한미를 간직한 예술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 세계에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70년대부터 소위 집장사가 지은 집, 고속도로向 집이 한국의 크고 작은 마을과 도시의 상당부분을 형성하게 되면서 住의 문화적 가치와는 거리가 먼 서글픈 흔적을 전국 곳곳에 남기게 됐다.

비주거부문의 건물에서도 최근에 규모가 큰 건물은 많이 늘었지만 문화적으로 자랑할만한 것은 별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5회째를 맞는 '96한국건축문화대상'은 보다 인간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건축문화를 향상시키고자 한 매우 가치있는 행사였다.

그러면 과연 어떤 건축물이 삶의 질을 높이는 건축물인가.

이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다만 특급 호텔 수준의 고급자재와 외제가구 집기로 치장한 건축물이 삶의 질을 높이는 척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제는 주택이나 업무용 건물에 도시와 그림이 있고, 조용한 음악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내부공간이 있으며,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고 이웃과 더불어 아끼고 깨끗하게 유지해가는 아름다운 외부공간이 있는 건축물을 생각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건축은 크게 내부공간 구성과 외부 조형미로 평가한다. 건축물 하나하나가 모여 마을과 도시를 이루기 때문에 건축물의 내부공간은 각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기본문제제로 접어두고, 자연과의 조화와 함께 도시경관적 측면에서 외부 조형미와 조경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외장 자재와 컬러의 선택에는 수준 높은 안목과 관심이 필요하다. 금번 신청작품을 크게 주거(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와 비주거(업무용, 문화, 체육, 공장,



추경석 건교부 장관의 차사 광경

종교건물)로 구분해 여러날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수없이 반복되는 흥분과 실망으로 피곤함을 잊을 정도였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건축가만 있으면 훌륭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또한번 새롭게 느낀 중요한 사실은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훌륭한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건축주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좋은 건축가의 설계가 필요하고 이를 작품화하는 좋은 시공자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건축주, 건축가, 시공자가 삼위일체로 서로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번 주거부문의 심사에서도 주택 내부설계에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 용적률이 낮은 분당주공아파트가 공원같은 조정설계로 본상에 선정됐고 일부 빌라에서는 너무 호화로운 내부시설이 지적되기도 했다.

비주거부문에서는 몇가지 새롭고 희망적인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멋없고 딱딱하고 상업적인 건축물로만 상징되던 공장, 예식장, 백화점 등의 건축물에서도 보다 문화적 가치를 보여주려는 노력과 흔적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수원아외음악당은 건축물 자체보다는 문화의 도시 수원의 면목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에도 없는 본격적인 아외음악당을 건축주인 수원시가 귀중한 땅을 흔쾌히 제공하고 기업은 이익의 사회환원을 실천, 공원과 포근한 잔디가 있는 아외음악당을 조성해 시민의 음악, 예술적 정서함양에 기여했다.

大賞인 대법원 청사는 건물 외관이 모두 백색 화강석으로 처리돼 전체 외관이 창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내외부의 설계수준과 공사품질 등 종합적인 면에서 우수해 대상으로 추천됐다.

좋은 건축물은 건물내부의 설계는 물론 외부경관에 있어서 높은 문화적 수준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자연과의 친화적인 조경으로 문화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할 것이다. 또 이런 건축물이 점차 많이 생겨나야 우리의 마을과 도시가 전체적으로 높은 문화적 수준을 갖게 될 것이다.

이번에 상을 받은 분들과 우리나라 건축문화 조성에 노고가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이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돼 우리 건축문화 창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심우갑 /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흔히들 건축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한다. 건축은 늘 우리와 함께 가까운 곳에서 삶의 장소와 배경을 제공해주므로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또한 역으로 우리의 삶이 반영된 형태로 건축이 발전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건축은 우리 시대의 문화, 경제, 사회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활동을 반영하는 결과물인 동시에 그 사회의 문화, 경제, 사회를 기능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개화기 이후 서구문명이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의 건축이 서구 문명 및 건축에 영향을 받게 된지도 근1세기가 지난 시점에서 과연 우리의 건축문화의 수준은 세계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일까 자문해 보면 어쩐지 선뜻 시원한 대답을 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건축가들에 의해 본격적인 건축활동이 시작된 것은 일제 36년과 6.25동란의 쓰라린 비극을 극복하고 난 이후로 이제 40여년 밖에 지나지 않았음을 생각해 보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참으로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자위하기도 한다.

이번에 한국건축문화대상 심사에 참여하여 출품작품을 검토, 비

교하고 수많은 건축물들을 현장을 방문하여 돌아보면서, 좋은 건축을 만들고 훌륭한 건축문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건축가들과 건축 기술자들의 의지와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짧은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건축의 미래가 매우 희망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개인적인 소득이 되기도 하였다.

심사대상 건축물들 중 약 삼분의 일 정도인 주거부문 출품작들은 단독주택, 연립형 빌라, 아파트, 주상복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간구성과 건축적 처리가 우수한 주택들도 있었으나 다수인들을 위한 공공적 성격과 배치 및 주거환경을 새로운 개념으로 개선해보고자 한 시도가 아파트 주상복합 쪽에 심사위원들의 관심이 쏠렸던 이유가 되었다.

주거부문 심사와 관련하여 아쉽게 생각된 점은 우리의 주거문화, 특히 아파트건축은 분양가 규제를 풀어 시장경제에 맡기지 않은 한 더 이상 괄목할만한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는 점이었다.

비주거부문에서는 업무, 문화, 교육, 종교 등 다양한 유형의 작품들이 출품되었는데 예술성, 공익성, 상징성, 경제성, 시공성 등이 주된 판단의 척도가 되어 수상자들이 선정되었다.

이제 우리나라의 건축계는 실로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미 현재에도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외국의 세계적인 건축가들에 의해 설계되고 있긴 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건축시장은 곧 전면 개방될 수밖에 없게 되어 세계의 우수한 건축가들과 시공회사들이 물밀듯이 국내 건축계를 크게 잠식해 들어갈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이기에 우리의 건축가들과 시공회사들이 이들과 어깨를 겨루며 경쟁하여 이길 수 있도록 더욱 실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며 본 건축문화대상이 이러한 일이 이루어 지는데 크게 기여하는 기폭제 역할이 되어줄 것과,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건축문화가 크게 발달될 것을 기대해 본다.

또, 비록 아직은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건축가가 우리에게겐 없지만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건축 기술자들에 의해 우수한 건축물들이 자랑스럽게 지어지고 있음을 볼 때 우리의 건축가들이 세계적인 건축가로 이름을 떨칠 날도 곧 오리라 기대해 본다.

계획건축물부문

■ 방철린 / 인토건축 대표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올해 처음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였



대상 수상자 시상 광경

다. 두개의 주제가 정해졌지만 '2002년 월드컵 축구전용 경기장'은 응모자수도 적었거나와 그나마 응모작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기대치 이하였다. 반면 전체 응모작의 90%에 육박하는 응모자수를 보인 '북촌마을 다시 그리기'는 많은 작품이 예년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수작들이어서 많은 젊은층의 건축학도들이 우리 마을만들기에 관심을 쏟고 있는것 같아 마음 뿌듯하다. 또한 이젠 대형 프로젝트나 주제이어야만 대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작지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려는 풍토가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아 안심이 된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환경단위들이 사고의 깊이없이 다루어질 때 그리고 그 단위들의 관계들이 소홀이 완성되어질 때 그 단위의 구성적 집합체로서의 전체성은 생명력을 가질 수 없고 그렇게 작은 단위적 요소에 값어치가 부여되는 상호관계를 갖고 구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우리 환경의 장래는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수의 응모작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를 알면서도 무엇을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서투르고 따라서 많은 수의 응모작들이 국내의 작가들의 작품을 모방하기에 급급한 것 같아 아쉬움을 갖게 한다. 일반적으로 창작은 모방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사고의 전이없이 무작정 행해지는 모방은 참신성을 잃기 때문에 가치를 내포할 수 없으며 따라서 발전적일 수 없다. 역사적으로 건축계를 리드하는 많은 건축가들이 역사속의 많은 건축물 속에서 모방의 요소들을 찾지만 피상적으로 표현된 건축 그 자체에서 보다 작가가 갖고있는 사상이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받아들인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이 녹아든 토대위에 자기의 새로운 정신세계로 발전시키고 또 무장시키고 있음을 보아왔다. 건축문화의 발전은 이러한 새로운 무장의 연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몇개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또 하나의 아쉬움은 주제가 「북촌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북촌마을다운 곳이 안보인다는 점이다. 가로에서부터 집안의 방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끊어질 듯 이어지는 공간적 흐름이나 공간의 체계, 시선의 다양성과 벽면의 흐름 등 건축적 요소의 채택과 구성에 있어 신선함과 탁월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구석에서도 「북촌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응모작들이 입상작에서도 보이는 것이 안타깝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절제되지 않은 과도한 건축 요소의 사용이다.

아무 이유없이 브릿지, 계단, 테크, 가벽... 물론 이러한 건축물 요소들이 값어치 있게 사용되어 공간의 질이 높아지고 그 속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양한 공간적 체험과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작품들도 많았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곳에 당위성을 갖는, 그리고 생

활에 정신적 도움을 주는 그러한 건축 요소가 적용된 디자인만이 빛을 발할 수 있으며 과도한 건축적 디자인 행위는 진실성이 결여된 허구에 불과할 뿐 생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다.

■ 김인철 / (주)건축사사무소 아크키움 대표

'북촌 마을 다시 그리기' 와 '2002 월드컵 축구경기장'이라는 두개의 테마는 상당히 이질적이다. 전자가 우리건축의 본질을 따지는 것이라면, 후자는 다분히 시류에 어울리려는 것이다. 「북촌 마을 다시 그리기」는 출품자들이 대부분이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수년전 기성건축가들이 만든 전사회가 있었으므로 자칫 진부한 주제가 되기 쉬웠고, 일본과 공동개최를 하게 된 축구경기장은 충분한 고려없이 즉흥적으로 제안된 것 같다. 월드컵의 개최를 단순히 운동경기의 국제적행사이며, 그로인한 부수적인 효과가 대단한 것으로만 판단한 결과 「개최결정」 = 「경기장 만들기」라는 등식을 성립시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바란다면 공동개최를 이용하여 일본과 한국의 정체성을 확실화하는 무엇인가를 건축적인 입장에서 제안하도록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 동양이라는 큰 카테고리과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끼어있는 애매한 입장인 한국의 성격을 일본과 동시에 대비시켜 구분지을 수 있는 기회는 그리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실체도 없이 이미 보통명사가 되어버린 「세계화」를 건축의 관점에서 다루어 보았다면 재미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촌 마을...」에 덤벼든 출품자보다 「축구경기장」에는 적은 수가 모였다. 복수의 주제가 갖는 딜레마이다.

실행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하라는 지침때문이었는지 「북촌 마을...」 그룹의 사고방식은 수년전의 기성건축가들과 전혀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 심하게 말하면 누구누구의 것을 적당히 조합하거나 그대로 카피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 다시 말해 독창성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신인과 학생급에서 오리지널리티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자기화 과정조차 보이지 않는다. 과장된 가벽과 의미없는 공중보도로 적당히 맛을 낸 허구의 건축들이 범람하는 이 시대는 과연 세기말의 징후를 드러내고 있는 모양이다.

축구경기장은 한마디로 역부족임을 드러냈다. 상징적인 의미만으로 건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진데 전문적인 접근은 도외시한 채 아마추어의 아이디어만으로 시작한 내용없는 결과물들만 가득하다. 다른나라의 어떤 것을 본떴다면 차라리 그 원전을 밝히는게 나았을지도 모른다. 공들여 만든 패널과 모형이 이깝게 느껴진다. 제주도를 사이드로 제안한 것이 많았는데 그쪽의 출품자들이 많았기 때문인지 국민적인 공감대가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인지는 확인



중공건축물부문 심사광경 1



중공건축물부문 심사광경 2

되지 못하였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네거티브방식보다 포지티브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입상후보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확실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갖지 않는 비슷비슷한 수준속에서 물건을 골라 내어야 하였기 때문이다. 입선에 든 것은 최소한의 수준을 갖추었다는 것이고, 장려상은 그중에서도 내용을 만들려고 시도한 것이며, 우수작과 대상작은 그 이외의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스스로를 너무 비하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아직도 우리의 건축에서 베스트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출품자나 심사자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최고를 향한 과정이라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는 전제로 작품들을 보았고,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다. 다음에는 다같이 나아갈 것으로 한결음씩 기대를 한다.

■ 김한근 /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올해 건축문화대상의 계획건축물부문은 지난해와는 달리 학생과 신인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응모하게 했고, 특정 주제를 주고 이것을 건축적으로 얼마나 잘 해석하고 구체화시켰는가를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첫번째 주제는 전통적 주거지역인 서울시 「가회동·북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계획과 두번째 주제는 월드컵 서울 유치를 기념하기 위해 「월드컵 축구경기장 계획」으로 공고했다. 그중 특히 「월드컵 축구장」의 경우는 학생과 일반신인들이 소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라서 응모자가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첫번째 주제인 「북촌마을 다시 그리기」는 전통한옥보존지구로 묶여있던 지역이 얼마전 제한이 풀리면서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이 주제의 핵심과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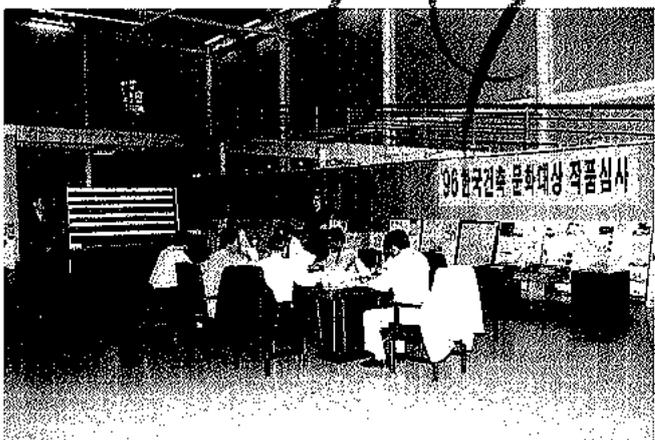
응모자들 대부분이 이 과제의 문제의식은 확실하게 인식했던 것 같다. 이 문제의식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구체화시켰는가가 심사위원들의 기준이었는데 일부 학생들의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참신성이 매우 돋보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의욕이 앞서거나 무리한 시도로 당초 의도를 가시화시키는 것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것도 많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주제가 상당히 어렵고 많은 공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좋은 작품이 많았다.

주어진 조건이 고밀화된 형태, 법규와 현실을 감안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들을 만족시키기에는 힘든 조건들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 작품들의 경우 불필요한 장식적 구조물을 이용하여



계획건축물부문 심사광경 1

조형적 효과를 보려는 시도라든가 내부기능단위영역기능 등을 충분히 연구하지 못하고 외형과 현재 모양에만 치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월드컵축구장 응모자의 경우 너무 기성 스타디움 형태를 따르고 있어서 참신성이 떨어진 느낌이었다. 계획상품이기 때문에 좀 과감한 시도를 해볼지도 한데 이번에는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 송효상 / 이로재건축사사무소 대표

가회동을 중심으로 하는 북촌마을의 재개발에 대한 문제의 제기 와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이라는 두가지 주제가 모두 시의적절하기는 해도 학생들에게 매력있는 건축적 이슈는 우리의 전통과 주거공동체라는 사실이 각기 주제별 응모자 수를 말해줬다.

또 구체적 부지가 주어지지 않은 경기장의 설계는 자연히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집중되게 마련이어서 다양한 문제의 복합적 해결이 관건인 정통적 건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소수만이 출품한 경기장 부문에서는 우수상 이상의 결과가 나오기 어려웠으며 당연히 북촌마을에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됐다. 요즘 학생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에 제출된 작품들에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 중의 하나가 건축적 본질에 대한 탐구보다는 건축적 어휘의 사용이 우선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번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거공동체에서의 길과 마당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추적보다 선배 건축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요소들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골몰한 나머지 불필요하고 과장된 장치로서만 현란하게 그려진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저자기 당혹감을 느꼈다.

따라서 이러한 장치들을 제거하고 나면 현존하는 주거보다 나올 바가 없는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다.

또 가회동이라는 역사적 장소성을 아예 도외시키고 공동주거 자체의 해결에만 매달려 있는 것도 건축을 바르게 하는 태도가 아닐 것이지만 그 역사성의 굴레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것도 창조적 가능성을 목표로 한 건축가의 올바른 자세라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개념의 제안에 뜻이 강한 이런 공모전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낙선된 작품 중에서 오히려 이러한 사항들에 도전한 것들이 있어 관심을 가졌었으나 다른 분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놀라운 건축적 완성도와 높은 수준이 전체 분위기를 지배한 가운데 이러한 촌평을 사족일 뿐이며 특히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에 선정된 작품들의 면면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우리의 건축 문화의 앞날이 청명함을 이번의 이 전시회가 증명하게 될 것이다.



계획건축물부문 심사광경2

31

대법원청사

The Supreme Court

설계 / 윤승중+변 용+김석주(건축사사무소 원도시)
시공 / 현대건설(주)



<본지 96년 1월호 참조>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대지면적 / 57,793.3㎡
건축면적 / 9,785.71㎡
연면적 / 66,610.03㎡
건폐율 / 16.90%
용적률 / 82.65%
층수 / 지상16층, 지하2층
최고높이 / 81m
건축주 / 대법원
총감독관 / 건설삼익관 김문재
구조 / 엔조조 연구소
기계설계 / 한일 MEC
전기설계 / (주)문유현 전기설계 사무소
조경설계 / 한림환경엔지니어링
인테리어설계 / (주)아디프
건축주 / 대법원
사진 / 박영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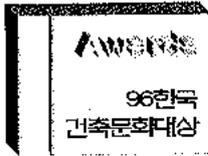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와 국민 또는 국민과 국민 사이의 분쟁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곳이 법원이고 그 최상급 기관이 대법원(Supreme Court)이다. 대법원은 3부 건물의 마지막 청사로 6년을 거쳐 설계 시공 됨으로서, 서초구 일원에 법조타운이 완결되었다.

법원의 형식적, 의미적, 유형적인 대표적 어휘는 Court이다. 즉, 커다란 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서 당사자간의 시시비비를 법이라는 도구로 평형시킨다. 현상 당시 대홀이란 Program이 제시되었고, 궁극적인 건축 해결의 중심 개념으로 대홀을 중심으로 대홀=Court라고 설정하였다. 따라서 자연 채광이 도입된 대홀을 중심으로 4개의 정면을 갖고 각 정면에서 각기 다른 기능의 출입구가 된다. 출입구에서 시작된 모든 동선은 결국 대홀에 집중된다. 대법관은 대홀을 거쳐 일종의 의식적 통로로 법정에 이르게 되고 대홀과 법정정 경계벽 상부에는 한국화한 법의 여신이 앉아 있다. 대법정은

불이문 형상의 프레임으로 강조된 법정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그 법정문은 크기에 있어서 상징성을 부여하여 과장되었고 주위벽도 수직성을 위해 원형의 장식과 작은 Niche로 분절된다. 또한, 대홀의 좌우벽은 중력을 무시한 열주랑과 투명한 난간과 투명한 원구의 조명으로 장식된다.

대홀과 대법정 축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에 중법정 2개가 놓여 있다. 이는 법의 정신으로 또다른 평형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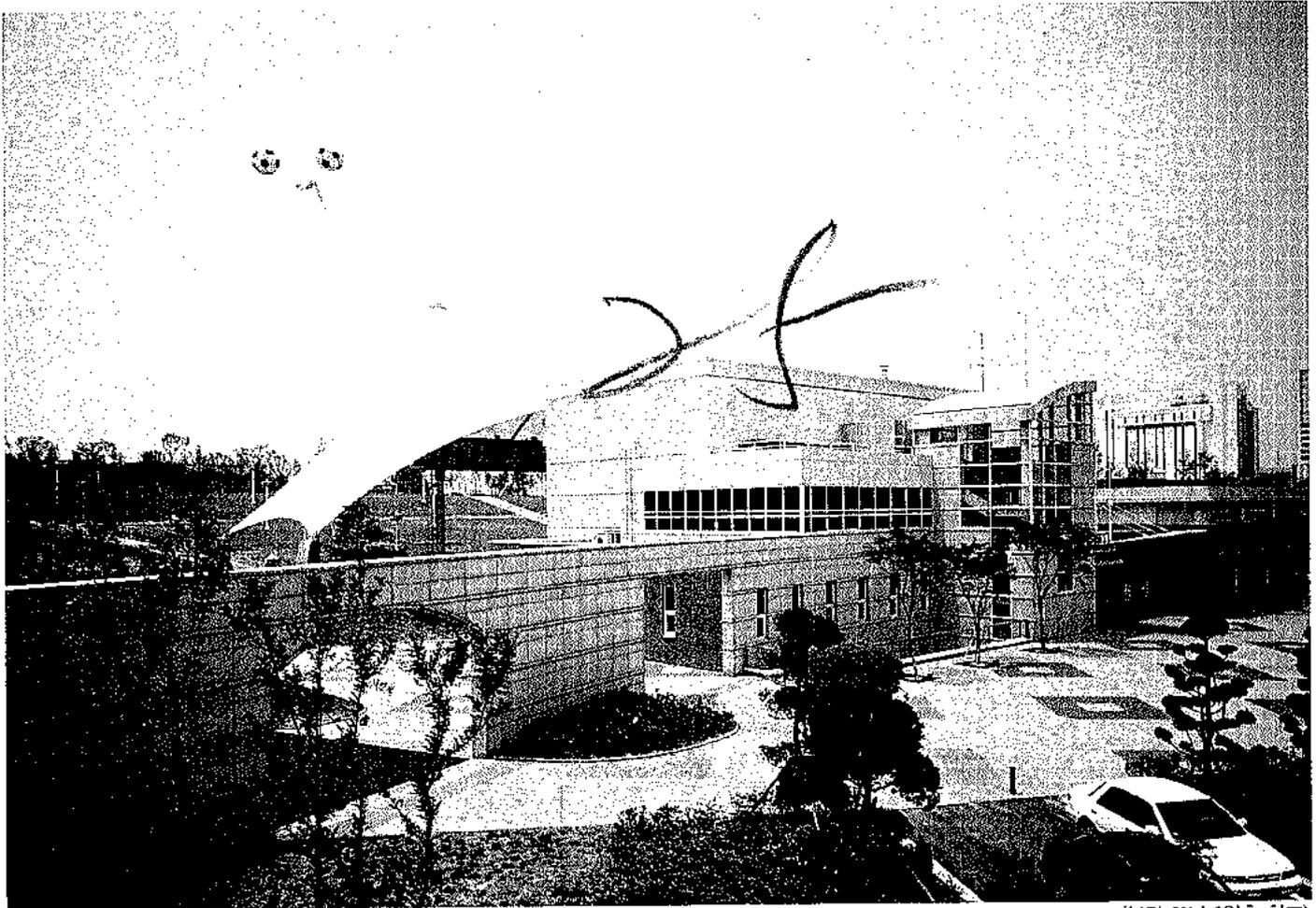
대법원은 관공서 건물로서 건축적 어휘의 매너리즘적 해석으로 정리하였다. 좌우대칭의 4방향으로 회전 대칭인 기하학적 분할을 이루고, 좌우대칭은 전통 궁궐 배치에서 앞뒤 열주랑 부분을 제거한 배치로 달성된다. 이로서 대칭=(법)의 평형원리를 의미한다. 고층부는 중앙에 놓이므로 대법원의 수뇌부를 우측은 민원 관련 부서로서 법원 행정처, 서측은 도서관과 후생시설이 배치되었다.



수원야외음악당

Outdoor Music Pavilion in Suwon

설계 / 조주환+한종률(상우설계)
시공 /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본지 96년 8월호 참조>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8
지역 · 지구 / 자연녹지지역, 공원시설지구
대지면적 / 86,307.99㎡
건축면적 / 2,309.93㎡
연면적 / 2,878.71㎡
건폐율 / 4.49%(부지내 기존건축물 포함)
용적률 / 4.62%(부지내 기존건축물 포함)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외부 마감 / 벽·최강석 물갈기 베너구이, 적벽돌 치장생기,
드라이버트
지붕-콘크리트 슬라브, 슈퍼테크패널
주차대수 / 옥외 212대
조경면적 / 34,123.12㎡(10,322.24평)
설계담당 / 한종률
설계팀 / 나우현, 심재현, 김현태, 김효찬
건축주 / 수원시

“한 여름밤의 꿈”

처음 Project를 맡으며 떠올렸던 연상이었다. 난파가 활동하였던 음악의 고향, 정조의 웅대한 꿈이 담겼던 수원성 등의 Identity를 간직한채 야외에서도 실내에 못지않은 Classic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의 창조.

수원시가 제시한 Program은 건물에 두개의 얼굴을 요구하였다. 하나는 수원시가 주가된 각종 Performance가 벌어질 무대 및 야외 객석공간, 다른 하나의 얼굴은 수원시향과 합창단이 상주하며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과 사무실로 구성되는 업무공간.

그 구분의 한 획을 곡선의 돌벽으로 그려보았다. 수원성벽의 인과 박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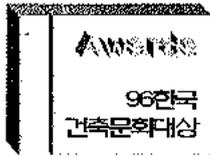
한종률

수원 야외음악당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삼성전자에서 건립하여 수원시가 기증한 것이다. 위

치는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및 효원공원에 연계된 곳으로, 야외음악당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대규모 문화예술공간이 조성되어 예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야외 휴식공간의 기능을 겸하게 되었다.

이 야외음악당은 국내 초유의 교향악단을 위한 본격 야외공연장으로 수원시민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아름다운 형태의 막구조와 수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설계한 본 건물의 다양한 형태의 조합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동적이고 풍부한 경관을 만들어 내도록 하였다.

주요 시설로는 음악·무용·연극·강연 등 다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무대와 연습실·악기실·사무실·조정실 등의 부속시설이 있으며, 1,100석의 고정객석과 10,000~15,000명의 관람이 가능한 잔디객석이 마련되어 있다. 고정객석 부분에는 막구조를 설치하여 빛이 투과되는 반외부공간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그 뒤로 넓게 펼쳐진 잔디객석까지 확장되는 쾌적한 관람공간을 조성하였다.



진로 쿠어스맥주공장 견학동

Jinro Coors Brewing Office & Visitor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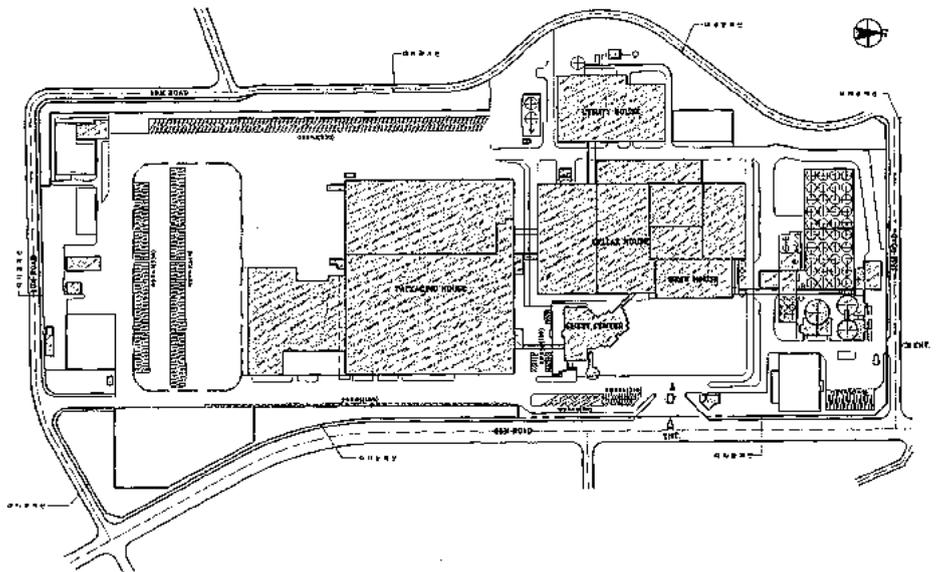
설계 / 이영환+박종기(이웨스 디자인 그룹)+삼성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시공 /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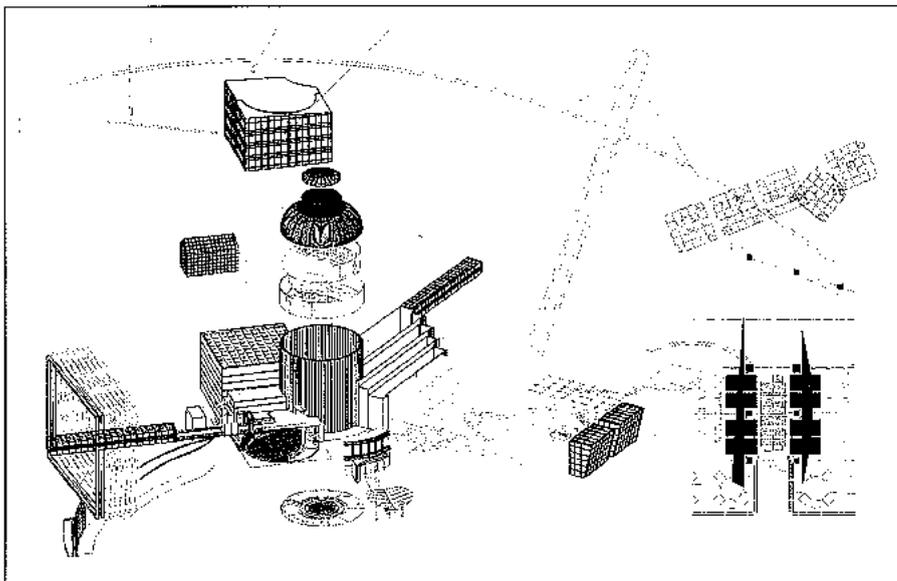
대지위치 / 충북 청원군 현도면 중산리 52
 지역지구 / 경지지구, 공업지역
 용도 / 견학동(Office & Visitor Center)
 전차로(Pass Way)
 Brew House
 Cellar House
 Packaging House
 계획설계담당 / Eawes Architects 최재규
 Eawes Interior 김성숙
 건축주 / 진로 쿠어스 맥주(주)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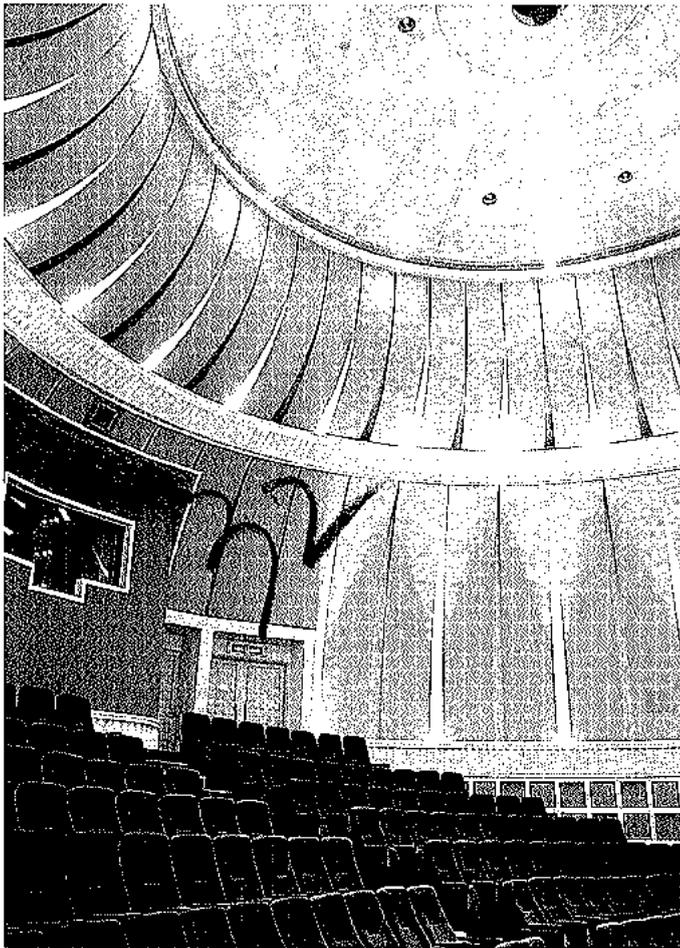
건화르(Pass 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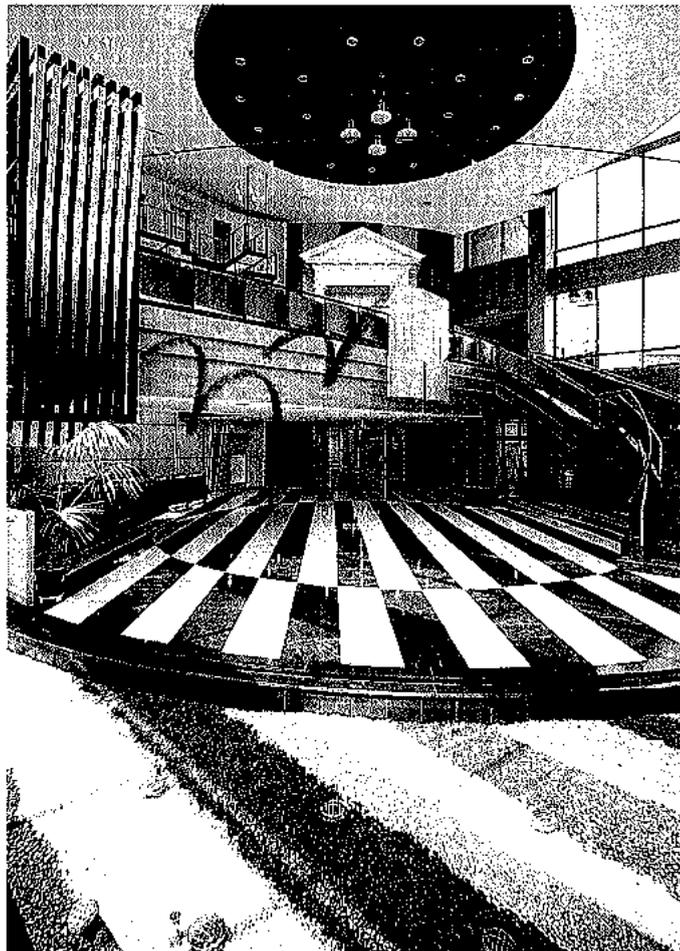
AXIS CONCEPT

Master Plan
 대지면적 / 218,073.90㎡
 건축면적 / 66,080.88㎡
 연면적 / 91,353.50㎡
 건폐율 / 30.30%
 용적률 / 40.80%
 주차대수 / 308대
 조경면적 / 40,38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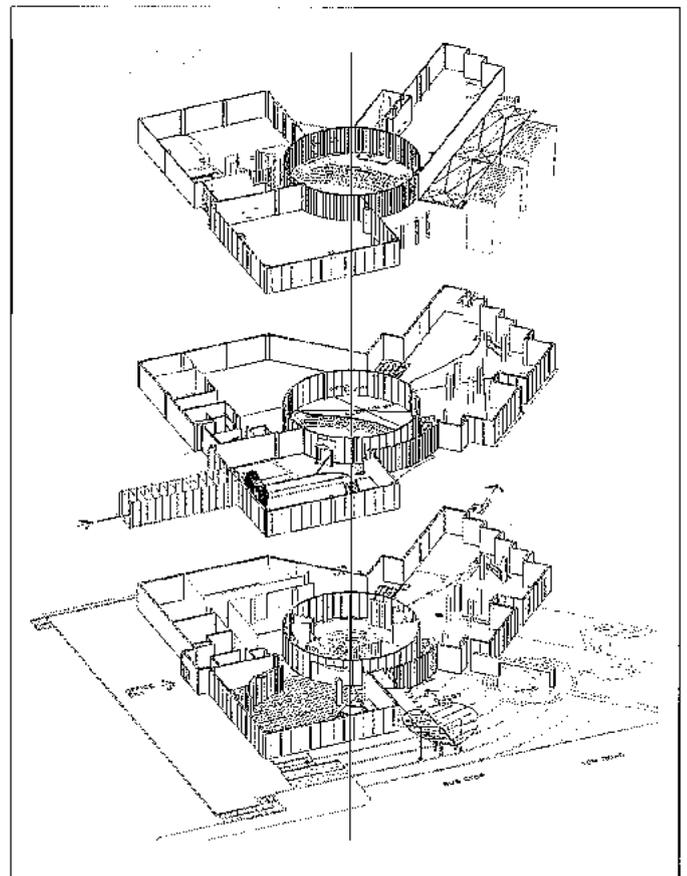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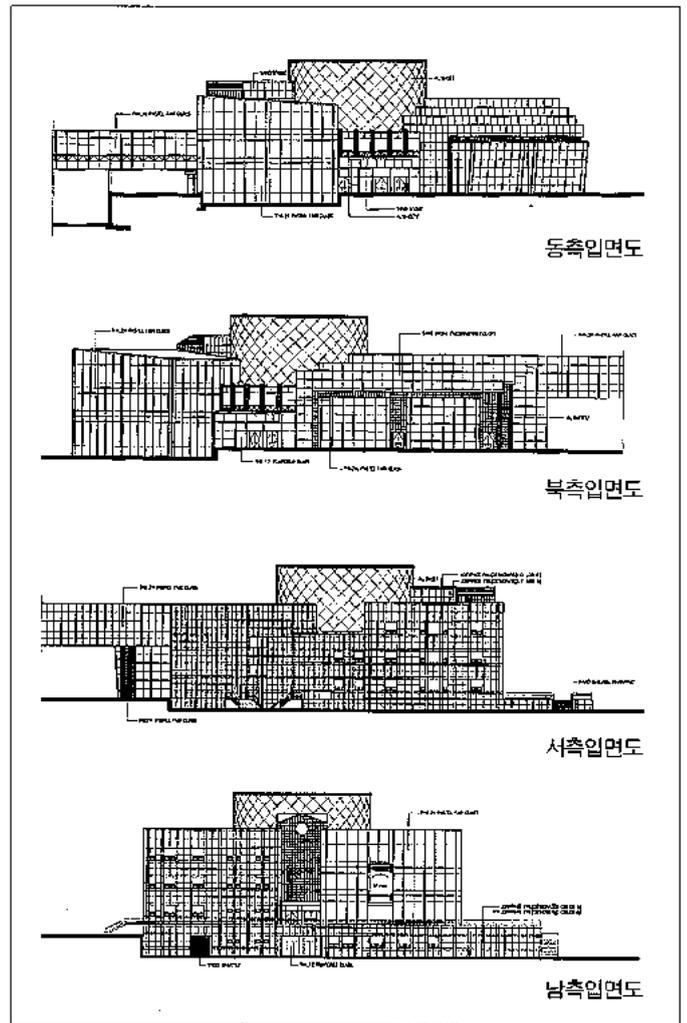
건화동
 건축면적 / 1,881.88㎡
 연면적 / 5,973.50㎡
 공사기간 / 1992. 11~1995. 5
 외부미감 / Sand Stone, Aluminum Panel, THK24 파스넬 목층 유리



오디토리움



로비



DIAGRAM

세계 3대 광천수 지역으로 유명한 충북 청원에 진로 카스맥주 공장이 들어서면서 고객과 일반인들을 위한 견학동이 오픈되었다. 비열처리 맥주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진로 카스맥주 청원공장은 제 품동, 자동물류창고, 발효숙성 탱크, 담금동, 제맥 동 등과 같은 제조시설과 함께 공장의 생산관리 시스템을 조작하는 중앙제어실 그리고 전시관, 시음장, 영상관 등을 갖춘 견학동을 마련함으로써 단순한 공장의 기능만이 아닌 대중과의 교감을 창출하는 시설로서의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구성되어졌다.

이 진로 카스맥주공장 견학동 설계의 기본 테마는 'Fresh & Fun' 으로 하고, 단순하고 생략된 야치, 오더, 페디먼트 등의 고전적 건축어휘와 모

고, 동선의 중복을 피하면서 효과적인 견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적 동선계획을 통한 공간계획을 하였다.

먼저, 메인로비에서 안내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안내자의 인도에 따라 영상실이 있는 오디토리움(Auditorium)에서 기업의 홍보와 맥주의 제조 과정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관람하게 된다. 서커스의 막구조를 응용하여 설계한 오디토리움은 '서커스의 즐거움을 관람한다' 는 개념으로 견학동의 기본 테마인 'Fresh & Fun' 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곳이다.

오디토리움을 지나면 본격적인 전시가 이루어지는 전시공간으로 연결되어진다. 전시관의 첫번

는 곡선으로 처리하여 율동적이면서 경쾌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이곳을 지나면 우수한 맥이를 만드는 제맥과정과 발효, 저장 및 숙성과정을 거쳐 1, 2차 여과를 통해 맥주가 생산되는 과정을 공장 과 연결되어 있는 복도형 공간(Pass Way)을 전시관으로 활용, 패널과 부분적인 공장 오픈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다.

미니 양조장(Mini Brewery)을 거쳐 공장에서 제품이 포장되는 모습을 브리지형 복도를 통해 관람하고 엔트리 램프(Entry Ramp)를 통과하면 공장견학이 끝나게 된다. 견학을 마치면 공장 견학동을 연결하는 브리지를 통해 견학동의 시음장(Test Drink)으로 동선이 이어지는데, 시음장은 모든 생산과정을 관람한 후 닷을 올려 축제를 한다



야경

더니즘적 요소가 대비를 이루게 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요소들의 다양한 바닥패턴, 사선과 수직요소로 점목된 벽면의 디자인을 통해 역동적인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평면구성은 점, 선, 면 등의 디자인 기본요소를 발전, 변형시켜 2차원 평면에서부터 3차원 공간으로의 구성을 꾀하여 입체적이면서 시각적 효과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간의 구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바닥패턴의 동심원은 선적인 칼라패턴으로 교차시킴으로써 동적인 리듬감을 부여하였다.

이와같은 신선하고 흥미있는 공간연출을 기본 테마로, 역동성있는 공간감을 표현하고있는 견학동은 관람객들이 맥주가 제조되어 출하되는 전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

때 홀에서는 맥주의 양조과정과 역사 및 문화를 알 수 있는 기계부품과 물품 및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패널 등이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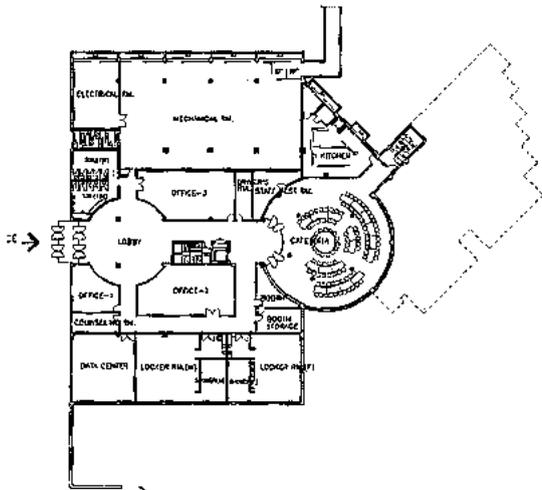
딱딱한 부품과 패널로 전시되어 있으므로 다소 경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록색의 곡선형 타공판으로 디자인한 구조물을 천장부에 설치하여 경쾌한 리듬감과 방향성을 주었다. 이곳에서 맥주 제조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이루어진 후 공장으로 연결되는 스카이 브리지(Sky Bridge)를 통해 맥주발효실로 진입하게 된다.

담금동(Brew House)에서는 실제 공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발효과정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는데, 식막한 공장의 기계적인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통로 부분의 벽면을 파도치는 효과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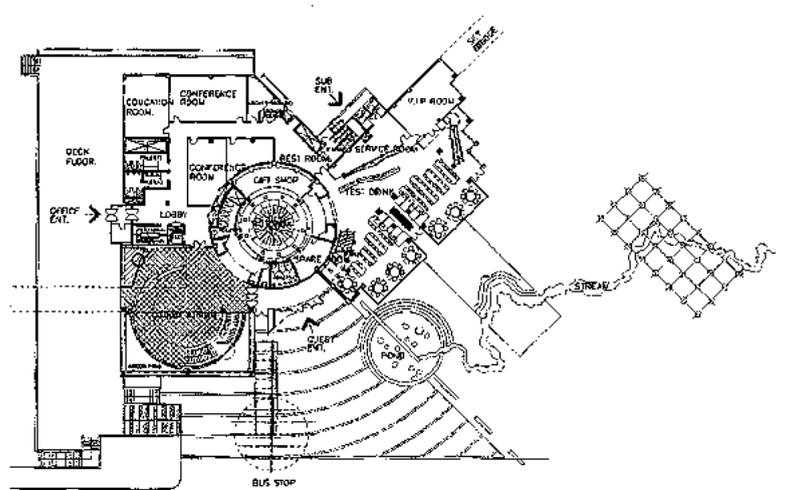
는 개념으로 계획되었다.

예각의 삼각형 구조물과 유리로 디자인하여 매 단 닷으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킨 이곳 시음장은 서로 다른 축을 갖는 3개의 직사각형 시음 서비스를 설치하여 역동적인 공간감을 표현하고, 이러한 운동감을 통하여 관람객들이 마음속의 보물섬을 그리며 즐거운 항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시음장에서 관람의 극적인 고조가 가라앉고 이곳을 떠날 때는 다시 관람동선의 첫 출발점이었던 메인 로비로 되돌아 오으로써 모든 견학과정이 끝나도록 동선계획함으로써 체계적인 전시관의 관람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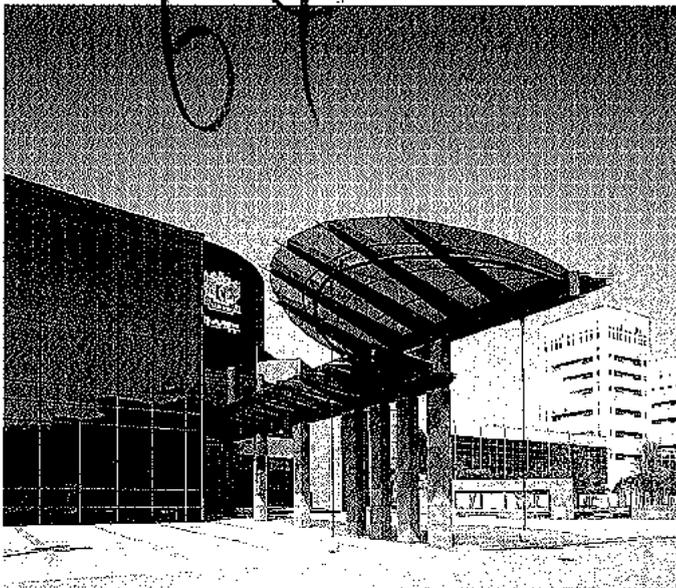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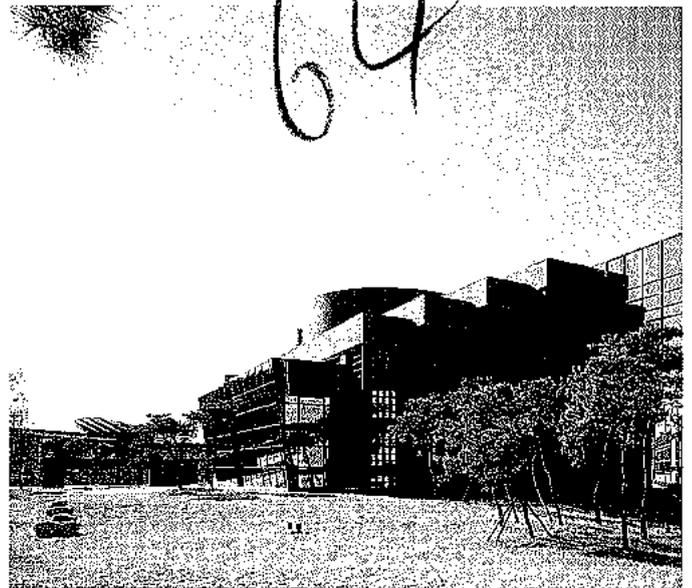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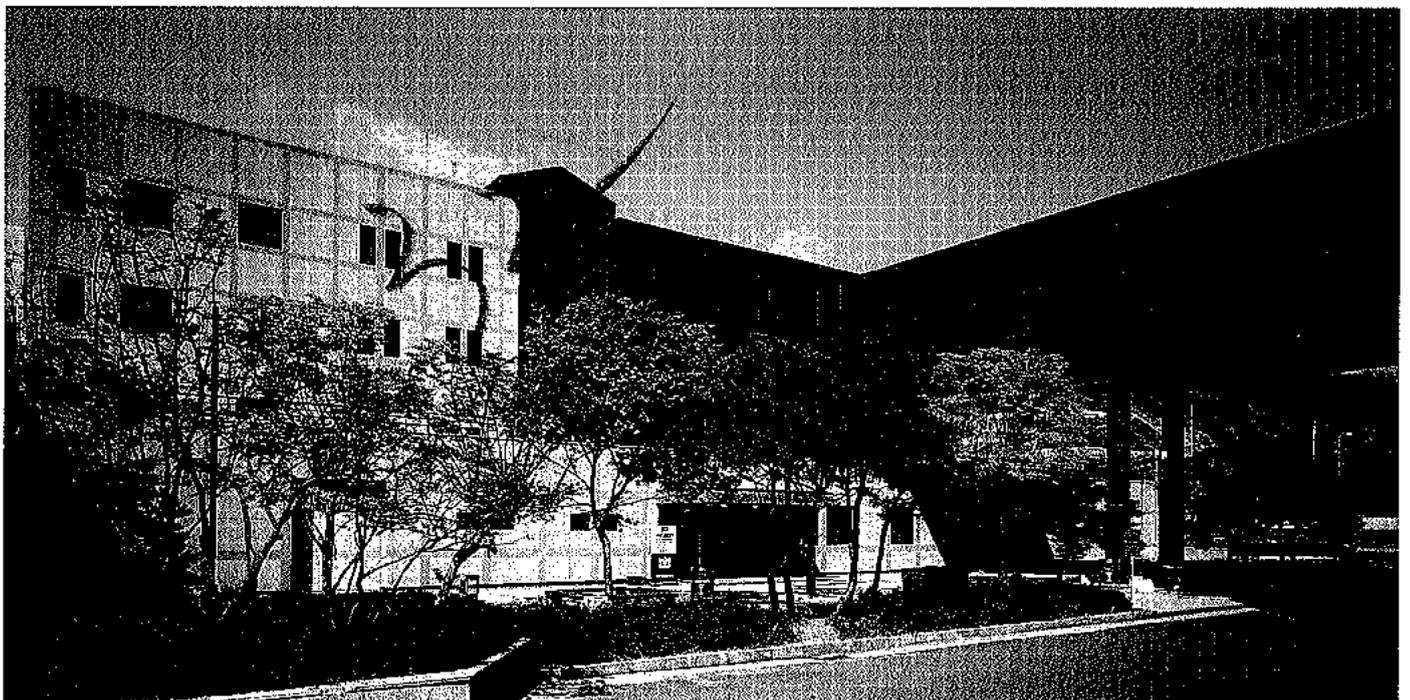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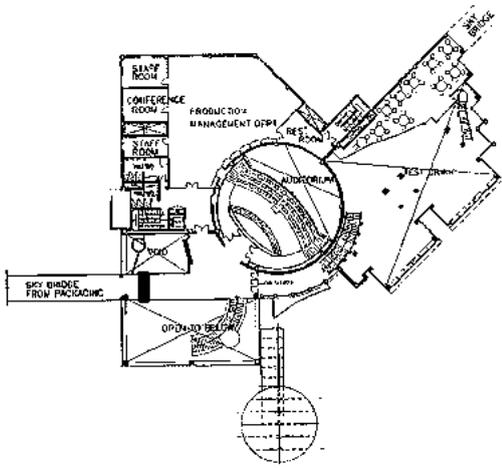
건축동 주출입구 및 버스정류장 캐노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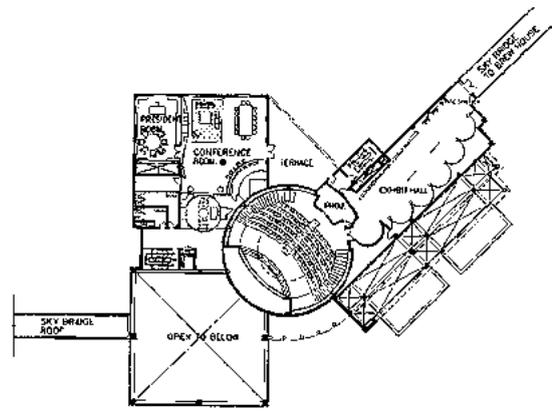
북서측 전경



남서측 전경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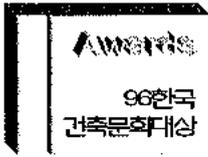
건학로



건학동 전시시설



시음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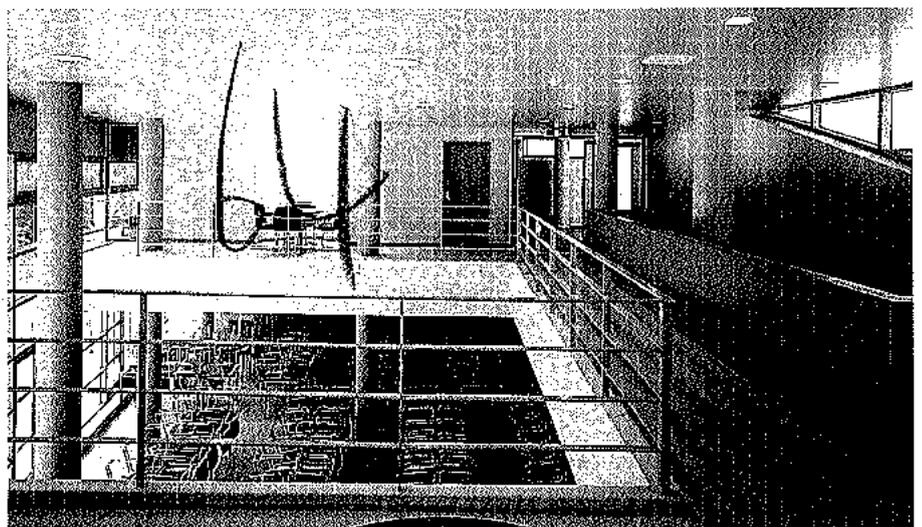


용문 청소년 수련원

Yongmun Youth Training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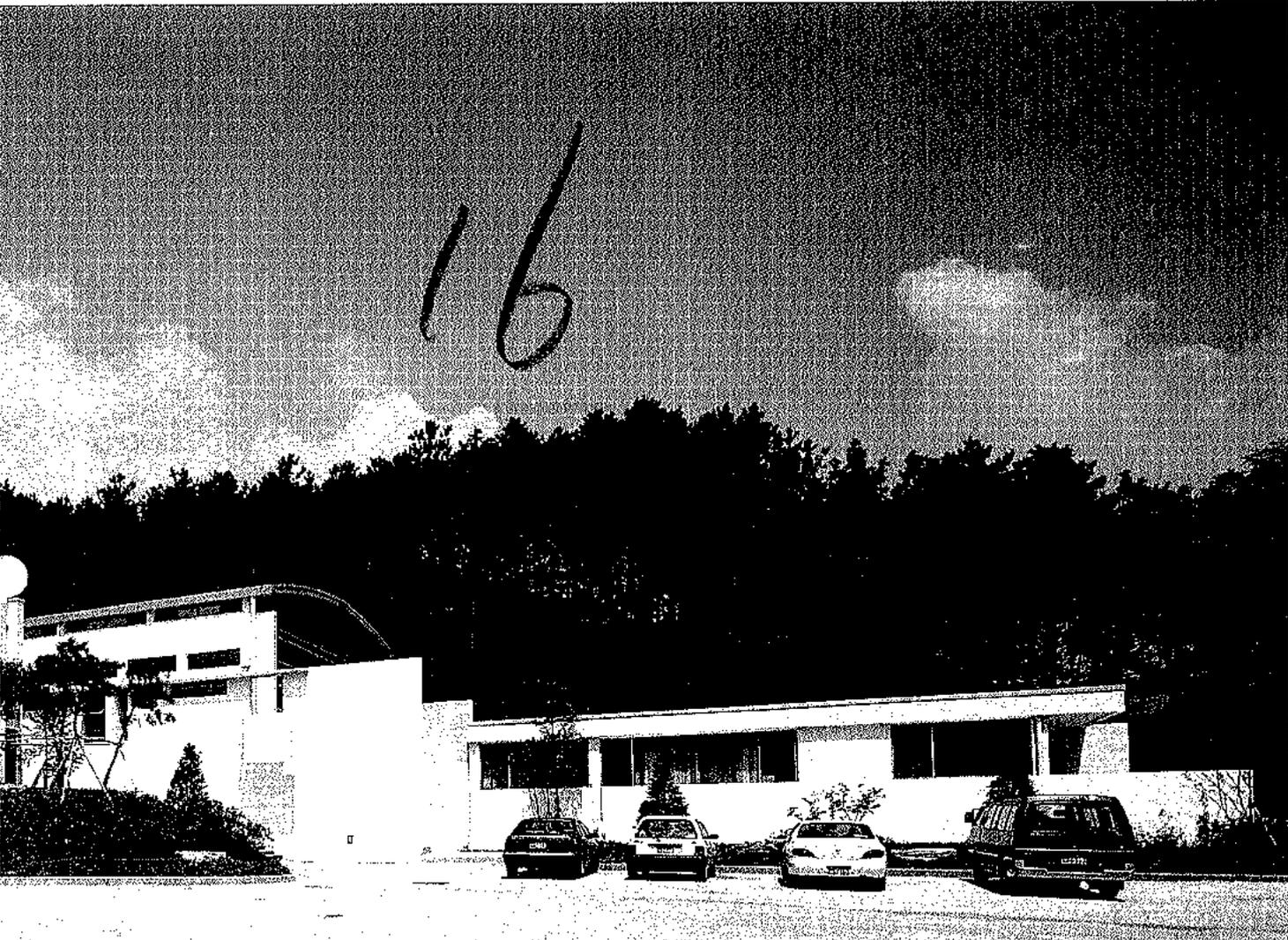
설계 / 김영섭(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시공 / (주)한울종합건설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덕천리 145
 대지면적 / 7,500㎡(2,314.4평)
 건축면적 / 1,613.86㎡(488.19평)
 연면적 / 2,687.06㎡(812.83평)
 건폐율 / 21.5%
 용적률 / 35.8%
 규모 / 지하층, 지상2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철골조
 최고높이 / 9.5m
 층고 / 3.0m
 주요설비/방식 / 관람접회시설+노유자시설+근린생활시설
 주요용도 / 종교시설
 외부마감/벽 - 드라이버트
 지붕 - 아스팔트 싱글
 내부마감/벽 - 아크로그로시
 천장 - 아크로그로시
 주차대수 / 23대
 조경면적 / 1991.52㎡
 설계담당 / 전인호, 도현학, 김소민
 설계기간 / 93. 11~94. 7
 공사기간 / 94. 8~96. 8
 구조설계 / 명일구조기술사사무소
 설비 / 방창엔지니어링(주)
 전기 / 사창엔지니어링(주)
 조경 / 이윤정 조경연구소
 건축주 /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이사장 김수환



식당 내부 호로 둘러친 매스안에 천층이 오픈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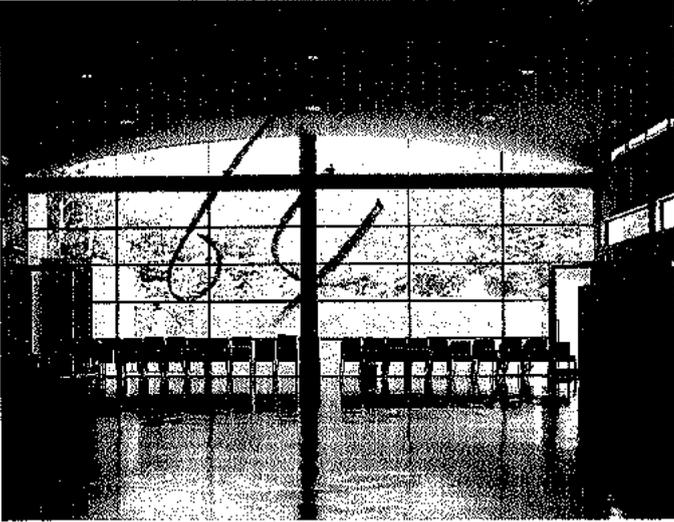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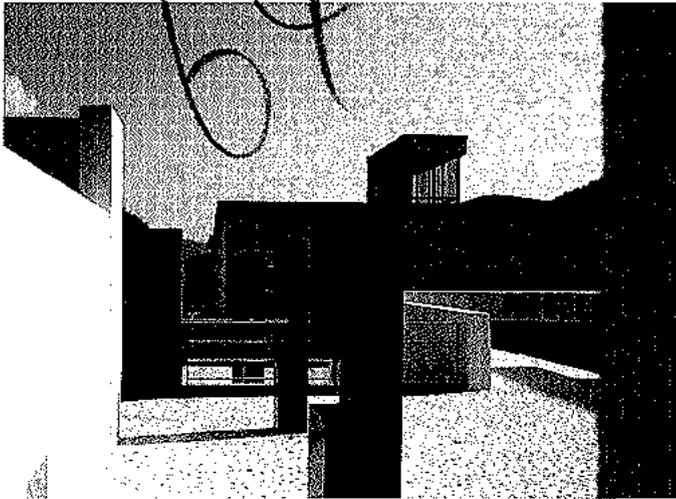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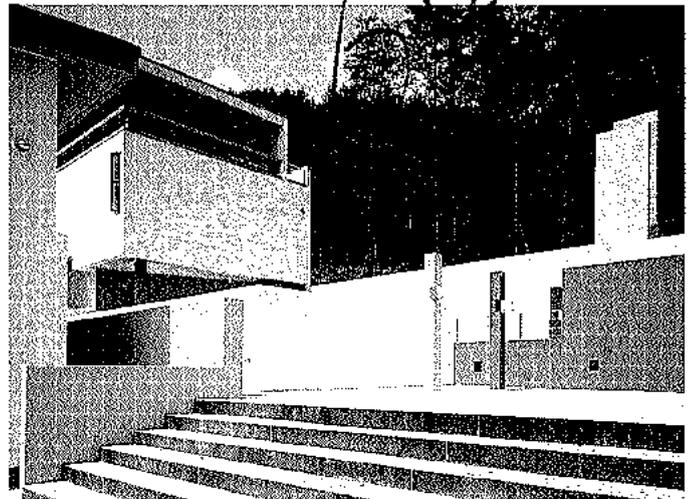
휴게실로 사용되는 교리동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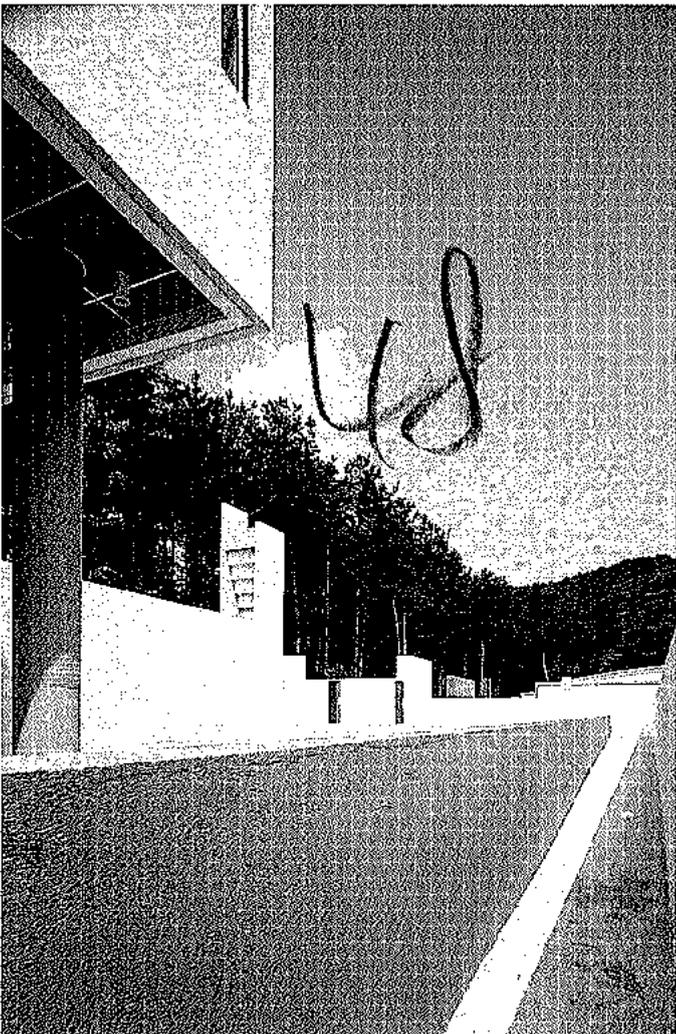
성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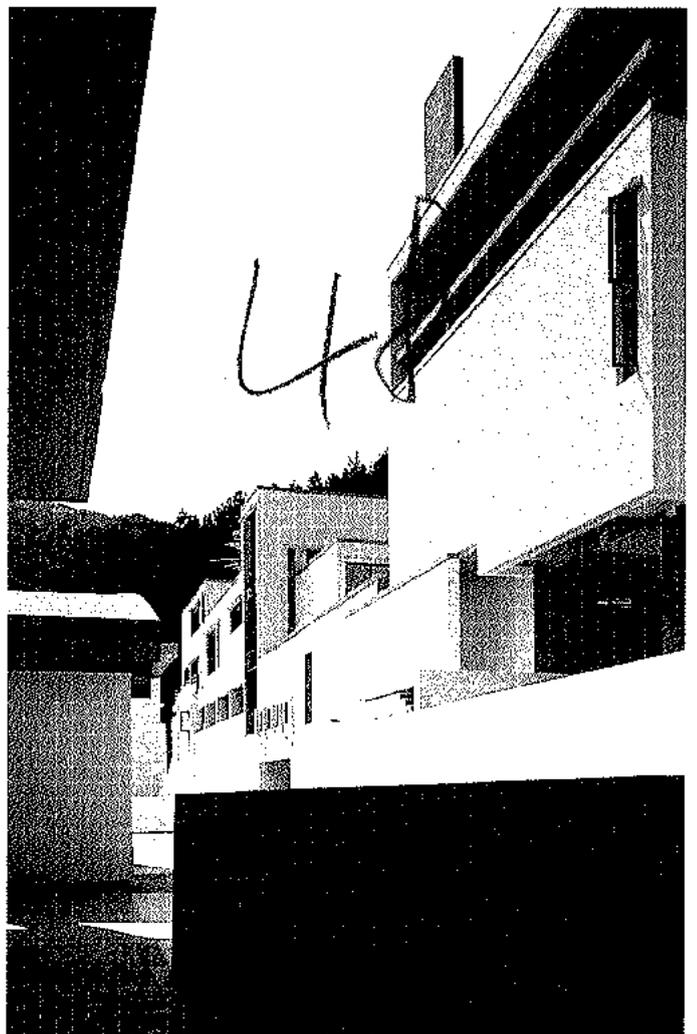
야외극장 입구



야외 집회장으로 이어지는 외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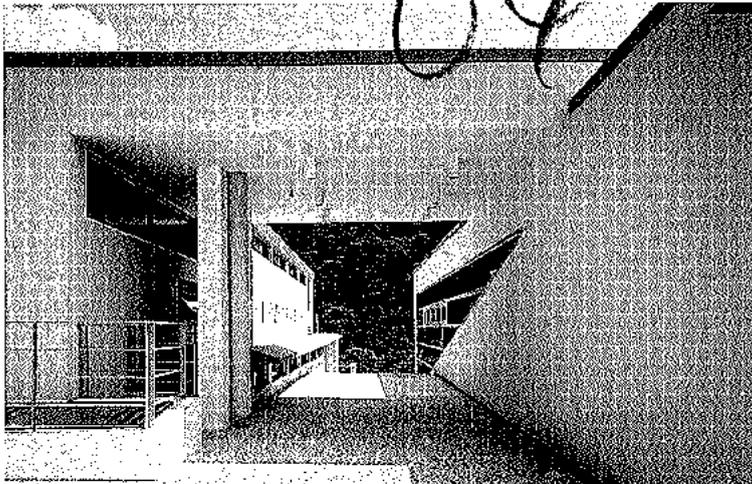


야외극장 경사진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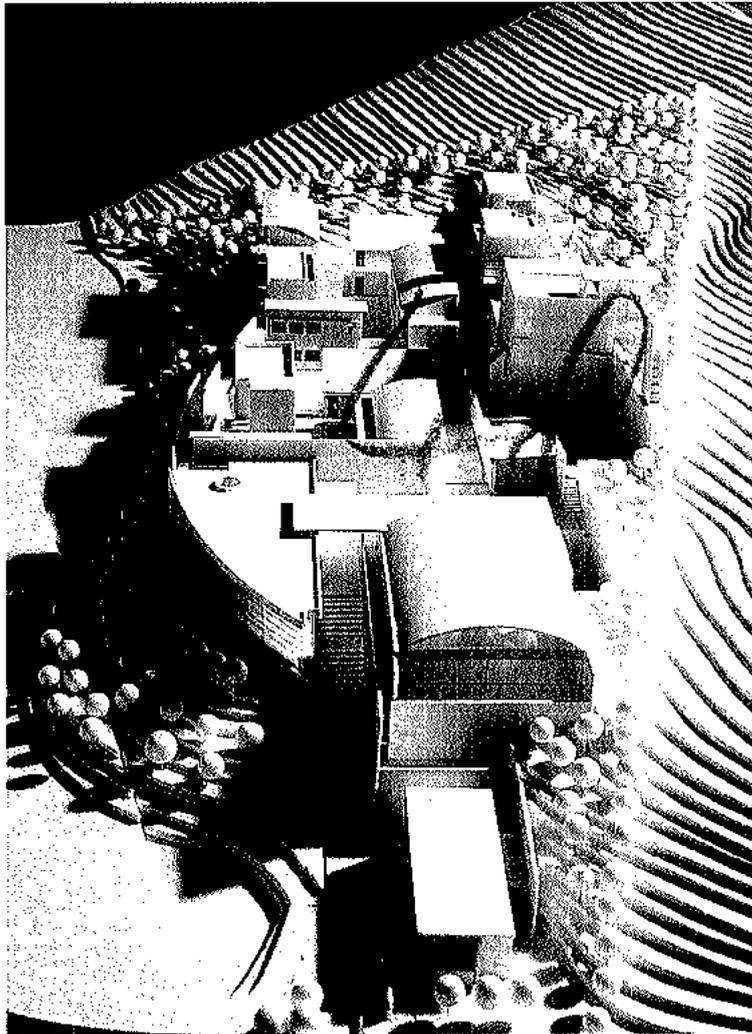


청소년마을 내부(중앙 통로)

64



진입계단을 올라와서 뒤돌아 본 모습



전경 모델

용문 청소년 수련장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산하 각 성당 및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심신수련의 장으로 계획된 것이다. 수용인원 300인 기준의 수련시설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집회를 위한 실내외 시설과 집단 숙사동으로 형성되어있는 숙박시설, 이들을 위한 식당 및 부대시설, 각종 회합용으로 쓰이는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지원시설로서 사제와 수도자 및 지도자가 거주하는 사제관과 수녀원 그밖에 관리인들이 사는 관리동이 있다.

청소년수련장이 위치하고 있는 용문산 계곡은 경관이 수려하고 부지 내에서 밖을 내다보는 조망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건물이 자리잡고 있는 부지를 계류가 휘감아 돌기 때문에 진입초기단계에서는 건물전체가 조망되지 않는다. 처음 나타나는 건물 Scene은 사체관棟이지만 건물의 하안 외곽라인은 그 뒤의 검은 숲을 배경으로 뚜렷한 호기심을 유발하기에는 충분하다. 진입도로나 북쪽을 휘어지는 곳에서 건물 전경이 숲 사이로 펼쳐지는데 '숲 사이로 보이는 전경'은 사실 건물을 배치하면서 의도적으로 남겨놓았던 건물 전면의 버치나 무들이 만든 효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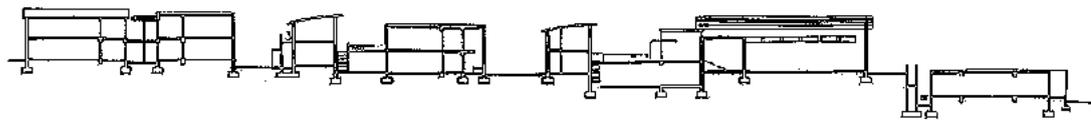
진입 마지막 단계인 다리 위에서(나는 최초의 스케치를 바로 이 다리 위에서 했다. 건물 모두가 드러나는데 사람들은 모든 건물이 기존 산세와 재형을 따라 전개되어 있음을 쉽게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수련장 내부는 길과 집들로 짜여져있다. 작은 마을을 들어서서 기분은 첫번째로 마주치게되는 검은 계단 때문에 다소 비뚤게되는데 계단위로 지나가는 먼 지붕 사이로 자연경관이 보이는 풍경이 이 마을을 들여다 보게되는 강한 유혹이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각 건물과 야외시설들은 토목공사량을 줄일 셈도 되지만 기존의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배치된 것이다. 이것은 기실 무엇보다도 자연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수수만년을 때문지 않은 자연의 처녀성을 간직한 산자락에 인공의 매스를 가한다는 불경을 조심스럽게 저지르는 마음이 이 설계과정에 있었다.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개개의 방들은 제각기 고유의 위치에서 자연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의 장인 강당에서조차도 자연은 큰 배경으로 건물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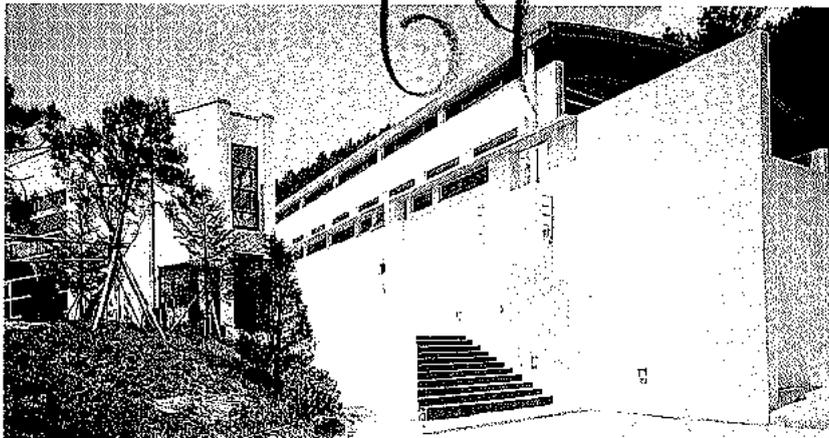
즉 건축가가 의도했던 청소년들에게 건축이라는 창을 통해서 다시 보게되는 자연과의 친화라는 주제가 이 프로젝트에 일관되어 있는 것이다. 아울러 건축의 실내공간과 실외공간, 매개공간, 마당과 계단, 경사로, 다리들과 벽들로 구성된 다양한 공간구성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청소년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공간체험을 유도하는 것을 시도한 것이다.

수련장의 높은 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 상념에 잠긴다. 활짝 펼쳐진 먼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 때 소년들의 재잘거림이 사라진 적막한 수련장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다.

마당을 거니는 노사제의 그림자를 더욱 길게 만드는 시간과 눈 덮인 밤의 시간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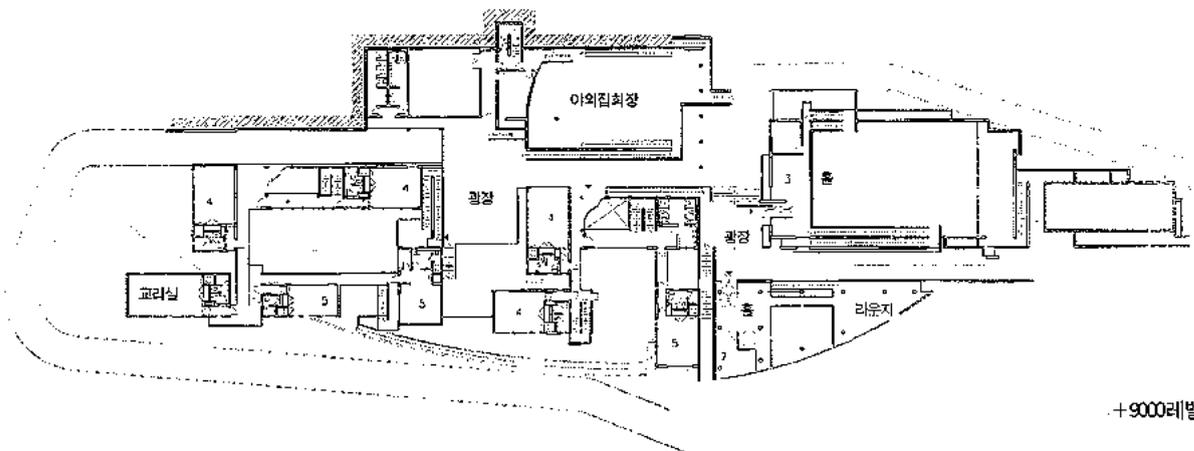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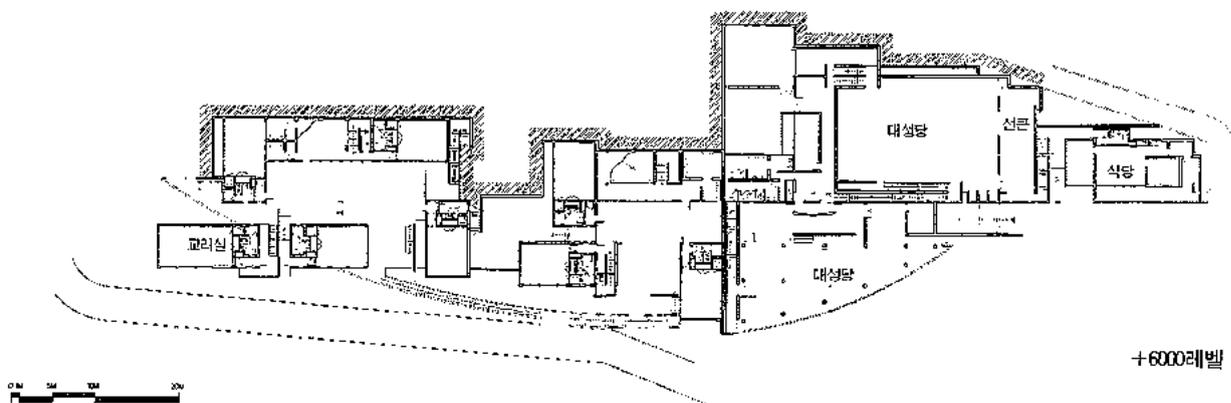
수련장으로의 첫 진입, 우측 건물이 대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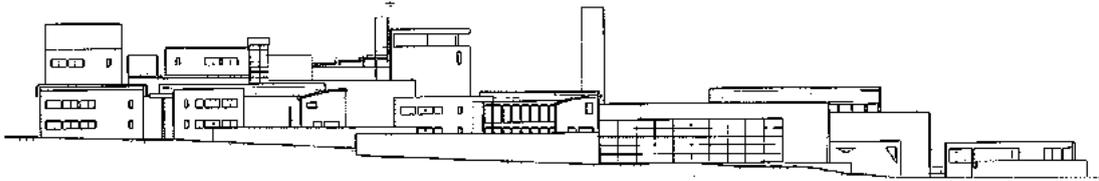
대지 앞쪽 외부 길에서 수련장 전면을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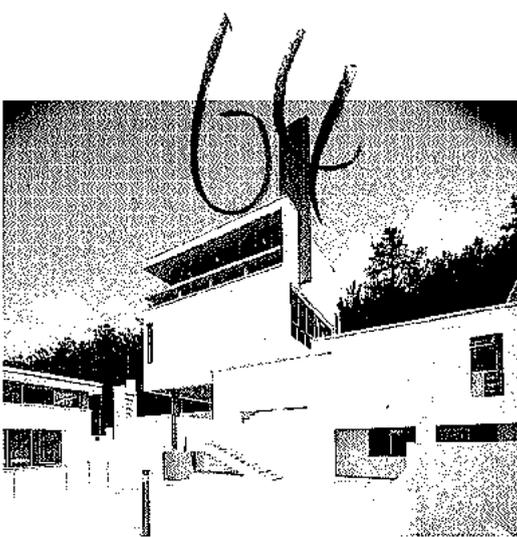
+9000레벨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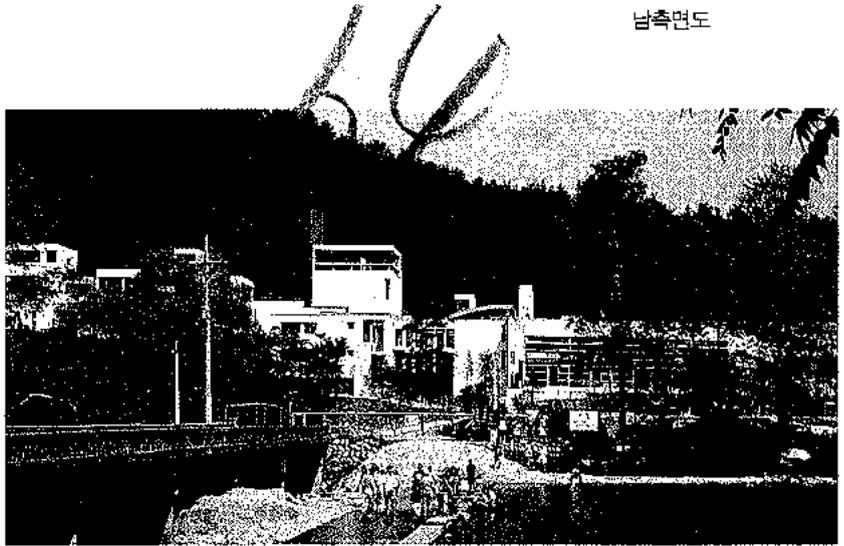
+6000레벨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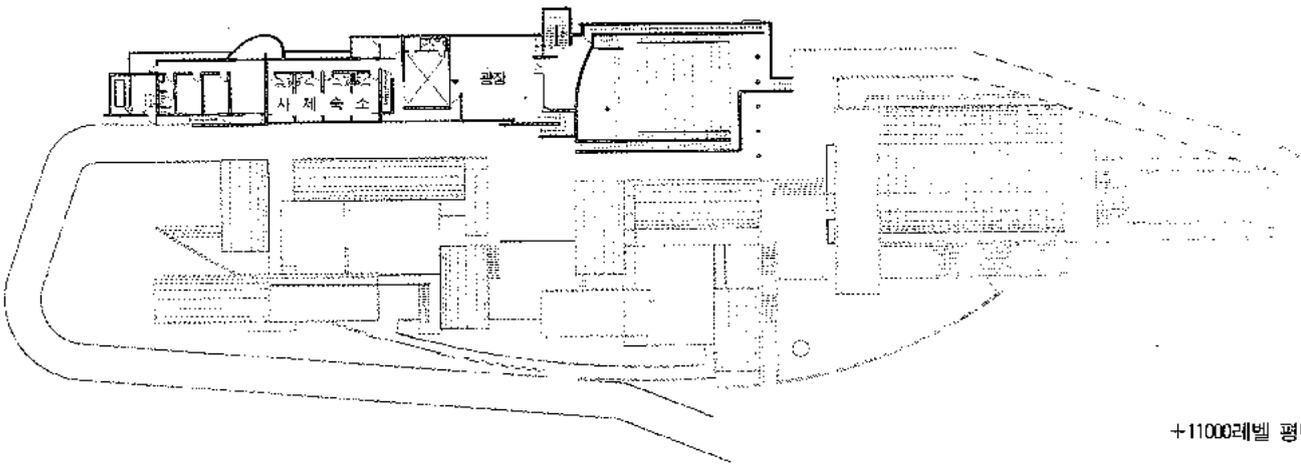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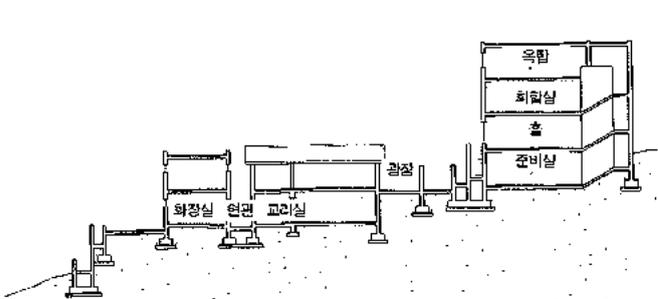
사제관과 교리동으로 둘러싸인 수련장의 중앙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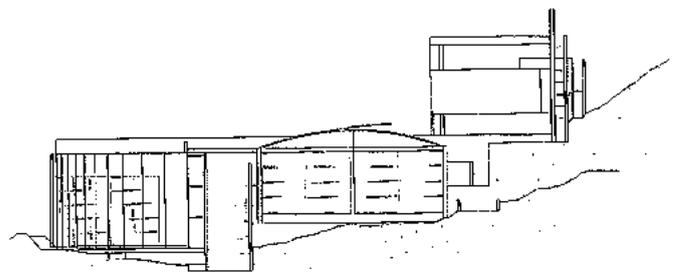
숲사이로 보이는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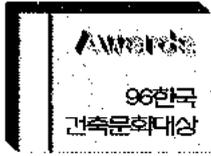
+11000레벨 평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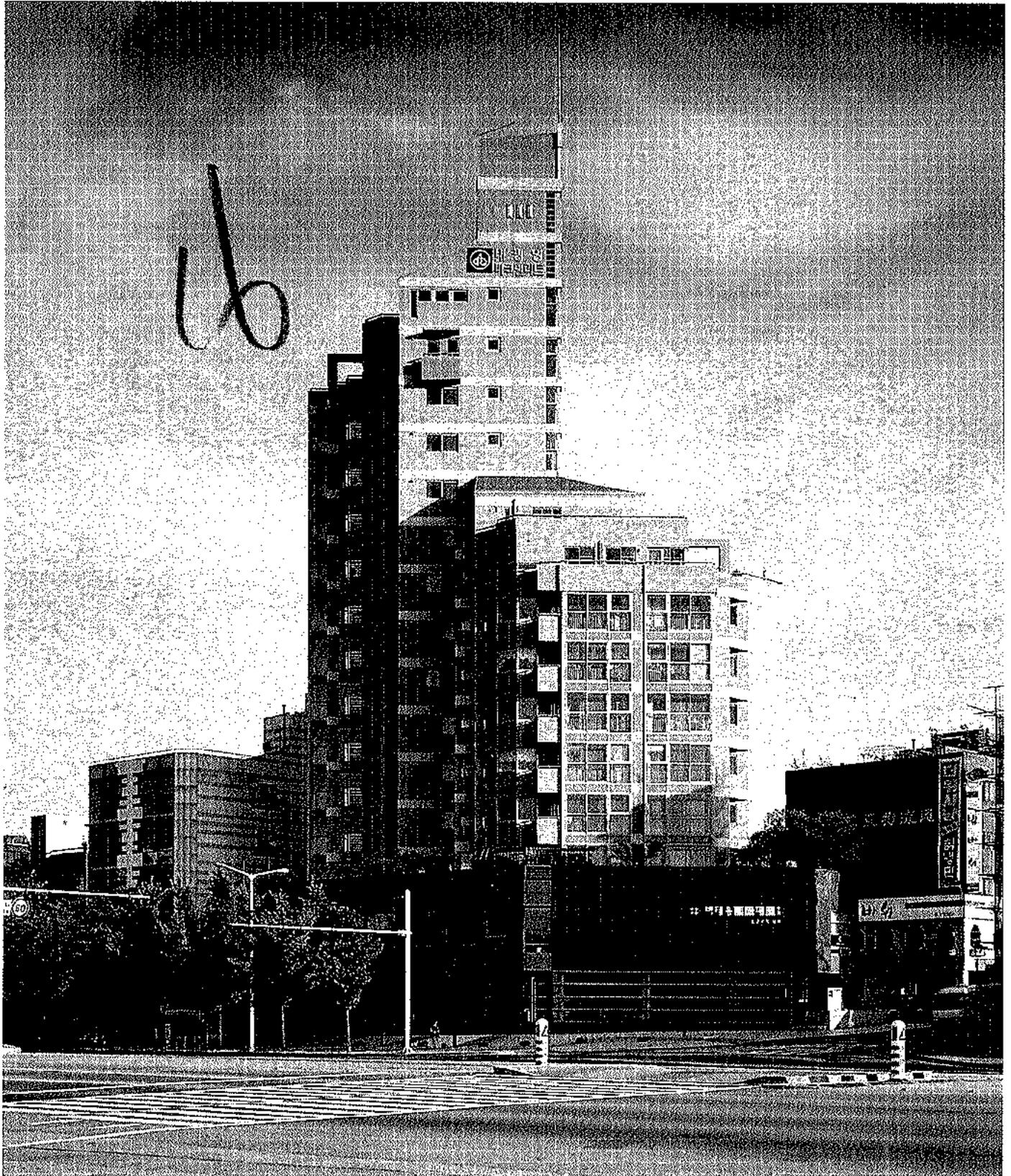
동측면도



태평양파크 빌라트

Taepyeongnyang Park Vill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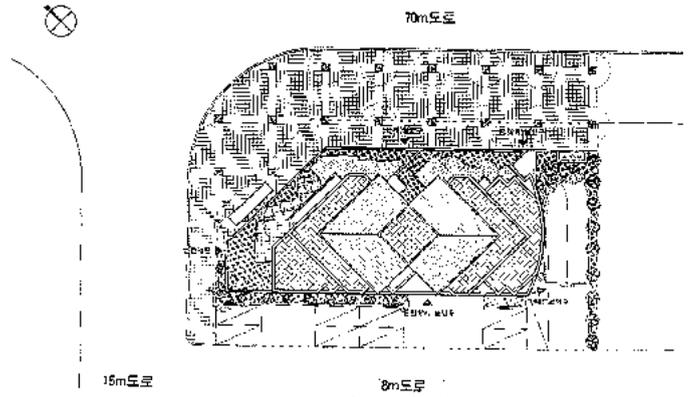
설계 / 한현호(건원국제 건축사사무소)
시공 / 태평양개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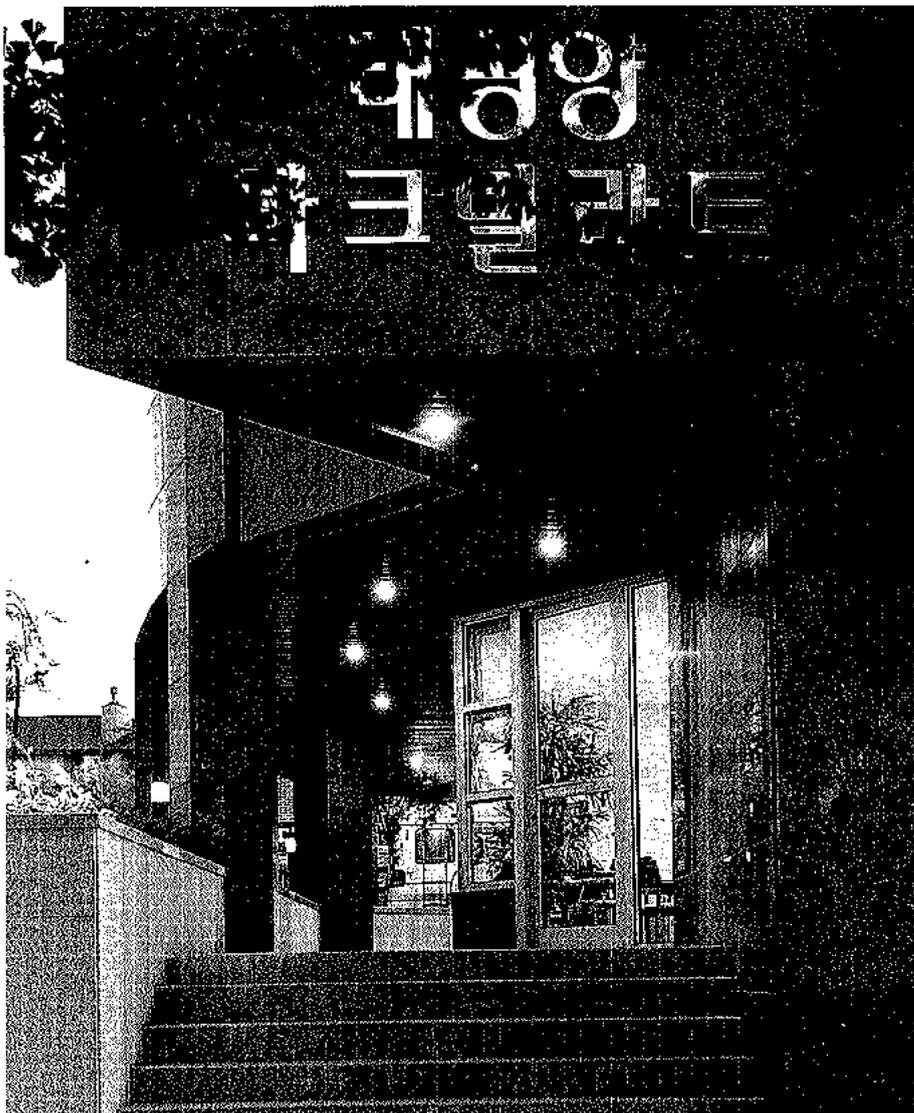
전경



외벽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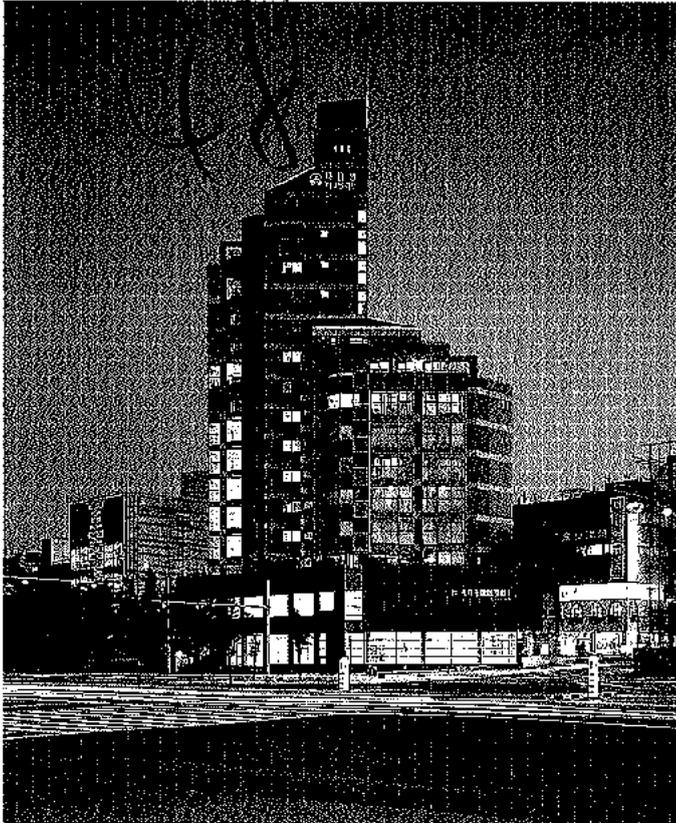
배치도



주출입구 전경

대지위치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81번지
 대지면적 / 1,060.50m²
 지역 및 지구 / 일반상업지역, 도시설계구역, 주차장 장비지구,
 5종 미관지구
 도로현황 / 전면 70m, 측면 15m, 후면 8m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건물규모 / 지하 2층, 지상 1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건축면적 / 510.18m²
 연면적 / 5,950.61m²
 건폐율 / 48.11%
 용적률 / 392.54%
 최고높이 / 45.9m
 주차대수 / 37대(옥외 11대, 옥내 26대)
 조경면적 / 165.54m²
 주요외장재 / 상부 : 드라아비트+샌드스톤
 하부 : 화강석
 분양면적 및 세대수 / 60평형(17세대), 88평형(2세대)
 건축주 / 태평양개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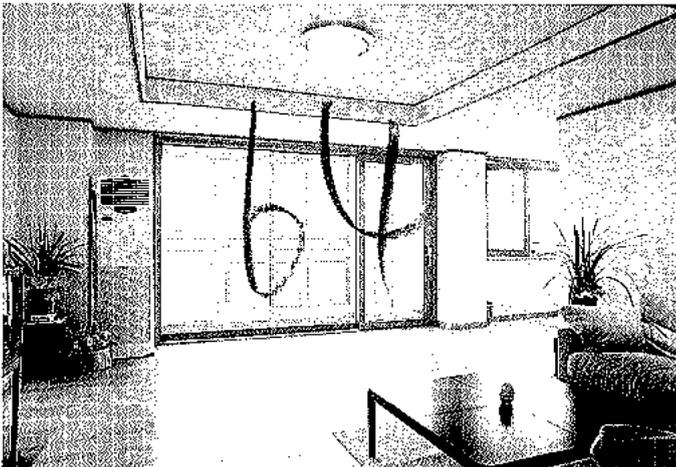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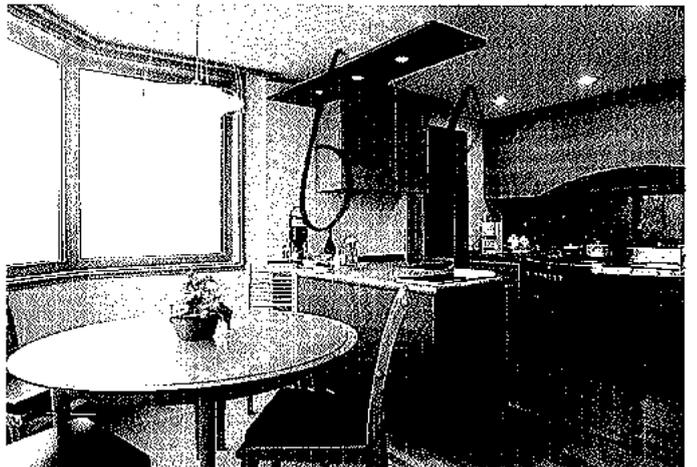
야경



올림픽 공원에서 본 전경



실내 1



실내 2

대지가 위치한 올림픽공원변은 주거지로서 최상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최근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않는 유사한 규모의 주상복합형 고급주거(빌라트) 단지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대동소이한 큰 규모에 최고급 내외장재로 비싸게 지어지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주거 양식을 제시하기 힘들다고 보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계획에서는 아래와 같이 해결하고자 하였다.

1. 도시환경에의 적극적 조응 :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과 주변환경과의 대비와 조화의 추구, 저층부상가를 가로에 평행하게 배치, 고층부 주거는 가로에 대해 45°축으로 돌려 앉히면서 일반적 건물 배치방식을 탈피, 가로와 인근지역 어디서든 눈에 띄는 다양한 입면을 갖는 개성적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냈다.

축벽의 곡면 벽체는 저층부와 고층부를 통합하며 물결치는 형태의 역동성과 대비를 이루고,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을 지닐 수 있는 대비와 긴장감을 연출시켰다.

2. 새로운 도시 고급 주거양식의 제안 : 획일성을 벗어난 다양성과 기변성의 추구
 19세대 4가지 평면유형 : 3세대 공존형, 입주자의 기호에 따른 내부공간 조정 가능의 다변화
 -단위세대의 각 방별 독립된 발코니, 충분한 수납공간, 유기적 평면 배치
 -조경공간의 시각초점화 : 총벌(3, 9, 10, 14, 15층) 개성적 옥상정원 제공, 단위세대의 마당 역할
 -비주거 부분과 주거부분의 동선 및 주차 분리, 쾌적한 외부공간과 선큰 거든 제공

-필로티 : 1층 진입부의 전후면을 관통하는 통로를 옥의 휴식공간 및 교류의 장으로 제공
 -진근감을 느낄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재료 사용

3. 적극적 법규 해석을 통한 수익성의 추구 : 최대 건폐율, 용적률 확보
 -배후주거지에 대한 일조권보호를 위해 고층부를 45°로 돌려서 배치하면서 후면 코너부는 곡면 벽체로 시야 차단
 -45°배치로 주거부분은 남북방향으로 배치되면서 최상의 전망을 확보함
 -기용면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자형의 단순한 매스를 탐상으로 처리하여 두개의 지붕, 반복되는 45°수직벽체와 발코니의 리듬 등으로 독특한 실루엣을 만들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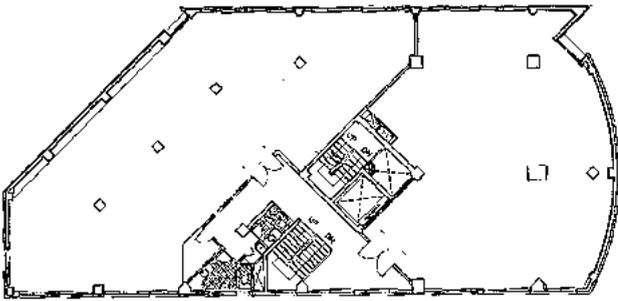
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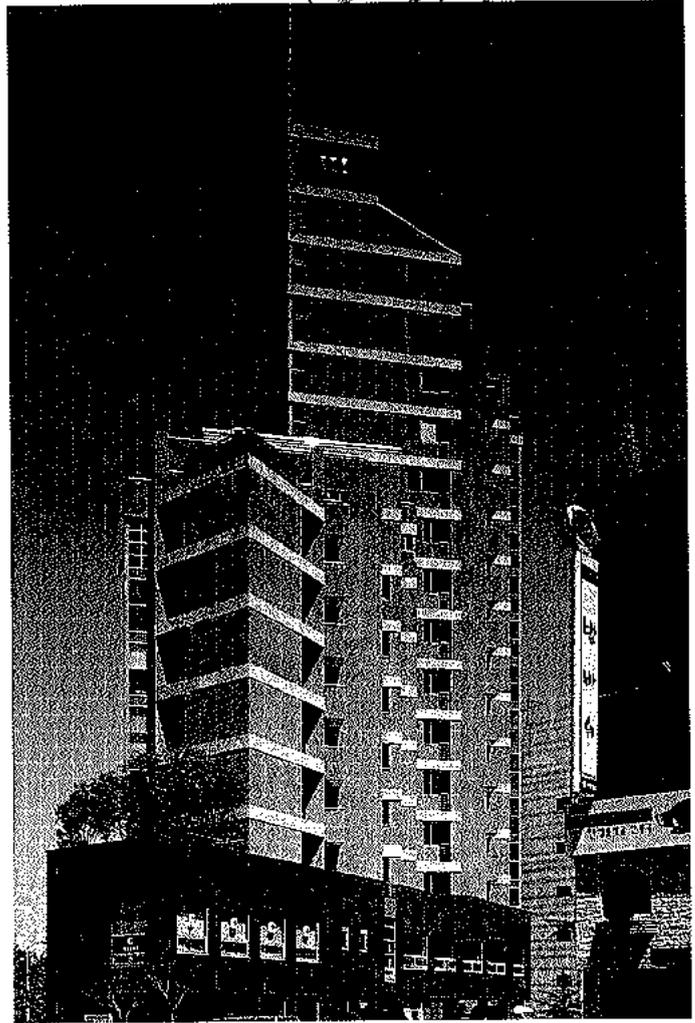
9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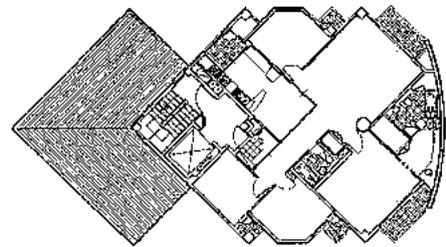
4~8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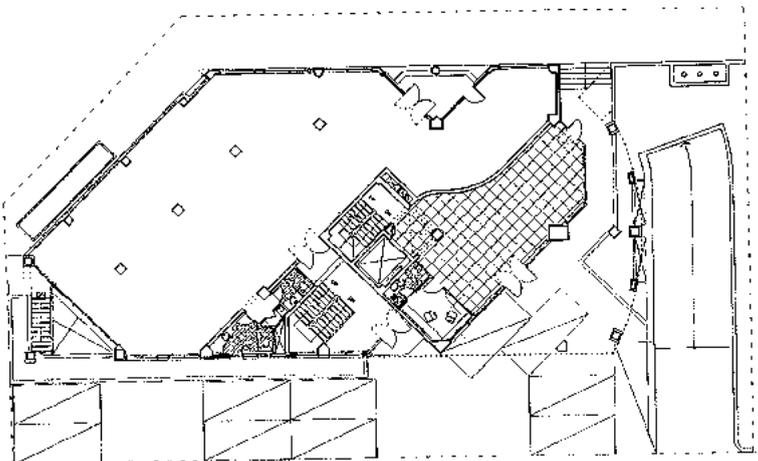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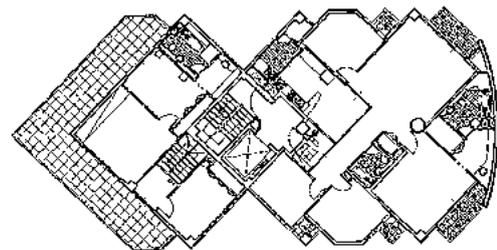
측면 전경



11~1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10층 평면도



96한국
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 주거부문

분당주공A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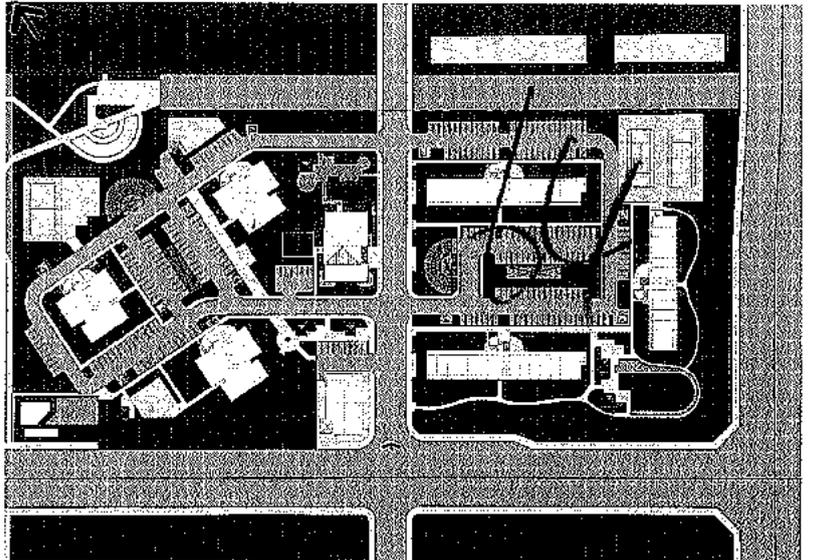
Pundang KNHC Apartment

설계 / 안희생(시당건축사사무소)
시공 / 현대산업개발(주)



전경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택지개발사업지구내 E5-16블럭
지역 · 지구 / 택지개발지구
대지면적 / 37,994.60㎡
건축면적 / 4,961.55㎡
연면적 / 62,741.15㎡
건폐율 / 13.06%
용적률 / 145.76%
규모 / 지하1층, 지상15층 APT 3동
지하1층, 지상20층 APT 3동
구조 / R/C구조 & P.C구조
공법 / 원전 조립식, 부분 조립식+건식화 공법
세대수 / 계 - 1020세대,
16평형 - 600세대, 18평형A - 120세대, 18평형B - 300세대
건축주 / 대한주택공사



배치도

배치 및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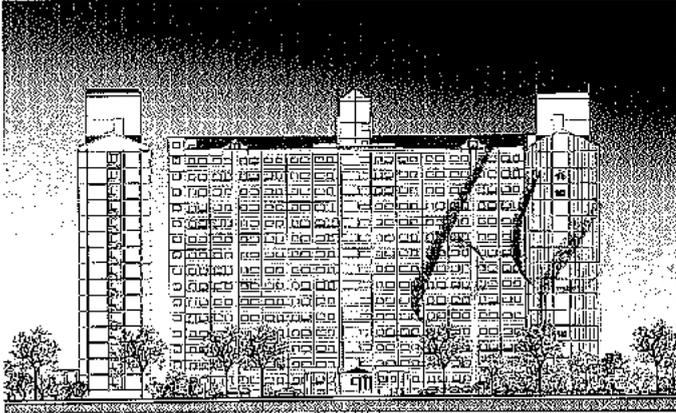
- 일자형과 타워형의 도입으로 획일적인 주동배치의 단조로움 극복하고
- 생활권역별 다양한 지붕형태의 변화(박공)로 입면성향상과 색채계획으로 단지의 지역성을 부여
- 입면에서는 외벽조립식 판넬 및 축벽 문양처리와 매스의 분절 및 타워형의 사선 건물 배치축에

의한 음영대비 효과를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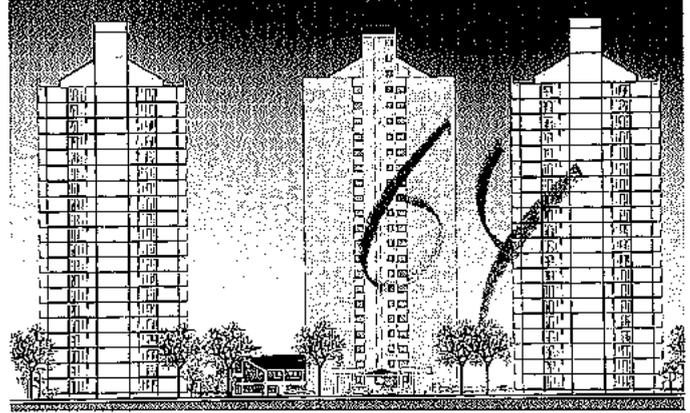
- 소규모 단위세대의 집합에서 오는 외관의 단조로움과 지루한 입면을 탈피하고 단순하면서도 변화있는 반복회음을 디자인 요소로 채택
- 외관형태변화를 위하여 코어의 수직선으로 전체 균형을 잡고 발코니 등의 형태를 일정한 층마다 변화를 주어 전체 조화와 율동미의 입면 추구
-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소형주택의 기변성과

유통성을 고려한 전면폭(Frontage)×깊이(Depth)의 척도조정을 통해 2모듈을 사용하여 새로운 평면유형을 제시하며 평면의 유통성 및 선택성 부여(2LDK, 3DK, 2DK)

- 단위세대는 안목치수 설계 기법을 도입하여 자재, 공기, 공비의 절감 및 유지보수의 원활화를 기하고 설계의 표준화에 기여



입면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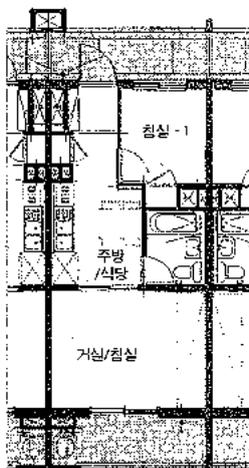
입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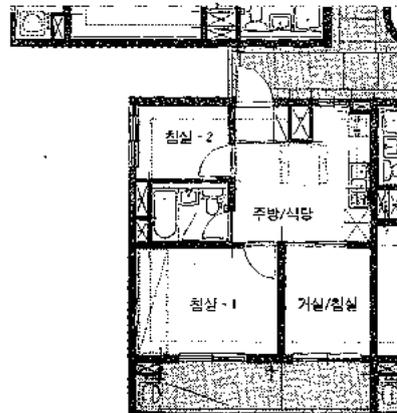
중앙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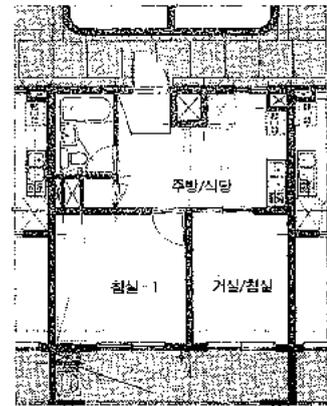
주진입로에서 본 전경



16평형



18평형(A형)



18평형(B형)

단위세대 평면도

건축사 9610 61

12

신내지구 9단지 아파트

Apartment Complex in Shinae District

설계 / 최두호+한남수+최기철(토운건축사사무소)

시공 / 진흥기업(주)



전경

계획의 방향

- 소형주거의 기능적 구성
- 생활패턴의 변화에 적합한 공간구성 (LDK, DK, LK 등 적절한 구성)
- 층고 변화에 의한 단순 Mass의 단조로운 탈피
- 저층부 피로티 공간의 도입으로 시각적 단절을 피하고 피로티 공간은 주민들의 Community공간으로 계획

주동 계획

- 조망감/스카이라인/일조 등의 조건고려
- 저·고층 주거형태 및 스케일의 분절로 과대 Mass의 거부감 약화
- 1층에 피로티공간을 계획하여 개방감 및 이삿짐 적재공간의 확보와 휴게실 설치로 주민들간의 친화력 증진과 Community형성을 도모

입면 계획

- 식별성/통일성/다양성부여
- 디자인의 미적감각 요소부여
- 발코니의 형태변화
- 지붕선의 변화
- 스케일의 분절/수직·수평적 분절
- 현관출입구, 축세대 발코니 등

단위주거계획

- 기본적 거주성 보장
- 소형주택의 개방성/융통성을 고려한 평면구성
- 수납공간 최대확보
- 실내공간의 효율적 이용
- 욕실내 세탁공간 확보
- 거실 발코니폭 확대
- 유지관리비의 최소화
- 구조 및 설비 System의 합리화 집약화

- 화물겸용 승강기 설치로 곤도라 설치배제

Core

- 기능성
- 각 주호로의 접근성
- 주동내의 수직적 수평동선의 연계성
- 주동의 형태에 따른 주동간 연결성
- 효율성
- 공용면적 최소화
- 주동내 커뮤니티 장소
- Service공간의 역할

지하주차장

- 각동 중앙에 설치
- 지상부 녹지공간 증대
- 장래 주차수요 대비
- 램프를 통한 진입
- 내부 환기 덕트 설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9단지
 대지면적 / 49,641.00㎡
 건축면적 / 9,470.67㎡
 연면적 / 105,709.26㎡
 건폐율 / 19.08%
 용적률 / 183.09%
 녹지율 / 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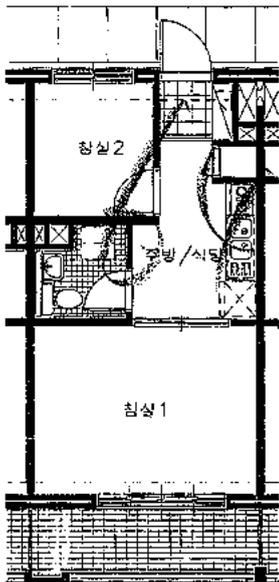
주차대수 / 739대
 건설호수 / 총계 - 1,650세대
 근로복지 - 1,315세대
 임대 - 335세대
 건축주 /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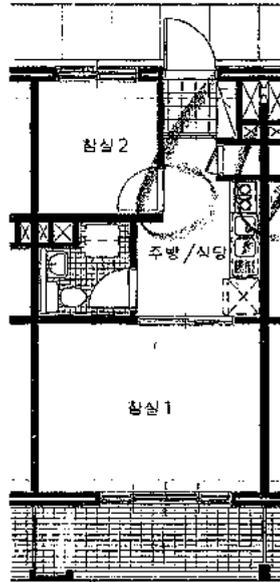
외벽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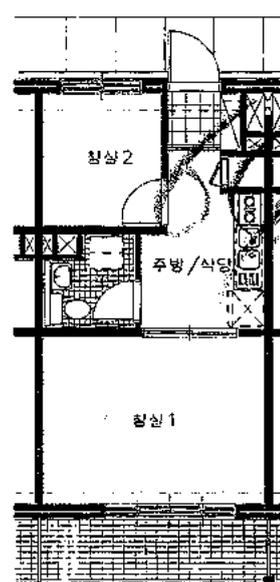
중앙휴게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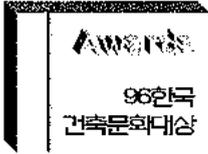
10평형



12평형



15평형(일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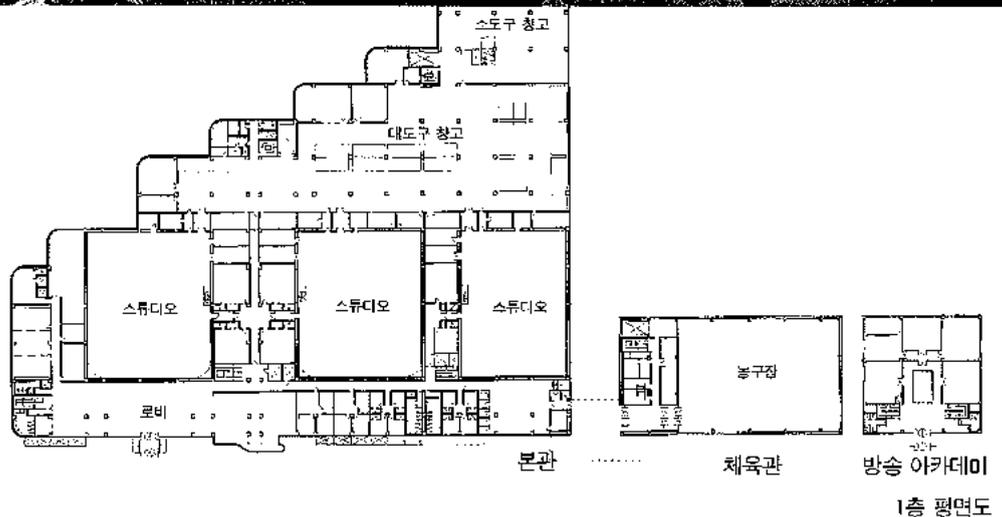
SBS 탄현제작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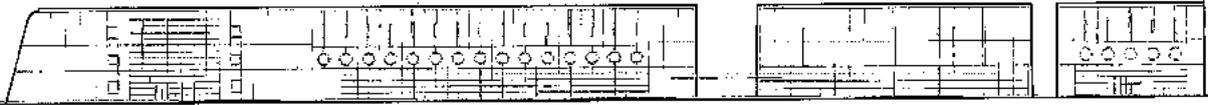
SBS Tanhyon Drama Studio

설계 / 감석철(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시공 / (주) 태영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 산 79-1와 32필지
 규모 / 연면적 - 34,090.57㎡, 지상 - 26,936.12㎡
 지하 - 7,154.45㎡, 건축면적 - 10,743.11㎡
 건폐율 - 11.53%, 용적률 - 332.43%
 층수 - 지하층, 지상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주요외장재 / GRC, ALC+테라코타패널
 공사기간 / 1992. 6~1995. 11
 건축주 / SBS
 시공자 / (주)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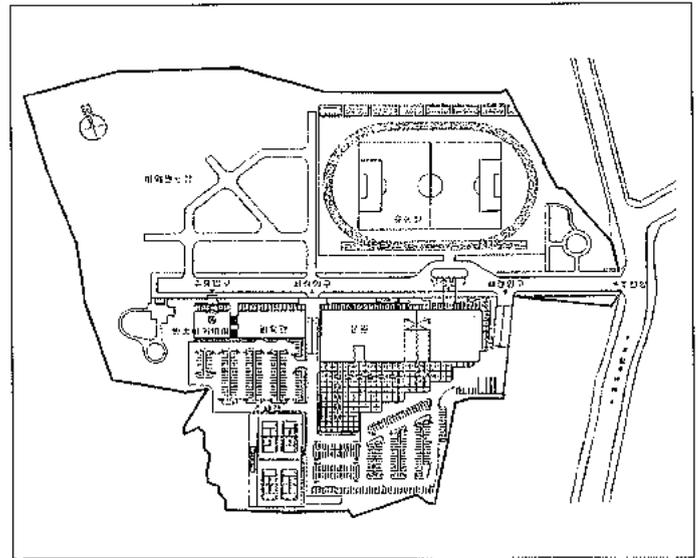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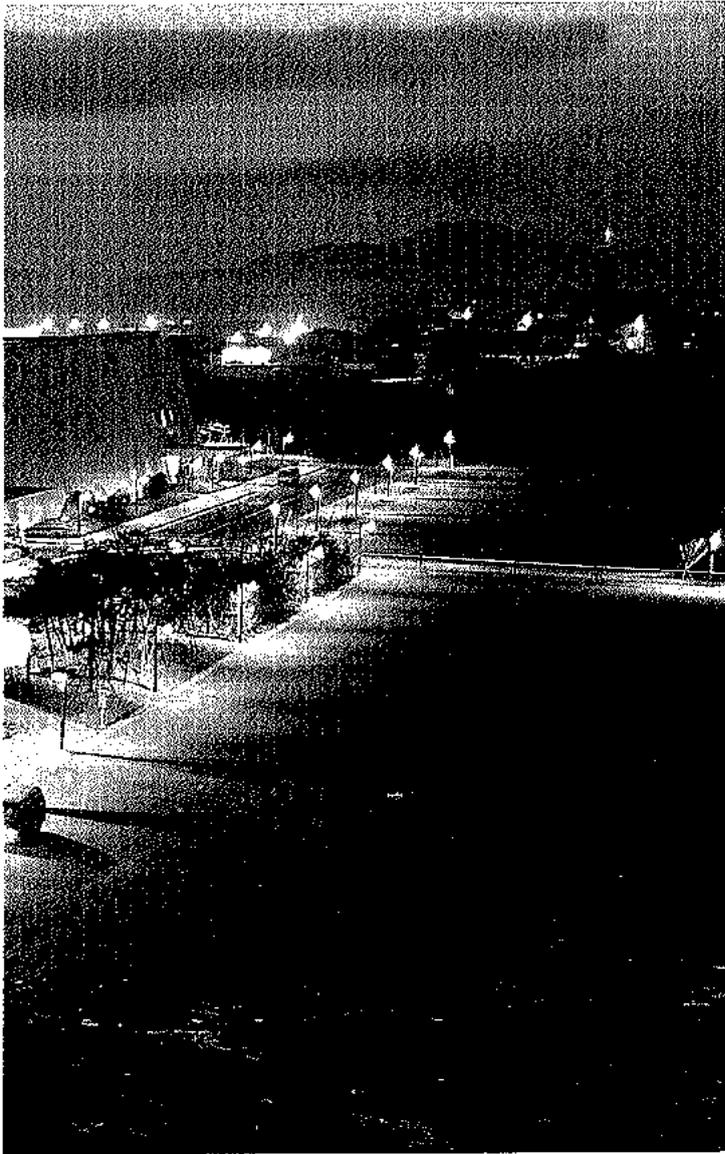
전체 입면도



로비



배치도



야경

토지이용

전체 토지를 3분하여 생각한다.

주 진입로의 남측 삼각 구역과 북측 정방형구역과 서측구역으로 큰 틀을 생각한다. 남측이 낮고 접근로가 동측에서 서측으로 이어서 남측 주차장과 제작장을 두어 동일 레벨에서의 물류이동을 시도하고 사람의 접근을 전면 광장으로부터 이어진다.

건축

충분히 개량되고 조정된 최적의 메카니즘 속에 드라마를 만드는 드라마틱한 공간을 연출한다.

기술공간, 주공간인 세트스튜디오를 방음벽으로 차단하여 병렬하고 방음벽으로 차단된 세 스튜디오 사이에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과 장치가 준비되고 후면 한층 낮은 옥외 주차장에 기계화된 저장공간을 가진 Set제작장과 창고를 둔다.

동측코너에서 자동차는 한층아래 후면주차장 제작장 레벨로 진입 성벽개념의 서측벽위에는 농구코트와 방송아카데미가 있다.

기술

스튜디오에 각각의 기술관련 시설을 접속시켜 드라마를 만드는 독자적인 '공장' 처럼 설계하였

며, 세트장의 운반저장을 쉽게 하기 위하여 리프트랙시스템을 도입했다.

설비

냉·난방과 관련된 기계실은 '사람들의 공간' 아랫부분에 집약시켰으며 스튜디오가 기계실이 발생시키는 소음과 진동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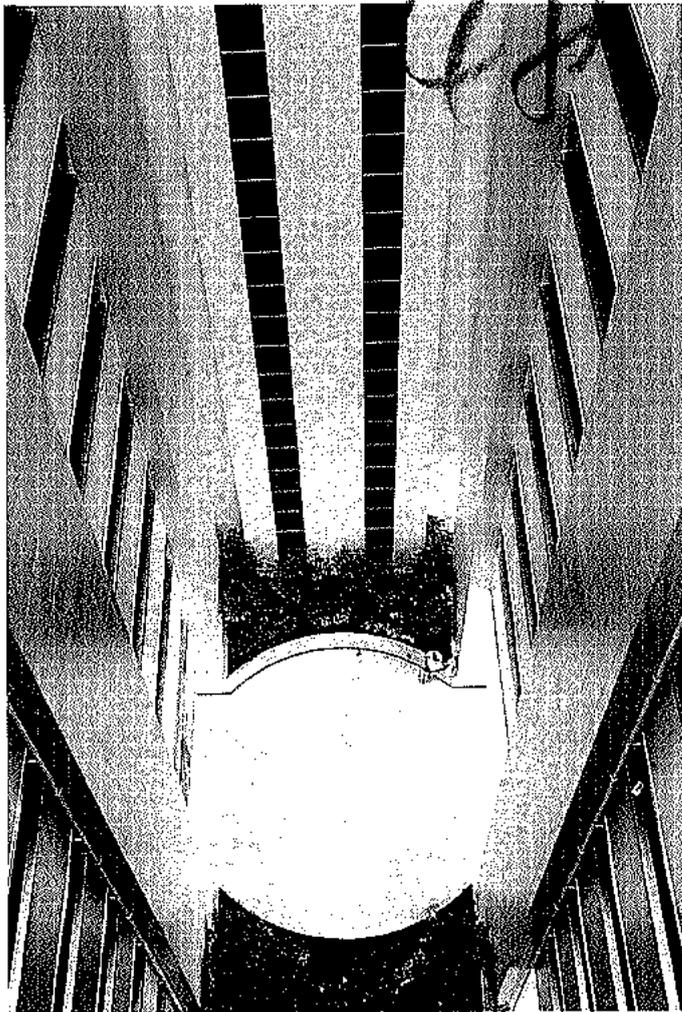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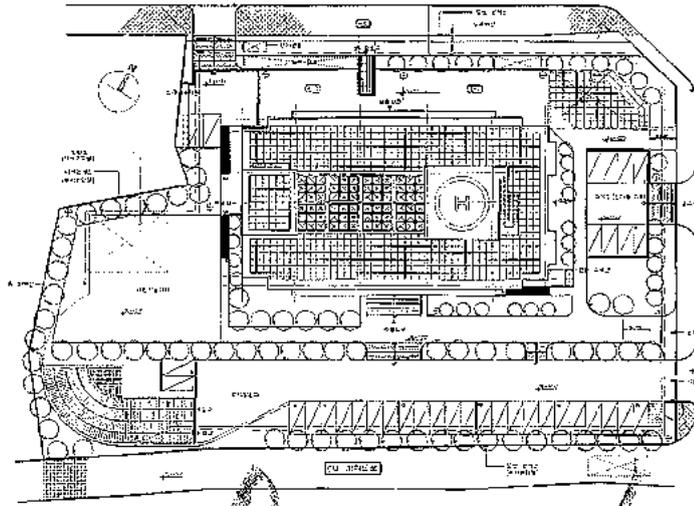
포스코 철골조 아파트

POSCO Apartment in Steel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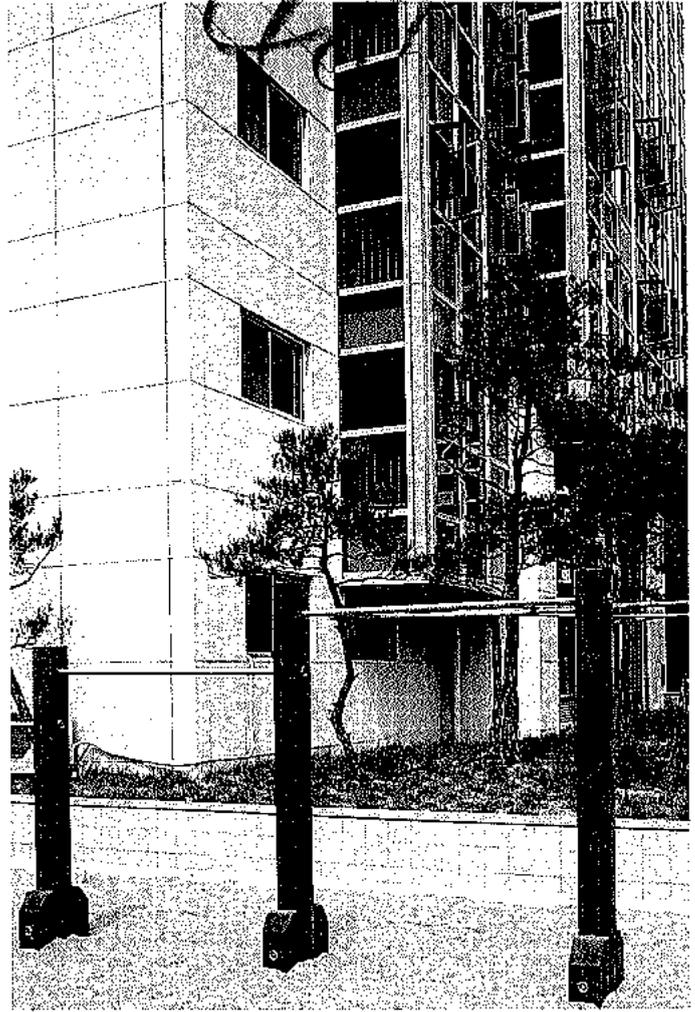
설계 / 심인보(POS-AC종합김리/건축사사무소)
시공 / 포스코개발(주)



전경



위에서 내려다 본 오픈된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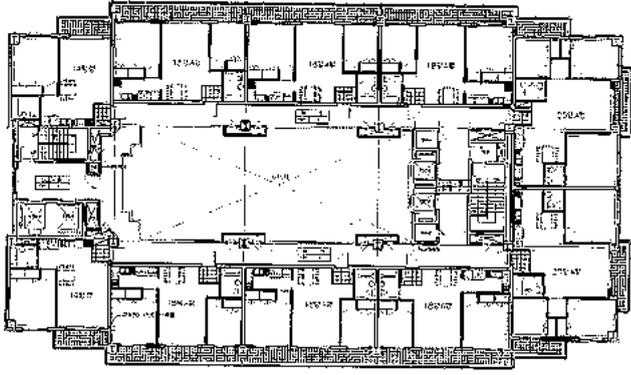


측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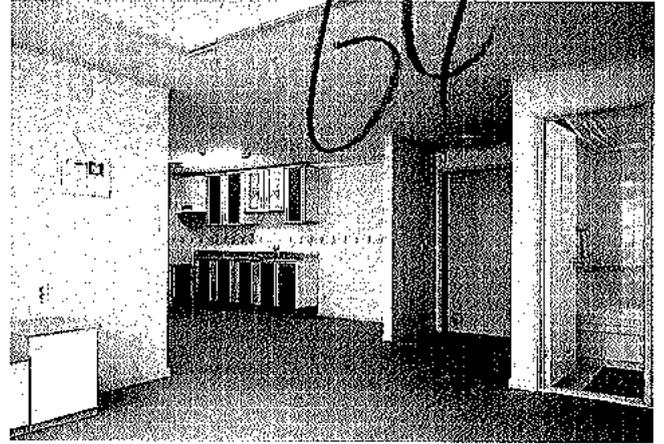
위치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461-2번지
 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시설등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장비 및 2종 미만지구
 대지면적 / 5,064.9㎡(1,532평)
 건축면적 / 1,160.3㎡(351평)
 연면적 / 27,485㎡(8,314평)
 건폐율 / 22.91%
 용적률 / 306.17%

조경면적 / 1,757.09㎡
 규모 / Tower형 1개동/지상25층, 지하2층
 세대수 / 200세대
 - 39평형(전용면적25평) : 90세대
 - 28평형(전용면적 18평) : 86세대
 - 23평형(전용면적 14평) : 24세대
 구조 /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층고 / -저층부 기준층 : 3.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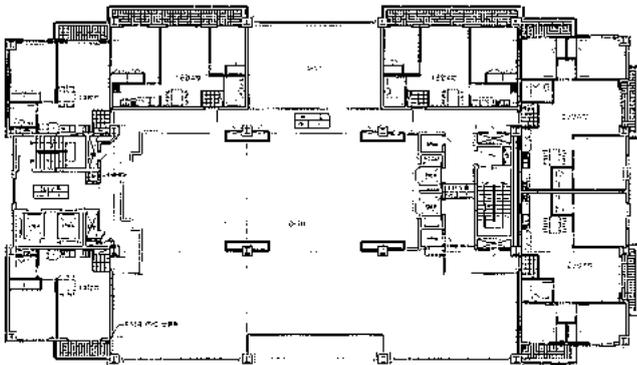
- Super Frame층 : 3.2m
 - Super 중건층 : 2.9m
 최고높이 / 80.95m
 엘리베이터 / 4대
 주차대수 / 216대(복외 32대, 복내 184대)
 건축주 / (주)포항제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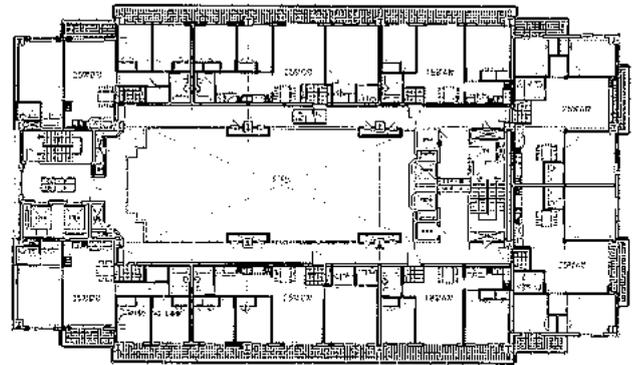
3~10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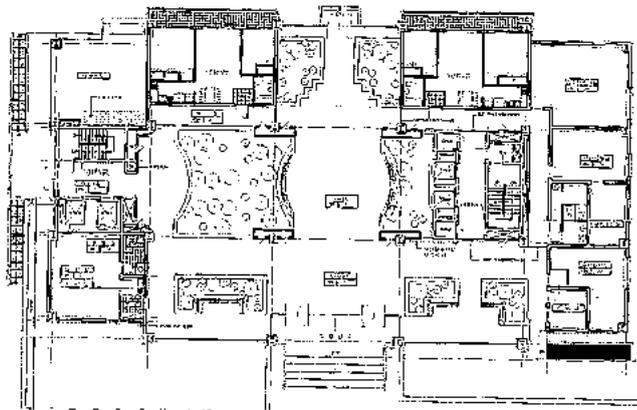
실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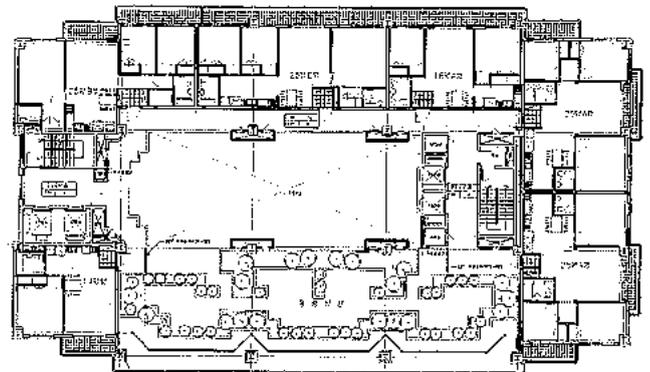
2층 평면도



3~2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11층 평면도

이 Project는 포항제철 우주택 사원의 복리를 위하여 사원임대 아파트로 건립되었으며 국내 최초 철골조 아파트로서 도심지내 공동주택의 새로운 주거유형 제시를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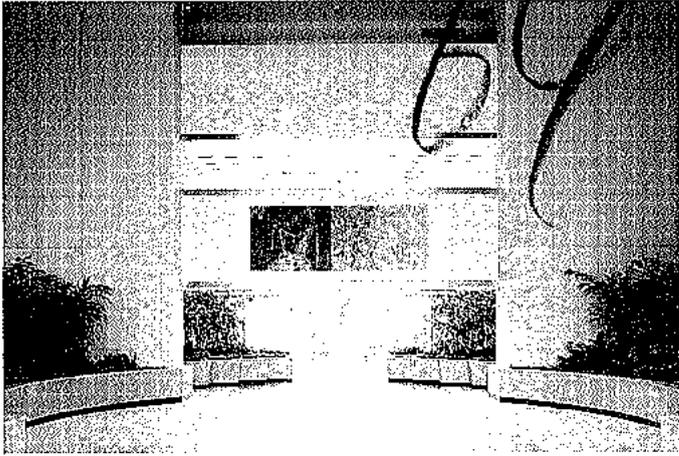
공동주택을 철골조로 계획하여 달리는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철골조 도입의 당위성과 계획의 융통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개념 정립이 우선이었다.

초고층 아파트의 철골구조 도입은 구조의 안전성, 공기단축,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등을 통한 철골조 고층주거 건축의 일반화를 위한 초석으로서 그 당위성이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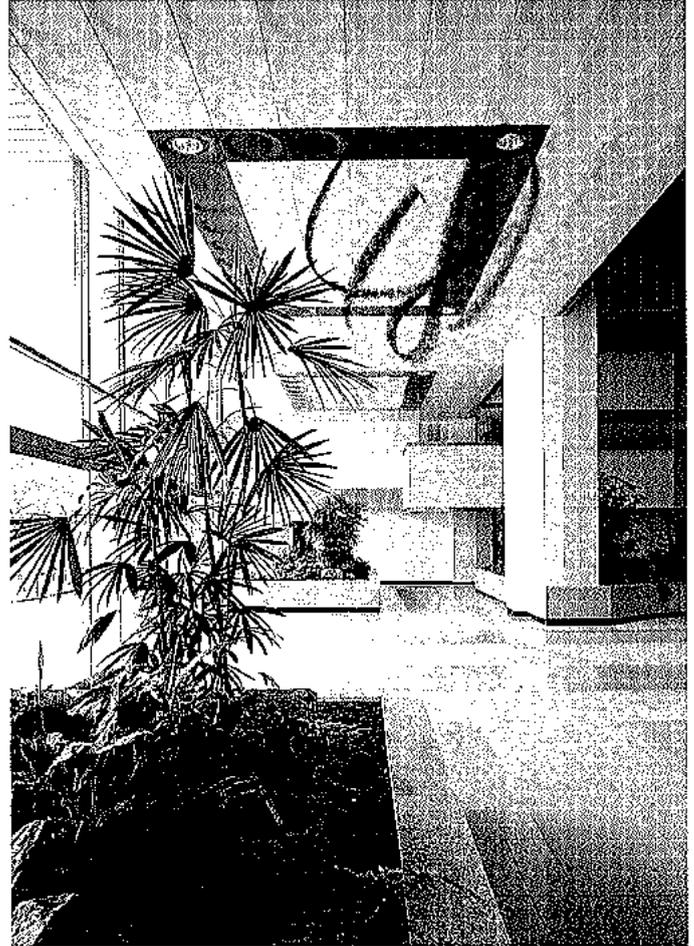
입주자들의 특성에 따른 Life Cycle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공간의 가변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평면계획, 사회변화에 따른 시대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시스템 적용, 각종 설비의 노후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단면계획등은 건축물에 연장된 생명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가변성을 전제로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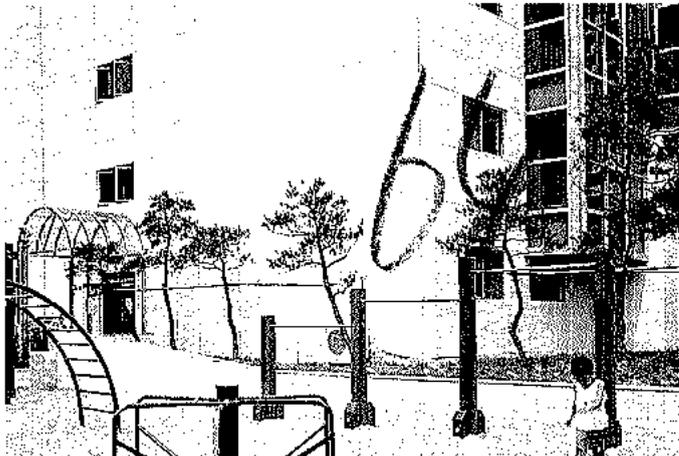
또한 Glass커튼월 도입으로 철골조 아파트로서의 Image표현, 1층 로비와 11층 공중정원 배치로 입주자 상호간의 Community를 연결하는 Public Space는 입주자의 주거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포스코 철골조 아파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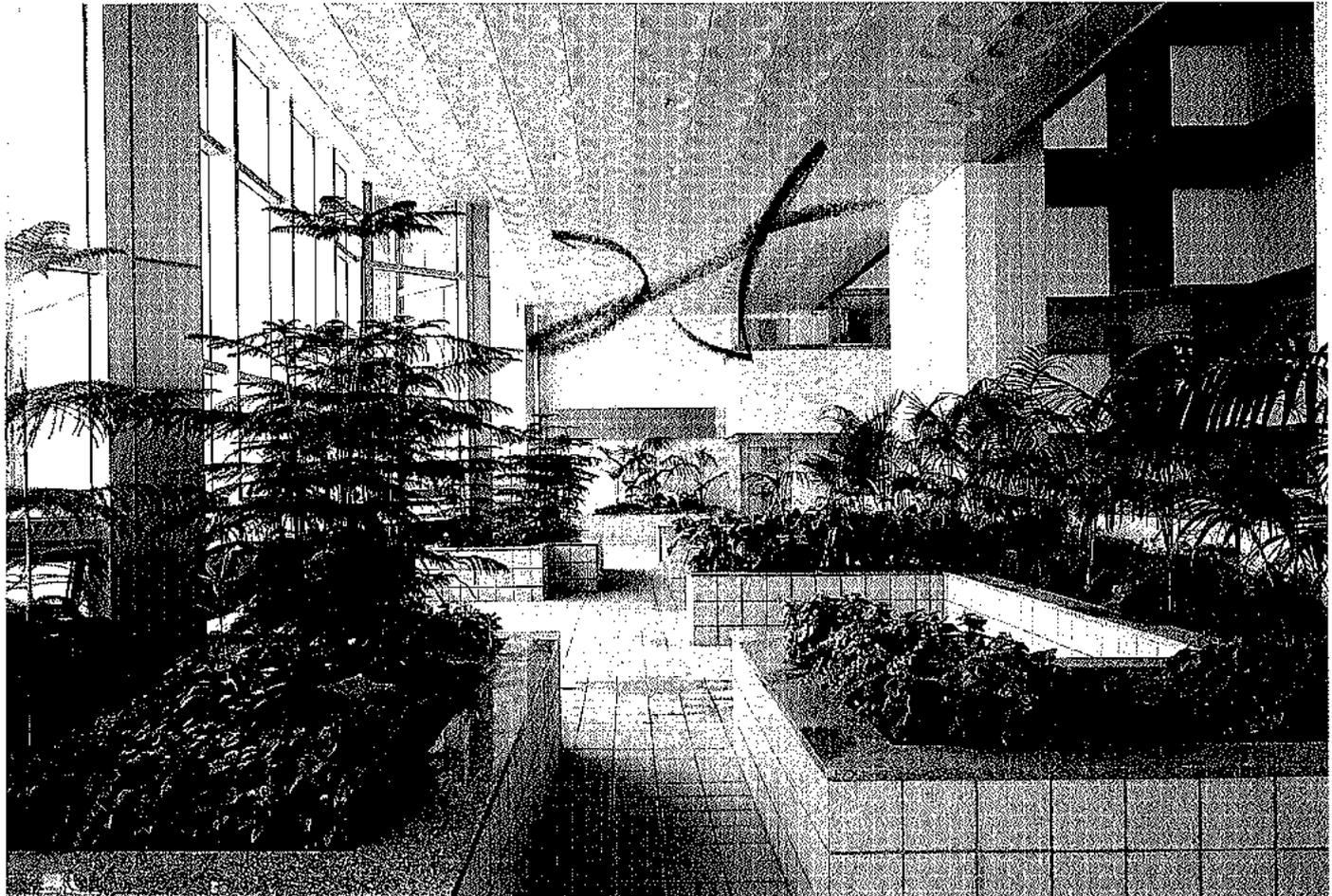
로비에서 주출입구쪽을 바라본 모습



로비



놀이터에서 본 외벽상세



AD

흔적

이진수+김현숙 / 건국대 건축공학과

대지의 설정

가회동 지역의 경우 1991년 한옥보존 지구 해제 이후 많은 재개발이 이루어졌고 현재 있어서는 기존의 한옥들과 재개발 되어진 근대 건축물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직 과거의 모습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계획시 필연적으로 훼손이라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나, 이미 이 지역에서의 보존은 대부분의 경우 지붕안을 남겨둔 채 실질적인 생활공간은 이미 개조되어 보존으로서의 당위성이 약하며 과거의 보존이라는 것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전통의 계승과 맞물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려 한다.

기존 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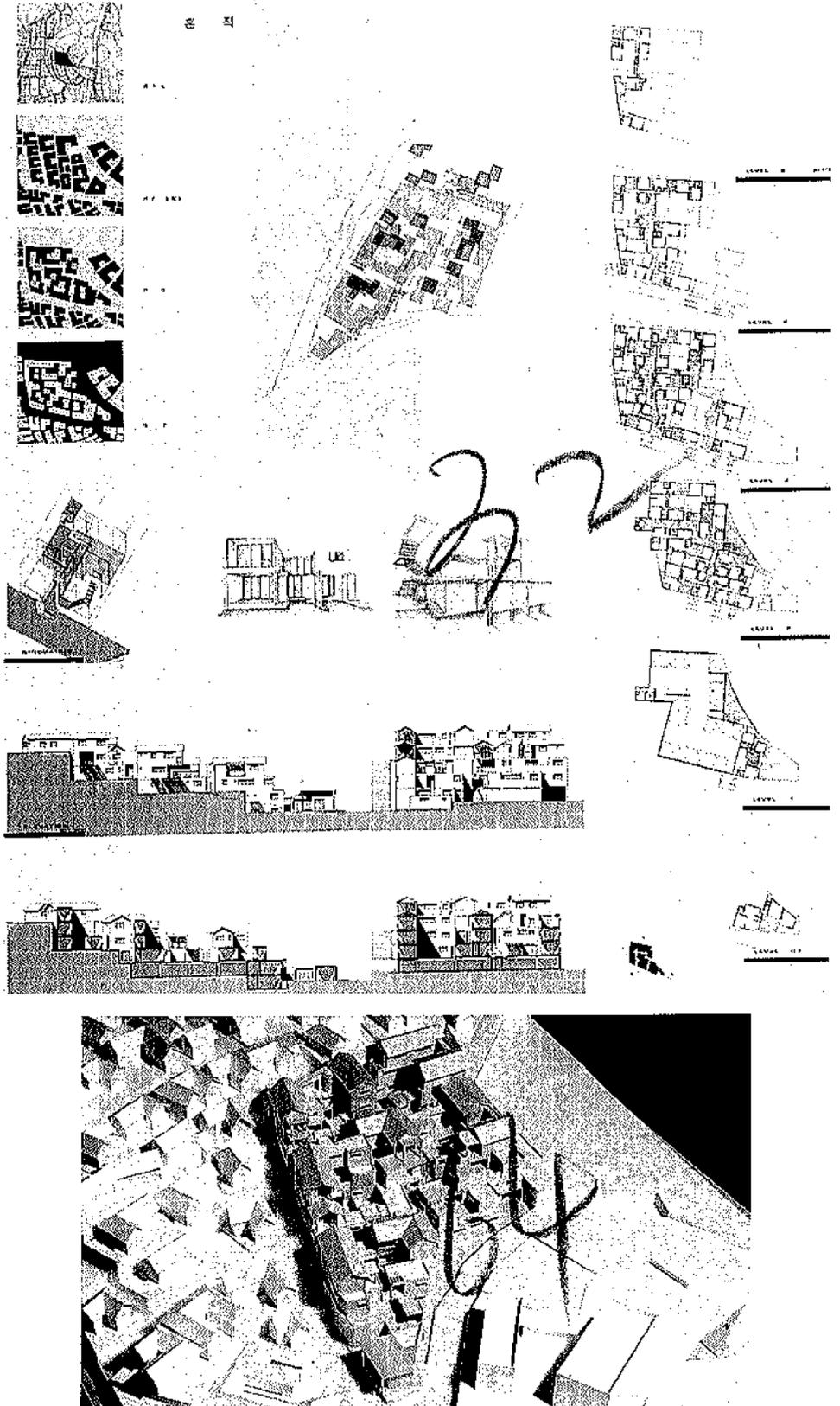
현재 가회동 지역의 다른 지역과 다른 특이점이라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어진 골목길들과 그 위에 조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도시형 한옥군의 집합과 마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 중 골과 마당 필지의 규모 등을 기존 도시의 하부 구조로 설정하고 이를 계획시 변형 보존 시키도록 한다. 이것은 기존의 공간 구성 체계에 대한 보존이며 현재 살고 있는 주변들의 생활형태에 대한 보존이라 할 수 있다.

세대수 설정 및 규모 설정

기존 14세대를 모두 수용하며 여기에 임대주호를 추가하는 형식을 취한다. 기존 세대들은 기존의 위치와 진입의 형태등을 유지하도록 하여주며 복층화가 가능한 부분을 2층을 임대공간으로 계획하고, 필요시 자가사용이외 개별적으로 4세대의 임대 주호를 추가로 계획 중세대수는 18세대이며, 가변적으로 임대가능한 세대수는 6세대를 추가하면 총 수요 가능 세대수는 24세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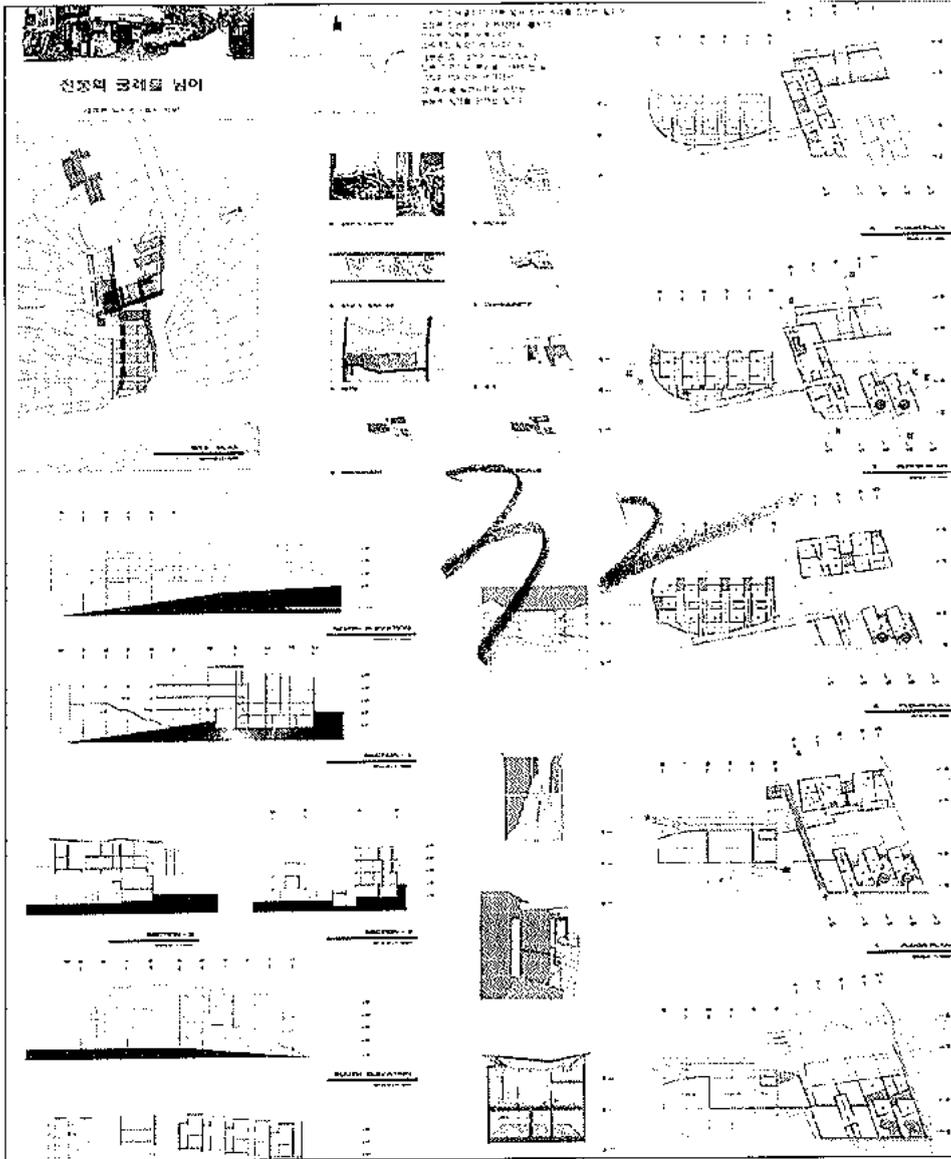
결언

가회동 지역은 기존 복촌 마을이라는 Image와 주민들의 자긍심 또한 상당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즉,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개발 필요성이라는 점을 어떤 형태로 풀어내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새로이 계획할 것인가의 선택이 중요한 사항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전통의 골레를 넘어서

김종문+한상범 / 엑토건축사사무소



서울의 대표적 한옥 보존 지역이었던 북촌 마을 일대가 한옥 보존 지역 해제라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변하여 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기존 한옥 주거지가 가지고 있던 도시 하부 조직들이 침투하는 새로운 도시 체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옥 거주지의 특성을 유지시키는 적절한 방법은 새로운 도시 조직 체계의 하부 조직 위에 한옥 거주지의 특성을 구축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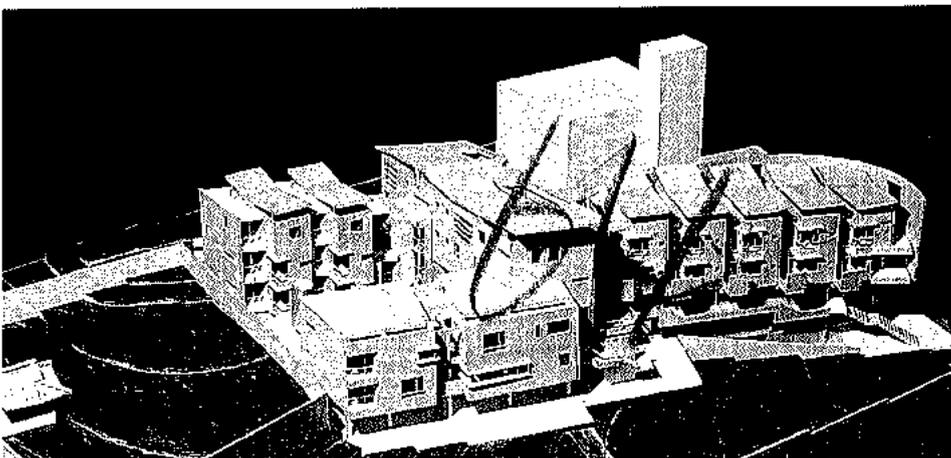
새로운 도시 조직 체계 내에서, 계동의 주된 도로와 계동과 기회동을 잇는 부도로 사이에 놓인 대지의 잠재적 요구는 상업적 기능을 포함하는 주거 구성과 용적의 극대화에 따른 수직적 구성 이에 따른 스케일의 확대 등이다.

따라서, 주된 도로의 도시적 스케일과 상업적 요구, 주민 근린 생활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전면에 근린 생활 시설과 주민 편의 시설을 포함하는 구성을 취했으며 이에 따라 확대된 스케일로 인하여 주변 소도로들이 골목의 특성을 상실하는 것을 고려하고, 도로와의 대응 전체 주민과의 친밀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주거 순환 체계를 부도로에 대응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것이 또한 공동 주거 자체 내의 골목적 역할이 가능하도록 의도하였으며, 이와 같은 구성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개인생활의 침해는 전면 벽이 주거의 영역성을 확보하는 벽의 역할로 치환시킴으로서 극복하고자 하였다.

대지 후면 구성은 후면의 문화재급 한옥에 대해 열린 형태를 취함으로써 북촌마을의 정체성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Open Space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의도였으며, 대지의 전면과 후면 사이의 각기 다른 특성에 의하여 양분되는 형태 사이의 이원감을 내부순환 체계의 상호관입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또한 각지의 주호를 수직적 구성 체계속에서 열려진 개별 영역은 공간을 갖게함으로써 도시·공동체·개별주호에 이르는 일련의 공간적 연속성을 갖도록 구성하였다.



청담(淸談)

천 보 / 홍익대 대학원
김태연 / 홍익대 건축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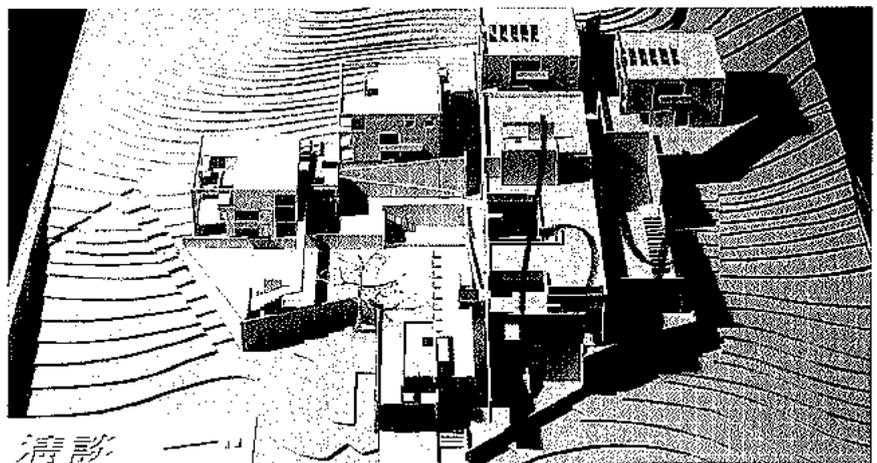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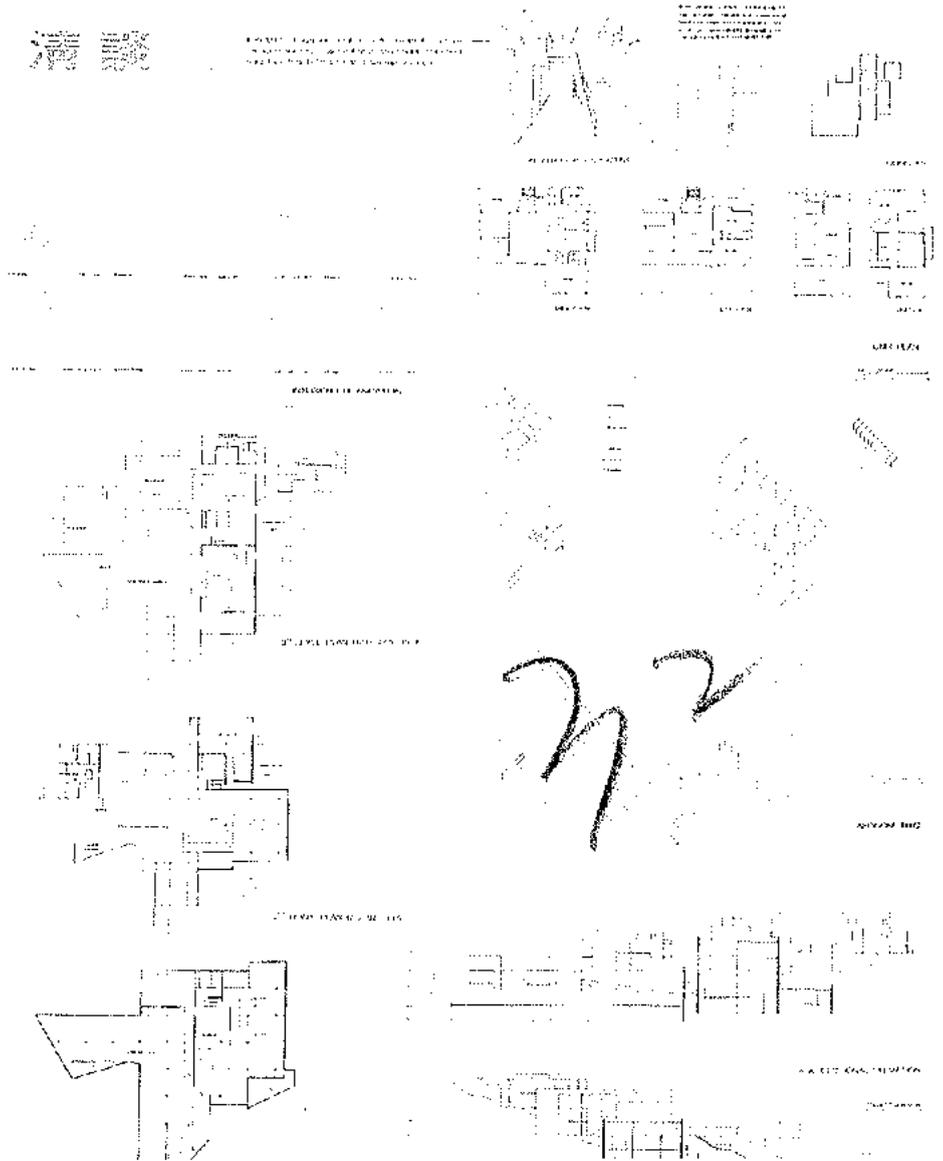
청담(淸談)

동구의 정자나무. 그 그들의 淸談은 시비를 가리기도 했고, 마을에서 생기는 모든 일이 거쳐 나간다.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은 변해 가지만, 정자나무 아래에는 언제나 아이들의 숨결이 있고, 장년의 이상이 있으며, 할아버지들의 세월이 머물러 있다.

위치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번지 일대
세대수 / 12세대
세대구성 / 3세대 동거형 4가구
 일반 주거형 4가구
 Duplex 4가구

개념

배치의 기본 형태는 L-Shape의 남동쪽에 중점을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기본 모듈은 ABABA Grid를 적용해 2.5M Human Scale의 골목길 형태인 외적 요소와 7.5M Span의 건물 내부의 동선 체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벽의 이미지를 깨보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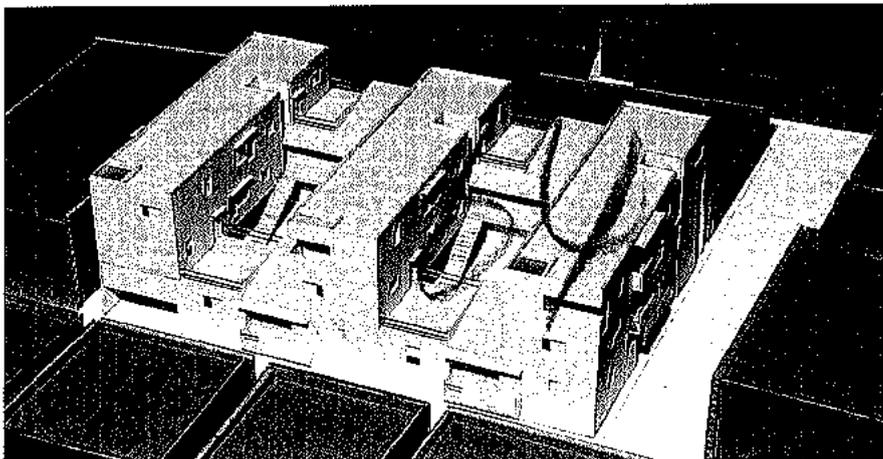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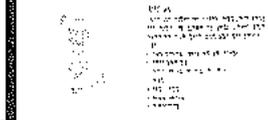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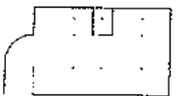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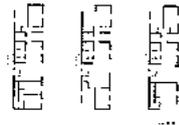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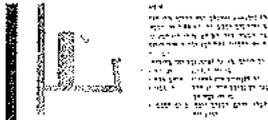


부분에서 전체로

정준화+김종원 / 현양대 건축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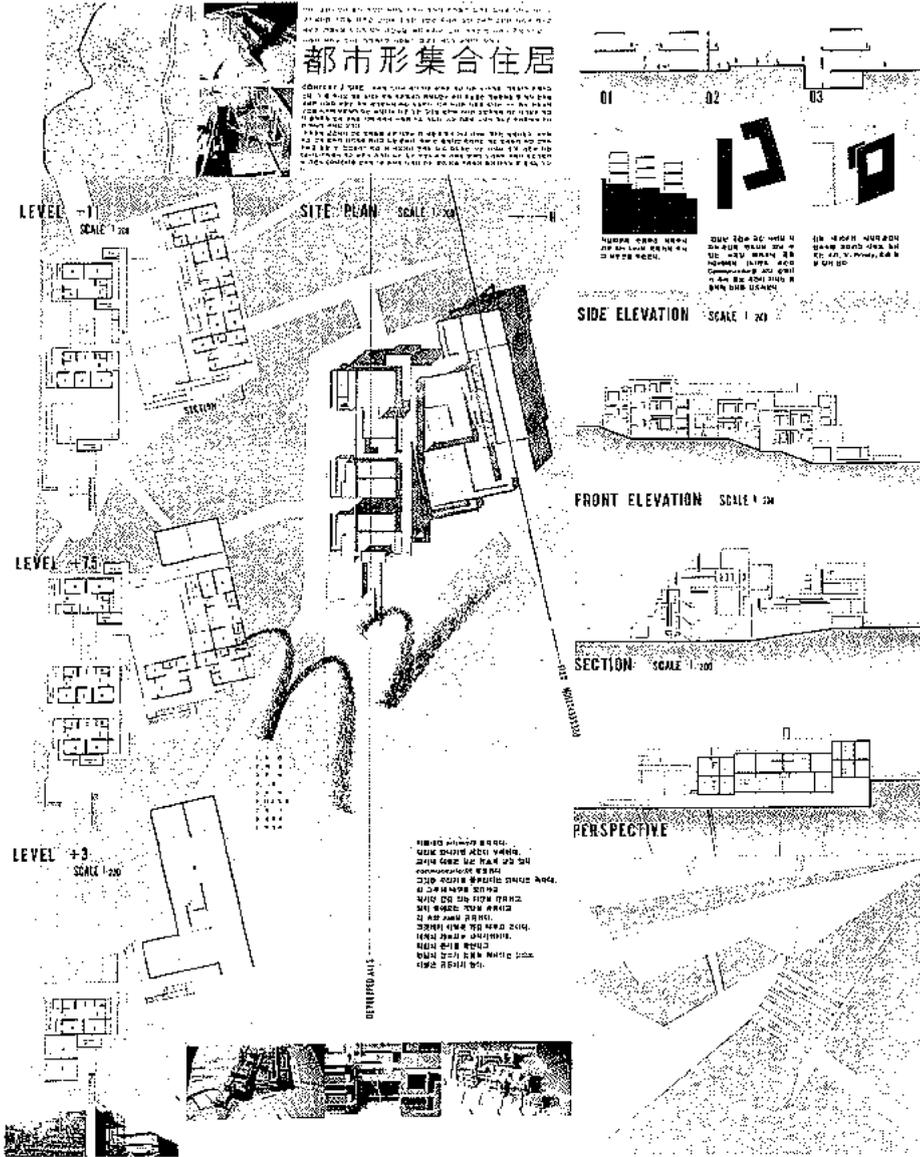
이러한 전통적인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주거 형태를 창조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Site선정을 위해 가회동 일대를 답사하면서 느낀점은 한옥보존지역이었던 이곳의 흔적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흔히 우리가 보아온 주택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첫인상이었다. 특히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집장사집들이 내부 깊숙히까지 확산되고 있었는데 도시형 한옥의 독특한 구조와 색채 등이 없어지고 붉은 벽들의 3~4층의 다세대주택이 즐비했다. 한옥은 도시에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변형을 겪게 되는데 이것들이 바로 도시형한옥의 특징이 된다. 그것은 첫째, 도시속에서 공간확보를 위해 외벽이 대지의 경계선화되고 내향적인 중정형의 구조를 갖게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첫번째의 원인과 동시에 정방형의 대지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각 세대에 도달하기위해 다양한 Scale의 길과 막다른 골목이라는 독특한 도시구조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가회동일대는 보존지역의 해제로 극심한 변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도시형한옥이 더 이상 현재의 삶에 적용할 수 없어서, 혹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건축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이든 이러한 변화를 조금이나마 가회동 일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려 계승해보고자 한다. 먼저 길이면서 바로 주위의 몇몇세대의 중사적 공간으로 작용하는 막다른 골목이다. 이를 공동주택의 내부로 끌어들이면서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모아주는, 다양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을 수용하여 중심적인 장소로 만들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위층으로 갈수록 두 개의 중정공간으로 분절하고 두방향의 Mass로 구분하면서 상층으로 갈수록 Privacy는 강화되고 하층으로는 공공의 역할이 증가한다. 두번째로 내향적이었던 한옥의 구조를 개구부의 방향과 높이로 외향적인 구조로 바꾸면서 상층부는 남향의 기존 거주자를 위한 세대로 설정하고 미당역할의 테라스, 적절한 세대간의 거리로 Privacy확보, 통풍, 일조 등의 Advantage를 제공하고자 했다. 기존 거주자의 재입주는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의 보존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하층부는 새로운 세입자를 위한 세대로 One-room과 2RDK를 기본으로 가변을 가능한 내부공간으로 구성했다.

도시형 집합주거

김민성 / 부경대 건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내부에는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이건간에 어떤 하나의 공간문화가 존재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취락들 속에서 개개의 주거들은 일관된 질서를 가지고 하나의 유기체처럼 군집을 이루고 있으나, 급격한 개발로 우리가 살던 정서적 고향은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건물들이 도심속 모든 공간들을 채워 버리고 있다. 그것은 먼 과거의 추억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도시는 삭막해져 가고 사람들의 얼굴에 여유가 없어진지 오래다.

Context / Site

북촌에 있어서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닌 작은 도시(계동, 가회동)가 존재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계동 일대는 한옥 보존지구가 해제되면서부터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몇채의 한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재개발되어 버린 상황이다. 다른 하나인 가회동 일대는 어느정도 한옥들이 군집을 이루며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곳 또한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상업주의에 의한 재개발로 예전의 흔적조차 없이 우리들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곳 가회동 일대의 개발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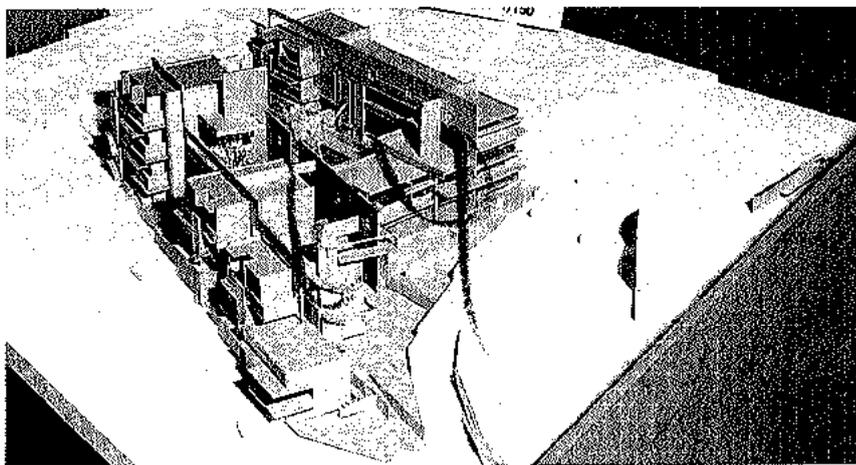
가회동의 군집되어 있는 한옥들을 보면 내부는 현 생활에 맞게 거의 대부분 개조된 상태이었고, 외부형태는 전통 한옥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속이 빈 껍데기만 존재하는 이런 한옥들이 과연 전통주거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전통을 다시 되찾자는 것은 아니다.

단지 기존의 이런 Context속에서 과연 보존의 가치가 있는것이 무엇이며 이 가치를 현재의 도시맥락 속에서 보존개발하여 기존의 Context를 연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일 것이다.

- 인접된 공간과 공간 사이의 시각적·공간적 연속성을 지닐 수 있는 T자형 배치로써 공중 Road에서 건너편과 층간의 Communication을 보다 강화시켜 주며 중심공간이 가지는 공동체적 의미를 강조하였다.

- 건물 내·외부의 시각적·공간적 연속성을 조절하고 내부로 들어오는 공기, 빛 Privacy, 소음 등을 걸러 낸다.



삶의 연속성을 찾아

정민영 / 코아건축사사무소

이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주거문화를 이루고 있는가?

대량생산 속에서 수요층에만 급급하여 만들어진 주거환경을 우리의 주거양식이라 할 수 있을까?

획일화된 주거문화 속에서 사람들 또한 자기만을 아는 사회로 변모해가는 것 같다. 하지만 이곳 북촌마을은 도시의 현대화 속에서도 우리의 풍토와 습성이 존재하는 마을로 존재해 왔다.

이제 이지역의 개발 시점에서 나는 우리의 습성과 정서가 배여있는 북촌마을을 현대화 시키므로 우리의 도시주거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촌마을의 법적인 제약조건중 높이제한 규정이 있다. 건축물 높이를 적정하게 조절하여 기존마을의 골목길에서 느껴질 수 있는 인간적인 스케일을 확보했으며, 주어진 건폐율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나게 유지하여 기존의 한옥과 조화될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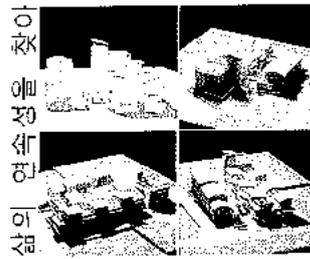
주차장은 지하층에 확보하여 지상의 공간을 마을주민을 위한 공간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과 동사이에 발생하는 길은 가벽 등을 사용하여 변화의 요소로 작용하며 적정위치에 휴게공간으로 활용했다.

지하층은 최대한 개발하여 주차장과 함께 근린생활을 두어 사업성을 갖을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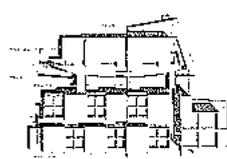
세대별 단위평형은 단층형, 복층형을 두어 평면의 다양성을 주었으며 단위세대마다 마당을 두어 공적공간(길)사적인 공간사이의 매개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새로이 설계되는 주거공간은 기존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며 현대화된 도시주거의 모습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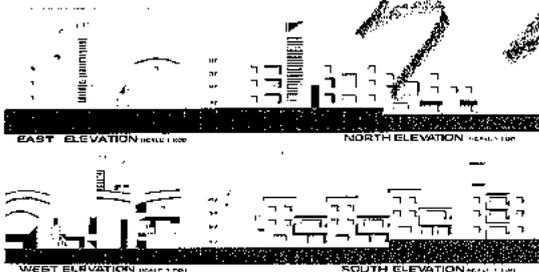


이
차
이
생
이
생
이
생

고층을 제외한 (중) 저층에 밀집을 보인다.
북촌마을 특유의 분위기를 잃고 내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세대의 주거문화와 환경을 바탕으로 저기와의 감이전해 표현이와 일것이다.
새로운 주거공간 역시 그와 삶의 연속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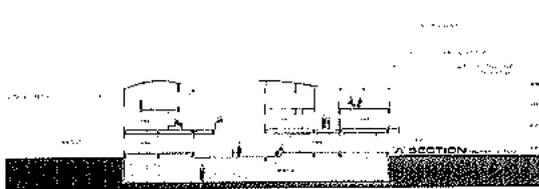


SITE PLAN SCALE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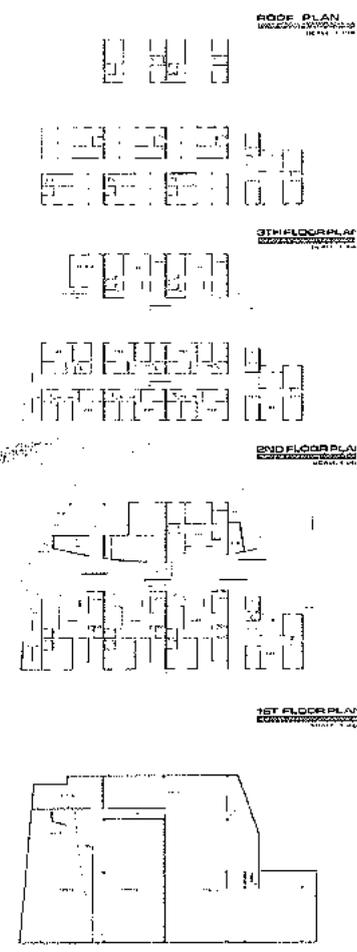


EAST ELEVATION SCALE 1:500 NORTH ELEVATION SCALE 1:500

WEST ELEVATION SCALE 1:500 SOUTH ELEVATION SCALE 1:500



CROSS SECTION SCALE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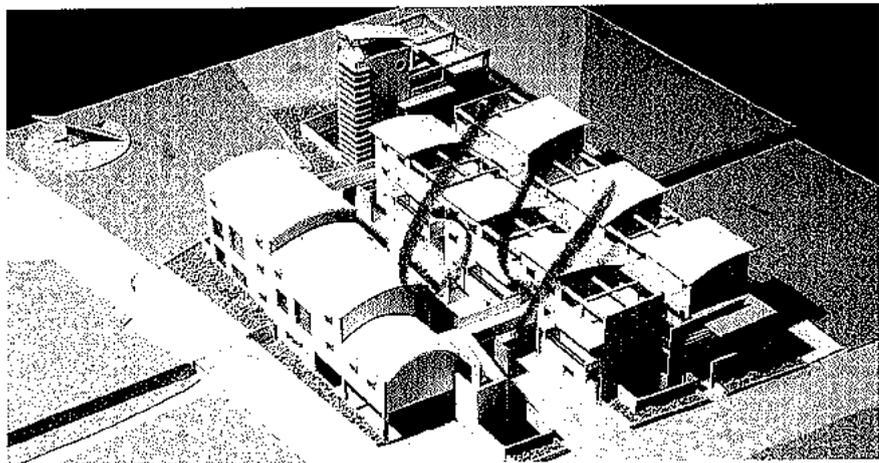


ROOF PLAN SCALE 1:500

0TH FLOOR PLAN SCALE 1:500

2ND FLOOR PLAN SCALE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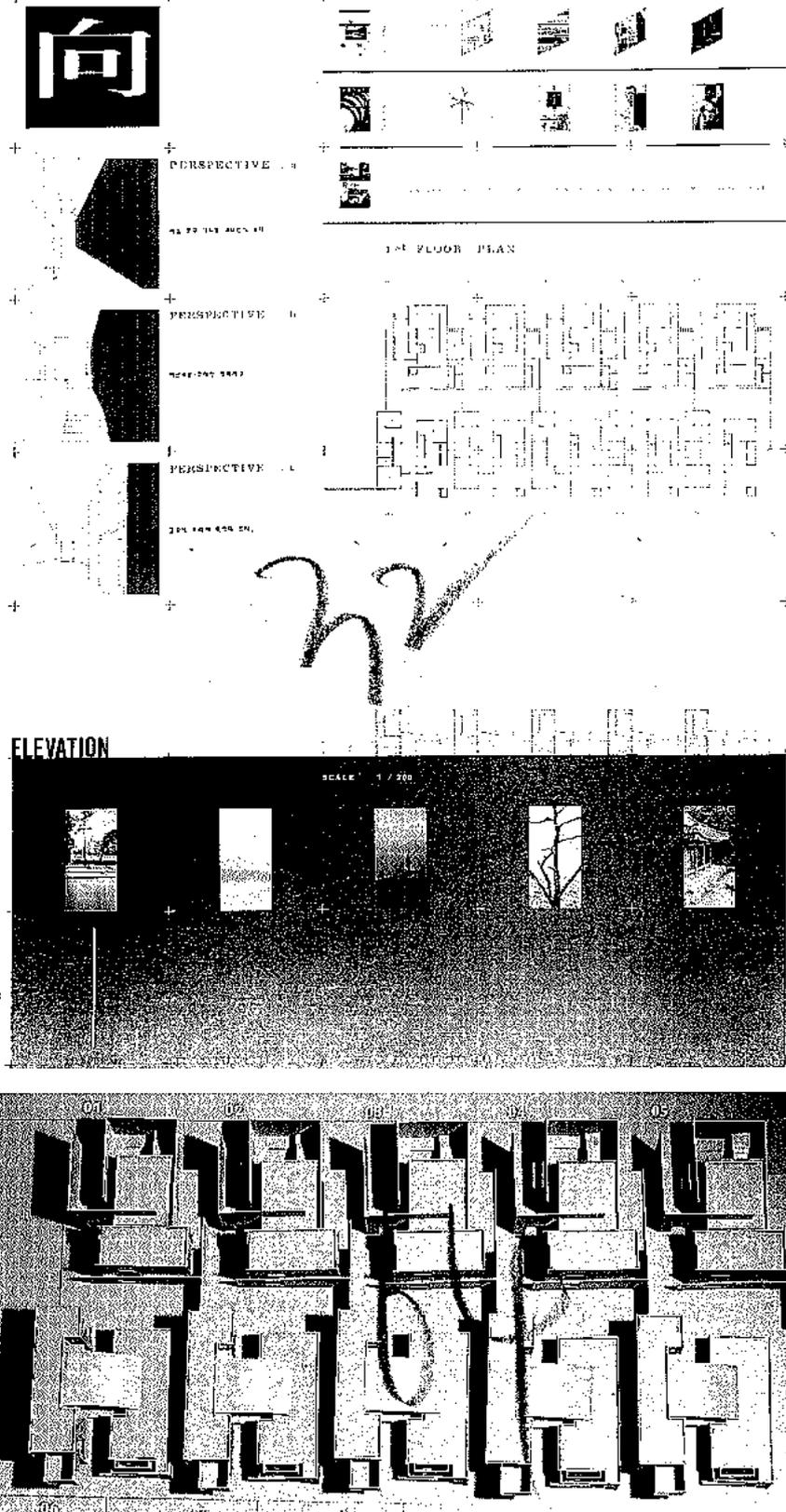
1ST FLOOR PLAN SCALE 1:500



향(向)

백정현 / 서울산업대 건축설계학과 졸업

송현모 / 홍익대 산업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과거 우리들이 만들어온 건축물들은 유사한 관념적 사고 속에서 여러가지 형식을 통하여 수많은 조형성을 띤 건축물들을 생산해 온 것에 지나지 않았다. 어떠한 목적이나 형식을 외면한 채 실생활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주거 공간, 그 주거 공간들을 재해석 해 보려는 시도가 이번 작업의 시작이었다.

나의 Theme Title은 향(向)이다. "향"이란 인간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수많은 정신적 매개를 어떠한 각도에서 관조하는가의 의미이며 나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정리한 것인가에 대한 방향의 모색이었다.

나는 "향"이란 언어를 어느 것에 한정된 의미로서의 소재가 아니라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대상을 말하는 구조적 언어라 표현하고 싶다.

가회동을 지켜보는 나의 시각은 어떠한가, 과거의 회상이나 가식적인 개념들로 채워 넣은 그러한 건축물들을 봤을 때 나는 어떠한 자세를 취했어야만 했나, 이러한 문제를 나 자신에게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하나 하나 풀어나가면서 하나의 답을 찾으려는 시도로 이번 작업물들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제안

1. 현대화된 주거형태 편리함과 과거 주거형태가 가지고 있는 정감어린 장면들을 풀리주 형식으로 주택 내부에 삽입한다.
2. 공용공간(마당)을 두어 이웃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체를 만든다. 이 마당에서는 조용함과 재잘거림이 공유한다.
3. 나의 공간에는 미루가 있다. 따뜻한 햇볕을 쬐 수 있고 매섭게 내리는 소낙비를 감상할 수도 있다. 회미하나 과거의 회상속에 빠져 보길 원한다.
4. 벽과 벽 속에 공간이 존재한다. 거대 Wall속에 감춰진 공간과 떠올려진 공간들, 벽은 공간을 만들어 가는 기준이 된다.
5.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골목길이 생성된다. 골목길은 외부이지만 마치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6. 빛의 명암을 최대한 살린다. 마치 빛은 건축물에 생명을 불러 넣어주는 것 같다. 천장과 축창, 쪽창들 많은 빛의 통로를 만들어 간다.

몽유가희도

강덕희+김홍근 / 동국대 건축공학과

가희동 11번지

1990년을 전후로 한 집, 두 집 길에 면한 대지의 도시형 조적조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들로 바뀌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거의 모든 건물들이 새로 지어지고 있다.

집과 주거지, 길과 마당과의 관계가 해체되고 있다. 이제 길에 대하여 닫혀있으면서 하늘을 향해 열려 있던 도시형 한옥의 마당은 중심을 잃어버리고 도시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철저한 도시의 논리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만이 남아 있다.

여기저기 생활의 편리함과 기능에 맞추어 뜬 고쳐진 상처로 한옥은 이제 병들어가고 귀찮은 옛것일 따름이다.

삶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서로다른 생활방식으로 도시속에서 부유하는 유목민에게는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기능성, 효율성, 속도에 미쳐있는 우리들에게는 브레이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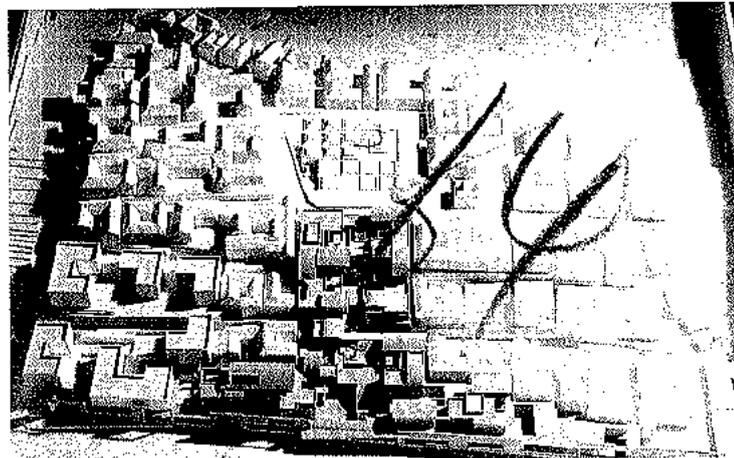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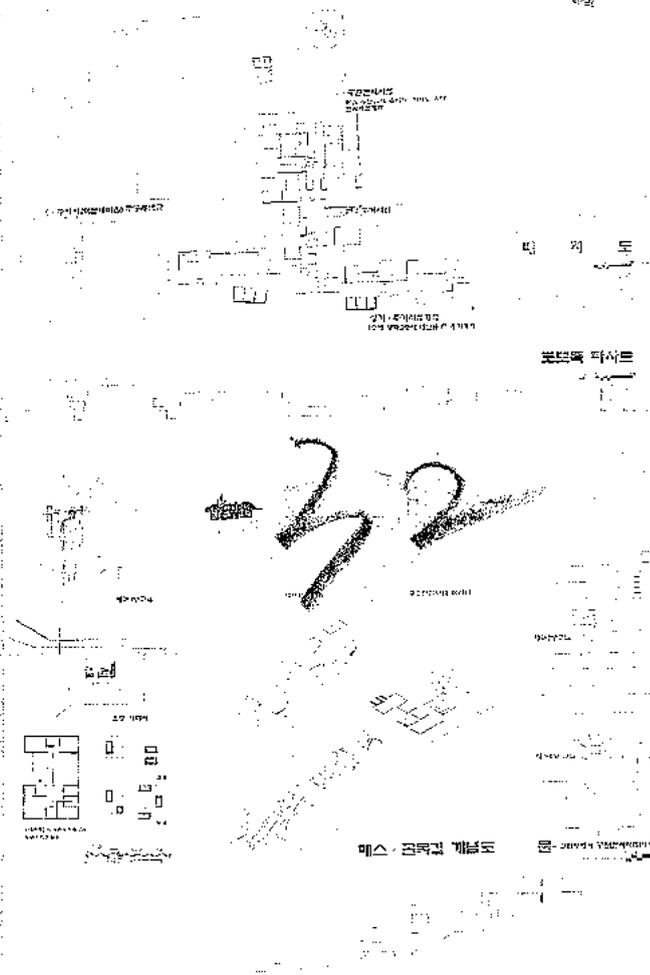
夢有家會마을 -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을, 길의 성장과 여백이 있는 마을

길은 주택을 만들고 주택은 길을 만든다. 공동체적 삶의 구현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 골목길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을 공동체를 위한 마당과 지하에는 가희마을의 문화를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전시공간을 두었다. 11번지내 김정희 종가의 유물을 비롯하여 가희동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전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또한 마을의 사랑채 역할과 아울러 마을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로 마을진입 전면에는 상가를 배치했으며 부족한 주차장은 마을 공동주차시설을 구상하였다. 마을의 아이덴티티를 위해 진입부 골목길의 공간감을 극대화 하였으며 자연스런 이야기가 생길 수 있도록 계획했다. 주변 주거지 내에 가로벽에 의한 연속성은 가로에 대한 주호의 폐쇄성에 의해 결정되나 계획안에서의 연속성은 집합된 주거사이에 마당과 길의 개폐의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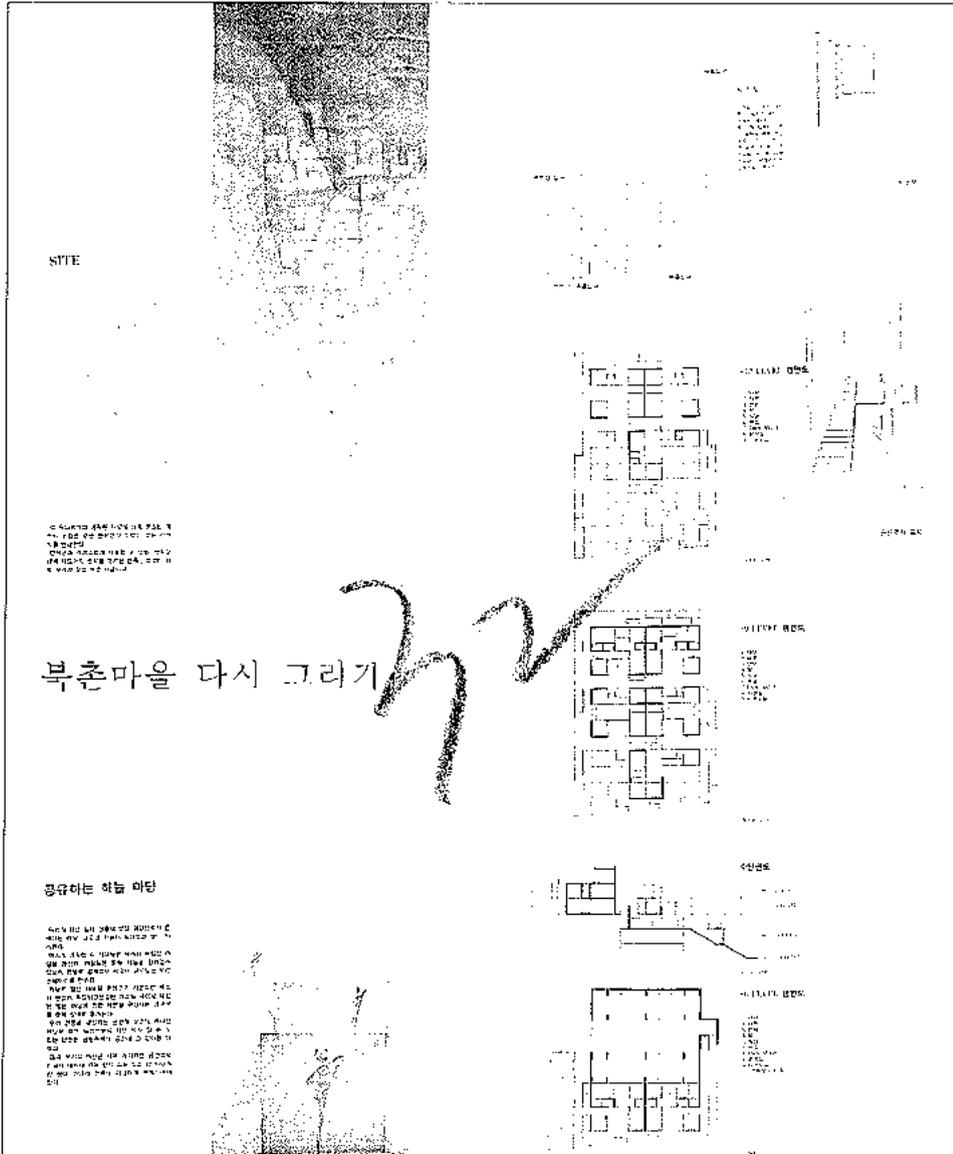
북촌마을 골목길 다시만들기

북촌마을 골목길 다시만들기



북촌마을 다시 그리기

구본호 / 일간건축사사무소
이훈 / 동국대 건축공학과



본 계획안의 Site는 독자개발이 불리한 필지들의 모임으로 구성된다. 가회동과 재동 사이를 가르는 도로변은 독자개발이 가능하며 지금도 신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골목 안쪽 필지들은 전면도로 부재와 협소한 대지 등의 이유로 독자적으로 신축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기에 이들을 합필하여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가회동 이미지와는 너무도 이질적인 형태의 신축 건물들은 어느새 기존 도로변을 기점으로 잠식을 진행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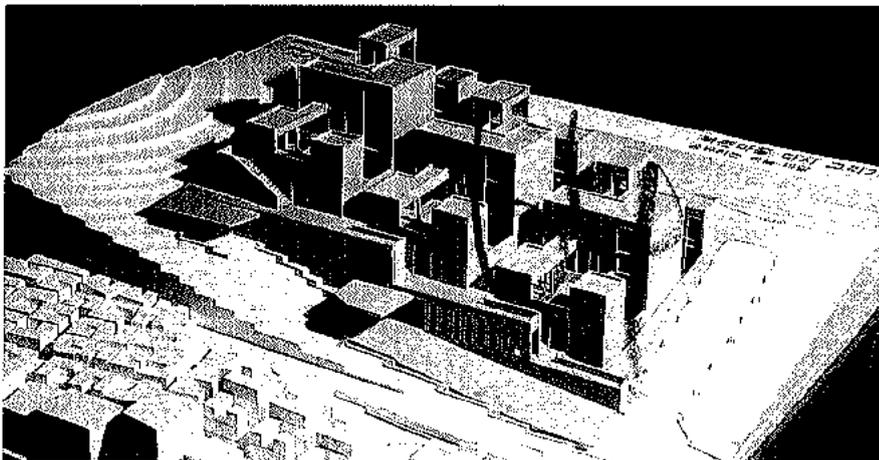
본 계획에서 각 유니트마다 계획된 마당에 의해 분절된 매스의 조합은 주변 한옥군의 조합이 갖는 이미지를 반영한다.

한옥군과 자연스럽게 이웃할 수 있는, 한옥군내에서 있어도 소외를 모르는 건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북촌마을이다.

옥외가 아닌 각 실내 생활의 연장공간으로서 존재하는 마당, 그곳엔 하늘이 들어오고 땅이 자리한다. 여기에 계획된 각 세대들은 저마다 독립된 마당을 가진다. 마당들은 모두 하늘을 향해 열려 있으며 층별로 접해 있어 비교적 규모있는 오픈 스페이스를 만든다. 하늘로 열린 마당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매스의 분절이 유도되고 분절된 매스들 사이로 유입된 빛은 마당에 면한 벽면을 구성하는 개구부를 통해 실내로 흘러든다.

우리의 전통주거를 구성하는 공간적 요소의 하나인 마당을 끌어 들임으로써 차츰 식상할 수도 있는 단순한 공동주택의 공간에 그 깊이를 더했다.

결국 우리의 마당은 더욱 적극적인 공간으로 이끌어 내려야 하며, 단지 집을 짓고난 뒤 남겨진 땅이 아니라 건축의 대상이며 주제가야 한다.



Aquadium

이종환+조승현 / 홍익대 건축학과

1. 필요성

현재 2002년 월드컵 개최 후보도시로 되어있는 도시는 우리나라에만 16개에 달한다. 이들중 개·폐막식이 열릴만한 도시로는 우선적으로 서울이 유력시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많은 국제행사유치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제규모의 축구전용경기장이 없는 실정이다. 본 설계안은 축구전용구장이라는 장점을 살려 잠실 주경기장 대신 월드컵의 개·폐막식 유치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축구경기장을 계획하는 것이다.

2.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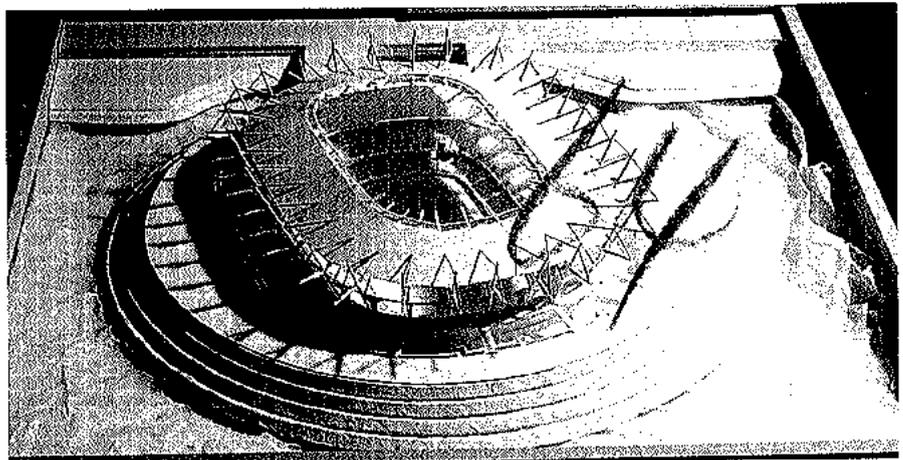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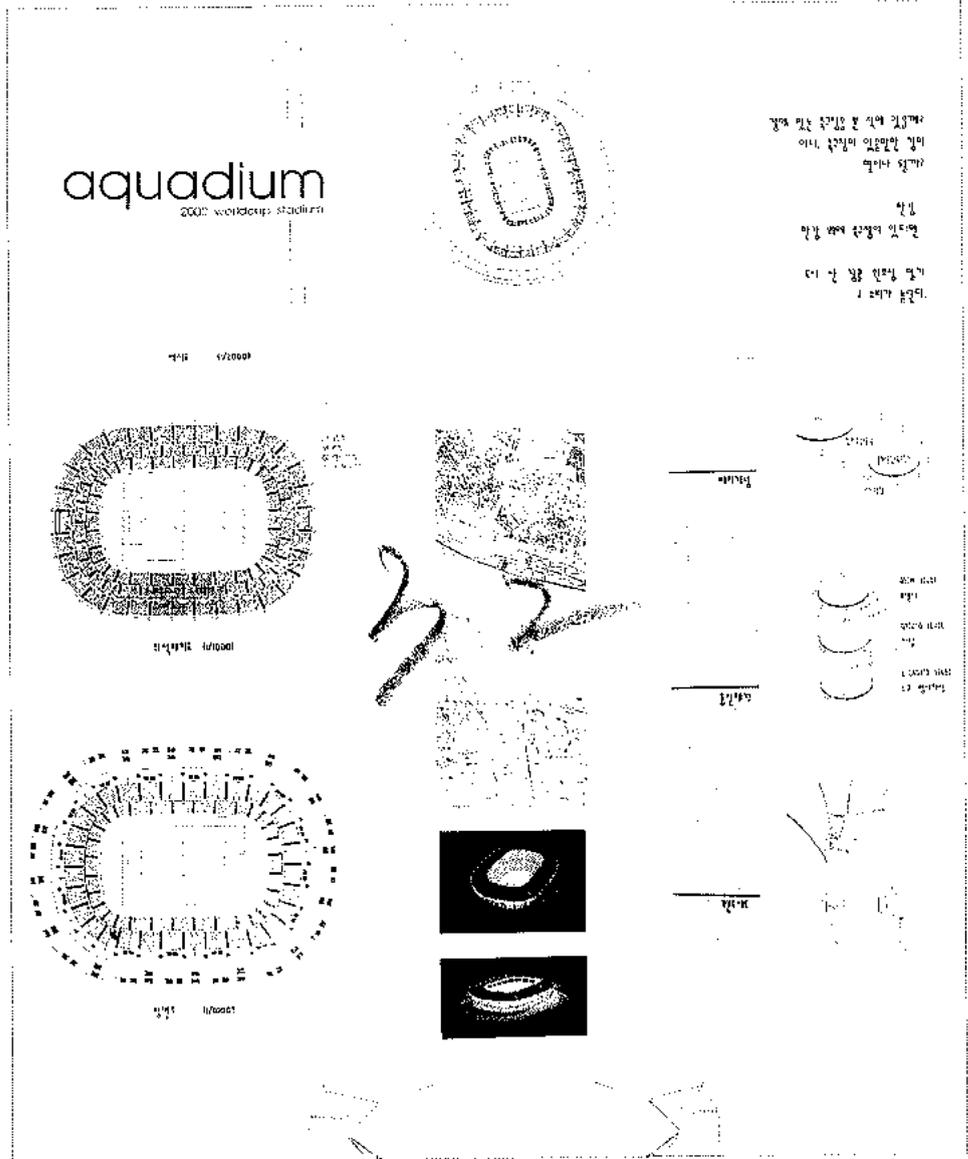
한강은 그 가치에 비해 많이 외면당해 있다. 한강위에 축구경기장을 세운다는 것은 강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줌은 물론, 한국축구의 이미지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섬 체육공원지구는 강과 어울어진 시원한 경관을 연출하며, 청담대교와 지하철 1호선 자양역사가 건설중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용이하다.

건물은 고수부지의 그리드 축과 약 15도 정도 틀려져 있는데, 이는 각본상의 남북방향을 맞춰주기 위함도 있지만, 수직적인 변화가 거의 없는 입면에 기동배열간격의 시각적 변화로 약간의 리듬감을 부여하고자 한 의도가 더 컸다. 대중교통(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동선에는 나무를 많이 심어주어서, 도시의 혼잡함과 경기장과의 전이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경기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강이 흐르고 나무숲이 우거져 있다면 그 기쁨은 배가 되리라 생각한다.

3. 동선

기존의 고수부지 Level에서 차량이동을 하고, 그 위에 Deck를 두어 보행자 공간을 차량과 분리시켜 준다. 일반 관람객은 고수부지에 차량을 주차하고 Deck Level에서 도보로 경기장까지 이동한다. Vip, 장애인차량 및 특수차량은 경기장까지 이동가능하고, 선수단 및 임원차량은 경기장에 주차한다.

Deck로 진입하는 관람객들은 상·하로 동선이 분리되어, 짧고 쉬운 동선에 의해 각자의 자리로 찾아갈 수 있다.



100

건설산업기본법 공청회 유감

Public Hearing on
Construction Industry-Basic Law

- 건축설계업무, 건설업인가 / 김영석
- 우리의 나아갈 길 / 유경철
- 늑대여, 다람쥐여, 토끼여, 노루여! / 이충기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 제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입법추진중이었던 건설산업기본법(안)에 대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키 위한 공청회가 국토개발연구원의 주최로 지난 8월 6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본지 96년 9월호, 27쪽 참조)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우리 협회를 비롯한 건축계는 입법추진중인 건설산업기본법(안)에 대해 건설업의 정의에 건축설계를 포함시킨 것은 건설업계가 설계를 겸업하기 위한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본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본지 사정상 공청회가 열린 시점인 지난 9월호에 게재하지 못했던 건설산업기본법(안)과 그밖에 건축 관련 법체계의 모순점에 대해 회원의 입장에서 기고한 글들을 모아 게재코자 한다.

(편집자주)

건축설계업무, 건설업인가!

김영석 / 3등영건축 본 협회감사
by Kim Young-Suk

작년 6월 29일 세계적인 도시인 서울 한 북판에서는 지은지 6년 된 백화점이 순식간에 붕괴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이 소식은 일파만파 세계로 세계로 전파되어, 세계인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하기조차 끔찍한 초대형 참사였다. 이를 계기로 세계언론 중에는 한국발전의 실상이라고 총체적인 비평을 하는 대도 있었다.

우리의 경제적 부흥이 이같이 기초가 부실하고 제대로 내용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허울만 그럴싸하다는 이야기다.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일면 공감이가는 부분이 적지 않다. 급기야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수립한다며 건설제도기획단을 발족, 건설제도 전반을 손대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 약 1년여 동안 만든 입법안이 '96. 8. 6일자로 건설교통부 후원, 국토개발연구원 주최로 건설업법 개정법률(안)이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공청회"란 이름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당초의 부실방지 입법 취지와는 다른 건설산업기본법 배경 설명에서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13개 법률이 각기 다르고 6개 부처로 다원화 되어 법체계를 단순화하여 건설업자들의 불편해소와 WTO 출범에 따른 국내건설업 경쟁력 강화, 건설업 육성 방안으로 "건설산업 기본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의 제1조와 2조 목적 및 정의에 의하면 건설업의 주 업무인 건설 시공외에 건축사업무(조사, 설계, 감리, 유지관리 등)를 추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건축사업과 건설업은 분명히 현행 기존법에 의거 독립된 시단법인으로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설협회"를 설립하고 각기 수천명의 회원을 갖고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30~40년전부터 현재까지 존속 유지하여 국내외에 널리 많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현실에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근래에 대형공사의 사고가 날때마다 그 원인을 정부는 자기 탓이 아니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오로지 옥상옥(건설기술관리법 등)으로 법을 만들어 온 것이 버릇처럼 되어왔기 때문에 법이 너무 많고 해당 관련업에 따라 주무 부처가 법의 특성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므로 이런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법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법 취지와는 논리가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법이 또 하나 추가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초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다시는 이땅에 부실공사로 인한 참사가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뜻이었으나, 그것을 벗어나 건설업의 업

무확장 방안을 내 놓으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는 통과 요식행위라 하겠다.

이로 인해 부실방지책의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을 추진함으로 인한 가치 혼란을 누가 유발하고 있던 말인가?

특히 94년 문민정부 출범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건설업의 경쟁력강화와 육성방안으로 설계업 확장을 목적으로 대형건설업체가 추진한 종합건설업 도입 문제에서 이미 설계·시공겸업 불가결정을 내렸고 건축설계분야는 기술이나 경제행위 이전의 건축문화행위로 공공성과 역사가 있음이 그 이유라고 분명히 결론지은 바 있다.

세계적으로 설계와 시공의 분리는 일반화되어 있고 부실을 막기 위해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상호견제, 보완체제를 이루며 점점 전문화 하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이같은 추세를 역행하여 창의력과 문화적 공공성 보다는 시공편의와 경제성을 우선하는 획일적인 경제논리는 반드시 경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설계겸업독점 시공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또 다른 부실공사를 낳게 하는 것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건축계의 설계·시공·감독 등에서 나타나는 사태는 단순한 업권 이익 다툼으로 볼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상업주의 패권자가 되려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의 소산임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기업의 이윤추구나 치열한 경쟁구조는 그 자체가 부도덕이거나 불법은 아니며 오히려 개방적인 태도는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불미스러운 사태는 모든 원인과 책임이 부당한 이윤추구와 무소불위적, 불공정행위에 있는 것이지, 경쟁의 불가피성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편중일관된 차별성을 구조적이란 일반화의 논리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는 마치 독재권력이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쥔취하여 국민을 위해서라고 할 때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으나, 그 후 국민의 합의 없는 독선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을 상기해야 한다.

정부는 하루 빨리 대기업의 문어발식 업무확장 기도를 차단하고 수 십년 설계기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수 천개소의 중소 건축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사에 획기적인 세계협력과 지원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하여 앞으로 다가올 시장개방에 대처함은 물론, WTO 체제에 대응한 질 높은 산업경쟁력을 갖추어 이 위기를 한국의 건설산업과 건축문화정립의 새로운 전기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건설공사는 설계의 전문성, 시공의 전문성, 공사감독 체제의 업무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책임이 완전분리체제를 갖추어 부실시공이 방지되도록 각각의 체계를 법률적으로 그 책임과 의무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으로부터 공감미 가는 합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나아갈 길

새로운 「建·基·法」 제정을 눈 앞에 두고

유경철 / 삼육건축

by Yoo Kyeong-Churi

건설교통부에는 “국토개발”과 “건설기술” 그리고 “교통” 등 3개의 연구원을 산하에 두고 있다.

이중 건설기술연구원에는 유일하게 건축과 건설 등을 전담하여 연구하는 10여개의 전문조직이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설업법 개정법률의 성안 과정에서 이 연구원이 소외되고 전문부서도 아닌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까지 뒤로 제치고 공청회를 앞장서 주최하는 등 그 요식행위를 닦하기전에 그 뒤에 숨은 속내를 그냥 간과하기엔 너무나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조짐이 발견되었다.

상기하기조차 참담한 일년 전 ‘삼풍사고’ 같은 국가 국민적 손실의 재발을 막기 위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이란 본래 취지를 왜곡하여 ‘건설업자의 불편 해소와 WTO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순화이며 한국적 건설사업관리(C.M)다’ 라고 언제까지 우겨낼 것인가? 아직도 애꿎게 희생당한 500여 영령과 부상자 그리고 그 유족과 더불어 온 국민이 통탄해 마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정조는 이미 작년말 우리 협회의 단일한 대처와 전교부만 믿고 방심하고 있을 때 전격적으로 저질러졌다.

소위 “건설기술인협회”라는 급작스러운 협회를 발족시키면서까지 30여년동안 애쓰고 가꿔온 건축사와 그 보조사원 3만 여명의 기록을 하루아침에 몽땅 뺏길 위기에 처하게 하는 등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겪게하는 처사는 그 귀착지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한다.

과거 1,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선진열강의 추구는 바가 영토확장이었고, 그 이후 반세기를 경제경쟁이라 한다면 지금은 문명문화의 각축장임을 우리는 얼마전 세계각국에서 모여 치른 “에틀란타 올림픽” 폐막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2000년 차기 호주에서 개최되는 심볼이 종래의 캔거루라는 동물대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로 되어 나래를 칠 때 온 지구촌 기족들은 열광하였다.

이처럼 21세기는 종합예술과 기술의 복합된 창조정신을 갖는 건축설계감리를 키워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건교부는 경제 원리를 앞세워 우리를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업자로 전락시키려 하는 발상에 대해 문민정부를 지향하는 현정부는 대답해 줘야 한다.

이보다 앞서 10년전 국민의 성금으로 지어진 ‘독립기

념관'이 불타올 때 이 나라의 건설부는 국민의 공복임을 벗어던지고 소위 '건설기술관리법'이라는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공부원 사회에도 없는 "한시적 책무가"가 어 떻고 하면서 건축의 설계와 감리를 분리시켜 민간인들에게 관리감독권을 갖게 하고 딱 살림을 차려놓게 하였다.

그러하여 오늘날 건축사협회와 감리협회라는 서로가 어정쩡한 협회로 갈라서게 되었다.

그렇다면 행주대교 붕괴, 부산철도사고, 대구지하철 폭발, 성수대교 붕괴 등의 사고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지 않은가! 공연히 국민의 혈세만 일년에 수천억씩 낭비 하고 부족한 건축기술인만 동요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인 정건설기술자라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들은 한국적 CM(Construction Management)에 끼어들어 특수목적 건축물의 설계도 텅으로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한 이번 사태에 침묵하고, 오 히려 우리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방관하며 어부지리를 노 리고 있다.

지금의 건축사의 입지란 마치 "투우장에 끌려온 투우 아난 한우" 꼴이 되어 설마 우리는 풀어주겠지 하고 협회 에만 기대하고 믿고 싶어한다.

진부한 얘기지만 건축이란, 발주하는 건축주와 설계· 감리하는 건축사, 그리고 이를 경제적으로 시공하는 건 설업자의 상호견제·보완하는 삼위일체가 이뤄질 때 훌륭한 건축문화가 탄생되는 것은 동서고금의 지고지순한 원리이다.

우리의 건축사의 업무란, 계획·조사설계·구조설 계·전기통신소방설비·감리 등 사회의 모든 것을 조화 하고 서로의 설계를 조율하여 컨소시엄이 되어 이뤄지는 과정이며, 여기에 더하여 다양한 건축물인 주거·병원· 교육·중교·판매·스포츠·레저 등으로 전문화 과정으 로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물며 건설회사에서 건축사·기술사 몇 명을 채용한 다 해서 이 업무를 다할 수 있는 전지전능의 기구라고 말 할 수는 없다.

더욱이 공사수주의 방편으로 건축설계가 전락되는 것 보다 더한 이윤추구라는 대사명의 건설회사 생리에 휘날 려 반문화 반국민의 위험한 건물이 발생한다는 지금까지 의 수 많은 설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건설산업의 헌법이라고 자처하면서 펼쳐 든 기 본법의 근법취지와 온갖 협공방법의 다양성을 열거해보면

- 협회 설립 및 가입의 임의화(95 행정규제위원회 의 결)
- 건설분야 경쟁 제한 개선방안(96 공정거래위원회 촉구)
- 건설회사가 설계·감리 용역업 수행 허용
- 건축사사무소 대표자는 건축사로 국한시키는 제도 삭제
- 건축감리 전문회사의 대표를 경력자, 기술자, 석박사 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활동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 리들 앞에 전개될 사항들이며 가혹하게 괴롭힐 것이다.

지난 7월 16일 전기·통신·소방 협회가 연대하여 전 국에서 2만여명이 과천 종합청사에서 이 법에 대하여 부 당함을 들어 저지 투쟁하는 호소가 대통령, 국무총리, 건 교부장관에게 전달되고 이 악법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협회도 이를 타산의지식으로 삼아 최소 한 회원들에게 알려나 주면서 건축사의 설계·감리의 권 리를 사수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건설기본법안은 그 출발부터 이가 빠지고 절름 발이며 도저히 국제상식으로도 통용이 아니될 또 하나의 입법안으로 본래의 취지인 단순화 작업과도 상반되는 궤 도를 달라고 있다.

그러므로 건교부는 차제에 건설산업이니, 기본법이니 하는 언어의 유희를 걷어 치우고, 순수하게 '건설업법' 개정이라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 용단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려주기 바란다.

정녕, 권리나 자유나, 독립같은 것은 누가 그냥 주어져 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여야 한다는 선현의 말씀이 요즈 음 더욱 더 우리에게 메아리쳐 온다.

늑대여! 다람쥐여! 토끼여! 노루여!

이충기 / 한때 건축

by Lee Chung-Kee

커다란 숲이 있었다. 그 숲에는 순한 동물들이 많이 살 고 있었는데, 늑대가 섞여 있었다.

그 곳은 늑대들의 대장인 울프가 지배하고 있었으며, 숲 주위는 울프의 부하 늑대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숲 의 식구들 가운데는 토끼와 노루, 다람쥐도 끼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람쥐가 친구인 토끼와 노루를 불러 모 았다.

다람쥐 : 이보게 친구들, 저 늑대들이 지금이야 암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좀더 많은 새끼들을 낳는 조건을 만들 어 우리 숲을 번창시키겠다고 말하지만, 틀림없이 나중 엔 우리를 잡아먹고 말거야. 그러니 우리 가족들을 데리 고 이 숲에서 빠져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노루 : 글썄, 원래 늑대란 족속은 별로 믿을 수 있는 짐 승이 아닌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의심할 순 없 는 일일세. 지금 그들은 다른 맹수들이 우리의 보금자리 에 침입하는 걸 막아 주고 있고, 아직까지 어느 누구에게 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있잖아. 근거 없는 의심처럼 해로운 것도 없다고 생각해. 나는 그들을 피해 달아날 이 유를 찾지 못하겠네.

다람쥐 : 그렇다면 왜 그들은 우리가 숲 밖으로 나가는 걸 막고 감시하고 있지?

노루 : 그거야 우리가 혹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른 맹수 에게 잡아먹힐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다지 않던가?

토끼 : 그거야 알 수 없지. 우리를 붙잡아 두기 위한 핑계일 수도 있으니까. 그들 말대로라면 밖으로 나가려는 동물들을 보호한다는 말인데, 밖으로 나가려다 걸리면 잡아먹는다고까지 하면서 저렇게 강제로 막는 건 아무래도 좀 수상해.

다람쥐 : 맞아! 그건 우리를 가둬 두기 위한 보호임에 틀림없어.

노루 : 아니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가족을 맘 놓고 많이 낳으라고 권하면서 많이 낳은 동물들에게 상으로 맛있는 풀과 과일을 잔뜩 선물하는 친절은 뭐지? 그들이 흑심만 품으면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의 수도 늘고, 잡아 먹기도 훨씬 유리해서 그런 게 아닐까?

노루 : 토끼 군, 자네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의심만 하지. 사물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다람쥐 : 아니, 내 생각도 토끼와 같아! 이런 커다란 비극이 준비되고 있는거야! 오늘 밤 우리 가족과 함께 이 숲을 빠져 나가겠어.

토끼 : 신중해야 해! 그러다가 보초에 걸리면 잡혀 죽을 거야. 게다가 오늘은 보름이라 달빛이 유난히 밝단 말이야. 혼자라면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모두 움직인다면 동작이 느려 잡혀 죽을 가능성은 더욱 커지지 않을까?

다람쥐 : 물론 자네 말대로 신중해야 해. 하지만 아무런 위험도 무릅 쓰지 않고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어? 그런 결단과 용기가 없다면 언제나 탈출할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토끼 : 여러 가지 가능성과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의심하고 생각해야 해. 그렇지 않고 탈출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야.

다람쥐 : 그럼 자네는 무슨 대책이 있나? 덜 위험하거나 확실히 안전하게 탈출할 방법 말이야.

토끼 :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야.

다람쥐 : 그럼 우리와 함께 탈출하겠니?

토끼 : 글썄... 도망친다고 좀더 나은 숲이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 숲에 늑대보다 더 나쁜 짐승이 없다는 보장도 없지 않아? 게다가 탈출하다 잡히면 울프 부하들의 밥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들이 울프를 믿지 못하고 도망치려 한다는 인상을 주어 그를 난폭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다람쥐 : 모든 걸 의심해 보는 자네의 태도는 훌륭하네. 그렇지만 단지 의심만 하는 것은 의심을 위한 의심에 지나지 않지. 그것은 우리를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게 만들 뿐이야. 행동하려는 의지, 올바른 것을 찾아내고 건설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의심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함정이 되고 만다네.

토끼 : 글썄. 내겐 자네 말이 매우 성급하고 독단적으로 들리네. 확실한 판단을 위해선 근거가 충분해야 해. 그리고 확실한 것만이 성공을 보장하지. 그런데 자네의 계획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네. 어쨌든 나로선 아직 도망쳐야 할지 아닐지를 확실하게 판단하지 못하겠네.

다람쥐 : 아직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건 사실이야. 그건 며칠 더 조사를 해서 꼼꼼하게 세우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탈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는 걸세. 그래야 계획도 세울 수 있으니 말일세.

토끼 : 도망칠 생각을 하기에는 다시 생각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네. 나는 좀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싶네.

노루 : 난 도망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네. 자네도 무모하게 행동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지냈으면 좋겠고.

다람쥐 : 신중함이 계획과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네. 하지만 신중함이 탈출해야 한다는 목적을 아예 뒤집거나 할 순 없는 걸세. 신중히 준비해서 기어코 나는 이 곳을 벗어날 생각일세. 자, 잘들 있게!

다람쥐는 며칠 동안 신중히 준비하여 면밀한 계획을 세웠고, 가족들과 함께 늑대들의 감시를 뚫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 토끼는 노루와 함께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2년쯤 지나 다람쥐는 그 숲 소식을 들었다. 늑대들이 순번을 매겨 모든 동물을 하나씩 하나씩 채물로 잡아 먹고 있다는 것을, 또 그 숲의 모든 동물을 일 년에 일정한 수 이상의 새끼를 낳지 못하면 순서에 앞서 잡아먹힌다는 소식도 함께. 그리고 자기 친구들 역시 그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모두 잡아먹히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람쥐는 너무도 안타까워 엉엉 울고 말았다.

모든 것을 의심하지는 자못 철학적 구호의 예문에 불과한 이 우화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정에 당면한 오늘의 우리 '건축사' 들에게 주는 의미심장한 교훈에 다름아닐 것이다.

이 글에는 두가지의 의심이 나온다.

하나는 토끼의 의심이고 하나는 다람쥐의 의심이다.

토끼의 의심은 단지 의심만 할 줄 아는, 의심하기 위한 의심이, 실천은 가로막는 '회의주의'의 의심이다. 이것은 결국 표면적으로는 상반된 의심할 줄 모르는 노루와 같은 운명에 놓이고 만다. 반면에 다람쥐의 의심은 실천하기 위한 의심이며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한 의심이다.

물론 막연한 '의심하기'는 의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것이 '의심하지 않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실천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실천의지가 결여된 의심이란 운명이 겨룬 총부리에 때밀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무력한 신앙이 될 뿐이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 무력한 상황을 저지하고 구원해 줄 수 있단 말인가! 다람쥐의 의심을 가져야 할 나, 곧 우리 자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나는 아니 우리는 안다. 커다란 숲이 어디며 늑대와 다람쥐, 토끼, 노루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 숲이 어떠한 환경이 되어야 하며 지금 내가 어느동물 일진대, 앞으로 어느 동물이 되어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늑대여!

다람쥐여!

토끼여!

노루여!

설계자와 시방서(1)

Architect & Specifications

이중호 / 자유기고가
by Lee Chung-Ho

집은 무엇으로 짓는가?
집은 어떻게 짓는가?
집을 지을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쉬운 질문이지만 그 대답은 쉽지 않다.

무엇으로 어떻게 지어야 집을 잘 지을 수 있는가?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전자의 질문은 "도면으로 짓고" 후자의 질문은 "시방서로 짓는다"는 답변이다. 도면과 시방서가 건축의 양대산맥이지만 이는 집을 잘 짓기 위한(品質施工) 요소이다.

다시말해서 良質의 도면과 시방서는 良質의 건축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말이다.

"도면과 시방서는 설계자가 작성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은 그 책임도 설계자에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방서를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소홀히 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으며 이는 부실공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는 것도 사실이다. 한마디로 훌륭한 시방서 있는 곳에 부실공사는 있을 수 없다는 해석이다. 그렇다면 시

방서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종류가 있고 설계자가 참여할 범위와 우리의 현실 그리고 개방과 국제화에 직용할 수 있는 우리 시방서의 제정 등은 우리가 당면한 중대한 문제이다. 시방서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지난 날에 시방서를 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사항을 문자로 표기하는 것으로 정의했지만 시대의 변천과 공사의 전문화, 대형화는 품질의 향상을 요구했고 이는 시방서의 다양화와 질적 성장을 가져왔다.

시방서란 "자재나 장비의 품질, 시공기술, 기타 기술적인 조항을 문자로 표시한 기법"으로 "간단한 記述과 상세한 記述을 포함"한다는 정의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

국가나 공공기관 혹은 발주기관에서 자체공사의 여건에 맞는 시방서를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상 표준시방서(Stand Specificatidn)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표준시방서를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주택공사의 "주택공사 표준시방서"는 좋은 사례이다. 건물을 특성이나 기능에 따라 분류, 즉 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기관, 학교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기관. 향만이나 군시설물 같은 특수시설을 특성에 맞는 자체 시방서를 제정 사용하는 것이 품질시공에 가장 효과적이다.

오늘날 우리의 건설에 부실공사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고객으로부터 불신을 받고있는 이유중에 첫째가 바로 훌륭한 표준시방서를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표준시방서란 무엇인가? 이에대한 미국의 한 정의를 소개한다 표준시방서란 "권위(Authority), 관행(Custom), 그리고 전반적인 동의(General Constent)에 의한 모델(Model)과 사례(Example)로서 작성된 시방서"이다. 이를 분석해 보자. 권위란 통제력과 구속력을 뜻한다. 건설현장은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도덕적인 기반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 그리고 규정에 의한 작업수행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구속력이 있는 기반이 보다 중요하다. 이는 마치 국가가 도덕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이론과 마찬가지로이다.

관행이란 技術의 역사성과 전통성이다. 이는 어떤 국가나 지역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기술적인 바탕이다. 역사는 인간의 삶을 그 환경에 맞게 적응시켜 왔으며 주거생활도 주위의 여건에 가장 알

맞게 정착되었다.

관행의 다른 표현은 우리에게 맞는 우리의 시방서를 제정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다. 우리의 시방서는 곧 우리의 자존심이다 전반적인 동의란 인정된 기술을 뜻한다. 고품질의 제품과 정밀한 시공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우리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Test)이나 자재시험 등은 인정된 동의의 과학적인 근거이다.

모델은 모범적이고 훌륭해야 된다는 뜻이고 사례는 이론이 아닌 실적인 사실 즉 현장적용을 뜻한다. 그러나 이처럼 거의 완벽한 표준시방서가 작성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모든 건축물을 상세히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단점을 보완하는 일이 바로 설계자의 몫이다. 공사 시방서(Project Spec)는 도면과 더불어 설계자의 주 임무이고 책임이다. 해당 공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한하고, 배제하고, 권장하는 공사 시방서는 품질시공을 유도하고 하자를 방지하며 크레임(Claim)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책이다. 짐을 잘 짓는다는 사실은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잘 만들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도면과 시방서의 차이다. 도면이 시공의 윤곽이라면 시방서는 시공의 지침이다.

건축주의 요구를 건축가의 전문지식과 창작의욕이 결합된 철학이 도면이라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의학이 시방서이다.

가정의 夫婦는 설계서의 도면과 시방서이다.

도면없는 시방서, 시방서 없는 도면은 있을 수 없고 이들의 조화와 협동이 없다면 부실과 하자의 연속이다.

이제 우리의 건설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여러가지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 중에서 설계자의 피부는 공사시방서의 개념부터 변화되어야 하고 미리 이에 대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도 강건너 등불만은 아니다.

공사시방서를 말할 때 흔히 특기시방서 특별시방서 일반시방서 등을 거론하는데 이들은 올바른 표현은 아니며 공사시방서가 옳은 표현이고 또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 여기서 여러가지 시방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래 외국의 건설관련업체의 국내진출과 더불어 시방서도 점점 국제화되고 있는데 이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정리해 보기로 하자.

설계자가 해당 공사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여러가지 자료(Data)나 정보(Information)를 활용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자료나 정보가 참조시방서(Guide Spec)이다. 여러가지 이론이 있는데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은 공사시방서의 자료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설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방서이다. 특별한 형태의 건물이나 구조물을 표준화해서 작성된 시방서가 마스터 시방서(Master Spec)이다.

이를 표준시방서처럼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소각로, 정수처리같은 특수건물이 공장형 아파트 등이 이에 속한다.

설계자가 건물을 설계할 때 자재나 장비의 선택에 상당한 노력을 요한다.

양질이 제품, 저가의 제품, 기능에 맞는 제품 등을 찾기란 상당히 어렵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방서

가 자재시방서(Product Spec)이다.

해외 공사의 견적이나 품질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던 시방서이다. 우리의 공사현장에서 ASTM, ACl, ANSl 등 전문적인 기관의 규정을 사용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이행시방서(Performance Spec)라고 한다. 우리에게 이같은 전문적인 규정이 거의 없지만 이는 우리 기술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미국의 건설제품이 세계시장의 품질을 선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같은 튼튼한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술은 내용과 우리의 시방서를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우리의 표준시방서가 현장기사들에게 얼마나 활용되고 있으며 설계자가 도면이나 공사시방서 작성시 얼마나 참조하는지 아니면 공사시방서를 만들고는 있는지 혹은 과거에 사용하던 것들은 적당히 복사해서 명목만의 공사시방서를 만드는지를 고찰하면 부실한 시방서를 부인할 수는 없다.

물론 이유는 있다.

표준시방서의 부실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자료의 부족 KS의 문제점, 도면에만 의존하는 관행, 난해한 이해도, 특히 해외의 공사현장에서 시방서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더욱 어려운 점 등은 부실한 공사시방서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지만 이제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부실한 시방서나 적당한 시방서를 작성할 수도 없고 그런 시대도 지나갔다.

부족한 표준시방서를 설계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해서 보완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훌륭한 시방서를 만드는 길인가? 현재의 우리가 이용하는 표준시방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하는 것이 양질의 시방서를 만드는 첩경이다.

그리고 선진국의 시방서를 참조하면 우리와 다른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상이한 몇가지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시 문제점을 제기해 보자.

우리의 표준시방서의 문제점을 언급했는데 우리 시방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시방서의 구성부터 알아보자. 가장 일반적인 사항이 일반규정(혹은 총칙)과 기술규정이다. 그 밖에도 일반규정, 특별규정, 기술규정으로 분류하는 국가나 시방서도 있다.

우리는 전자의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일반규정은 공사의 여건이나 특수성 그리고 지방자치체의 규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반규정은 표준시방서에는 포함하지 않고 공사시방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가 시방서를 만들고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중에서 계약서류도 사용된다는 점이 주목할 사항이다. 계약서류로 사용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가 아니라 해당 공사의 공사시방서이다. 그래서 공사시방서는 공사의 특성이나 현장의 환경 지자체 등을 고려해서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기술규정은 자재와 장비 그리고 시공으로 구성되지만 공통사항이나 일반규정이 해당 공종의 첫머리에 기술되는 것이 상례이다.

일반규정과 기술규정에 포함될 사항이나 구성내용 순서 등은 시방서의 필수적인 요건이지만 일반규정은 시방서 전부를 통제하므로 더욱 중요하다.

설계자가 시방서를 작성할 때는 상식적으로 다음의 3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 빠진 것은 없는가? 둘째, 잘못된 것은 없는가? 셋째, 매매한 것은 없는가?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즉 도면이나 시방서 중의 한가지가 잘못 됐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시방서의 일반규정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 줘야 한다. 즉 "본 공사에서 시방서가 도면보다 우선한다"

보다 상세한 일반규정을 알아보자.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 공사시방서가 우선하고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축척이 큰 도면이 우선한다." 혹은 도면이 상이할 경우 상세도가 우선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크레임 차원에서 음미할 필요가 있다. 즉 상세도는 동일한 부분에서 여러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방서의 문제점 상세한 작성법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 등은 다음에 기대해 보고 우선 당면한 문제부터 논의해 보자.

설계자의 책임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는 설계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다. 얼마전 서울시는 지하철 공사의 설계잘못으로 인해 많은 추가공사비를 부담한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추가공사비는 당연히 잘못된 설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이론이다. 설계자의 과실을 무고한 시민이 책임질 이유는 없다.

바로 얼마전 고속전철의 설계잘못으로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추가되고 상당기간의 공기연장이 보도된 바 있다. 설계자의 과실로 발생한 추가공사비를 납세자가 부담할 이유 또한 없다.

만약 외국업체에 의뢰한 설계용역이 설계자의 과실로 피해를 당했다면 그 보상은 당연히 외국 설계자의 몫이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시장개방과 더불어 우리 설계자의 책임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규정을 소개한다.

"설계자의 과실로 인한 피해는 설계자가 보상하고 잘못된 설계의 재설계는 추가비용 없이 원설계자가 한다" 우리의 건설시장은 이제 몇개월후면 완전히 개방된다.

여하한 공시이든 도면과 시방서를 발주자는 입찰전에 응찰자(시공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우리에게 과연 그러한 시방서가 준비돼 있는가?

물론 설계자가 해당 공사시방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공사시방서를 만들기 위한 국가나 발주자의 기준은 이미 마련이 돼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 시장개방이나 표준계약서식, 국제수준의 시방서 제정 등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전 부터 논의되고 대책을 강구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아직도 전도가 요원하다. 이렇게

때문에 설계자의 시방서 작성에 대한 업무와 책임이 가중되고 경비와 시간의 손실이 많고 더 많은 교통이 수반된다.

이래서 대형공사나 고품질의 공사는 외국의 시방서 사용을 볼 수가 있다.

이의 대표적인 시방서가 소위 CSI(The Construction Specification Institute) Format이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의 건설산업이나 정부, 건축가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계약이나 시방서의 서식이다.

물론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인의 기구로 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시방서를 지금 우리의 대형 국책 Project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CSI 서식은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연구·개발되어서 대단히 훌륭한 시방서의 서식임에도 두말 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이나 캐나다에 알맞고 훌륭한 서식이시 우리에게도 훌륭하다는 보장은 없다.

시방서의 정의에서 역사와 전통에 입각한 관행(Custom)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는 결코 근거가 없는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미국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재로 집을 짓고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자재로 집을 짓는다. 미국에서 만든 시방서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시방서이지 우리나라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시방서는 아니다.

물론 동일한 자재도 있지만 동일하지 않은 자재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시방서가 정의하는 관행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건설은 국가기간의 산업이며 수많은 제조업이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국가경제의 주축이기 때문에 시방서는 이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관행의 시방서로서 그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시공기술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땅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짓는 금세기 최고의 역사가 외국의 시방서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건설한국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CSI의 서식이 과연 우리에게 맞는지 알아보자.

시방서는 건설정보의 자료이고 통신의 수단이다. 즉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시공방법을 제공하고 공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착오없는 대화의 수단을 제시한다. 그래서 시방서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가장 효과적인 통신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이가 곧 표준화이다.

CSI 서식의 작성자는 다음의 3가지를 장점으로 주장하고 있다.

첫째, 건설정보에 근접하기가 쉽고 둘째, 공사에 참여한 모든 인사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셋째, 공사비산출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CSI 서식은 기계, 전기를 포함해서 16개의 Division(절)로 구성돼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건축에 관련된 부분이 10개의 Division(이하 "절"이라 함)이고 1절은 일반조건이다. 2절의 Site Work(단지내 시설공사)는 우리에게 없는 "절"로(내용은 일부 분산되어 있음)

참고 할 내용이 가장 많은 부분이다.(이 부분은 Uniform의 Site Work을 칭한다)

7절의 제목은 Thermal and Moisture Protection 인데 우리에게 제목조차 생소하다.

이 절에는 18개의 Section 있는데 이의 대부분이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을 제목들이다. 제목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그 내용은 어떠한가.

이러한 구성은 정보의 자료나 통신의 수단으로는 전혀 이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돈만 가중된다.

다시 9절을 보자. 제목은 마감공사(Finish)이다. 여기에는 19개의 Section 있는데 이중에서 석고보드, 타일, 카펫, 도장 등을 제외하고는 생소한 제목들이다.

10절 전문시설(Specialties)는 25개의 Section이 있는데 이 역시 생소한 제목들이다. CSI는 장점 중 이해하기 쉬운 점을 들었는데 제목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정보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

CSI 서식은 Section과 그 아래 단위(Unit)로 구성되고 문장이나 서술은 없다.

그래서 제목은 미국서식으로 내용은 한국규정으로 작성될 우려도 없지 않다.

어쨌든 우리가 사용한 일도 거의 없고 내용도 상이한 시방서의 사용은 현장의 혼돈과 낭비적인 요소를 예상할 수 있다.

우리의 건설기술과 해외에서의 축적된 경험은 벌써 우리의 시방서가 이미 만들어졌어야 했는데 우리는 이같은 일을 너무 소홀히 한 것 같다.

CSI 서식의 사용은 한국인 기술자의 제안이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대형 국책공사이기에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CSI 서식의 시방서 사용은 우리국민을 미국법으로 통치하는 식의 개념은 아니며, 우리 자재, 우리 기술, 우리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시방서의 작성은 과연 불가능했는지 등의 의구심이다.

우리나라에 제도개선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 모양이다. 건축도 제도가 있지만 여기에 기술적인 조건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한다.

우리에 맞는 훌륭한 제도와 기술규정만 있다면 원천적인 부실공사는 사라진다. 제도는 표준시방서 제1절 일반조건(혹은 총칙)에서 충분히 제한할 수 있고 규정은 나머지 절에서 각종 기술을 제한할 수 있다.

일반조건과 기술 규정의 개선, 개발이 시방서의 국극적인 목적이지만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제도나 규정의 개선과 집행의 대책은 외면하고 품질시공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끄는 정부의 방침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건설에 관련된 정부의 각종 제도에 동의하는 건설기술인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여기서는 시방서의 활용에 관한 것만을 기술한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현장에 실명제가 도입되고 일전에는 하수관 건설 관리에도 실명제가 도입된다고 한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실명제를 도입하면 하수관의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말인가?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가 붕괴되고 백

화전과 연립주택이 무너지고 상수도의 누수가 하루에 250만톤이나 된다는 말인가?

건물이나 시공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이 규명되고 대책이 마련된다. 그 많은 사고의 원인 가운데 실명제가 사고의 원인이 된 적이 있는가?

실명제 도입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하수도의 누수방지를 위해서는 첫째는 사용자재의 규정, 둘째는 정밀시공의 규정, 셋째는 누수의 시험규정, 넷째는 사용도와 위치표시 등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집행해야지 도대체 실명제와 누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규정을 시방서에 반영하면 강화된 감리제도에서 얼마든지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또 있다. 시공의 현장에 나무끼는 "혼을 담은 시공"이 그것이다.

집을 짓는데 어떻게 혼을 담을 수 있는가? 이러한 허황되고 구름잡는 구호들은 소모적이고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실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우리의 건설기술이 해외현장에서는 참으로 우수한 건설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 현장에서 실명제를 실시하기 때문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그들에게는 훌륭한 건설제도와 기술규정이 있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 감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도와 규정중에서 한가지만 소개한다.

발주자가 공사 착공전에 시공자에게 가장 바라는 바는 현장에 투입되는 기술자들이 도면과 시방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발주자는 이를 제도화해서 시공자에게 도면검토를 강요하고 있다.

시공계획서는 원청자에게 도면 전반의 검토를 강요하고 시공도는 전문 건설인에게 해당 공종의 검토를 강요하는 제도이다.

기술규정에 가장 적합한 표현은 "맞춤"이다.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은 우리의 여건에 맞는 기술을 뜻하며 부득이 외국의 기술을 수입할 때는 상세한 검증을 거친 후에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기법이 시방서이다. 사람에게 병이 발생하면 병원으로 의사를 찾아가야지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갈 수는 없다.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과학적이거나 기술적, 혹은 경험에 의해서 해결해야지 실명제나 혼을 담은 시공 따위의 허황한 구호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품질시공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현장의 혼돈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이는 마치 환자가 의사대신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는 것과 같다.

우리의 시방서를 개선 개발해서 우리의 집을 지을 생각은 하지않고 외국의 시방서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을 외국의 헌법으로 통치하자는 발상이다.

이러한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의술은 시방서이며 시방서는 설계자가 만든다.

큰 협회 새롭고 창조적인 리더를 기다리며

Waiting to Leader that Fresh & Creative

윤여욱 /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심환경
by Yoon Yeo-Wook

사회는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점차 다원화되어 절대 구성주의 사회로부터 민주적 질서가 확립된 상대적 사회로 변천되어 왔다.

이런 사회적 특성은 다음 두가지를 들수 있는 바 그 하나는 다원적 가치사회로서 사회 전 부분에 걸쳐 모든 분야의 가치가 균일한 권리를 갖게 됨으로써 불평등한 절대적 권위가 퇴색되어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균등사회가 출현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권위의 근거와 방향이 달라졌다. 관을 위한 사회로부터 민을 위한 사회로 개인 숭배시대로부터 대중을 존중하는 사회로 발전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모든 구성은 소외감이 없어져가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의 사회적 환경속에서 성장해 온 사람은 집단속에서 개체들로, 절대주의에서 상대주의로, 전통에서 창조의 과정으로 지향하는 사회에서 형성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대적 권위를 부정하는 사회구조로부터 리더의 수행을 위해 사회구조상 일종의 절대사회적 성격을 띤 수직사회로 이전함에 따라 여러가지 가치관의 혼란으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 조직에서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토론문화를 가져다 주었다.

우회 협회내에서도 민주주의는 다를 바 없으며 여러가지 좋은소리 나쁜소리가 들리지만 회원들은 새로운 리더를 기다리면서 우리 주요 행사중 전환기적 변화의 시기인 2년에 한 번씩 꼭 치루어야 하는 회장 선거일을 맞게된다.

이는 새로운 협회 탄생을 위해 과거에 대한 반성은 물론 혁신 그리고 개혁으로 그 변수들이 평범하고 일반적인 상황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의식 전환들이 자승지박에서 벗어나 그것에 대한 목적과 배경 그리고 문제점들을 교환해 보고 관심을 끄는 시기가 된다.

협회는 회원들을 위해 여과와 순환 역할을 대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으로 잘 정의 되도록 생산되어질 때, 그 안에서 갑론을론편으로부터 쌍방 공박의 민주주의적 여론과 선택적 결심들이 용광로에 여과됨으로써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 한다.

회장은 개인적 명예욕과 전통적인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리더로서 회원들의 개인적 관계로서 인간적 상호관계가 철저히 요구되어지는 민주적 사고방식들로 정착되고 여론에 의해 새롭게 통합되어지고 여과되는 것들에 대해 회원을 우선 신뢰하고 같이 걸어나가야 하겠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고 타협하기 위한 토론의 정착과 새로움을 만들기 위한 흑백 논리로써 예리한 판단, 정확한 결정론적 인사들로 새 변화요구에 기여함은 물론 주도세력으로써 협회가 아니고 타협하기 위한 새로움을 만들기 위한 모든 회원들속에 이익과 권한이 균형되

게 이루어져 이러한 뒷받침이 총체적인 교감으로써 주도세력의 독점물이 아님을 천명해야 한다. 임원들의 활동이 조직 역할에 중요시 되어지고 몫이 크다고 할 때 그 역할들이 외유되어지고 아랑곳 없을 정도의 활동 수준은 새로운 이슈별로 전문성, 정보화, 과학화, 개방화, 세계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화에 따른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함은 우리의 건축사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내·외적 새로운 제도와 법들로 인해 건축사 역할이 우리사회에 모호하게 존재되어지고 한세기를 뜻하는 일로 마감하지 못하고, 새로운 21세기 선진국 도약 발판으로 매진에 힘을 모아 우리의 입지를 확실히 할 때 그것에 규정들이 비밀이 아주 극소수들만이 인테넷트 되어 하드적인 시스템만으로 개인적인 취향으로 도취되고 교환되어진다면 우리앞엔 늘 폭풍이 도사리고 있음을 역설한다.

구연한 것들을 털어버리고 술선수범하여 회원 중심협회로 새로움의 꿈을 위해 주도세력의 높은 자각심은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알고 새로운 협회를 위해 회원의 중요성을 존중하는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주인은 회장이 아니고 회원이다.

회원들도 무관심속에서 협회를 질책 할 수 없다고 할 때 새로운 회원들에 의해 갱신되어지고 교화적인 교훈을 기대한다고 한다.

오늘날의 사회는 바쁘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회의 중요한 부분에서 여러 조직속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할 일들이 많다. 그중 우리 협회조직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지만 협회의 성패가 임원들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 임원은 협회의 핵심이며 협회 성패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조직의 순리적 철학인지 모른다. 모든 회원에게 공정한 리더가 되는 것은 쉬운일은 아니지만 공정한 인간관계 기술의 향상은 모든 회원에게 만족감과 더불어 리더의 존경심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소신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리더는 민주주의 철학과 자질의 소양이 있어야 하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민주형 다수결 선택방법만이 꼭 백퍼센트 좋은 것만이 아니다. 소수의 의사가 오히려 더 민주 모형일 수도 있다. 둘다 중요하다. 이것에 조화와 균형을 찾도록 리더의 상대성을 강조하듯 리더의 자질이 있느냐 수준미달이나 보다는 리더의 자질 향상 방향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문적 지식으로 총체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또한 리더는 이런 자질을 갖

추도록 자발적인 노력과 임원으로부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회원은 임원을 믿고 임원은 회장을 믿고, 낮고 높은 구조와 높고 낮은 구조의 배려들로 이들이 차원의 혼합체로서 리더의 행동을 정의하고 매니저얼 관심도를 지향하여 이에 적합화 할 수 있는 리더의 기초가 되도록 해야 하겠다.

그러므로 고하를 떠나서 상호간의 깊은 이해와 신뢰를 형성해 리더는 창조적인 지도로 현 상황을 도외시 않는 즉,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대행과 상·하간에 인간적인 관계유지가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인간적 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영양소이다.

리더는 인간적인 측면 차원의 대화를 가져야 한다.

권위적이고 위하적인 태도에서 탈피하여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을 관리하고 심리적 상태 파악을 통해 조직의 인간적 관계를 높여야 한다. 내면적인 상태를 모르고서는 외적인 상황을 충분히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원들의 독자성과 창의성을 발휘 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급격한 사회기능의 변화로 그 구조적인 면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여러층의 건축사들로 구성된 협회는 지적수준의 저하 등에서 오는 리더십의 문제점 보다는 고학력에서 오는 리더십의 문제가 더 크게 대두되고 있는 반면 일부 회원들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임원들의 역할을 수동적, 소극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열성과 자발적인 공헌을 바랄 수가 없게 되어 공동의식을 저해 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가치관이란 말은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신념으로써 넓은 의미로의 윤리적 관념시대와 경우에 따라서 변형되고 바뀌어지는 것이 특성이다.

리더는 유능한 임원들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조직을 강화시키고 협회 업무 수행을 능률적으로 효율화 시키는데 연구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리더와 회원 사이의 상호 조화적인 건설은, 리더 자신의 존재를 회원의 관계 속에 존재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그 어려움속에 숨어있는 진실을 충전해가고 감각과 정신을 전개하므로 리더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셰인(Edgar H. Schein)은 조직의 진단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우수한 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은 바람직한 진단자라고 설명하지만 리더는 임원들의 능력이나 그 각각의 차이를 알고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을만한 감수성과 진단능력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현대는 조직체의 시대이다.

협회도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협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임원들의 리더십을 향상, 발전 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무능한 협회란 없다. 단지 무능한 임원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임무 및 권한, 책임을 가장 능률적이고 리드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한 변수로 적용 될 수 있고 마음대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곳에 회원 중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그 목소리는 진정한 회원의 목소리로 하나가 되도록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주관이 뚜렷하고 주저함이 없고, 바로 그가 일을 치뤄낸다. 주관이 없는 사람은 결눈질로 일을 추종한다.

100년간 이어온 인류의 대화합이 애틀란타에 모여 인간적 관계로 하나가 되어 온 인류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각 대륙을 대표하고 열정과 우정으로 카운트다운이 4년 마다 시작된다.

그동안 인류의 큰 잔치 이 조직에도 이념적 갈등으로 싸움과 불참으로 오점의 역사도 남겼지만 자유와 인권을 필요하는 인간들로 만나고 싶었다.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지구촌 하나의 가족임을 세계인들은 환영하고 새로운 부활과 축하로 옛것과 새것이 접목되어 펼쳐진다.

이 영웅들의 모임속에 기수들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인류가 하나임을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그 조직에 축하의 박수를 드리면서 그들의 정신을 정말로 환영하고 싶다.

우리 협회의 리더는 기수이다.

세계 인류가 건전한 한 가족임을 중요한 의미로 우리 협회의 새로운 리더십을 기다린다.

지구촌의 가족은 이제 한 국가 한 집단만의 고유물이 아니다. 협회의 정체성은 회원이라 할 때 그 의미는 개인의 원격처리를 벗어나 양과 질이 혼합되어 인간 생태적 삶의 질 속에 집단의 관계가 대화합의 뜻을 못 이루고 엄청난 서로 다른 사고방식의 갈등으로 커져만가는 협회를 볼 때 우리 스스로가 외부의 도움이 없이 우리 조직의 공급자로 혁명적인 삶의 질을 선택할 때이다.

회원들의 선택이 넓혀 질 수 있고 드림워크적인 조직으로 창조적인 리더십을 기다려본다고 할 때 우리 회원들은 꼭두각시처럼 쳐다만 봐야 하는 만성적 고통을 치부하는 우울증에 걸려 서로간에 대화의 창구에서 처방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은 아닌지 그것이 자명한 사실이 아

닐지언정 리더는 모든 회원에게 주체가 되도록 닫힌 협회에서 열린 협회로 개방의 집단으로 주체들이 집단의 한 부분이 되고 닫힌 협회에서 열린 협회로, 개방의 집단으로 주체들이 집단의 한 부분이 되고 전체의 한 부분을 조정이 되도록 창조적인 인간적 관계집단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특히 특정 계층들만이 빠져서 촉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은 아닌지, 협회의 주원은 회원이고 회원에게 모든 운영정보를 인터넷 하에 전통에서 벗어나 개방 집단으로 주권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 및 창조적인 발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여론의 공급자, 수요자는 회원이다.

협회 조직의 리더의 지도력의 특성, 양상을 분석해 볼 때 분리될 수 없는 만능적이고 습관적인 저해 요소로써 학연관계 및 인맥관계 그리고 지역관계, 집단관계가 혼연되어 지나친 과거의 전통주의적 관계가 계속 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권위주의적이고 보호관리 습관적 접근을 탈피해야 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게 된다.

우리 협회는 언제부터인가 학벌위주와 학연중심주의 집단으로 파행적인 의식들로 어떤 부분들은 남을 의식하지 못한 다른 부분들이 가진 고통들을 무시한채 효과적 수단과 방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 집단주의로 사담으로 하여금 사람다운 존재의 균형이 깨져 버린지 오래이고 동물적 집단으로 모델화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인간은 평등하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언급을 않겠지만 우리 사회 구조에는 언젠가부터 거대한 힘들이 끊이지 않고 재벌과 학벌 중심사회로 물질과 양으로만 이어져 왔지만, 이제는 질과 정신적 능력 중심사회로 전화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로 협회도 모든 회원들에게 고른 균형의 분배로 새로운 조직 구성을 기대해 본다.

과거의 안일에서 벗어나 회원을 위한 멀티서비스로 진화되고 살아 남을 수 있는 새로운 조직으로 여기 저기에서 자질에 따라 우수한 능력중심주의로 우리의 큰 협회는 21세기를 향한 총체적인 인간관계속에서 소프트 시스템 개발을 내 놓아야 한다.

질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롭고 창조적인 리더를 기다리면서

1995년 10월 5일 반신반의 했던 중국제 양약이 효과를 발휘했나보다.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였다. 맑은 햇살이 비치는 기분좋은 날씨이다. 어제 함께 했던 택시를 렌트하여 오늘의 일정을 시작한다.

아슬아슬한 절벽위의 사찰 - 懸空寺

오늘의 첫번째 목적지는 大同市 동쪽의 渾源縣에 위치한 懸空寺이다. 렌트한 택시로 약 2시간 정도를 달려 목적지인 懸空寺에 도착하였다. 懸空寺는 山西省의 고건축을 소개하는 책자의 표지로 자주 등장한다.

협곡의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건축되어 있는 절경속의 사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의 이름도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뜻의 '懸空' 인가 보다. 그 사진에 매혹되어 이곳을 목적지 중의 하나로 선정하게 되었다.

懸空寺는 渾源縣 시내에서 남쪽으로 약 5km 떨어진 恒山아래 金龍口라고 하는 계곡의 서쪽에 거의 동향하여 위치하고 있다. 恒山은 太恒山, 元岳 또는 常山

이라고도 한다. 4천년전 舜임금이 사망을 돌아다니다 이곳의 산세가 웅장한 것을 보고 北岳으로 삼았다고 한다. 恒山은 서쪽으로 雁門關과 접해 있고 동쪽으로 河北省과 이어지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동서 두개의 봉우리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동쪽이 天峰, 서쪽이 翠屏山이다. 이 두 봉우리 사이로 渾水가 흐른다. 이러한 지형적인 이유로 인하여 옛날부터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한다. 古來로 18景勝이 있어왔는데 현재는 그 중의 일부가 남아 있으며, 懸空寺도 그 중 하나이다.

懸空寺의 연혁은 대략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恒山志>에 의하면 北魏 滿期에 건축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볼 수 있는 건축양식은 대부분 元代의 건축양식을 기반으로 한 明代 이후 清代의 양식을 보이고 있다. 지붕은 중국적인 건축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 주로 황색과 녹색의 유리외물 사용하여 장식적인 지붕을 구성하였다. 절의 진입은 협곡의 가장 끝 동쪽에서 시작된다. 경사로를 따라 동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절의 입구인 山門이 나오게 된다. 山門을 통과하면 크게 두개의 구역 네 부분으로 나뉘어진 건물군이 시작된다. 건물들

중국 고건축 기행(3)

Travels of Chinese Traditional Architecture

산서성(山西省)을 중심으로

김도경 / 고려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원전문대 강사
by Kim Do-K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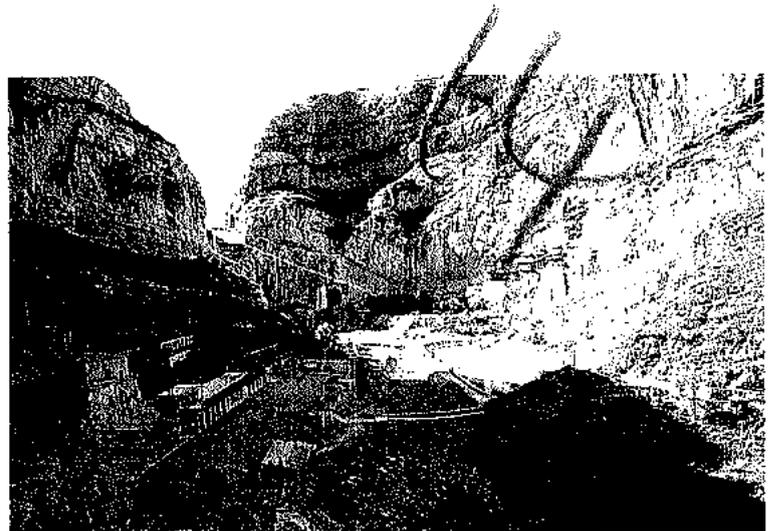


사진 1. 渾源 懸空寺 전경 : 恒山の 金龍口 절벽 서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懸空寺의 모습이 기묘하기만 하다.

은 절벽에 구멍을 파고 나무 보를 박아 만든 받침위에 건축되었다. 필요한 곳에는 석축을 쌓고, 긴 나무기둥을 절벽 곳곳에 세우기도 하였다. 대부분 누각식으로 지어진 건물들 사이를 목조 다리와 사다리로 연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2층 또는 3층의 구성을 하고 있으며, 사찰을 구성하고 있는 건물은 모두 40칸 정도이다. 건물 외에 절벽에는 石刻한 여러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곳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은 모두 80여존으로 鐵佛, 銅佛, 泥塑像, 石彫像 등 매우 다양하다.

아침에 이곳을 방문한 것은 다행이었다. 懸空寺는 동쪽으로 치우친 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 무렵 이후에 방문하게 되면 사진찍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山西省을 안내하는 책자의 걸표지를 장식할 정도로 중국인들이 자랑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곳을 답사하게 되었지만 절벽에 위치한 절묘한 건축군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건축적으로 그리 특징지을 만한 내용은 없다.

이와 같이 현애절벽에 아슬아슬하게 절을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개념과는 좀 다른 절묘한 것을 좋아하는 중국인의 특성이 여지없이 반영된 것일까? 당시 절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절의 다리 난간에서 내려다 보는 계곡의 모습이 어지럽기만 하다.

金代의 密式塔 - 渾源縣 圓覺寺 전탑

渾源縣 시내로 돌아왔다. 이곳에는 圓覺寺와 永安寺라고 하는 두 사찰이 있다.

圓覺寺는 거의 폐허가 된 상태이다.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전혀 없고, 山門과 전탑 하나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나마 山門도 근래에 만든 것이다. 전탑과 山門으로 미루어 볼 때 사찰은 거의 남향에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남쪽의 山門을 들어서면 바로 전탑이 나온다.

이 탑은 金正隆3년(1158년)에 만들어졌으며, 明 成化年間(1465년-1487년)에 수리된 바 있다고 한다. 密式이라고 불리는 형식을 한 8각형 평면의 9층탑이다. 밀침식탑은 1층

의 탑신이 다른 층에 비해 유난히 높다. 또한 2층 이상은 탑신이 거의 없이 지붕만 있는 외관을 이루고 있으며, 내부가 활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圓覺寺塔은 이러한 전형적인 밀침식탑의 외관을 지니고 있다.

기단은 수미단 형식이며, 높이는 약 4m로 높은 편이다. 기단 각 면에는 나지막한 감실을 두고 전돌에 조각을 새겨 놓았다. 각 감실 옆에는 기둥을 조각하였으며, 기단의 가장 윗부분에는 공포를 두어 卍字를 구성하였다. 평좌는 탑이나 건물의 받침 또는 다층건물에서 상층의 받침을 형성하는 부분이다. 이 평좌에 사용된 공포는 2층목(5鋪作)으로 비교적 간단한 구성을 하고 있다. 공포를 비롯한 모든 조각은 모두 전돌을 깎아 만든 것으로 탑을 세우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전돌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성제품을 사용하여 조립하는 기법은 遼代에 이룩된 매우 발전된 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좌 뿐 아니라 1층 탑신 상부에도 전돌을 이용하여 공포를 만들어 놓았다.

이 공포에서 주목되는 것은 모서리에 위치한 귀포이다. 귀포는 건물의 평면이 팔각형인 관계로 인하여 사선으로 빠져나온 살미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遼代와 金代에 유행하였던 斜의 발생과정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이다. 다각형 건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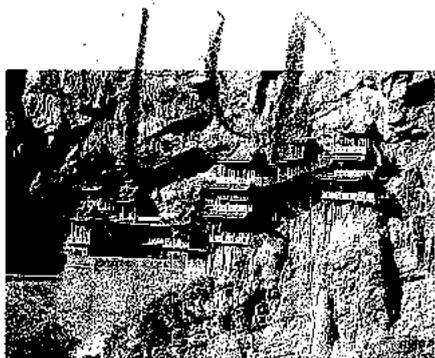
사진 2. 渾源 懸空寺 전경 : 절벽에 기대어 필요한 곳에 축대를 쌓고, 기둥을 세우고, 절벽에 구멍을 파 보를 끼워서 건물을 올려놓았다.

사진 3. 渾源 圓覺寺 塔 : 1층 내부의 천장이다. 외부에서와 마찬가지로 공포를 구성한 위에 穹窿(dome)형 천장을 만들었다. 중앙에 연꽃을 그려놓은 주변으로 여덟 개의 부처를 그려 놓았다. 이 벽화들은 明代에 제작된 것이라고 한다.

사진 4. 渾源 懸空寺 : 건물을 절벽에 세우기 위해 보를 삼입한 모습이다.

사진 5. 渾源 永安寺 : 山門을 통과한 후 中殿을 본 모습이다. 中殿의 어간은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 문을 통하여 正殿인 傳法定宗殿의 어간이 보인다. 중심축을 설정하고 좌우대칭으로 건물을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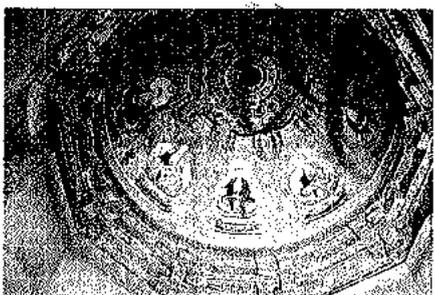
사진 6. 渾源 懸空寺 : 건물과 건물 사이를 나무다리로 연결하였다.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는 모습은 더욱 더 아슬아슬하기만 하다. 건물의 일부는 절벽을 파 감실을 만들기도 하였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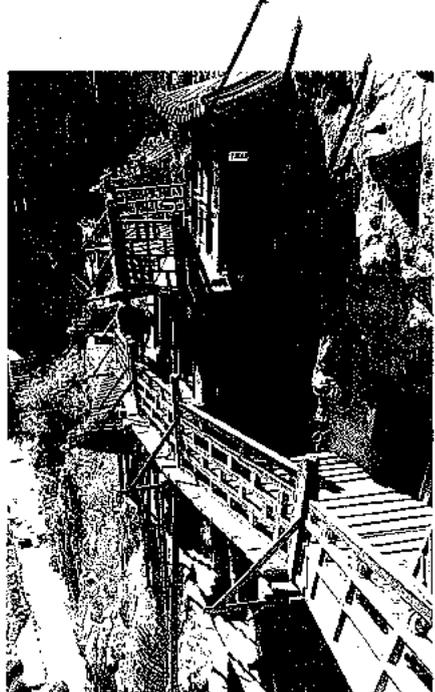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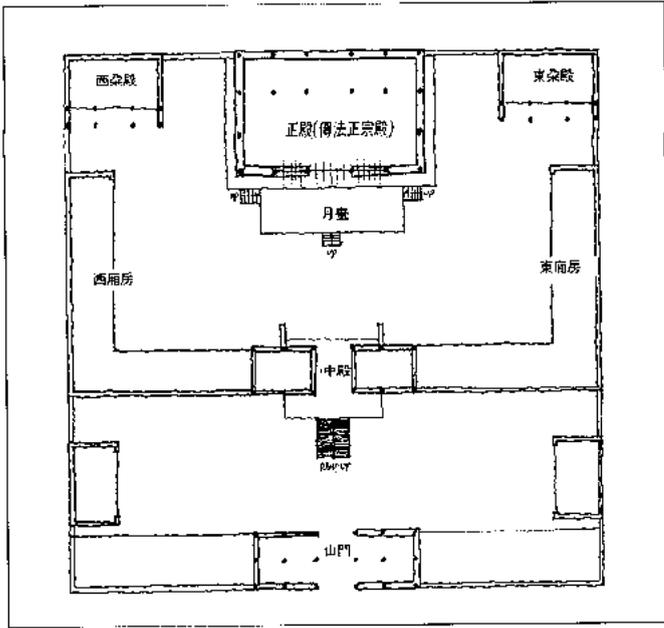
3



5



6



도면 1. 渾源 永安寺 배치평면(축척 없음)

귀포에서 사선으로 들출한 살미가 일반 목조건축에서 斜으로 채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가정이 옳다면 斜은 다각형 평면의 건축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게 된다.

1층 탑신은 탑 전체 높이의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탑신의 각 모서리에는 전돌을 쌓아 만든 기둥이 있다. 기둥의 하부에는 초석을 새겨 놓았으며, 상부에는 창방과 평방을 새겨 놓았다. 1층 탑신 정면과 후면, 그리고 동서의 좌우 측면에는 상부에 홍예(arch)를 둔 문을 두었다. 이 네개의 문들중에서 정면, 즉 남측면의 문은 실제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다. 나머지 세 면의 문은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문으로 판장문을 조각하였다. 문을 설치한 네 면을 제외한 각 면에는

상하에 문인방을 만들고 그 사이에 살창을 조각하였다. 전체적으로 1층 탑신은 목조건축을 상당히 세밀하게 모방하여 놓고 있어 당시 목조건축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탑 앞에 사다리가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1층 탑신에 올라갈 수 있었다. 1층 탑신은 내부가 비어있다. 천장을 공룡형(dome)으로 하였는데, 외부에 공포가 표현되어 있듯이 내부에도 공포가 새겨져 있다. 입구의 문 양측과 내부의 벽면, 그리고 천장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 明代에 그려진 것이라고 한다. 불상은 없다. 원래 있었던 것이 후대에 없어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1층 탑신의 내부 시설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은 큰 수확이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구조만으로 볼 때 올라갈 수 없는 곳에 어째서 이러한 시설을 한 것인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풀어야 할 숙제 하나만 더 생긴 셈이다.

2층 이상은 마지막 9층의 탑신이 약간 높게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탑신의 높이와 폭, 그리고 지붕의 폭이 거의 직선적으로 체감되는 모습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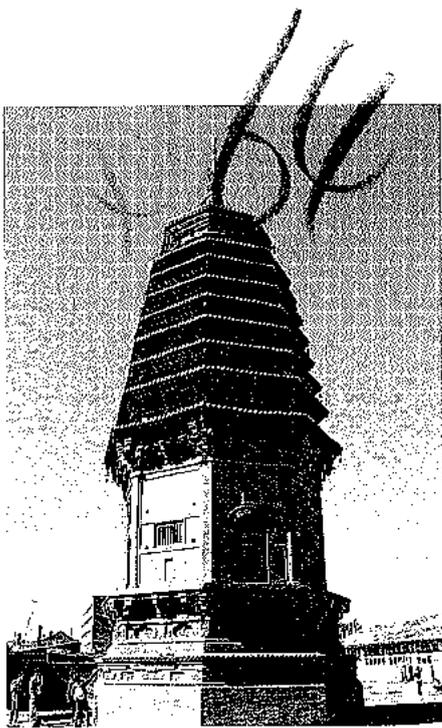
각층의 탑신은 거의 없고, 단형으로 돌출되는 모습으로 공포를 간략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최상층 지붕 위에는 상륜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남아있다. 상륜의 가장 윗 부분에는 새 모양의 금속조각이 있다. 이 조각물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 돌게 되어 있어서 풍향계의 구실을 한다고 한다.

사진 7. 渾源 圓覺寺 塔 : 동측에서 본 전경이다. 遼·金代의 특성을 반영한 전형적인 밀침식탑으로 보존상태가 완벽한 편이다. 외형은 목조건축의 모습을 충실하게 모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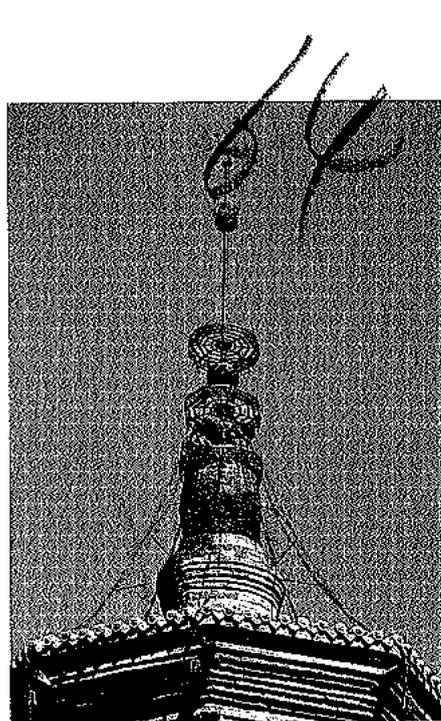
사진 8. 渾源 圓覺寺 塔 : 상륜부 최상부에는 새가 있다. 이 새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돌게 되어 있다.

사진 9. 渾源 永安寺의 正殿인 傳法定宗殿의 앞모습이다.

사진 10. 安東 鳳停寺 大雄殿 : 永安寺 正殿의 공포는 이 鳳停寺 大雄殿의 공포와 그 구성이나 형식이 거의 동일하다. 다만 鳳停寺 大雄殿의 공포는 永安寺 正殿보다 부재의 사용이 더욱 강직한 모습을 하고 있음이 다를 뿐이다.



7



8



9



10

圓覺寺 塔은 그 보존상태가 완벽한 편이며, 金代에 만들어진 밀침식탑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밀침식탑은 遼代와 金代에 유행한 한 형식이다. 평면은 대부분 팔각형이다. 隋代와 唐代에 만들어진 전탑의 평면이 대부분 방형임과 비교되는 평면형의 변화라 할 수 있다. 宋代에도 전탑의 평면은 팔각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조형은 樓閣式으로 遼·金代의 밀침식탑과는 그 계열을 달리한다. 귀포에 사용된 건물에서 斜線으로 돌출한 살미는 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斜은 일반적인 공포에서와는 달리 건물에서 직각방향인 아닌 45도 혹은 60도의 각도로 돌출한 부재이다. 현존하는 건물 중 斜이 사용된 최초의 건물은 遼代에 조성된 건물이다. 또한 斜은 遼·金代에 집중적으로 유행한 이후 元代를 고비로 하여 점차 소멸된다.

이 두가지 요소, 즉 팔각형 평면의 밀침식탑, 그리고 斜의 사용은 遼·金代 이외에는 그 사용이 거의 없었던 특이한 요소이다. 어찌서 이 시기에 이러한 요소들이 집중적으로 유행하였을까? 아직은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나 遼·金왕조가 모두 漢族과는 다른 북방계의 민족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건축에 영향을 끼쳤던 민족적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元代의 목조건축 : 渾源縣 永安寺 正殿

渾源縣 시내 圓覺寺 근처에는 또 다른 사찰인 永安寺가 있다. <寧通志>의 기록에 의하면 永安寺는 金代에 건축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후 화재로 훼손되었다가 元代初에 渾源縣 출신의 住持인 高定이 중건하였다고 한다. 사찰은 대략 남향하고 있다. 중심축선상에 남쪽으로부터 山門과 中殿이 있

고 맨 뒤에 正殿이 위치하고 있다. 正殿과 中殿 앞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廂房을 두었다. 결국 中殿을 중심으로 한 院落¹⁾과 正殿을 중심으로 한 院落이 남북으로 연속되어 배치되어 있는 셈이다. 正殿 양 옆으로는 동서 朵殿을 두었으며, 寺域 전체를 감싸는 담장을 둘러놓았다. 대부분의 건물은 明清代의 건축적인 수법을 보이고 있으며, 正殿만은 元代의 건축수법을 보유하고 있다. 건물의 양식은 시대를 달리하고 있지만 정연한 배치형태가 잘 남아있는 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

正殿은 원래 '傳法正宗殿'이라고 불리운다. 정면5칸(약 24m), 측면3칸(약 15m)의 건물로 지붕은 우진각지붕을 하고 있다. 정면의 중앙 세칸에만 각 6짝의 창호를 두고 정면의 나머지 칸과 측면, 그리고 후면은 두꺼운 벽체로 하였다. 정면 양 끝간(梢間)에는 '莊嚴'이라는 두 글자를 적어놓았다. 내부에는 明代에 만든 三尊佛이 있는데, 중앙에 毘盧佛이 있으며, 양옆으로 阿難과 迦葉이 있다고 한다. 건물 전면으로는 넓고 나지막한 月臺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정면 중앙에 계단을 두었다. 기단은 月臺보다 한 단 정도 높게 되어 있다. 초석은 방형으로 그 위에 원형의 柱座가 있다. 기둥은 좀 세장한 편으로 약간의 배흘림을 두었다. 기둥 상부에는 창방과 평방을 올려놓고 공포를 두었다. 정면과 후면의 어간에만 각 두 구씩의 공포를 두었고, 나머지 간에는 모두 한 구씩의 공포를 두었다. 공포는 외2출목(5鋪作)으로 제1단의 살미는 교두형이며,

사진 11. 渾源 永安寺 正殿 전면의 柱心包이다. 외2출목(5鋪作)의 구성을 하고 있는 공포가 매우 눈에 띄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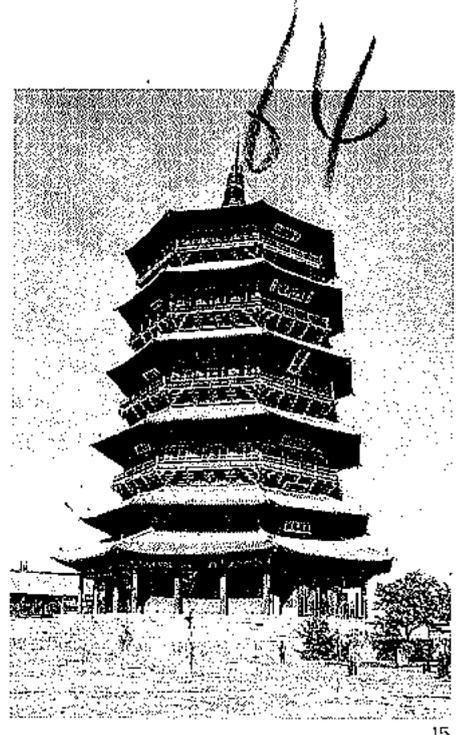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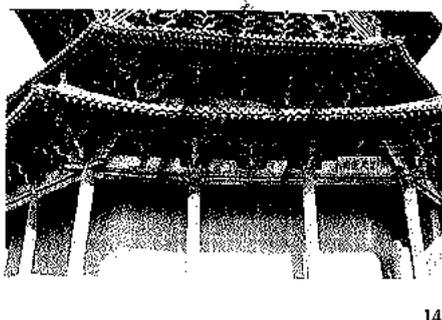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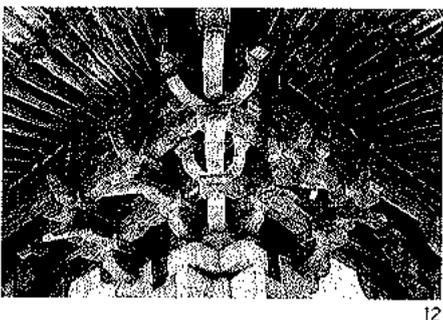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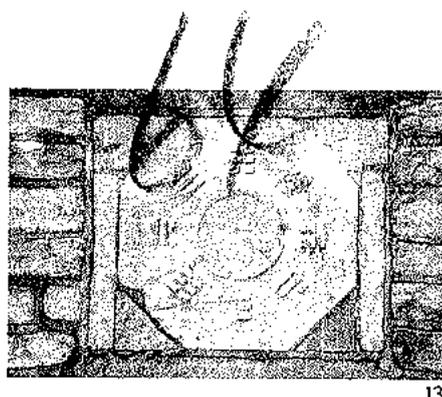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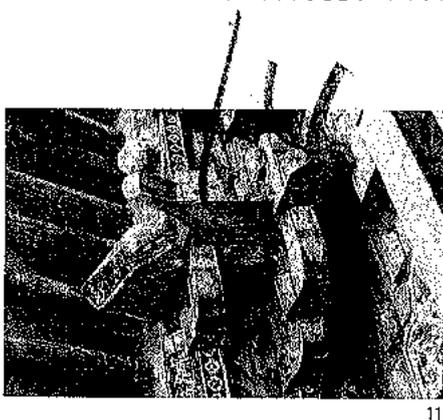
사진 12. 渾源 永安寺 正殿의 귀포이다. 귀기둥 상부의 주두 양 옆으로 다시 주두를 놓아 별도의 공포를 만들었다. 이 세 개의 공포를 조합하여 귀포를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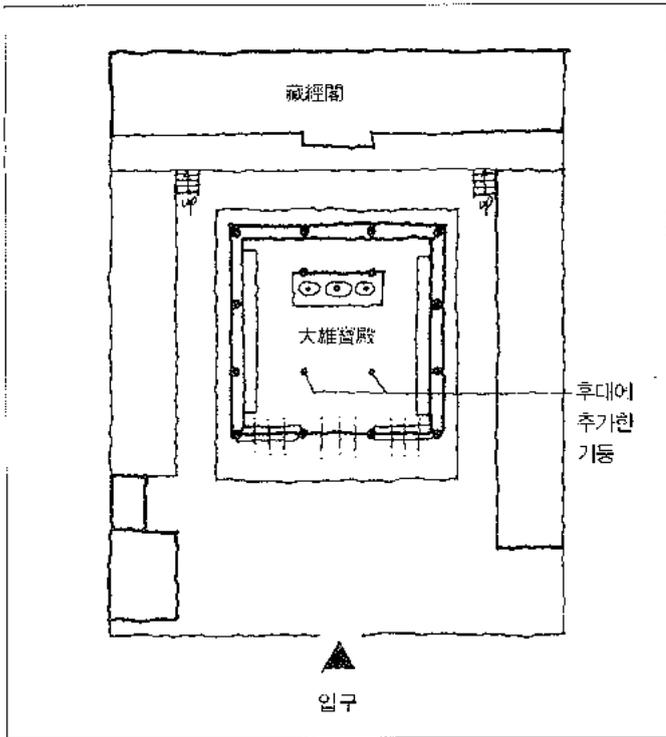
사진 13. 應縣 佛宮寺 釋迦塔 : 기단에 太極과八卦를 새긴 돌을 끼워 놓았다.

사진 14. 應縣 佛宮寺 釋迦塔 : 1층 副階와 몸체의 공포대이다. 釋迦塔에는 모두 56종의 공포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사진 15. 應縣 佛宮寺 釋迦塔 : 속칭 應縣木塔이라고 불리는 이 탑은 遼 清寧2년(1056년)에 건축된 중국내에 현존하는 유일한 목탑이다.

1) 마당을 가운데 두고 대우변으로 건물을 배치한 것을 院落이라고 한다. 결국 卍舍院의 형식을 이루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이를 배치의 공간단위로서 파악하고 있다.





도면 2 山西 應縣 淨土寺 배치평면도(축척 없음)

제2단의 살미는 양서형이다. 그 위에 단부를 三盆頭형으로 조각한 보머리를 두었다. 제1출목선상에는 횡으로 두 단의 첨차를 두었으며, 제2출목선상에는 한 단의 첨차와 통장허를 사용하여 외목도리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봉정사 대웅전의 공포와 비슷한 모습이다. 다만 正殿의 공포는 봉정사 대웅전 공포와 비교할 때, 건물의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 공포의 규모가 작고, 공포부재 자체의 크기와 비례가 약하다는 차이를 지닌다. 이는 보를 사용하는 개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공포의 구성에 유

사성이 존재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일까? 내부에 들어가 볼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문이 잠겨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었다. 결국 내부구조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 점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허다하다. 어쨌든 현재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건축물을 직접 발로 찾아다니며 살펴보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해준 건물이었다. 일본인들의 손에 의해 연구되어 현재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국건축의 양식적 유래에 대한 연구는 이렇게 발로 뛰는 연구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渾源에서 간단히 점심식사를 한 후 應縣으로 향한다. 택시로 쉬지 않고 약 1시간 30분 정도를 달려 應縣에 도착하였다. 멀리 佛宮寺 釋迦塔이 바라다 보인다. 끝없이 펼쳐진 황토평원, 그리고 그 속에 목탑이 우뚝 솟아 있다. 탑위에 오르면 사방으로 아주 멀리까지 전망할 수 있으리라.

현존하는 중국 유일의 목탑 - 佛宮寺釋迦塔

佛宮寺는 應縣 시내 한복판에 남향하여 위치하고 있다. 남북 중심축을 설정하고, 남쪽으로부터 山門과 釋迦塔을 두었다. 山門과 釋迦塔 사이에는 앞쪽에 鍾樓과 鼓樓가 있고, 그 뒷편으로 東西廂房이 위치하여 하나의 院落을 형성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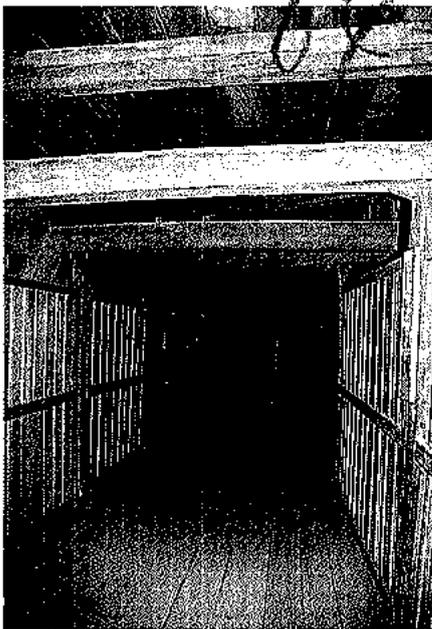
사진 16. 應縣 佛宮寺 釋迦塔 : 1층 상부 暗層의 내부이다. 暗層의 내진부는 건물의 구조체인 목재로 가득차 있어 공간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외진부만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사진 17. 應縣 佛宮寺 釋迦塔 : 2층 여간의 공포대

사진 18. 應縣 佛宮寺 釋迦塔 : 3층 상부 暗層의 외진부의 구조이다. 기둥과 연결하여 수많은 경사진 부재, 즉 가새를 두어 구조체가 횡력에 잘 대응하도록 하였다.

사진 19. 應縣 佛宮寺 釋迦塔 : 3층 평좌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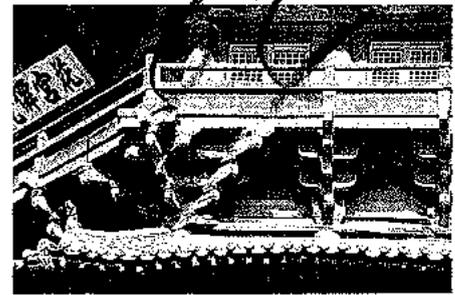
사진 20. 應縣 佛宮寺 釋迦塔 : 3층의 내진부에는 四方佛을 방위에 맞추어 안치하였다. 내진부 상부는 암층의 공간을 이용하여 외진부보다 천장의 높이를 높게 하였다.



16



17



19



18



20

다. 釋迦塔 뒷편으로는 역시 동일한 중심축선상에 後大殿이 위치하고 있다. 後大殿 앞쪽으로는 東西廂房이 있고, 좌우에 朵殿이 있다. 이 영역은 담장이 둘러쳐진 별도의 영역을 이루고 있다.

절의 중앙에 위치한 佛宮寺釋迦塔은 속칭 '應縣木塔'이라고도 한다. 遼 清寧2년(1056년)에 창건되었다. 이 목탑을 소개하는 모든 설명에는 元대에 7일간의 지진을 겪으면서도 현재까지 건재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구조적으로 튼튼하다는 설명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 탑은 전체 높이가 약 4m에 이르는 높다란 2층기단위에 세워졌다. 1층기단은 방형, 2층기단은 8각형으로 평면을 달리 하였다. 1층기단과 2층기단의 네 면으로는 돌출한 월대가 있고 여기에 계단을 설치하였다. 기단은 석조를 기본으로 하고 약간의 전들을 사용하고 있다. 1층기단의 상면 바닥에는 평평한 막돌을 깔고, 2층기단의 상면에는 方磚을 깔아 놓았다. 기단 모서리에는 石獸를 조각하여 놓았다. 기단면에 박아놓은 태극과 팔괘를 새긴 돌이 이채롭다. 탑의 평면은 8각형으로 모든 층의 각면이 모두 3간이다. 이와 같이 최하층에서 최상층까지 모든 면의 間數를 모두 동일하게 하는 것은 北魏代 이후의 전통적인 수법이라 할 수 있다. 1층에는 탑 몸체 주변으로 副階를 설치하였다. 탑의 높이는 외관으로 볼 때는 5층이지만 내부에 지붕을 가설하면서 생기는 暗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9층이라 할 수 있다. 지붕은 팔각형의 모임지붕으로 그 위에 철제 상륜이 올려져 있다. 탑찰을 포함한 전체 높이는 67.13m이며, 하부의 직경은 약 30m이다.

탑의 구조는 내외 2층으로 기둥을 세워 내진과 외진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기둥과 내외진 기둥 사이에 여러 가지 용도의 수많은 목재를 사용하여 가능한 한 전체 구조를 한 덩어리로 만들려고 하였다. 특히 기둥과 인방 및 창방으로 구성되는 네모난 구조에는 경사진 가새를 두어 전체 구조를 일체가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내부공간 또한 내외진의 2층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내진부는 불상이 봉안되는 공간이며, 외진부는 사람이 통행하고 예불을 보는 공간이다.

1층을 제외한 모든 층, 모든 간에는 창호를 두어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난간을 설치하여 탑 밖으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였다.

난간은 暗層기둥 상부에 설치한 平坐공포를 이용하여 받치도록 하였다. 상층기둥은 기본적으로 하층기둥 상부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기둥의 위치를 약간씩 안쪽으로 들여놓았다.

그 들여놓은 정도는 明層기둥 보다는 暗層기둥에서 크게 하였다. 상층과 하층을 나누는 기준이 暗層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각 기둥에는 정도가 큰 안살림(側脚)을 두었다. 이와같은 안살림 수법은 상층기둥을 하층기둥보다 안쪽으로 들여놓는 방법과 더불어 목탑전체의 무게중심이 중심쪽으로 치우치게 하여 전체 구조가 안정되도록 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기둥은 모두 나지막한 柱座가 없는 방형초석위에 올려져 있다. 모두 원기둥으로 흘림을 두지 않은 원통형이며, 기둥 상부에는 1/4원으로 강한 편수깎기를 하였다. 기둥 상부에는 창방과 평방을 올려놓고 그 위에 공포를 설치하였다.

이 목탑에 사용된 공포의 종류는 모두 56종에 이른다고 한다. 정확한 숫자는 세어보지 않았으나 위치와 용도에 따라서 다른 유형의 공포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역시 遼代에 건축된 건물답게 斜이 사용되어 있다.

사진 21. 應縣 淨土寺 大雄寶殿은 金 大定24년(1184년)에 중건되었다. 규모는 작으나 내부에 화려한 장엄을 베풀었다.

사진 22. 應縣 淨土寺 大雄寶殿의 정면 주심포이다. 외1출목(4鋪作)의 간단한 구성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위 다포계 공포의 초기적인 모습과 유사하다.

사진 23. 應縣 淨土寺 : 목재를 치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직도 자귀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 24. 應縣 淨土寺 : 치목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패들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패와는 다른 모습이다. 단원 김홍도의 풍속도에서 이러한 모습의 대패를 볼 수 있다.

사진 25. 應縣 佛宮寺 釋迦塔 : 3층 내부 외진부이다. 각 층의 외진부는 통로와 예불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내진기둥과 외진기둥 사이에 수많은 보를 걸어서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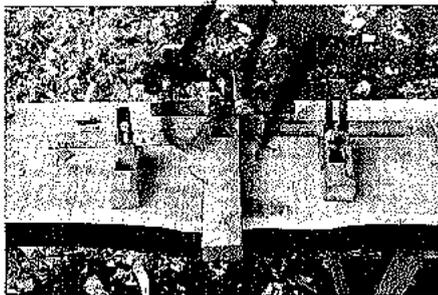
21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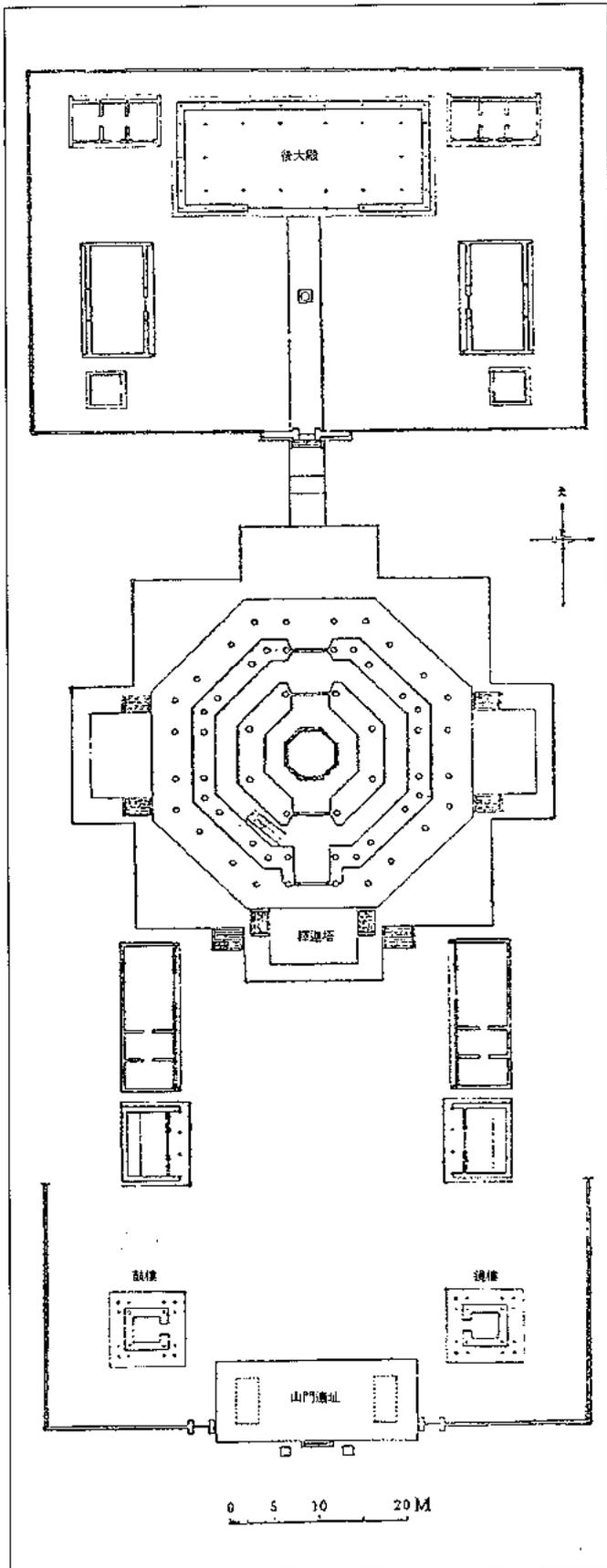
22



24



25



도면 3. 山西應縣佛宮寺現狀總平面

각 층에는 다양한 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1층에는 내전에 커다란 釋迦坐像을 봉안하였으며, 3층에는 塑造의 四方佛을 안치하였다. 5층의 경우에는 중앙에 塑造如來坐像을 봉안하고 주변에 八大菩薩을 여덟 방향으로 안치하였다.

金代の 목조건축 - 應縣 淨土寺 大雄寶殿

應縣 시내 동북쪽에는 金 大興2년(1124년)에 창건된 淨土寺가 있다. 일반적으로 '北寺'라고 부르는데, 민가들로 둘러싸인 골목 속에 위치하고 있다. 사찰의 규모는 매우 작은 편으로 직사각형의 담장안 중앙에 主殿인 大雄寶殿이 있다. 大雄寶殿 뒷편에는 한 단 높게 쌓은 축대위에 藏經閣이 있다.

大雄寶殿은 金 大定24년(1184년)에 중건되었다. 정면과 측면이 모두 3칸으로 평면은 정사각형에 가깝다. 정면 어간에 네짝의 창호를 두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양측의 협간에는 창문을 두었다. 측면과 후면은 모두 두꺼운 벽체로 처리하였다.

기둥은 상부를 편수깎기 하였으며, 창방과 평방을 결구한 위에 공포를 두었다. 정면과 후면의 모든 간에는 각 두 구, 양 측면에는 각 한 구씩의 주간포를 두었다. 공포는 주심포와 주간포가 거의 동일한 형식이다. 외1출목(4鋪作)의 간단한 형식으로 된 공포의 구성과 형식은 조선초기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의 건물에서 볼 수 있는 공포와 유사하다.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녹색을 위주로 한 유리기와를 사용하고 있다. 용마루와 내림마루 및 추녀마루에는 녹색과 황색을 주로 한 유리전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장식하는 등 중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부의 간단한 구조에 비하여 내부는 매우 장식적이고 화려하다. 특히 천장은 각 간을 나누어 팔각형과 마름모꼴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화려하게 장식하여 놓았다. 내부공간은 후면에 측면의 기둥보다 약간 뒷쪽으로 치우쳐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 기대어 후불벽을 만들었다. 그 앞으로 불단을 만들고 삼존불을 안치하였다. 양 측면 벽체에 기대어 역시 불단을 만들고 18羅漢像을 안치하였다.

이와 더불어 내부의 측면벽체에는 규모는 작지만 華嚴寺 薄伽教藏殿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天宮壁藏이 있다. 내부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아쉽다.

때마침 大雄寶殿 앞에서는 건물의 보수공사를 위한 치목을 하고 있었다. 原木을 우선 다각형으로 치목한 후에 원통형으로 다듬어 나가는 방법은 우리와 동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자귀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이채로웠다. 대패들은 우리와는 다른 모습의 것이 사용되고 있었다.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정신없이 돌아다니던 비뻔 일정을 끝내고 大同으로 향한다. 해가 진 후 도로변은 어둡기만 하다. 가로등도 거의 없고, 마을에서도 빛이 거의 새어나오지 않는다. 어두운 도로를 외로이 달리는 차량의 희미한 전조등만이 빛나고 있을 뿐이다.

133



1. 근대화와 외래건축문화의 도입

조선의 오랜 쇠국정책은 1875년 강화도사건(雲揚號사건)을 계기로 개국의 급진일로를 걷게 된다. 다음해인 1876년에는 江華島條約(丙子修好條約)으로 부산(1876), 원산(1880), 인천(1883)이 개항되며, 1882년에는 한미통상조약에 이어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덴마크 등과도 통상조약을 맺게 된다.

그 당시는 개국이라 하여도 국민 대부분이 불교를 믿으며 유교사상이 국민전체 의식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었으며, 1703년경에는 천주교가 들어와 박해속에서도 교세를 확장하고 있었다.

한편 개신교는 선교사업을 위하여 1885년 4월에 북감리과의 H. G. Appenzeller내외와 북장로파인 H. Underwood, 북장로파 여선교본부 M. F. Scranton부인과 그의 아들 W. B. Scranton등이 초대 선교사로 미국에서 아라비아 선박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오므로써 시작된다. 장로파는 전도를 위한 교회활동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감리파는 교육 및 의료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한국의 개화기사는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사인

동시에 미국의 개신교 신자들에 의한 기독교의 한국 선교사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때문에 근대서양건축의 도입은 직접적으로는 서양인이, 간접적으로는 일본인에 의한 것이었지만 서양인의 경우는 동양의 거점으로서 중국과 일본에 건축설계사무소를 가지고 조선에서 건축활동을 하였다. 개국이후 서양의 건축가로서 알려진 사람으로는 조선총독부를 설계한 독일인 Lalande를 비롯하여 영국인 G. R. Harding, 러시아인 Savatin, 독일인 Rothkegel, 프랑스인 Victor Poinsel, 영국인 S. Dixon등을 들 수 있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한 두작품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미국인 William Merrell Vories의 경우는 한반도와 관계를 가진 작품활동 기간이 1914년에서 1942년까지로 최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그의 한반도에서의 작품수도 106점(확인작품수)으로 최다수이기도 하다.

이러한 뜻에서 Vories는 근대 서양건축을 한반도에 도입한 건축가로서 다른 서양의 건축가보다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건축가—강 윤(1)

Korean Architects—Kang-Y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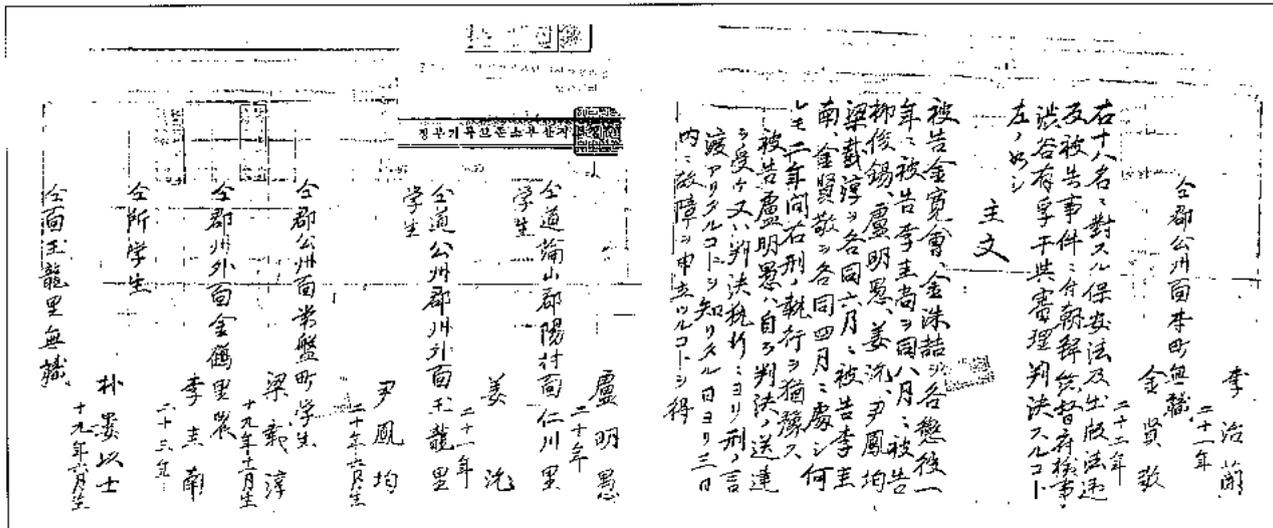
건축과의 만남

김승제 /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Seung-je

1. 한국인 건축가의 탄생배경 (필자 / 윤인석)
2. 박길룡(1) - 건축수업과 활동 (필자 / 윤인석)
3. 박길룡(2) - 작품과 건축사상 (필자 / 윤인석)
4. 박동진 - 생애와 작품 (필자 / 윤인석)
5. 강 윤(1) - 건축과의 만남 (필자 / 김승제)
6. 강 윤(2) - 강윤과 Vories (필자 / 김승제)
7. 강 윤(3) - 해방 후 작품활동 (필자 / 김승제)



영명학교 제10회 졸업사진(1920년) : 뒷줄 우측에서 두번째가 강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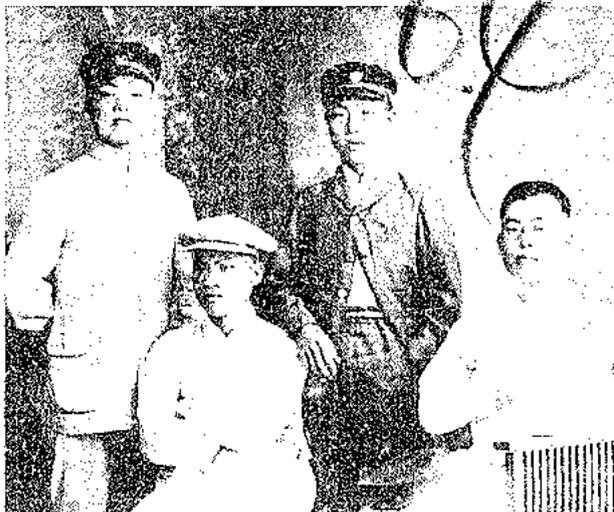
1919년 8월 공주지방법원의 강윤에 대한 판결문

2. 강윤 연구의 필요성

본고에서는 일제 암흑시기에 Vories건축사무소에 입소하여 한국의 근대화에 따른 건축문화 도입에 많은 영향을 끼친 姜允(1899~1974)에 대하여 그의 숙명적인 건축과의 만남과 그의 설계행적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조선인으로서 국내에서 혹은 국외에서 건축활동을 한 사람은 수십명에 이른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건축교육을 통하였으나 강윤의 경우는 건축에 입문하기까지의 그 특수성이 너무도 그 시대상을 잘 대변해 주고 있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남다르다. 때문에 다른 초기근대의 한국건축가들보다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못한 이유도 될 것이다. 또한, 그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국외에서 건축설계실무에 참여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조사는 기존의 문헌조사와 함께 현재 1908년 3월부터 1944년 9월 사이에 Vories설계사무소에서 실시되었던



3·1 독립운동 당시 공주시내 시위사건 주동학생(좌로부터 양재순, 윤봉근, 강윤, 홍승익)

설계도면 원도(현재 大阪예술대학 건축학과 山形政昭 교수 연구실에 소장되어 있으며 1990년 8월 직접 방문하여 입수하였다)의 입수와 수차례의 일본 현지답사, 그리고 Vories설계사무소에서 당시 강윤과 함께 근무하였던 사무원과 그를 알고 있는 생존자를 직접 방문하였다. 조사는 1989년부터 1991년 사이에 실시되었다.

3.抗日運動과 渡日

3.1 출생

강윤은 1899년 4월 21일 忠清南道 論山郡 陽村面 仁川里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약 160cm의 키에 60kg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다소 큰 눈에 안경을 끼었으며, 1920년 공주영명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대장에는 11회로 되어있으나 졸업증에는 10회로 기록되어 있다.

3.2 독립운동

1919년에 전국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났던 사건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때 강윤은 公州永明학교 재학생이었다. 공주지구의 3·1 독립만세사건의 주동자로는 영명학교의 학생들이었던 김수철, 양재순, 유관순의 오빠인 유관옥, 사촌오빠인 柳俊錫(11회 졸업), 강윤, 노명옥 등이 있었으며 이들을 포함한 18명은 공주지방법원에서 1919년 8월 29일에 형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언도받는다. 영명학교는 교직원과 전교생이 모두 독립만세에 참여하였다. 그가 졸업한 1920년 다음해에는 영명학교 졸업해당자가 전원 복역 혹은 피신 등으로 졸업자는 한사람도 없었다.

공교롭게도 강윤이 후에 日本땅 Vories建築事務所에 들어간 1920년 10월 12일은 그와 함께 공주에서 독립만세를 외친 유관순(1904~1920)이 공주경찰서를 거쳐 서울에서 7년형을 받고 서대문 감옥에서 옥사한 날이기도 하다. 유관순은 永明學校 初等科 2년 수료후 영명여학당 설립자인 사에리시의 추천으로 1916년 9월에 梨花學堂 3학년에 입학하였다. 유관순은 1919년 3·1운동



초대 영명학교 남학당장 Frank, E. C. Williams (1883~1962)

당시 교향으로 내려와 공주 3·1운동의 도화선을 만들었다. 초대 내무부장관인 조병옥 박사(2회 졸업)와 초대 상공부장관이며 중앙대학교 창립자인 임영신도 永明학교 출신이다.

天安市 木川面에는 독립기념관이 있다. 이곳은 유관순이 태어난 곳이다. 독립기념관의 입지선정에 이

지역에서 독립지사가 많이 태어났다는 이유도 있다.

3.3 W. M. Vories와 Frank E. C. William

강운이 공주지방법원에서 6월형을 선고받을 그 무렵인 1919년에는 일본에서 W. M. Vories가 영명학교 Frank E. C. William교장을 찾아왔다. 1905년 미국 뉴욕 YMCA본부에서는 대학을 갓 나온 위의 두 미국 청년을 선교활동을 위하여 각기 조선과 일본에 파견하였다. William이 조선의 공주에 도착하여 1906년 草家에 永明남학당을 세웠고, Vories는 일본의 시골도읍인 近江八幡 상업학교에서 영어교원 생활을 2년간 마치고 1907년 Vories건축사무소를 차렸다. 이런 연유로 두 사람의 우정은 그들이 일본에서와 미국에서의 생을 다 할 때까지 이어졌다.

3.4 영명학교

영명학교는 1905년 미국인 선교사 사애리시(史愛利施, Alice, Sharp, Hammond)부인이 여학당을 1906년에 윌리엄즈(禹利岩, Frank Earl Cranton William, 1883~1962)목사가 남학당을 고도 공주에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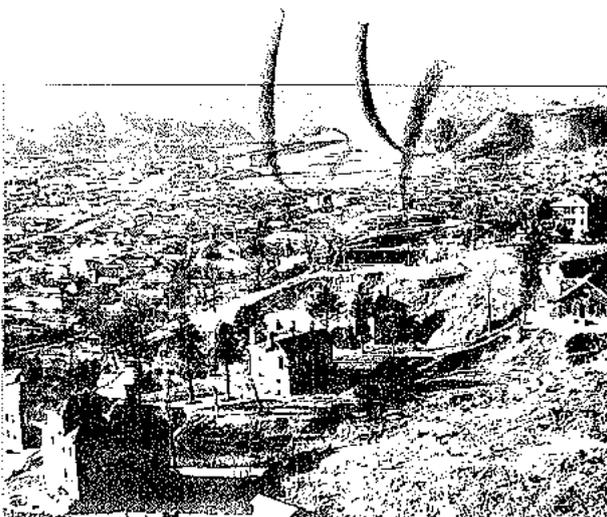
Frank E. C. William은 1883년 미국 콜로라도주의 Fortcollins에서 출생하였다. 1905년 Denver대학을 졸업하고 1906년 해외선교 지원자 학생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에 가담함

으로써 한국에 파견되었다. 파견직후인 1906년 영명학교에 남자학교를 세워 스스로 교장에 취임하였다. 이로부터 1941년 일본경찰에게 추방을 당할때까지 실로 35년동안 영명학교를 운영하면서 많은 애국지사과 믿음이 투철한 기독교인과 나라의 일군들을 양성하였다. 강제추방당한 그는 인도로 가서 선교활동을 하는 한편 그곳의 가자아벨(Gaziabad)농업학교 교장을 지냈다. 그후 8·15해방이 되면서 맥아더 장군의 명으로 미군사령부에서 민정장관실 농림부 담당 고문을 지냈다. 그뒤 1953년 11월 건강문제로 귀국하여 캘리포니아주의 콜랜델 자택에서 요양하며 여생을 보내다가 1962년 6월 9일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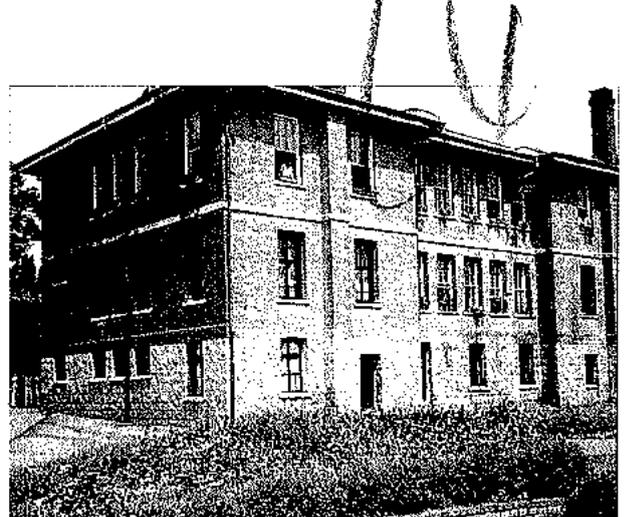
4. Vories건축사무소 입소까지

3·1독립만세사건의 주동자로서 형집행을 언도받은 강운은 그후 영명학교장이며 W. M. Vories와도 知人이었던 선교사 Frank E. C. William(1883~1962)의 주선으로 국내 소요가 채 가시지 않은 시기인 1920년 10월 12일 일본 慈賀縣 琵琶湖湖畔에 지극히 일본적인 시골의 작은 도읍인 近江八幡市에 있는 Vories건축사무소의 일원이 되었다. 이 지역 주변에는 百濟寺가 있고 石佛寺도 있다. 이 지방의 농토에서나 집터에서는 지금도 佛像이 출토되며, 石佛寺의 경내로 옮겨진 것이 수천점은 족하다. 또, 이 지역에는 1607년~1811년의 약 200년간 12차의 조선통신사가 왕래한 도로가 있다. 近江八幡市를 지나는 이 길을 일본인들은 朝鮮人街道라고 이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한반도와는 그 역사적 인연이 깊은 지역이기도 하다.

당시 강운과 함께 Vories사무소에 근무하였던 사원중 생존자의 한사람인 隈元周輔(구마모토)씨는 강운이 Vories건축사무소원이 된 동기와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1923년 동경대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마침 동경의 조선 YMCA(Vories 설계)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중이었다. 당시 일본인들의 집단적인 조선인 학살을 자행할때 이 조선 YMCA현장의 몇몇 조선노동자들은 가루이자와(輕井澤)의 Vories건축사무소로 구명을 위해 피신하였다. 隈元周輔(1906년~1936년



1910년경 공주시가 전경, 큰 건물들은 영명학교와 선교사 저택



미국감리회 해외선교100주년 기념공사(200坪) - W. M. Vories 설계



William Merrell Vories(1880-1964)

Vories건축사무소(근무)씨는 강윤과 함께 사무소에서 근무한 생존자로 현재 横浜市에 거주하고 있다.

그가 이 말을 하게 된 계기는 강윤이 Vories 건축사무소에 입소하게 된 계기를 문의했을 때의 답이었다. 물론 이 말은 그의 기억의 착각일 뿐이지만, 동경대지진때의 조선인의 처지와 조

선인에게 Vories가 어떻게 비쳤는가 하는 일면이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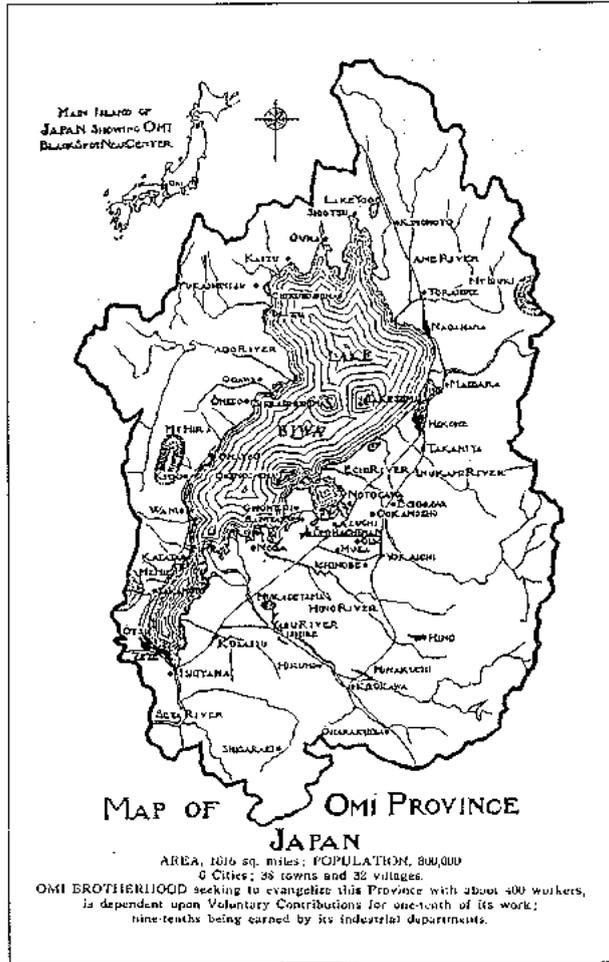
隈元周輔씨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믿었다. 그 뒤에 大阪에 있는 Vories사무소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영명학교 윌리엄 교장에 대한 이야기와 강윤이 3·1운동에 연루된 사건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동경의 조선학생기독교청년회관(YMCA)의 설계원도에는 1929년 3월 15일로 명시되어 있어 상기의隈元周輔씨의 강윤에 대한 회고는 그릇된 기억이었으나, 사무소 일원이었던 월남인 林邦彦(월남성: VU, 1897~1939)의 경우도 프랑스 통치하의 월남청년으로 본국에서 항불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으로 밀항하여 Vories에게 연결된 예를 생각할 때 그 당시의 일본의 사회상과 Vories의 사회관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한편, 그 당시의 Vories건축사무소에는 미국인, 소련인, 월남인, 중국인, 일본인 그리고 강윤이외의 또 한 사람의 조선청년인 임덕수라는 이름이 社籍簿에 보인다. 임덕수는 강윤과 같은해에 Vories사무소에 입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Vories와 이어졌는지는 알길이 없다. 임덕수는 강윤보다 키가 크고 호남형이었다고 한다. 그는 서울출생이라는 것과 1927년 서울에서의 결혼사진이 Vories사보에 실려 있다.



임덕수(중앙)/1925년



일본 滋賀縣 琵琶湖 近江八幡市 위치

隈元周輔氏의 말에 의하면, 임덕수는 입사 10년만인 1930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가 약 25년후인 1955년경 大阪의 Vories건축사무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在京원로 건축인들은 임덕수를 아는 이가 한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때가 3·1만세사건 다음해인 1920년이라는 시점과 Vories라는 인간으로 보아 임덕수는 공주의 강윤과 유사하게 경성지역에서 3·1 독립만세사건에 깊이 관여한 청년으로 추정된다. 한편 훨씬 뒤인 1930년대에 또 다른 조선청년 2명이 Vories사무소원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은 찾지 못하였다.

유럽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 (4)

Catholic Church & Monastery Building in Europe

오스트리아의 Melk 성당

박효순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공학박사
by Park Hyo-Soon

1. 스페인의 성가족(Sagrada Familia)성당
2. 이탈리아의 피사(Pisa)성당
3. 독일의 오토보이렌(Ottobeuren) 성당
4. 오스트리아의 멜크(Melk)성당
5. 프랑스의 베즐레이(Vezelay) 성당
6. 영국의 엘리(Ely)성당

1. 개요

수도원은 "결인들의 오솔길"이라 불리는 가파른 계단을 통해서, 아니면 수도원이 우뚝 서있는 바위언덕의 사면에 있는 길을 통해서 또는 정원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이 길을 가면 새로운 주차장에서 부터 바로크 양식의 정원을 가로질러 20세기 초 은실부지에 건립한 레스토랑 앞을 지나게 된다. 입구 정문은 1718년 완공되었으며, 양쪽에는 능보가 있다. 1650년 돌로 건립된 남쪽 능보는 보루로 사용되었다. 북쪽 능보는 미관상의 이유로 Jakob Prandtauer가 건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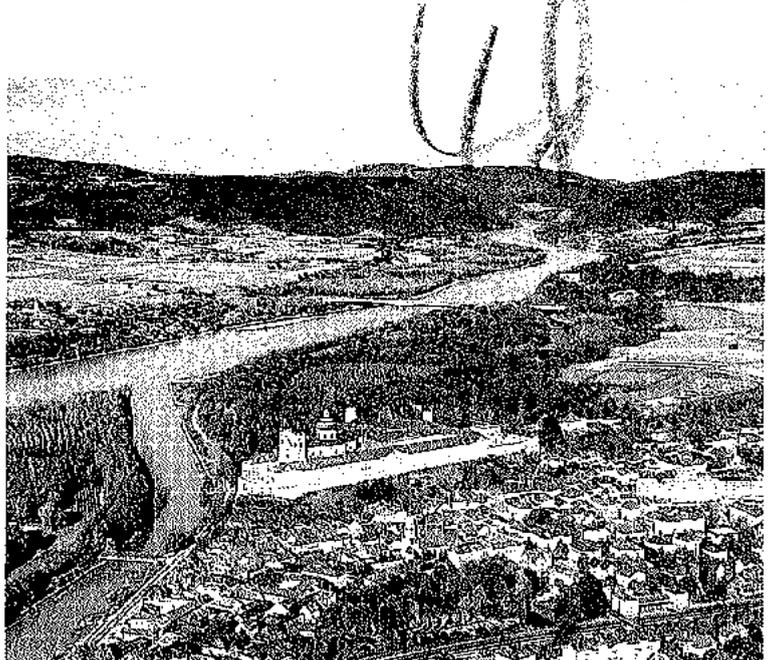
정문의 양쪽에 레오폴드(Léopold) 성인과 콜로만(Coloman)성인의 입상이 있다. 이 입상들은 비엔나의 조각가인 Lorenzo Mattielli가 1716년 구상하여 Jakob Prandtauer의 사위인 Peter Widerin이 제작했다.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을 건립하게 했던 수도원장 Berthold Dietmayr의 문장의 별이 출입구 문 위쪽에 있다. 이곳을 지나면 넓은 뜰에 이르게 되고 오른쪽에서 바벤베르크(Babenberg) 시대에 건립되었으며 보루의 일부으로 바벤베르크의 탑이라 불리던 두 탑 가운데 하나를 볼 수 있다.

2. 수도원 건축역사 및 독창성

2-1 건축역사

1700년 11월 18일 Berthold Dietmayr신부는 다수결에 의해 약관 30세에 수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수도원을 재건축하여 수도원의 종교적이고 과학적이며 정치적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수도원장 Caspar Hofmann 부터 멜크의 수도원장들은 오스트리아의 고위 성직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Berthold Dietmayr는 수도원의 개조를 위해 준비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오랫동안 몰색한 끝에 그는 마침내 건축가 Jakob Prandtauer를 찾아냈다.

개조공사는 먼저 현재의 여름 계의실인 수도원의 계의실과 성당부터



수도원 전경

시작했다. 붕괴의 위험이 있던 성당의 내진을 바로크 풍으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1701년 여름 제의실에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성당을 완전히 재건축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711년 수도원 전체도 완전히 새로운 설계도에 따라 개조하기로 결정하여 1702년 새로운 수도원 성당의 초석을 놓았다. 수도원과 함께 여러가지 재정적인 문제는 있었으나 Berthold 수도원장은 그의 계획을 실행하게 되었다.

건축가 Jakob Prandtauer는 그가 생을 마칠 때까지 (1726년) 공사의 책임자였고 Prandtauer가 사망한 후에는 설계도에 따라 십장이 공사를 임시로 지휘하였으나 몇 년 후 Prandtauer의 제자였던 Joseph Munggenat가 Prandtauer의 후임자로 선정되어 맡게되었다. 성당 내부의 장식은 Antonio Beduzzi가 맡았으며 1716년 Rottmayr는 둥근천장의 벽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화장벽토 세공인이었던 Johann Pöckh는 성당의 간막이 벽을 장식했다. 수도원장 Berthold Dietmayr는 훌륭한 예술가들을 기용할 줄도 알았지만 대가들의 설계도에 따라 훌륭하게 예술작품을 제작하는 그 지역의 장인들에게 일을 위임할 줄도 알았다. 그리하여 Peter Widerin은 Lorenzo Mattielli의 설계도에 의거하여 성당의 나무 입상들을 제작했고 Gözinger는 Antonio Beduzzi와 Guiseppe Galli Bibiena의 설계도에 따라 제단의 대리석 공사를 맡았다. 금도금은 비엔나의 장인 Christian David가 담당했으며 벽의 그림 제작은 프레스코 화가인 Rottmayr와 Paul Troger에게 맡겼다.

1736년 성당 주요한 부분의 공사가 완료되고 1738년 수도원 건물도 공사가 끝나던 해 화재가 발생하여 새 건물의 많은 부분이 피해를 입었던 관계로 수도원장 Bethold는 즉시 재건축을하기로 결정했으나 1739년 1월 25일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오랫동안 수도원장으로 재직하고 그의 계획을 실행했던 Bethold 뒤를 이어 후임자 Adrian Pliemel이 두번째 수도원장이 되었다. 수도원의 재정적 어려움과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도 재건축은 빠르게 진행되어 두 첨탑이 Joseph Mungge-

nast에 의해 재건립되었다. 외부의 건축은 당초 Prandtauer의 설계도와는 상이하게 진행되었으며 또한 화재로 인해 전체 지붕과 여러 곳의 화려한 방들이 파손되어 재공사 비용은 의외로 많이 소요되었다. 결국 여러가지 우려곡절이 있었으나 1746년 새 수도원장 Thomas Pauer가 새수도원의 축성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2-2 수도원의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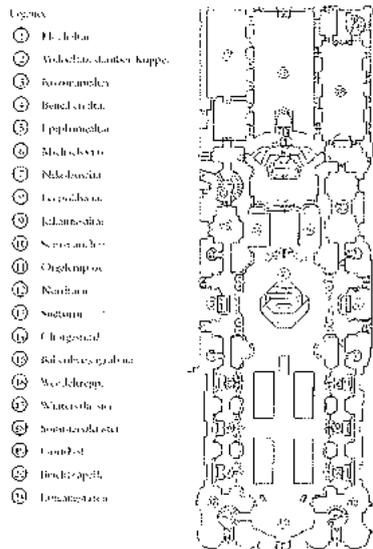
여러 세기 동안에 걸쳐 건립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손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멜크 대성당의 아름다운 내부 장식도 오랜 시간 동안 파손되고 황폐한 채로 있었다. 나무에 생긴 벌레구멍은 매우 심각한 상태였고 대리석과 화장 벽토는 성당 내부의 습도(연평균 85-95%) 때문에 아주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해결책을 위한 심사숙고와 심의 끝에 수도원 복원 책임 위원회를 만들었다. 정부와 지방관청에서 복원 공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하여 1978년 성당과 부속건물의 복원공사가 시작되었다. 외부 복원공사는 위에서 아래로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성당의 내부도 위에서 아래로 복원 공사가 진행되었다. 맨먼저 기술자 Johann Kraftner의 제의로 실내공기조절 장치를 설치했다. 이 장치는 습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덜 습한 공기를 들여와 약간 난방을 하는 시스템으로 공기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 시켜준다. 내부 복원공사는 내진, 둥근 천장, 그리고 회중석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Prandtauer의 본래 그림에 맞추어 부조로 된 부분은 흰색 바탕에 강렬한 색으로 다시 칠하여 부조의 효과를 보강했다. 여러 자료를 보면 수도원은 본래 주황색으로 칠해졌으나 복원공사를 하면서 담황색으로 바뀌었다. 성당과 부속 건물의 복원공사는 10년 동안 계속되어 1987년 완성되었다.

2-3 수도원의 독창성

오스트리아에서 베네딕트 수도원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다. 수도자들에게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기도하고



성당전경



성당 설계도

일하기 위해 수도원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에서 역사적인 사 건들은 매우 특별한 변화와 관계가 있다. 오스트리아 수 도원의 창립자들은 수도자들에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며 교화시킬 수 있도록 토지를 주 었다. 프로테스탄트들의 종교개혁에 뒤이어 시도된 카 톨릭의 반(反) 개혁이후 수도자들은 이 지역의 본당에 서 사제들의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해서 사제직은 베네 디트 수도회에는 역사적 과거에 근거를 둔 것으로 수도 자들이 피할 수 없는 완전히 합법적 임무가 되었다. 수 도원의 수도자 반 이상이 본당의 일을 위해 수도원 밖에 서 일을 해야만 했고 수도원의 생활은 고통스러웠다.

독일에서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으나 19세기 초 수 도원을 폐쇄함으로써 이런 과정을 차단할 수 있었다. 독일 에서 새로이 문을 연 수도원들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띄게 되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사제직은 수도자들의 임무가 되었고 어떤 수도자들은 수도원에서 지내나 상당수가 본 당에서 기거한다. 이와같은 관계로 수도 성직자들의 생활 은 재속 성직자들의 생활과 거의 구별되지 않고 있다.

3. 수도원 성당

성당내부의 건축, 벽화와 화장벽토의 색조 그리고 특 별석의 빛깔은 형태와 색상에 있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 루고 있다. 금빛, 주황색, 황토색, 회색과 초록색은 따듯 한 색과 조화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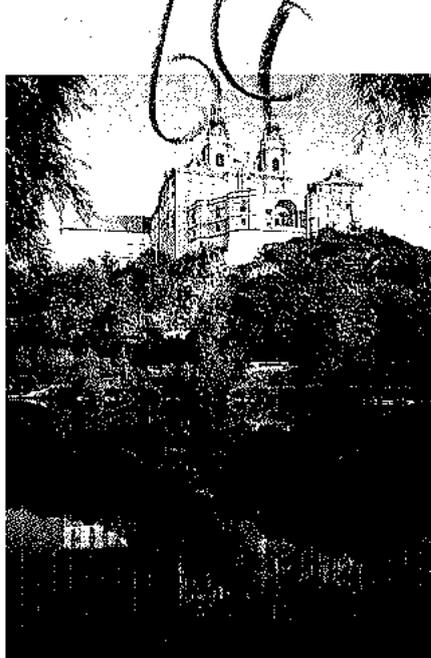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1701년 초에는 고딕양식 의 옛성당을 단지 바로크 풍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내진과 주제단, 양쪽의 측면 제단과 높은 고딕양 식의 내진 위로 둥근 천정을 건축하기로 계획했으나 1701년 7월 30일 수도원장 Berthold Dietmayr는 성 당을 완전히 재건축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여 오늘날 가 장 중요한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이 탄생하게 되었다. 성 당 내부 건축의 많은 부분은 이탈리아 건축가 Antonio Beduzzi가 설계를 하였고 수도원장 Berthold Diet-

mayr는 Beduzzi에게 신학상의 프로그램을 강조했으며 의도하고자 하는 건축을 하기 위해 관련분야의 대가들 을 구하고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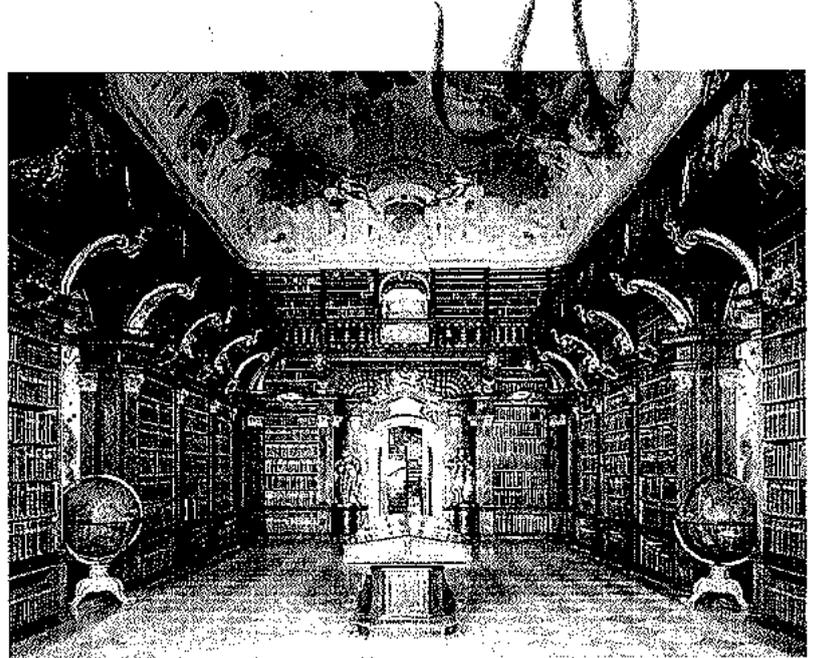
성당의 다른 부분은 토착민 중 뛰어난 재능이 있는 장 인들이 제작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여 잘쯔부르크 사 람 Michael Rottmayr가 Beduzzi의 스케치에 따라 둥 근 천정의 벽화와 회중석의 벽화를 1716년에 제작하기 시작하여 1722년 완성하였으나 반면에 다른 그림의 추 가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성당의 초 상학적 설명을 하기 위한 출발점은 주제단 위에 있는 소 용돌이 장식에 새겨진 글이다. "Non coronabitur, nisi legitime certaverit" (정당한 투쟁이 아니면 승리도 없 다는 뜻으로 디모데오 후서 에서 인용한 글이다.) 주제 단 위에서 승리에 이른 투쟁은 베드로와 바오로성인의 순교를 상징한다. 이것은 콜로만 (Coloman) 성인의 죽 음과 브누아 성인의 고결한 투쟁과도 연결되어 있어 주 제단 양측에 coloman 성인의 제단, Benôit 성인의 제단 을 배치했다. 승리는 주제단에 있는 승리의 대형 왕관과 둥근 천정의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다.

3-1 내진과 주제단

내진에는 Galli-Bibiena의 설계에 따라 제작된 주제단 이 있는데 주요 자재는 잘쯔부르크의 대리석, 황금색 나무 그리고 화장벽토이다. 감실의 위쪽에는 나무받침 위 에 삼중관이 있어 주제단의 구성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즉 투쟁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를 뜻하며 이 개념은 내진의 위쪽 궁륭으로 연장되 어 있다. 제단의 기둥 사이에서는 구약성서의 예언자들 인 다니엘, 에레미야, 다윗, 이사야, 예제키엘, 그리고 지데용의 입상을 볼 수 있다. 내진 전체는 작별의 표시 로 서로 손을 내밀고 있는 베드로와 바오로 성인의 입상 이 압도하고 있는데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와 바 오로는 Tullianum에 갇혀 있다가 같은 날 처형당했다고 한다. 또한 입상들의 위쪽에 글이 새겨진 소용돌이 장식이 있고 베드로와 바오로를 위한 승리의 왕관이 그



수도원 전경



도서실

위쪽에 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으며 로마시민이었던 바오로는 참수형을 당했다고 한다. 이와같은 사유로 왕관 왼쪽에 있는 천사는 십자가를 거꾸로 잡고 있으며 왕관 오른쪽에 있는 천사는 검을 잡고 있다. 왕관의 위쪽에 왕좌에 앉아 있는 하느님이 있고 그 위로 승리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있다. 투쟁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의 개념은 내진 공룡의 벽화 속에도 묘사되어 있다. 왼쪽에서 그리스도의 수난을 상징하는 자주색 망토를 입고서 가시관을 쓰고 하느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우화를 볼 수 있다. 한 천사가 투쟁하는 교회에 수평에 의한 힘이라 쓰여진 책을 내밀고 있는데 이는 순교를 시험하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투쟁하는 교회의 아래쪽에서 고문의 기구들을 볼 수 있으며 둥근 천장 내륜 밑의 아치에서도 이 상징들을 볼 수 있다. 오른쪽에는 주교처럼 장식을 하고 삼중관을 쓴 승리하는 교회가 왕좌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발 아래에 정복당한 악들이 표현되어 있다. 둥근천장 바로 아래에 있는 기둥과 기둥사이의 대들보에는 복음사자들의 상징인 십자가(신앙:신덕), 닳(소망:망덕), 한 어머니와 어린애들(사랑:애덕)로 세 향주덕을 표현해 놓았다.

공룡을 쓰러뜨리는 요한계시록의 여자는 투쟁하는 교회를, 월계관을 쓴 여자는 승리하는 교회를 상징하며 이와 유사한 개념이 내진의 모든 부분에 나타나 있다. 주 제단의 위쪽 하느님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입상이 있는데 모세는 속권의 우두머리로 아론은 교권의 우두머리로 간주되고 있다. 다른 벽화들은 1717년에서 1718년 제작된 반면 이 두 입상은 1727년에서 1733년 사이에 주제단에서 마지막으로 제작되었다.

3-2 회중석

회중석의 벽화는 매우 복잡한 것으로 브누아 성인의 천국입성을 묘사한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두 수도자가 가장자리에 석유램프가 있는 아름다운 카페트의 환영을 보았는데 그 속에는 브누아 성인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 기둥사이의 첫번째 공간에는 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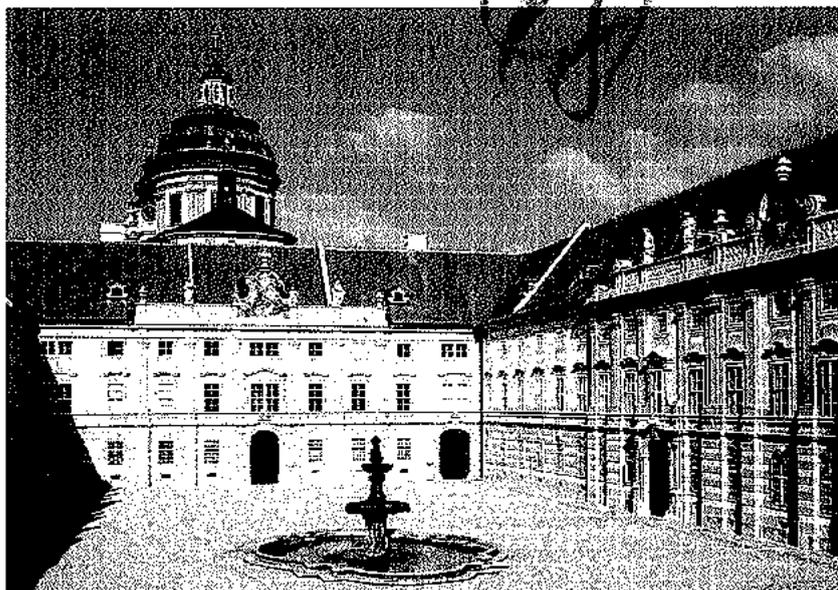
어기는 브누아 성인을 천사들이 데려가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다. 의인화 된 덕(순결, 침묵, 회개, 그리고 복종)들이 악을 내쫓고 있으며 결투하는 천사들은 투쟁하는 교회의 개념을 새롭게 상기시킨다. 그리스도를 위해 피를 흘리지 않을지라도 수도사들은 하느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일생 동안 선의의 투쟁을 할 의무가 있다. 석유램프로 가장자리를 두른 카페트는 승리를 향한 브누아 성인의 길을 상징한다. 기둥과 기둥사이의 마지막 공간이 있는 둥근 천장 내륜 밑의 아치 위에는 비둘기가 있는데 여기서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브누아 성인의 누이인 스킨라스티끄(Scholastique)를 나타낸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녀는 비둘기의 형상으로 하늘에 올라 갔다고 한다.

3-3 둥근 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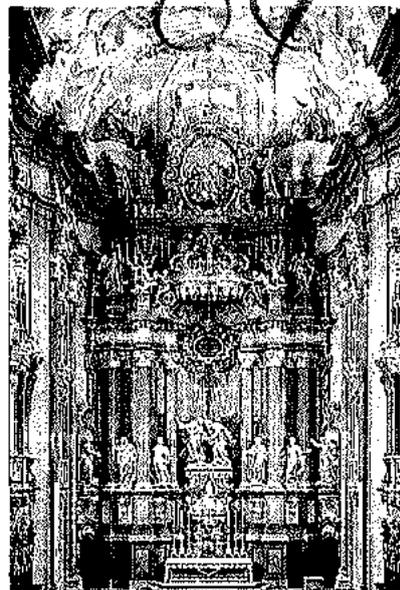
둥근천장 아래에 있는 삼각형에 위에 네 명의 복음사자들이 있고 그들의 아래에는 라틴교회의 학자들로 하느님의 말씀을 해석하던 Augustin, Jérôme, Ambroise, Grégoire le grand 이 있다. 둥근 천장으로 가면서 삼위일체인 하느님, 그리스도 성신의 들레에 성모마리아와 사도들 그리고 멜크 수도원과 관계있는 많은 성인들이 무리져 있다.

3-4 측면 제단

회중석의 측면 제단들은 Antonio Beduzzi의 작품으로 작은제단(소성당)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그림과 부조들은 성인들의 일생의 장면들을 표현하고 있다. 맨 뒤에 있는 두 제단의 제단 뒤 장식 벽은 1746년 Paul Troger가 제작한 것으로 오른쪽은 Sébastien 성인을, 왼쪽은 Nicolas 성인의 생을 묘사한 것이다. 그 다음에 있는 오른쪽 제단은 세례자 요한을 위해, 왼쪽의 제단은 미셸(Michel) 성인을 위해 건립했다. 이 제단들의 제단 뒤 장식벽은 Michael Rottmayr가 제작한 것이다. 요한 성인을 위한 제단 위에는 황녀 마리 테레즈가 수도원에 기증한 것으로 로마의 지하묘지에 있던 신원미상와 순교자의



수도원장의 안뜰



성당의 내진

시신이 있으며 미셀성인의 제단의 유리관에는 클레망(Clément)이라 불렀던 순교자의 유골이 있다. 이 유골은 Crivelli 추기경이 수도원에 기증한 것이다. 왼쪽 측면의 세번째 제단 뒤의 그림은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나타내고 있다. 오른쪽에 있는 세번째 제단은 Léopold 성인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성직자석은 Antonio Beduzzi의 작품으로 매우 아름다우며 설교단은 Galli-Bibiena의 설계도에 따라 Peter Widerin 이 조각한 것이다. 배교의 악마들을 심연으로 빠뜨리고 있는 신앙을 나타낸다.

3-5 좌우익랑의 제단들

좌우익랑의 두 제단은 대칭을 이루고 있다. 오른쪽 제단은 브누아 성인에게 봉헌된 것으로 동료들 가운데서 죽어가는 성인을 표현한 입상 그룹이 있는데 석관은 비어 있으며 Coloman 성인의 석관과 쌍을 이루고 있는 기념묘이다. 하늘을 향해 오벨리스크가 서 있고 손을 내밀고 있는 천사는 브누아 성인의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제단의 위쪽 부분에 천사들과 구름에 둘러싸여 왕좌에 앉아있는 하느님이 있다. 또한 측면의 문 위에 있는 벽감 속에는 두 성인의 입상이 있는데 오른쪽은 Scholastique 성녀, 왼쪽은 Berthold de Gasten 성인이다. 왼쪽 제단은 Coloman 성인에게 봉헌된 것으로 석관에는 성인의 유해가 있으며 석관의 위쪽에는 오벨리스크가 있고 성인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오벨리스크 끝에는 두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천사가 있다. 그리고 제단 위에는 천사들과 그리스도의 모노그램(성명의 첫 글자를 합쳐 만든 글자) IHS로 장식되어 있다. 측면 문의 위쪽에 있는 두 입상은 브누아 성인의 제단과 쌍을 이루며 왼쪽은 Donation 성인, 오른쪽은 Florian 성인을 나타낸다.

3-6 내진과 회중석 사이에 있는 제단

바로크 시대의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아름답고 화려한 미사를 드리는데 관심을 가졌고, 하느님의 혈존을 느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근래에 와서 두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였는데 그 하나는 신 바로크 양식으로 제단을 꾸미자는 것과 또 하나는 현대식 제단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1976년 내부의 건축적인 요소를 이용하여 현대식 제단을 꾸미기로 결정하여 먼저 등근 천장의 팔각형 구조를 모델로 하여 난간과 제대의 형태를 만들었으며 바닥의 정방형 포석에서 착상을 얻어 연단의 계단형태, 제대 다리의 모양, 그리고 등없는 의자의 형태와 설교단 모양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성직자석과 연단, 제대는 호두나무로 제작했으며 바닥의 카펫 색깔은 성당의 육각형 포석색과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건축가 Helmut Hütter가 설계하고 목공 Fritz Fürst가 제작을 했다.

3-7 파이프 오르간

원래 대형 파이프 오르간은 비엔나의 악기 제조업자인 Gottfried Sohnholz가 제작한 것으로서 이 대형 파이프 오르간은 성당 내부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파이프 오르간의 틀을 제외하고 악기는 1929년 수정한 것이다. 1970년 악기 제조업자인 Gregor Hradetzky가 음판이 3553개인 기계 포함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했으며 그때부터 이 대형 파이프 오르간은 오스트리아의 파이프 오르간 제조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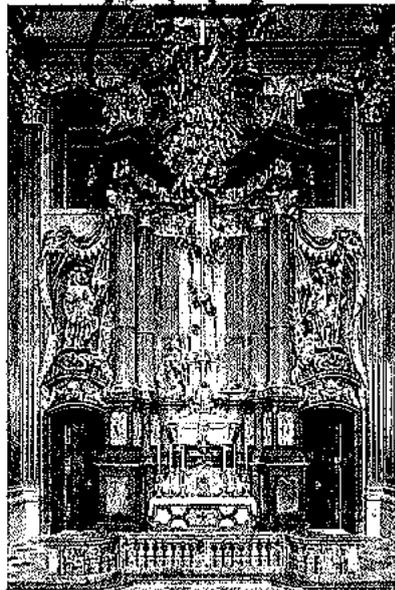
3-8 제의실

3-8-1 겨울 제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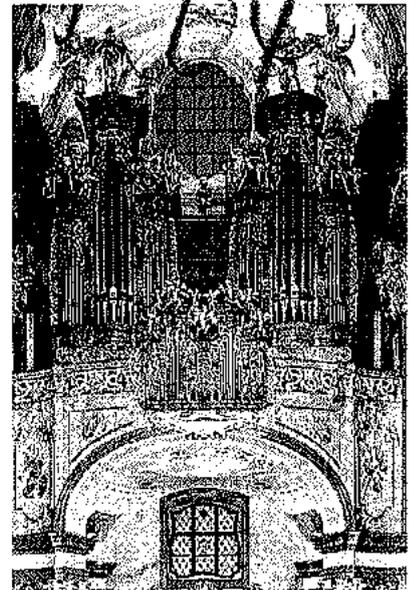
여름 제의실과 겨울 제의실은 수도원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겨울 제의실은 바로크 시대부터 제의실로 사용되어 왔다. 궁중의 단순한 화장벽토 세공이 이 제의실에 특이한 매력을 부여하고 있다. 제단의 그림은 1660년 Georg Bachmann의 작품으로 Coloman 성인을 표현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1654년 제작된 전기 바로크 양식의 세면대가 볼 만하며 아름답지만 어두운 색의 가구들은 이 제의실의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이곳의 유화들



수도원의 서쪽 건경



Coloman 성인의 제단



파이프오르간

은 Johann Georg Waibl의 작품이다.

3-8-2 여름 제의실

이 여름 제의실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특별한 흥미가 있는 곳이다. 1701년 수도원의 옛 제의실을 개조하는 동안 수도원은 옛 고딕 성당을 바로크 풍으로 만드는 대신 성당을 재건축하기로 결정했다. 바로크 양식 수도원의 재건축 계획에 따른 건축설계도는 제의실 내부 장식에도 영향을 끼쳤다. Antonio Beduzzi가 벽화를 제작했고 궁륭의 화장벽토 세공은 전기 바로크 양식의 추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수도원 성당 내부에서는 바로크 양식이 절정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벽화의 주제는 성체성사이며 제단장식은 Beduzzi의 설계도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 십자가의 승리가 주제이다. 제단 맞은 편에는 바로크 양식의 아름다운 세면대가 있는데 나무입상도 Höchenwaldt가 제작했으며 각 측면에 장식이 있는 기구는 눈여겨 볼 가치가 있다. Franz André Pognier가 제작했다. 이 제의실은 1978년 시작하여 1987년 완공된 성당복원 공사때 같이 복원된 것으로 예술적인 가치가 있고 매우 화려하다. 복원 공사후 이 아름다운 곳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게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했다.

3-9 수도원의 보물

11세기에 제작된 휴대용 작은 제단은 이곳에 소장된 예술품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고대 독일의 변두리 요새의 총독이었던 Ernst의 부인인 Swanhilde가 수도원에 기증한 것으로써 멜크에 보존되어 있는 바벤베르크가의 유일한 유물이다. 작은 상자는 상아 부조와 니선판, 그리고 금도금을 한 금속테로 장식되어 있다. 부조는 예수의 일생을 나타낸다. 멜크의 십자가는 은을 금으로 도금을 하여 금을 선조 세공하고 보석과 진주를 박은 섬세한 작품이다. 입사귀로 장식한 부분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고 십자가 끝의 세 잎 모양의 장식에는 네 복음사가의 상징이 있으며 십자가의 뒤도 보석으로 장식을 했다. 전차 십자가의 일부가 포함되

어 있는 이 유물은 1363년 창시자 Rodolphe가 수도원에 기증한 것이다. 십자가를 받치는 다리부분은 15세기 초에 지금의 것으로 대체했다. Coloman 성인의 성함은 멜크에 있는 바로크 양식의 가장 오래된 걸작품으로 Coloman 성인의 아랫턱뼈를 보관하기 위해 Joseph Moser가 금으로 도금한 은으로 제작했다. 성함의 형태는 성인의 순교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꽃이 핀 딱총나무와 나무 밑둥에는 성인에게 가했던 고문 기구들이 있다. 이외에도 멜크 수도원의 보물 가운데는 12세기의 상아 궤와 13세기의 유물 그리고 중세 말의 성유물들이 있다.

4. 수도원의 부속시설

4-1 동쪽 정면

아름다운 천사들로 장식된 입구 정문을 지나면 Torwärtlhof(문지기의 안뜰)이라 불리는 뜰에 도달한다. 이곳에서 궁궐 정면의 위엄을 갖춘 화려한 동쪽정면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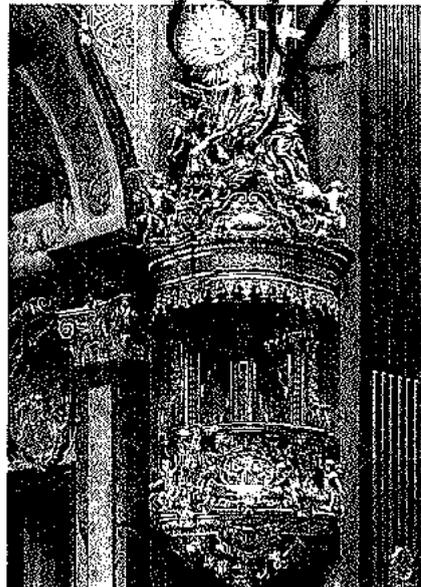
반원형 문위에 있는 창문 앞에는 작은 발코니가 있고 이곳에서 수도원장은 그의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곤 했다. 그 아래에는 푸른빛 바탕에 황금색의 두 열쇠가 교차되어 있는 수도원 문장이 있으며 귀들에는 입구문의 위쪽에 있는 별처럼 수도원장 Berthold Dietmayr의 가문에서 유래한 두마리의 독수리가 있다. 같은 모양의 별들이 장식용 벽기둥의 혼합식(코린트식과 이오니아식을 합친 양식) 기둥머리를 장식하고 있다. 발코니의 양쪽에는 수도원의 성당의 수호성인인 베드로와 바오로의 입상이 있고 동쪽 정면의 박공 위에는 멜크(Melk)의 십자가가 있다.

4-2 브누아 성인의 현관과 수도원장의 안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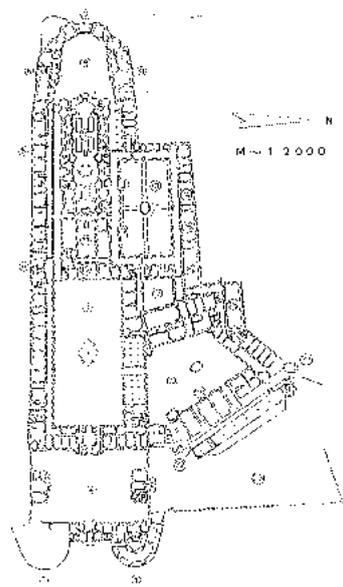
현관을 들어서면 현관 천장의 벽화가 눈에 띄는데 Franz Rosenstingl이 제작한 것으로 1852년 Friedrich Schilcher가 복원한 작품이다. 브누아 성인을 묘사한 것으로 작품 아래에는 로마신전과 십자가가 있다. 529년 브누아(Ben it de Nursie)성인은 아폴로 신전 부지에



여름 제의실



설교단



수도원 설계도

몽 까쟁(Mont Cassin) 수도원을 건립했다. 복도의 난간은 나무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암처럼 보인다. 브누아 성인의 현관에서부터 수도원장의 안뜰 뒤로 우뚝 솟아 있는 둥근 지붕과 탑은 방문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브누아 성인의 현관은 정확히 건물의 주축에 있고 사다리꼴 형태의 수도원장의 안뜰은 길이 84m, 폭 42m에 달한다. 방문객의 맞은 편이 가장 폭이 좁아 매우 깊숙한 느낌을 주며 단순하면서도 균형이 잡힌 정면의 구조와 같은 단순함으로 이 안뜰에 아늑한 맛을 느끼게 한다. 수도원 안뜰을 싸고 있는 건물의 각각 면 위쪽에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입상이 있으며 배내기가 있는 박공은 벽화로 장식을 했다. Franz Rosenstingl이 제작한 4가지 기본 도덕을 묘사한 그림은 20세기 중엽 Friedrich Schilcher가 제작한 벽화로 대체되었다. Franz Rosenstingl이 제작한 벽화의 상태가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 없었으므로 Friedrich Schilcher의 벽화로 대체했다. 비엔나 화가 Peter Bischof의 스케치가 작품 응모에 대상을 받았으며 1988년 그는 Helmut Krumpel과 함께 합작으로 새로운 벽화를 제작했는데 이 현대적인 작품들은 바로크 양식 건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색의 농도와 작품에서의 활기는 바로크 예술에서 인용했고 작품의 양식은 Peter Bischof 특유의 것이다. 이 작품들은 매우 독특하여 모든 사람의 기호에는 맞지 않으나 새로운 요소를 전통적인 주제에 배합한 참신함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서쪽 정면 벽화는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며 큰 걸음으로 걷고 있는 인물로 신중함을 상징하며 북쪽 정면의 벽화는 절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어떤 그릇에 각각 물과 불을 붓고 있는 푸른 색과 붉은 색의 두 인물이 묘사되어 있다. 이 두 요소는 일치할 수 없지만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것으로 만일 알맞게 배합한다면 참다운 생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동쪽 정면의 벽화는 정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눈을 가리고 검을 든 사람이 발 쪽으로 몸을 숨기고 있는 모습이며 남쪽 정면의 벽화는 정의를 상징한다.

수도원장의 안뜰 한가운데에는 1687년 제작되어

1722년 Berthold Dietmayr 수도원장이 멜크시에 기증한 분수가 있었으나 현재 그 분수는 멜크시청의 광장에 있다. 19세기 초 수도원장의 안뜰에 현재의 분수를 설치했는데, 이는 오스트리아의 시골에 있는 교회 참사회의 수도원이었던 Waldhausen 수도원에서 가져온 것이다.

4-3 황제들의 계단

수도원장의 안뜰 남서쪽에 있는 문을 지나면 성당과 황제들의 계단으로 통하게 되는데 이곳을 지나면 옛날 황실의 가족들을 위해 마련되었던 방들로 갈 수 있다. 수도원은 남쪽이 깎아지른듯한 바위언덕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이층까지의 계단에서는 건축적 요소가 크게 눈에 띄지 않으나 이층부터는 예술가의 자유로운 영감을 볼 수 있다. 첫번째의 층계참에서는 흰색 화장벽토의 우화 조각을 볼 수 있다. 이 조각의 가장자리는 소용돌이 장식으로 처리되었고 샤를르(Charles) 4세의 신조인 끈기와 용기라는 뜻의 "Constantia et fortitudine"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 샤를르 4세는 수도원장 Diemayr와 수도원에 대해 특히 호의적이었다. 이 우화조각의 아래쪽에는 강의 신인 Danuvius가 묘사되어 있으며 다음의 층계참에는 왼쪽과 오른쪽 벽감 속에 영광과 지혜를 상징하는 상이 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면 계단 윗쪽부분은 섬세하고도 화려한 장식으로 처리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천장에 있는 작은 입상들은 특히 방문객의 시선을 끈다.

4-4 황실 저택

196m 길이에 달하는 수도원 남쪽의 이층은 복도로 이어져 있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복도는 좁아진다. 수도원장의 안뜰처럼 원경을 보면 폭의 차이가 확실하다. 마리 테레즈(Marie-Thérèse)황녀와 그의 남편 프랑수아 드 로렌(Francois de Lorraine)의 대형 초상화가 방문객의 시선을 끈다. 이 작품들은 비엔나의 궁중 화가인 네델란드인 Martin van Meytens의 아틀리에에서 제작한 것이다. 복도를 따라가면서 오스트리아의 모든 군주들의 초상화가 줄 지어 있다. 작품들은 모두



전경



황제들의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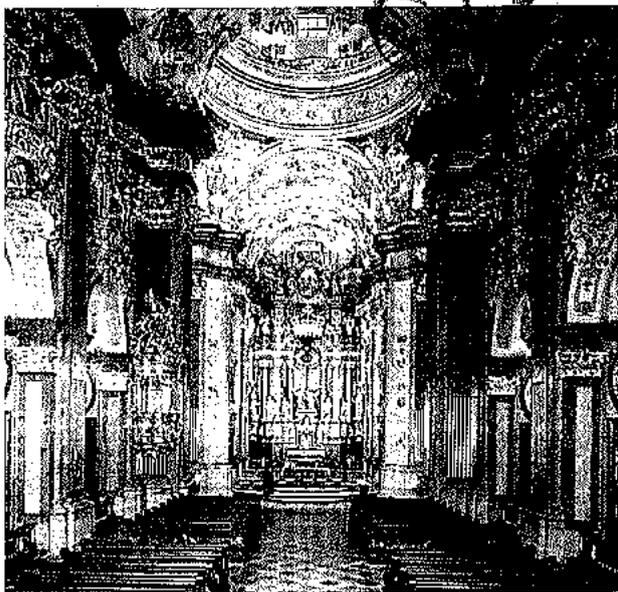
예술적으로 다른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각 초상화의 아래에는 제목이 있으며 작품의 대부분은 1749년에서 1758년 사이 수도원의 초대화가였던 Franz Joseph Kremer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 황실 저택은 황실 가족이나 황실 손님들을 위해 마련되었던 곳으로 계단의 서쪽에 위치해 있다. 바로크 시대의 수도원은 브누아 성인의 규율에 따라 손님을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처럼 후대했는데 그 한 예로 황녀 마리 테레즈는 멜크 수도원을 방문한 후 "만일 이곳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멜크 수도원에 두 번 왔던 나폴레옹은 다른 시야로 수도원을 보았다. 그가 남긴 편지에서 방어조치와 관계있는 훈령을 내린 것을 볼 수 있다. 황실 저택에 있던 본래의 집기나 가구들은 Laxenbourg 성으로 옮겨졌고 19세기 중엽 마루를 새로 깔고 각 방은 새 가구들로 꾸몄다. 동쪽에 있던 황실 저택의 천장 화장 벽토의 대부분은 없어졌고 단지 두 방의 천장만이 본래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오늘날 "Dietmayr 실"이라 불리는 큰 방이 복도의 동쪽 끝에 있다. 1725년에서 1726년 사이 건립된 이 방은 옛날에는 Salettl(작은 방이라는 뜻)이라고 불렸고 유명 인사들을 위한 응접실로 사용되었다. 천장의 화장 벽토는 멜크의 화장벽토 세공 대부분을 맡았던 화장벽토 세공가 Johann Pöckh de St. Pölten의 작품이며 천장의 벽화와 실물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림들은 멜크의 화가 Johann Georg Waibl가 제작했다. 또 Waibl이 제작한 왕국을 표현한 그림들은 본래 벽을 장식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창고에 두 점이 보관되어 있고 벽은 다른 작품들로 장식했다. Dietmayr 실은 옛날에는 때때로 공연장으로도 사용되기도 하였다. 벽에 있는 몇 점의 그림들은 Johann Bergl의 스타일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그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벽화는 모든 최고의 권한은 하느님에게서 나오고 하느님은 그 권한을 그가 원하는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을 우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방의 각 모퉁이에는 4 대륙이 묘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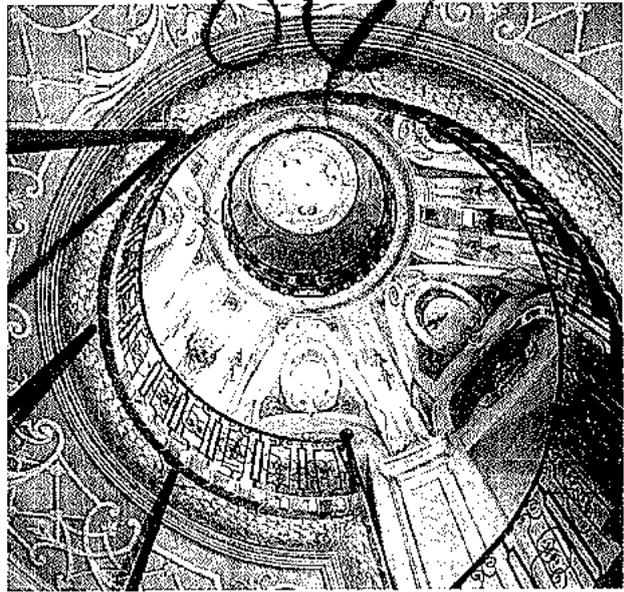
4-5 박물관

복도의 서쪽에 있던 황실저택은 박물관으로 꾸며졌다. 유명한 서쪽 정면과 안뜰, 복도, 도서실과 특히 성당과 함께 멜크의 웅장한 수도원 건물은 방문객에게 중요한 것은 별로 없이 화려하기만 한 바로크 양식 건축물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 박물관은 여러 세기 동안의 신앙과 정신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후손들에게 유증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각 시대의 전통과 삶이 남긴 흔적을 보여줌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나타내고 미래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멜크에는 900년 전부터 수도회가 있으며 이곳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수도회는 베네딕트 수도회로 480년 Nusie에서 태어난 브누아 성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에서 잠깐 체류했던 브누아 성인은 은자의 삶을 택하고 Subiaco의 산야에서 은둔 생활을 했으며 많은 수도사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다. 이러한 영성 생활의 일상적 경험은 브누아 성인을 현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서양에서 동양 수도자들의 생활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수도자들을 위해 규율을 쓸 수 있었고 그 규율은 종교적이고 은둔적인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었다. 그는 529년 몽까생(Mont-Cassin) 수도원을 창립하여 아테네의 플라톤 아카데미가 문을 닫은 바로 그 해 새로운 수도원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그 전에도 여러 다른 규율이 있었으나 프랑크 제국에서 마침내 인정을 받은 것은 브누아 성인의 규율이었다. 그 규율은 명료한 질서, 절제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의 지혜로 특징지어지며, 수도생활과 교회 생활에 결정적인 활기를 불어 넣었다.

10세기와 11세기에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여러 수도원으로 발전했다. 그 예로 오스트리아에서 Altmann de Passau 주교가 창립한 Göttweig 수도원에 영향을 끼친 클뤼니(Clunu) 수도원을 들 수 있다. 박물관에는 베네딕트 수도원에서의 생활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물건들 즉 여러 세기에 걸쳐 수도원에 기증되었거나 수도원에서 직접 제작했거나 아니면 미사에 필요한 여러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역사적인 배경 속



성당 내부 전경



겨울 제의실 가까이 있는 나선형 계단

에서 베네딕트 수도회의 영성과 조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함께 수도원의 생활 수단을 보여주기 위해 경제적 상황과 변화도 제시되어 있으며 또한 수도원의 경제활동을 증명하는 여러 일들이 자료와 함께 보존되어 있다. 수도원의 수입은 농업, 임업, 관광사업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농업과 임업은 많은 문제를 일으켜 여러 번 개혁을 해야했던 반면 관광사업은 점점 중요해져서 많은 투자를 해야 했다. 수도원의 복원 공사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중이며 완공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수도원의 경제활동으로 들어온 수입과 정부의 지원금을 모두 투자하고 있다.

4-6 대리석실

이곳의 문 위쪽에는 "Hospites tamquam Christus suscipiantur" 라고 새겨져 있다. 이는 "모든 손님들을 그리스도처럼 모셔야만 한다"는 뜻이다. 이곳은 손님들을 접대하고 연회를 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이었다. 대리석실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벽은 모두 화장벽토로 대리석처럼 처리를 했으며 문의 틀과 장식만이 Untersberg의 대리석으로 제작했다. 대리석실 한가운데 있는 그림 아래에는 더운 공기로 하는 난방시설이 있다. 천장의 벽화는 1731년 Paul Troger가 제작한 것이며 실물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림은 Gaetano Fanti가 제작한 것이다. 사자가 끄는 수레를 탄 아테나(Pallas Athéna : 지혜의 여신)는 인간의 이성을 상징하며 고삐를 잡고 있는 나신의 젊은 소년과 그곳에 물을 붓고 있는 다른 소년을 절제를 상징한다. 또한 곤봉으로 케르베로스(지옥문을 지키는 머리 셋 달린 개)를 때리고 있는 헤라클레스는 악을 정복하는데 성공한 인성을 상징한다. 이 두 인물은 속권(이성과 인성)을 의인화한 것으로 간주되며 군주는 암흑상태의 모든 악과 함께 있는 인성을 과학과 예술에 눈을 뜨도록 각성시키는 빛으로 이끌고 있어 현명한 군주의 이상이 이 우화속에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Gaetano Fanti의 실물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

는 그림들은 Troger의 걸작품과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대리석실을 지나 넓은 테라스를 나가면 도서실로 이어지는데 아름다운 테라스는 수도원 서쪽면의 끝에 위치하며 이곳에서 다뉴브강 주위의 평원과 델크시의 인상적인 전경을 바라볼 수 있다. 델크 수도원은 바로크 양식의 다른 수도원들과는 반대로 성채같지는 않으나 하늘을 향해 바위 위에 우뚝 선 성스러운 건축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테라스에서 서쪽 정면을 바라보면 도서실, 대리석실, 수도원 서쪽정면, 침탑과 동근 천정의 일부로 이루어진 조화로운 앙상블을 볼 수 있어 바로크양식 건축의 가장 완전한 표본 중의 한 작품을 이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두 침탑은 로코코 양식으로 1738년에 발생한 화재로 Joseph Munggenast가 재건축을 하면서 형태를 약간 바꾸었다. 두 침탑 사이에 거대한 입상이 하나 있고, 입상의 양쪽에는 두 천사가 있다. 이 입상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정면 가운데에는 수도원 성당의 두 수호성인인 베드로와 바오로가 있으며 문 위쪽에는 미셀성인과 수호천사의 입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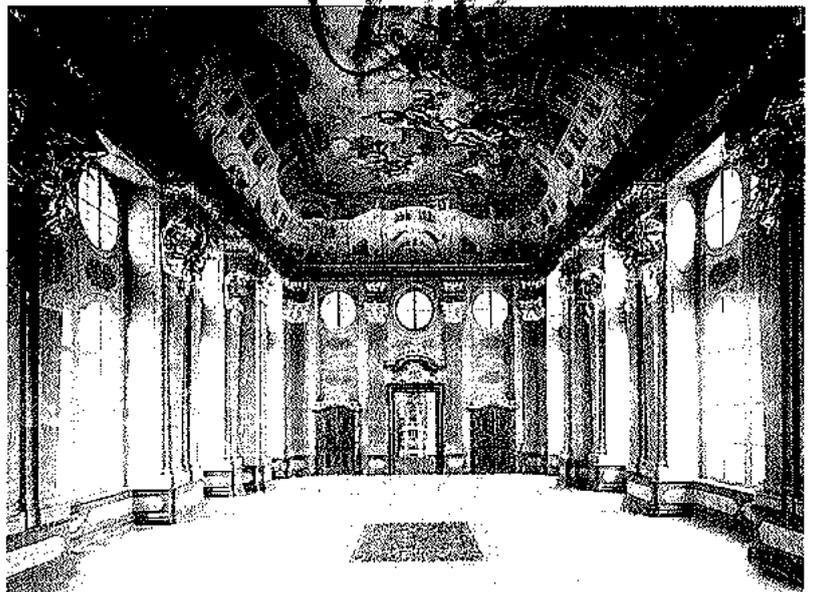
4-7 도서실

이 도서실은 베네딕트 수도원속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 서가의 쪽매붙임 세공과 조화를 이룬 장정 그리고 천장의 벽화는 일련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Paul Troger의 벽화는 대리석실의 벽화와 비슷하다. 한쪽이 신앙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면 다른 한쪽은 왕조를 찬양하고 있다.

한 손에는 일곱 개의 도장이 찍힌 책과 요한계시록의 양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을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표현된 방패 위에 얹고 있는 여인으로 묘사한 신앙은 천사들의 무리와 네 주덕을 상징하는 천사들의 머리에 둘러싸여 있다. 벽화 둘레의 건축 모티브가 들어 있는 그림은 대리석실 처럼 Gaetano Fanti의 작품이며 실물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부분의 인물들은 Troger의 솜씨로 과학과 예술을 표현한 것이다. 각 문 옆에 있는 나무로 제작한 입상은 법학, 의학, 철학을 상징한다. 두 개의



수도원 전경



대리석실

큰 구체는 지구의와 천구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1670년 경 Vincenzo Coronelli에 의해 제작되었다. 도서관의 수사본과 1500년 이전 활판술 발명 당시에 인쇄된 서적들이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어 방문객의 흥미와 관심을 끌고 있다. 도서관에는 약 9만권의 장서와 중세기의 것으로 대부분 15세기에 제작된 1200점에 달하는 수사본과 850권의 활판술 발명 당시에 인쇄된 서적들이 소장되어 있다. 이곳에는 유명한 도서관에서 찾을 수 없는 바로크 시대의 작품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창과 문설주 사이의 우묵한 공간 속에 있는 그림들은 진기하다. 꽃과 장식 모티브 너머로 붉은 옷과 검은 옷을 입은 인물들이 비쳐보인다. Johann Bergl은 베네딕트회 학자들을 표현하는 Rosenstingl의 벽화 위에 그의 그림을 기술적으로 응용했다. 도서관의 작은 방에는 섬세하게 장식한 로코코 양식의 두점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 나선형 계단으로 이어지는 도서관의 이층에는 바로크 양식의 열람실이 있고 서가의 쪽매붙임 세공은 단순하며 1768년 Johann Bergl이 제작한 이국적인 우화가 있다.

5. 맺음말

바로크(Baroco)는 르네상스 양식이 전화한 양식으로 르네상스 말기에 이탈리아에서 발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바로크는 광선과 음영의 강한 대조, 큰것과 작은 것, 단순한 것과 복잡한 것의 대조, 전체적인 감각변화, 궁극적인 클라이맥스의 제시 등으로 교향악적인 특징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바로크의 디테일은 클래식 형태를 자유롭게 변용하였으며 페디먼트도 중단하여 그 양단을 굽히거나 와형을 만들고 주신은 많이 변형하였으며 모울딩은 강한 음영이 생기게 하였다. 그리고 장식적인 조각과 곡선이 많이 사용되어 수직, 수평 모든 방향으로 곡선을 쓰게 되었으며, 벽면의 판넬에는 복잡한 회화장식을 하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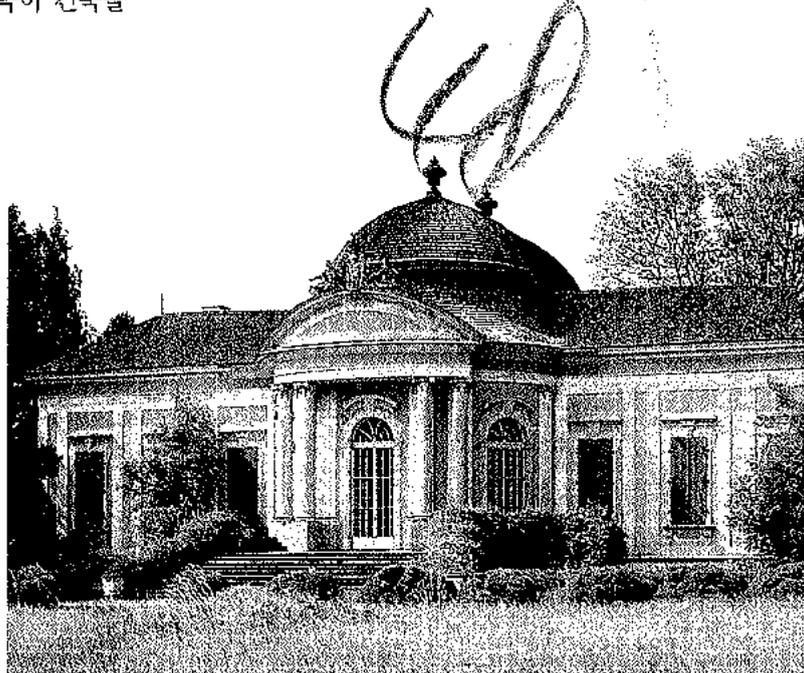
그러므로 바로크의 예술적 활동은 외계의 확대와 사상의 심화에 자극되어 항상 독창적이었으며 특히 건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써 회화, 조각, 공예 등 모든 분야가 건축에 종속되고 융합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건축자체도 구조, 표현, 장식 등이 하나의 의지로 뭉쳐 그의 효과를 드높이게 되어 바로크는 르네상스와 비교하여 건축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으며 또한 곡면형태에 바탕을 두고 감동의 효과도 얻게 되었고 새로운 평면 형식과 공간의 창조도 창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단순성보다 복잡성과 풍요성을 택하여 빛의 극적인 효과까지 이루게 되므로써 당시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얻게 되어 바로크 건축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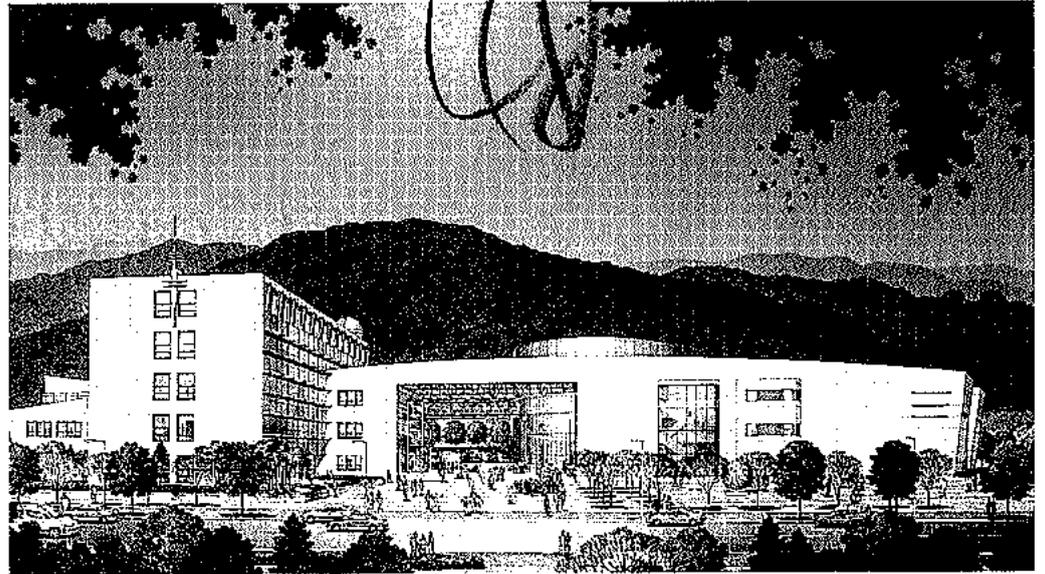
이와같은 바로크 건축의 Melk 수도원은 구상력이 풍부한 건축가인 Prandtauer가 설계를 하였으며 그의 작품으로는 소개되고 있는 Melk 수도원을 포함하여 Sonntagberg 교회(A.D.1706-1707)와 성 플로리안 성당 등이 있다. 이 Melk 수도원의 독특한 특징은 첫째, 수도원 전체 건물에 둘러싸여 있는 바로크양식의 수도원 성당 서쪽 정면에 있는 대칭적인 두 탑과 팔각형의 둥근 지붕이 수도원 전체 건물 위로 우뚝 솟아있는 모습과 둘째, 성당 내부의 간막이 벽을 투조세공으로 처리하고 장식용 벽기둥을 세로로 길게 홈을 파서 치장하고 적갈색과 회색, 노랑색과 주황색등의 색조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장식함으로써 매우 경쾌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며 또한 셋째, 황금색과 대리석 장식, 벽화 등이 내부를 한층 화려하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물론 다른 나라의 바로크 양식의 건물도 있겠지만 가장 우수한 바로크 양식이 17세기 후반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발달하였으므로 바로크 양식의 수도원을 방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만일 오스트리아의 다뉴브 강을 끼고 우뚝 서 있는 멜크 수도원을 방문하여 아름다움과 독특한 양식을 감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특히 승용차로 Melk 수도원을 방문하게 된다면 방문 후 아름다운 다뉴브 강을 따라 주위 경관을 감상하며 여행하므로써 떠나는데 커다란 아쉬움을 남길 수 있는 아름답고 좋은 추억을 간직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둥근 천장의 프레스코화 상세



수도원 정원의 별장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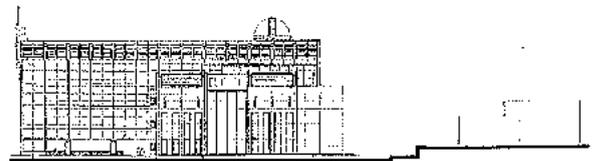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Chungbuk Science-Education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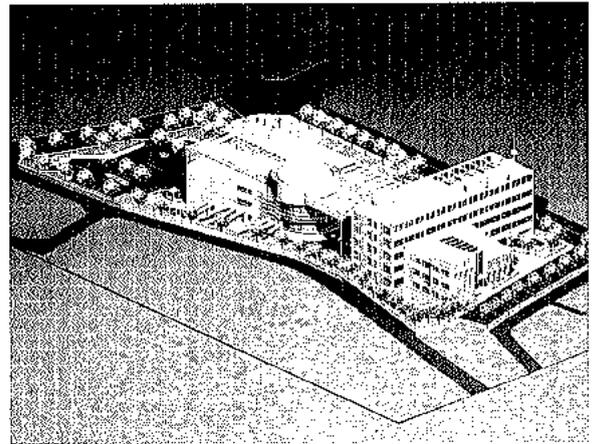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충북과학교육원 이전신축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지난 8월 20일 (주)선건축(오선교)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최종5개 작품이 경합을 벌인 이번 설계경기의 우수작은 금성건축(한종연), 대건사건축(곽은영), 토우건축(신언학), 대전정주건축(송윤섭)안이 선정되었다. 당선된 (주)선건축안은 우암산과 과학교육원, 상당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공간의 연속성이 좋은데다 서측 12m 도로의 협소함을 서측에 광장을 둠으로서 해결하였고 기능별로 구획이 잘 났으며 완만한 지붕곡선이 우암산과 조화를 이루는 등 전체적으로 배치계획과 조형성이 뛰어나 최우수작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사위원(가나다순)은 다음과 같다.

강용식(대한건축학회), 박상달(과학교육원장), 박천규(충남대교수), 송영식(충청북도 부교육감), 신유진(광운대교수), 이강엽(한양대교수), 임남재(대전산업대교수), 장성준(명지대교수), 정익현(예전건축소장)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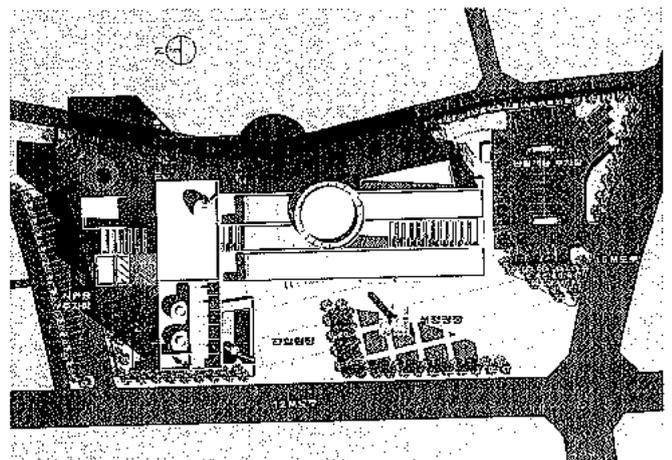


CAD 시뮬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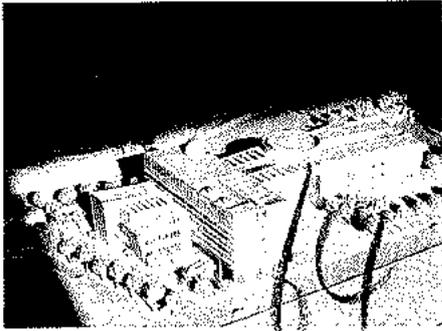
당선작

선건축(오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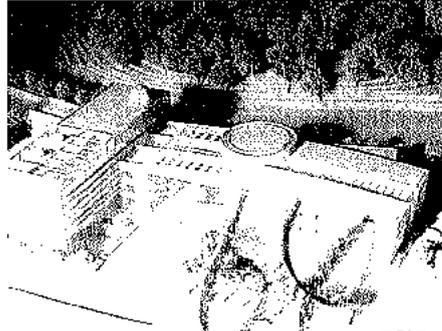
대지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180
 대지면적 / 13,454.4㎡
 건축면적 / 3,840.9㎡
 연면적 / 14,199.2㎡
 건폐율 / 28.55%
 용적률 / 80.52%
 규모 / 지하층, 지상 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
 계획 / 정용현
 설계 / 김동석, 신정훈, 문용순, 정정현, 김기운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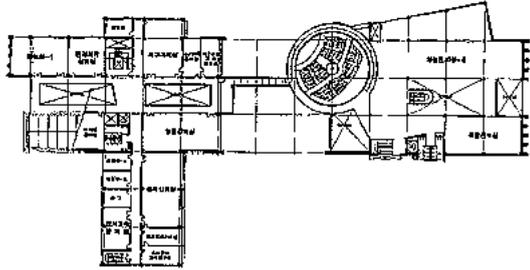
모형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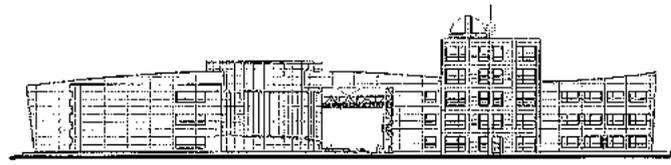
모형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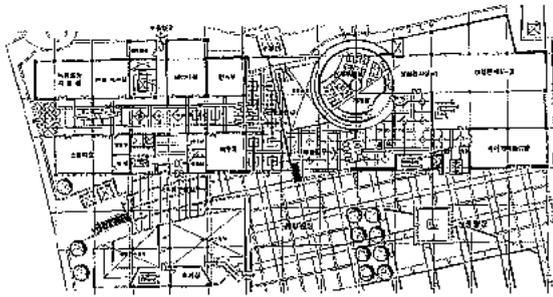
모형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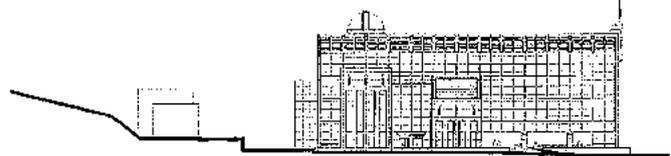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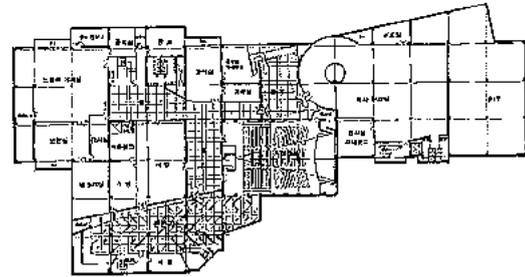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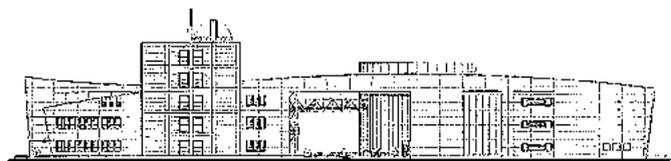
1층 평면도



북측면도



지하층 평면도



서측면도

21세기 첨단과학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과학정보센터로서의 기능과 조형을 갖춘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충청북도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시행된 이번 설계경기에서 우리는 세기를 뛰어넘는 무한한 미래와 태고적 비밀을 밝혀내는 현재인으로서의 고민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자연과 과학 그리고 인간과 시간

자연은 주어진 환경이며 자연의

법칙을 찾아내는 작업이 과학으로 그 목적은 인간의 존재에 있다. 인간의 존재는 과거와 미래사이의 철니적 틀에 존재하며 현재는 항상 다가올 현재와 지나간 현재로서 확대 해석된다.

우리는 이러한 개념하에 시간이 라는 긴 선형 Mass에 과거(전시공간)와 미래(교육연구공간) 사이의 틈을 확대해석 자연을 끌어들이므로써 미래를 개척하고 과거를 극복하는 과학교육정보센터로서의 기능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 기대하

는 마음을 담고자 하였다.

계획부지는 우암산과 상당공원 사이의 녹지연결축상에 위치하는 구 교동초등학교 대지로서 남북으로 긴 형상이다.

주도인 서측의 12m도로는 협소한 편이며 한국은행과 교원공채회 소유의 태양생명 사옥은 상당공원과 함께 도시 오픈스페이스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의 주안점을 녹지연결축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오픈스페이스를 최대

한 확보하는것을 전제로하여 남북으로 긴 선형 Mass를 배치 서측을 비움으로써 서측 주진입도로의 협소함을 해결하는 동시에 상당공원과 연계되는 넓은 도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였다. 완만한 지붕곡선은 우암산과 조화를 꾀하고 자칫 긴 선형 Mass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함이며 건물의 중앙을 비움은 우암산으로의 시야를 연장 자연과의 유기적관계를 설정 초기개념에 충실함과 동시에 많은 활동적 행위를 담기위함이다.

우수작

금성건축(한종인)

대지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180
 지역 · 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35m 고도제한지구

대지면적 / 13,454.3㎡(4,069.9평)

건축면적 / 5,389.1㎡(1,630평)

연면적 / 14,195.1㎡(4,294평)

건폐율 / 40.1%

용적률 / 95.2%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조경면적 / 3,050.7㎡(922.8평)

주차대수 / 법정대수 - 6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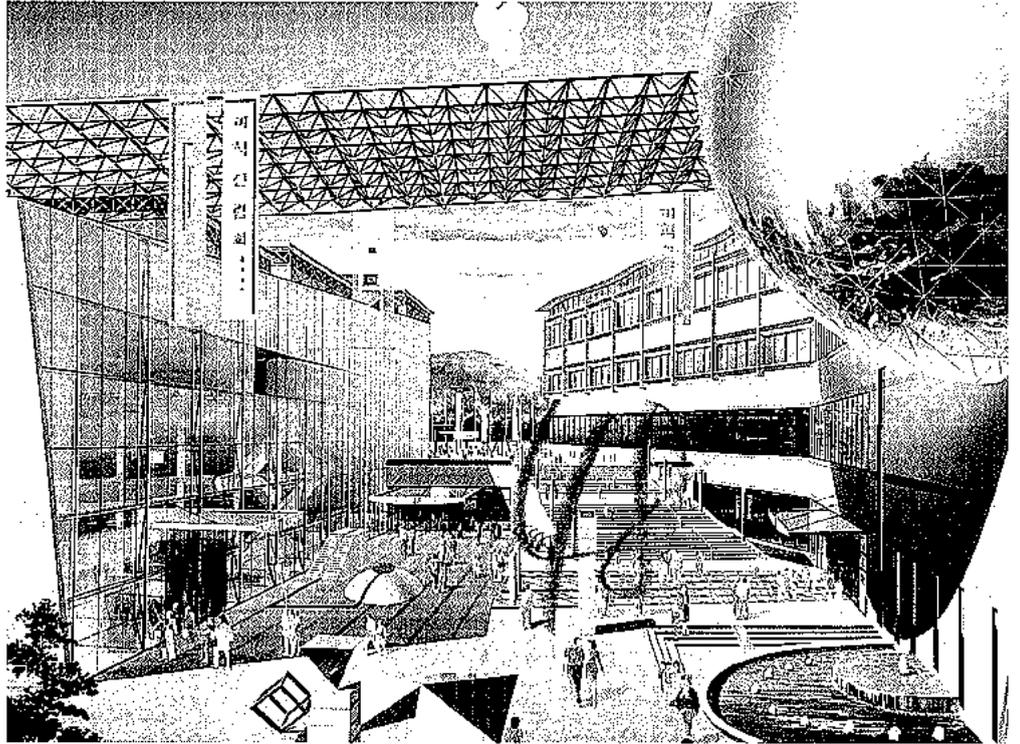
설치대수 - 83대(소형차 : 72대,

대형차 : 11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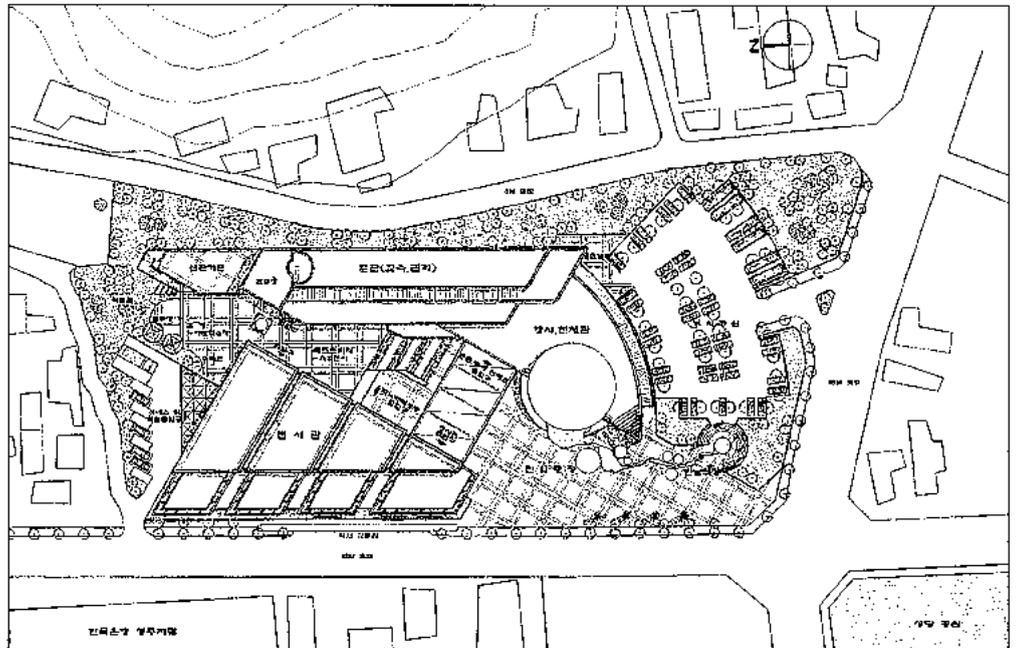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Pipe Truss조)

주요외장재 / 스테인레스 복합패널, 컬러복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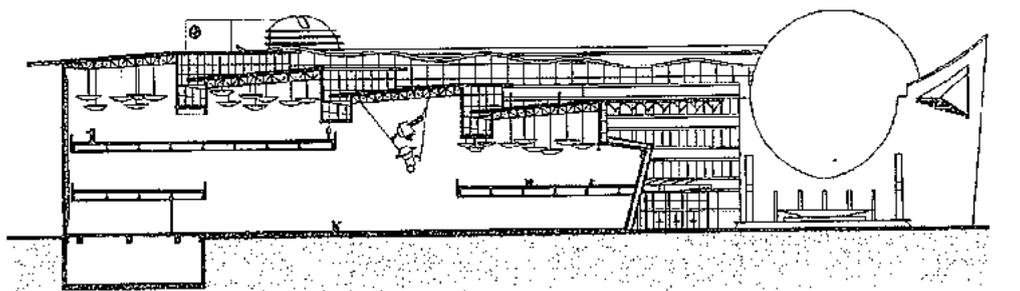
유리, 로이히트유리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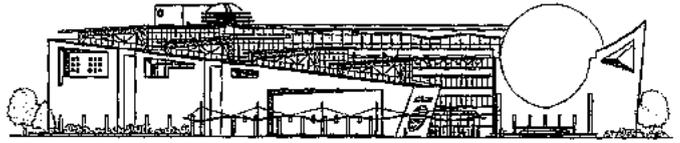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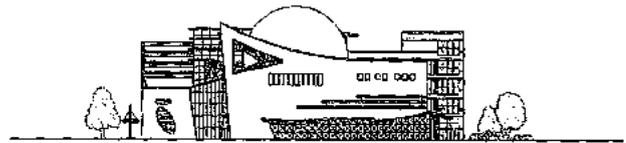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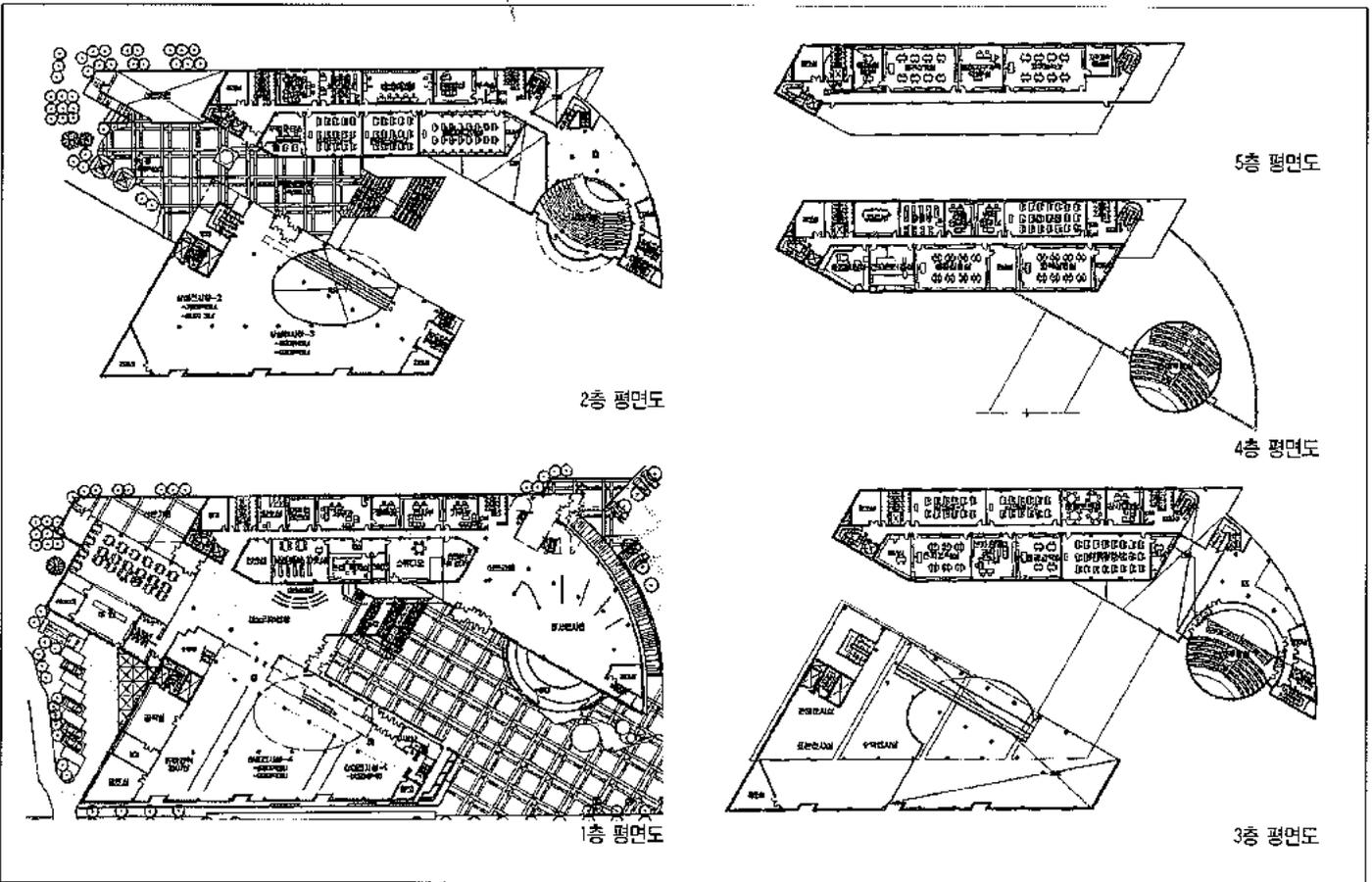
모형도



서측면도



남측면도



2층 평면도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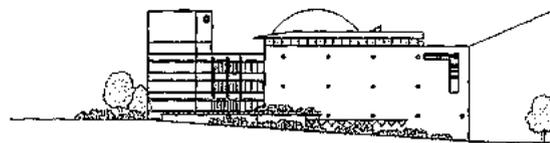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동측면도



북측면도

배치계획

- 삼일공원과 로타리 상당공원을 잇는 축을 주축 (공간전이축)으로 설정. 대규모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광장을 시점으로 위계에 따른 오픈 스페이스 배치
- 전시관과 교육·연수관을 주축과 수직적으로 연

- 결하여 공간적 기능 배분을 극대화, 적극적 상호 연결
- 주축상에 배치된 파노라마 광장을 통해 각 기능 연결
- 진입로에서 광장을 중심으로 한 상징성과 옥외 전시장, 자연환경을 향한 시각적 개방성 부여
- 대지의 자연지세에 순응하면서 전면도로와 인

- 접해 남북축에 평행하게 전시관의 위치 설정
- 진입부의 천체투영실 배치로 과학적 분위기 연출, 축제 분위기 조성
- 유기적 연결을 위한 전시관과 교육·연수관의 결정으로 연결되는 보행축의 형성과 입면 매스의 관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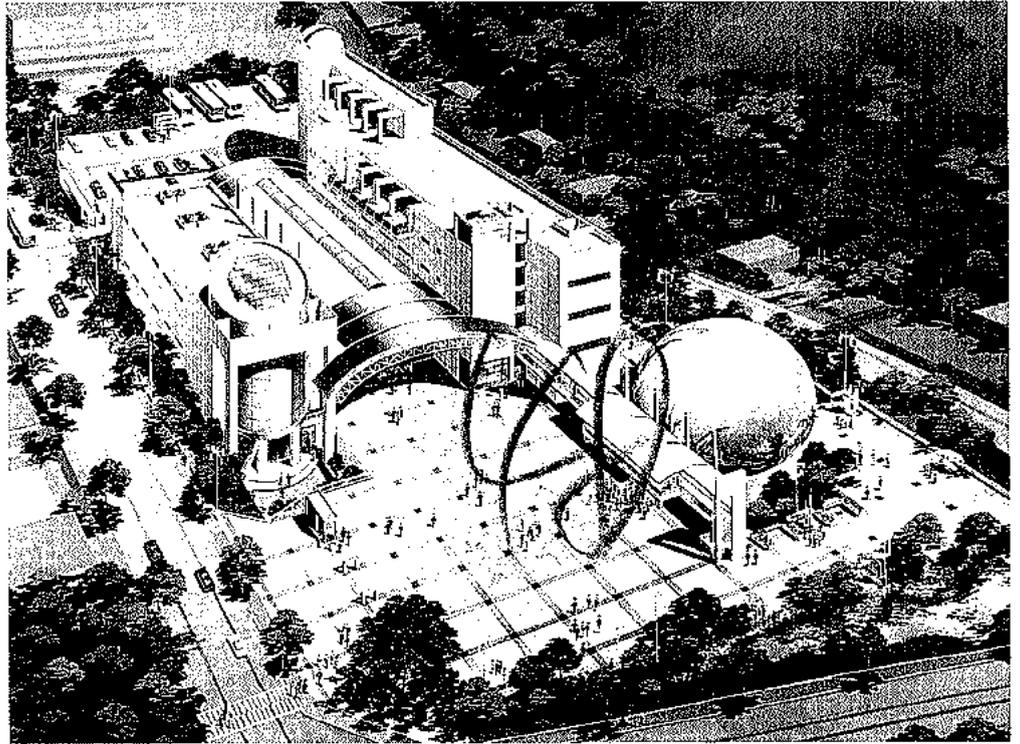
우수작

투우건축(신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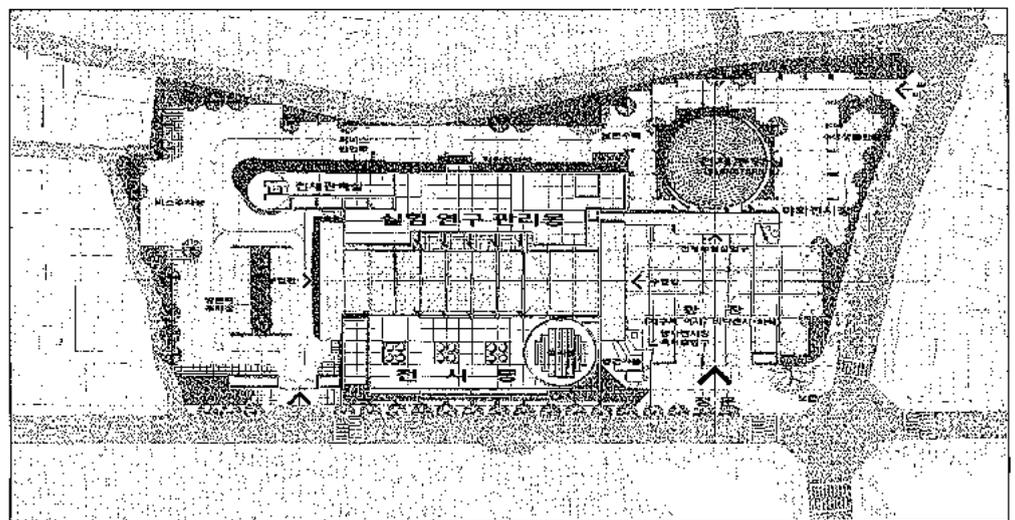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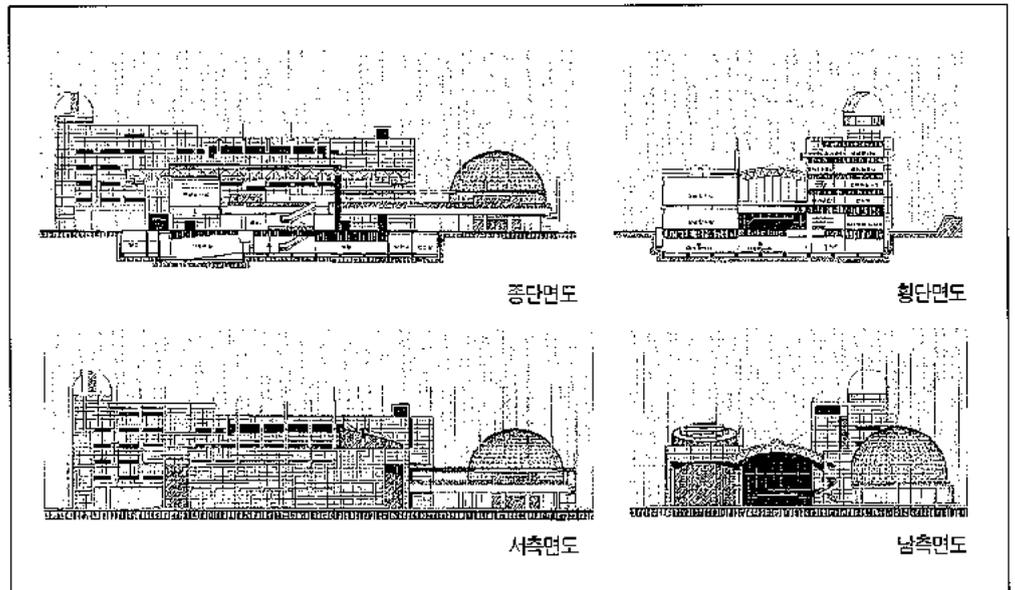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180
 지역 · 지구 / 일반 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고
 도제한지구
 대지면적 / 약 13,004.3㎡(3,934평) - 도로공
 제면적 450㎡는 제외
 연면적 / 13,638㎡(4,266평)
 층별면적 / 지하1층 - 3,689㎡(1,116평), 1
 층 - 3,140㎡(960평)
 2층 - 2,843㎡(860평), 3층 -
 1,296㎡(392평), 4층 - 1,296㎡
 (392평), 5층 - 1,154㎡(349평),
 6층 - 155㎡(47평), 7층 - 65㎡
 (20평)
 건축규모 / 3,606㎡(1,091평)
 건폐율 / 27.7%
 용적률 / 76.5%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층 일부 7층 : 전체
 관측실 부분)
 최고높이 / 33.5m
 조경면적 / 2,375㎡
 주차대수 / 65대(승용차 58대, 버스 7대)

계획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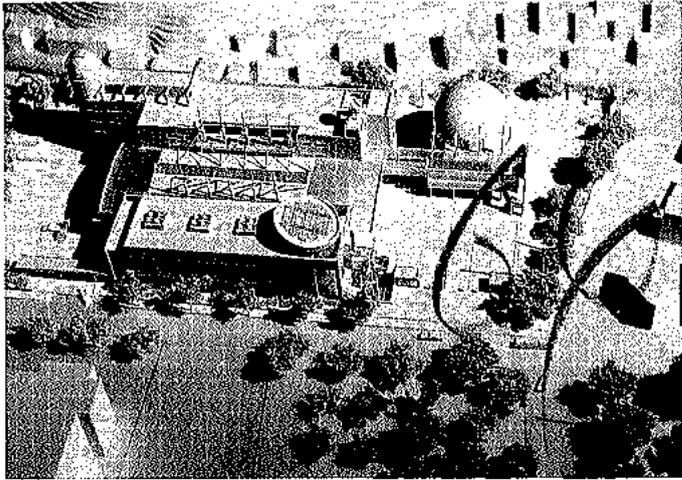
- 미래의 과학기술시대를 대비한
 중등학교 및 지역시민의 집약적
 산교육 공간
 · 미래 과학기술 시대를 예견 · 대
 처할 수 있는 과학센터로서의 기
 능
- 꿈, 희망을 주는 체험 학습장
 · 상상력, 호기심, 과학탐구 능력을
 유발하는 체험학습이 가능한 공
 간구성
-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과학공간
 · 대지의 잠재적인 특성과 과학의
 요소를 잘 활용하여 자연과 과학
 이 조화를 이루는 내 · 외부 공간
 연출
- 과학적 의미를 표현하는 상징성
 구축
 · 조형적 이미지, 공간적체험, 장소
 적 개발에서 과학적 의미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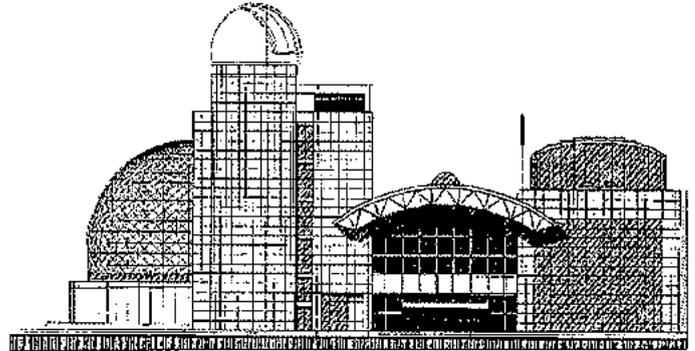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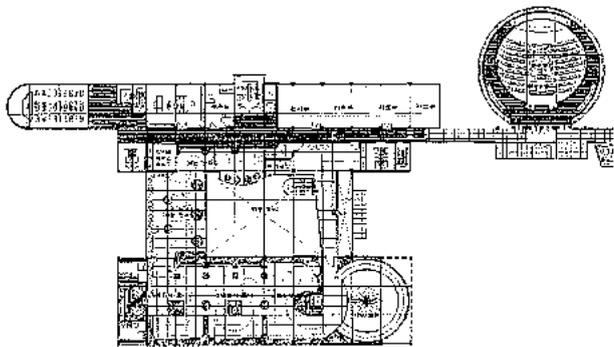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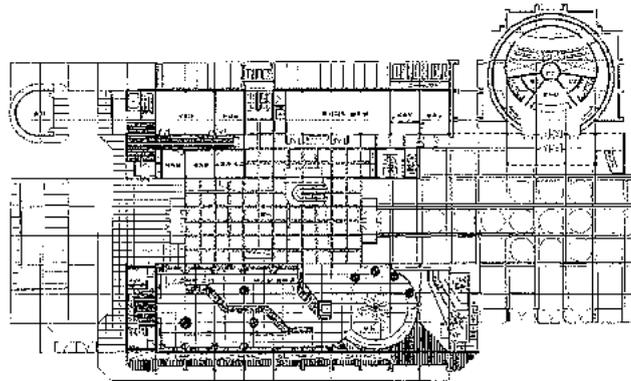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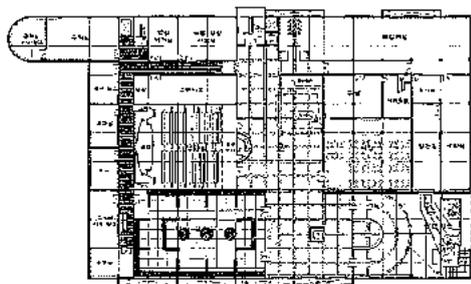
복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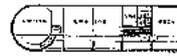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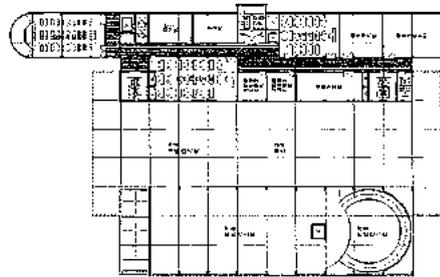
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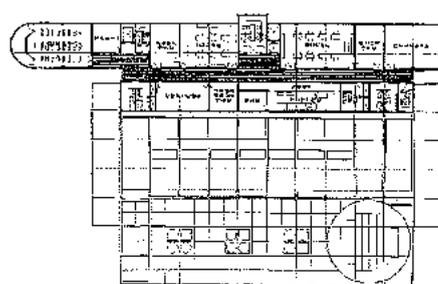
옥탑층 평면도



5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96년도 8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8월분 1천5십3만2천5백40㎡ 보다 15.0%(1백5십8만1천6백63㎡) 감소한 8백9십5만8백77㎡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8월누계 8천6백6십1만1천9백27㎡ 보다 10.9%(9백

4십2만9천2백60㎡) 감소한 7천7백1십8만2천6백67㎡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7월분 1천7십6만4천4백27㎡보다 16.8%(1백8십1만3천5백50㎡) 감소한 8백9십5만8백77㎡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 (연면적기준) | | (단위/㎡) | | | |
|---------|--------|------------|-----------|-------------|-----------|
| 구분 | 1995년도 | 1996년도 | 증감 | 비율(%) | |
| 증가지역 | 서울 | 2,706,135 | 4,396,322 | 1,690,187 | 62.5% |
| | 부산 | 408,901 | 985,017 | 576,116 | 140.9% |
| | 대구 | 484,125 | 598,128 | 114,003 | 23.5% |
| | 인천 | 291,424 | 292,602 | 1,178 | 0.4% |
| | 대전 | 116,704 | 142,613 | 25,909 | 22.2% |
| | 제주 | 53,132 | 58,062 | 4,930 | 9.3% |
| | 감소지역 | 광주 | 306,527 | 105,470 | (201,057) |
| 경기 | | 2,053,888 | 966,840 | (1,087,048) | -52.9% |
| 강원 | | 420,325 | 119,107 | (301,218) | -71.7% |
| 충북 | | 589,071 | 173,693 | (415,378) | -70.5% |
| 충남 | | 399,680 | 148,822 | (250,858) | -62.8% |
| 전북 | | 784,384 | 75,018 | (709,366) | -90.4% |
| 전남 | | 258,209 | 116,682 | (141,527) | -54.8% |
| 경북 | | 628,310 | 183,539 | (444,771) | -70.8% |
| 경남 | | 1,031,725 | 588,962 | (442,763) | -42.9% |
| 합계 | | 10,532,540 | 8,950,877 | (1,581,663) | -15.0% |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

| (연면적기준) | | (단위/㎡) | | | |
|---------|------------|-----------|-------------|--------|--|
| 구분 | 7월분 | 8월분 | 증감 | 비율(%) | |
| 단독주택 | 982,237 | 738,263 | (243,974) | -24.8% | |
| 다세대주택 | 321,434 | 253,313 | (68,121) | -21.2% | |
| 연립주택 | 176,269 | 116,119 | (60,150) | -34.1% | |
| 아파트 | 4,265,380 | 3,658,131 | (607,249) | -14.2% | |
| 근린생활시설 | 1,591,120 | 1,177,368 | (413,752) | -26.0% | |
| 종교시설 | 87,189 | 59,024 | (28,165) | -32.3% | |
| 의료시설 | 74,346 | 22,816 | (51,530) | -69.3% | |
| 교육연구시설 | 281,352 | 495,267 | 213,915 | 76.0% | |
| 업무시설 | 269,564 | 397,767 | 128,203 | 47.6% | |
| 숙박시설 | 188,419 | 107,404 | (81,015) | -43.0% | |
| 공장 | 1,309,755 | 978,355 | (331,400) | -25.3% | |
| 기타 | 985,475 | 947,050 | (38,425) | -3.9% | |
| 계 | 10,532,540 | 8,950,877 | (1,581,663) | -15.0% | |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8월분)

| 구분 | 1995년 | | | 1996년 | | | 대비 | | | 연면적비율(%) | 비고 |
|--------|-------|--------|------------|-------|-------|-----------|---------|---------|-------------|----------|----------|
| | 건수 | 동수 | 연면적 | 건수 | 동수 | 연면적 | 건수 | 동수 | 연면적 | | |
| 단독주택 | 3,405 | 3,482 | 982,237 | 2,571 | 2,620 | 738,263 | (834) | (862) | (243,974) | -24.8 | |
| 다세대주택 | 699 | 737 | 321,434 | 514 | 537 | 253,313 | (185) | (200) | (68,121) | -21.2 | |
| 연립주택 | 121 | 122 | 176,269 | 83 | 87 | 116,119 | (38) | (35) | (60,150) | -34.1 | |
| 아파트 | 142 | 476 | 4,265,380 | 94 | 227 | 3,658,131 | (48) | (249) | (607,249) | -14.2 | |
| 근린생활시설 | 3,008 | 3,111 | 1,591,120 | 2,547 | 2,640 | 1,177,368 | (461) | (471) | (413,752) | -26.0 | |
| 종교시설 | 99 | 114 | 87,189 | 93 | 105 | 59,024 | (6) | (9) | (28,165) | -32.3 | |
| 의료시설 | 30 | 30 | 74,346 | 16 | 18 | 22,816 | (14) | (12) | (51,530) | -69.3 | |
| 교육연구시설 | 129 | 146 | 281,352 | 129 | 133 | 495,267 | 0 | (13) | 213,915 | 76.0 | |
| 업무시설 | 86 | 86 | 269,564 | 81 | 93 | 397,767 | (5) | 7 | 128,203 | 47.6 | |
| 숙박시설 | 139 | 148 | 188,419 | 118 | 120 | 107,404 | (21) | (28) | (81,015) | -43.0 | |
| 공장 | 770 | 1,076 | 1,309,755 | 599 | 802 | 978,355 | (171) | (274) | (331,400) | -25.3 | |
| 기타 | 1,009 | 1,216 | 985,475 | 950 | 1,097 | 947,050 | (59) | (119) | (38,425) | -3.9 | |
| 합계 | 9,637 | 10,744 | 10,532,540 | 7,795 | 8,479 | 8,950,877 | (1,842) | (2,265) | (1,581,663) | -15.0 | ()=마이너스 |

용도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8월분)

| 구분 용도별 | 1995년 | | | 1996년 | | | 대 비 | | | 연면적 비율(%) | 비고 |
|-----------|--------|--------|------------|--------|--------|------------|---------|----------|-------------|--------------|---------|
|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 |
| 단독주택 | 31,176 | 31,724 | 8,053,887 | 29,199 | 29,825 | 8,797,915 | (1,977) | (1,899) | 744,028 | 9.2 | |
| 다세대주택 | 6,049 | 6,904 | 2,980,184 | 5,526 | 5,866 | 3,298,516 | (623) | (1,038) | 318,332 | 10.7 | |
| 연립주택 | 911 | 964 | 1,320,371 | 852 | 890 | 1,180,657 | (59) | (74) | (139,714) | -10.6 | |
| 아파트 | 1,318 | 4,682 | 30,990,743 | 835 | 1,757 | 27,082 | (483) | (2,925) | (3,898,196) | -12.6 | |
| 근린생활시설 | 27,967 | 28,847 | 13,108,226 | 25,987 | 27,082 | 12,394,533 | (1,980) | (1,765) | (713,693) | -5.4 | |
| 종교시설 | 911 | 1,046 | 696,183 | 814 | 927 | 744,324 | (97) | (119) | 48,141 | 6.9 | |
| 의료시설 | 200 | 212 | 707,261 | 175 | 204 | 580,847 | (25) | (8) | (126,414) | -17.9 | |
| 교육연구시설 | 962 | 1,113 | 2,536,265 | 781 | 865 | 2,476,062 | (181) | (248) | (60,203) | -2.4 | |
| 업무시설 | 910 | 947 | 4,512,830 | 657 | 694 | 2,993,003 | (253) | (253) | (1,519,827) | -33.7 | |
| 숙박시설 | 1,028 | 1,115 | 1,475,431 | 1,047 | 1,106 | 1,105,381 | 19 | (9) | (370,050) | -25.1 | |
| 공장 | 6,771 | 9,438 | 10,247,771 | 5,203 | 6,891 | 7,582,349 | (1,568) | (2,547) | (2,665,422) | -26.0 | |
| 기타 | 8,217 | 9,976 | 9,982,775 | 7,453 | 8,768 | 8,936,533 | (764) | (1,208) | (1,046,242) | -10.5 | |
| 합계 | 86,420 | 96,968 | 86,611,927 | 78,529 | 84,875 | 77,182,667 | (7,891) | (12,093) | (9,429,260) | -10.9 | (=미아너스) |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8월분)

| 구분 건축사회 | 1995년 | | | 1996년 | | | 대 비 | | | 연면적 비율(%) | 비고 |
|------------|-------|--------|------------|-------|-------|-----------|---------|---------|-------------|--------------|---------|
|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 |
| 서울 | 1,358 | 1,358 | 2,706,135 | 2,118 | 2,128 | 4,369,322 | 760 | 770 | 1,690,187 | 62.5 | |
| 부산 | 890 | 980 | 408,901 | 572 | 828 | 985,017 | (318) | (152) | 576,116 | 140.9 | |
| 대구 | 1,216 | 1,238 | 484,125 | 390 | 390 | 598,128 | (826) | (848) | 114,003 | 23.5 | |
| 인천 | 305 | 310 | 291,424 | 337 | 339 | 292,602 | 32 | 29 | 1,178 | 0.4 | |
| 광주 | 267 | 345 | 306,527 | 186 | 207 | 105,470 | (81) | (138) | (201,057) | -65.6 | |
| 대전 | 198 | 201 | 116,704 | 193 | 193 | 142,613 | (5) | (8) | 25,909 | 22.2 | |
| 경기 | 1,868 | 2,057 | 2,053,888 | 1,241 | 1,381 | 966,840 | (627) | (676) | (1,087,048) | -52.9 | |
| 강원 | 539 | 630 | 420,325 | 381 | 414 | 119,107 | (158) | (216) | (301,218) | -71.7 | |
| 충북 | 434 | 542 | 589,071 | 323 | 360 | 173,693 | (111) | (182) | (415,378) | -70.5 | |
| 충남 | 377 | 378 | 399,680 | 285 | 222 | 148,822 | (92) | (156) | (250,858) | -62.8 | |
| 전북 | 295 | 347 | 784,384 | 147 | 147 | 75,018 | (148) | (200) | (709,366) | -90.4 | |
| 전남 | 344 | 403 | 258,209 | 271 | 308 | 116,682 | (73) | (95) | (141,527) | -54.8 | |
| 경북 | 484 | 698 | 628,310 | 373 | 465 | 183,539 | (111) | (233) | (444,771) | -70.8 | |
| 경남 | 935 | 1,126 | 1,031,725 | 856 | 964 | 588,962 | (79) | (162) | (442,763) | -42.9 | |
| 제주 | 127 | 131 | 53,132 | 122 | 133 | 58,062 | (5) | 2 | 4,930 | 9.3 | |
| 합계 | 9,637 | 10,744 | 10,532,540 | 7,795 | 8,479 | 8,950,877 | (1,842) | (2,265) | (1,581,663) | -15.0 | (=미아너스) |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8월분)

| 구분 건축사회 | 1995년 | | | 1996년 | | | 대 비 | | | 연면적 비율(%) | 비고 |
|------------|--------|--------|------------|--------|--------|------------|---------|----------|-------------|--------------|---------|
|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 |
| 서울 | 13,125 | 13,189 | 14,565,024 | 19,654 | 19,696 | 35,898,667 | 6,529 | 6,507 | 21,333,643 | 146.5 | |
| 부산 | 7,120 | 8,386 | 5,341,813 | 5,564 | 7,737 | 7,106,026 | (1,556) | (949) | 1,764,213 | 33.0 | |
| 대구 | 9,870 | 10,350 | 5,873,895 | 6,358 | 6,402 | 5,051,587 | (3,512) | (3,948) | (822,308) | -14.0 | |
| 인천 | 3,182 | 3,346 | 4,264,241 | 2,877 | 2,908 | 2,926,755 | (305) | (438) | (1,337,486) | -31.4 | |
| 광주 | 2,244 | 2,964 | 3,246,475 | 2,346 | 2,781 | 1,856,703 | 102 | (183) | (1,389,772) | -42.8 | |
| 대전 | 2,102 | 2,273 | 2,424,085 | 2,428 | 2,465 | 1,394,329 | 326 | 192 | (1,029,756) | -42.5 | |
| 경기 | 16,230 | 18,308 | 18,595,604 | 14,042 | 15,340 | 8,737,714 | (2,188) | (2,968) | (9,857,890) | -53.0 | |
| 강원 | 4,648 | 5,496 | 3,698,299 | 3,459 | 3,759 | 1,435,965 | (1,189) | (1,737) | (2,262,334) | -61.2 | |
| 충북 | 4,147 | 4,719 | 3,314,864 | 3,053 | 3,401 | 1,624,477 | (1,094) | (1,318) | (1,690,387) | -51.0 | |
| 충남 | 3,519 | 3,798 | 5,451,059 | 2,409 | 2,127 | 1,494,175 | (1,110) | (1,671) | (3,956,884) | -72.6 | |
| 전북 | 2,218 | 2,502 | 3,348,416 | 1,740 | 1,742 | 1,294,793 | (478) | (760) | (2,053,623) | 61.3 | |
| 전남 | 3,185 | 3,789 | 2,626,289 | 2,424 | 2,688 | 1,170,137 | (761) | (1,101) | (1,456,152) | -55.4 | |
| 경북 | 5,189 | 6,829 | 5,421,203 | 3,517 | 4,301 | 1,853,430 | (1,672) | (2,528) | (3,567,773) | -65.8 | |
| 경남 | 7,941 | 9,224 | 7,684,591 | 7,461 | 8,529 | 4,769,436 | (480) | (695) | (2,915,155) | -37.9 | |
| 제주 | 1,700 | 1,795 | 756,069 | 1,197 | 1,299 | 568,473 | (603) | (496) | (187,596) | -24.8 | |
| 합계 | 86,420 | 96,968 | 86,611,927 | 78,529 | 84,875 | 77,182,667 | (7,891) | (12,093) | (9,429,260) | -10.9 | (=미아너스) |

이사회 개최



이사회 광경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10회 이사회가 지난 9월10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보고사항과 진회회의록 승인, 부의안건 처리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0회 이사회

제1호 의안 : 제31회 정기총회 개최일시 및 장소 결정의 건

- 제31회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기로 함.

- 일시 : 1996.10.29(화)10:00
- 장소 : 협회 대강당

제2호 의안 : 기술분야 등급인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기술분야 등급인정 심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기로 함

위원장-안길원 이사 (건축전산위원회 위원장)

위 원-백경국(건축전산위원회 위원), 회원부장, 건축부장, 총무부장, 기획부장, 사업부장

'96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 및 전시회개막식 거행

우리협회와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한 '96한국건축문화대상의 시상식 및 전시회 개막식이 지난 9월 17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600년기념관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협회 김규태 회장을 비롯해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 김영렬 서울경제신문사 사장 등 주최기관 기관장과 이충길 한국주택협회 회장, 허진석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회장 등 후원단체장, 건축관계인사, 수상자 및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김규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영예의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내며 「건축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이들의 만남의 장인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우리 건축이 갖고 있는 문화적 잠재력을 널리 알리는 자리로 한층 발돋움 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석 장관은 치사를 통해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올해부터 대통령상으로 격상 되는 등 범국가적인 축제의 장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됐다. 「이를통해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출하고 나아가 건축문화의 세계화를 이루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거행된 시상식에서 추경석 장관은 大賞으로 선정된 대법원청사의 설계자인 원도시건축의 윤승중 회원과 이내훈 현대건설 사장(시공자), 김문채 법원행정처 건설심의관(건축주)에게 대상 트로피와 건축물부착용 동판을 각각 수여하였다. 특히 설계자인 윤승중 회원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었다. 이밖에 공공건축물부문 본상으로 선정된 수원야외음악당의 5개 수상자의 건축사와 시공자, 건축주를 비롯해 우수상과 입선, 공로상 수상자들에게는 김규태 회장과 김영렬 사장이 시상자로 나서 트로피와 동판, 상패 등을 수여하였으며 계획건축물부문 수상자들에게도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되었다. 한편 이들 수상작들은 지난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서울600년 기념관에 전시되어 많은 건축인과 학생, 일반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96년도 건축사자격시험에 총 2,761명 응시

지난달 22일 치러진 '96년도 건축사자격시험 결과 응시원서 접수인원 3천3백32명 가운데 2천7백61명(특별전형응시자 8명 포함)이 시험에 응시, 약82%의 응시율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고등학교와 광남중,고등학교 등 2개 시험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 올해 건축사자격시험에서 일반전형응시자는 오전 50분간 건축법규와 오후 360분간 건축설계실기 시험을 치렀으며 특별전형응시자는 오전에 120분간 건축계획과 건축구조과목에 대한 객관식 선택형 시험을 치렀다. 시험결과는 오는 10월 31일에 발표되며 아래 전화번호의 자동응답전화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700-1925 : 합격예정자 안내(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4일간)
- 700-4123(기관코드:54) : 합격예정자 안내, 시험응시자격,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상시안내 함.
- ※ 700-4123 자동응답전화서비스의 정보이용료는 사용자 부담임.

건기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공포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7일 건설교통부령 제78호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을 공포하고 공포 당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총괄표 및 부실벌점 적용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날 15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자의 경우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 감리전문회사의 경우 : 한국건설감리협회
3. 설계등 용역업자
 - 가.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의 경우 : 한국기술사회
 - 나. 측량업자로 등록한자의 경우 : 측량협회
 - 다. 가복 및 나목외의 자의 경우 :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4. 건설업자의 경우 : 대한건설협회
5.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경우(건설업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 영 제46조의2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
2.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표 14의2 요건을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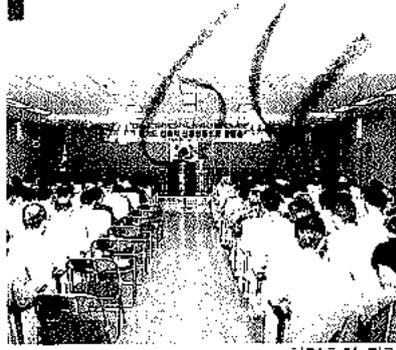
별표 8 제3호 나목중 '평균부실벌점'으로 하며, 당해년도와 평균부실벌점은 각 반기별 평균부실벌점을 합계하여 평균한다'를 '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이 경우 1995

년 10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이를 1반기로 본다'로 한다.

별표 8 제3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당해업체 또는 건설기술자 등의 최근 3년간의 평균부실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경기도건축사 신용협동조합 창립 총회개회



창립총회 광경

경기도건축사협회에서는 지난 8월23일 회원들의 숙원 사업인 경기도건축사신용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236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6층 대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대전건축사회 회관개관 기념식 및 회원작품전 열어

대전건축사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활동들을 담아갈 회관의 개관과 함께 회원들의 역할들을 현대모아 개관기념 행사 및 회원작품전을 갖는다. 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일시 : 개관기념식 1996.10.7(월)11:00

작품전 1996.10.7~10.12

장소 : 대전건축사회관 1층

(대전시 서구 둔산동 1122번지)

문의 : 대전건축사회

042-485-2813~7

대전광역시건축사회, 회관 이전

대전광역시건축사회(회장 류성희)가 지난 9월 21일 대전 중구 대흥동 회관에서 서구 둔산동 새 보금자리로 이전하였다. 대전광역시건축사회의 새회관은 둔산동내 건축

자재백화점과 상공회의소(경성큰마을)가 위치한 계룡로 중간지점에 자리해 있다. 회관이전에 따라 변경된 대전광역시 건축사회의 새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22
- 전화 : (042)485-2813~7
- 팩스 : (042)485-2818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장학금 지급

인천광역시건축사회(회장 송기준)는 지난 13일 매년 계속사업으로 전개해온 모범건축전공학도 격려를 위한 사회사업 참여의 일환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장학금 대상자는 인학대 실행진군 등 총 7개학교 14명으로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이번에 지급한 장학금 지급액은 대학생 4명 각 1백만원, 전문대생 4명 각 60만원, 고등학생 6명 각 40만원 등 총 8백 8십만원이다.

전남건축사회, 도내 건축학도 장학금 지급



장학금 수여광경

전남건축사회(회장 노상익)에서는 도내 건축학도를 양성하는 6개 전문대학과 4개 공업계고등학교에서 각 1명씩을 선발하여 목포진문대학 2학년 윤현준군 등 10명에게 총 5백 4십만원(전문대 7십만원, 고등학교 3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이는 건축계의 우수한 후배양성과 사회봉사활동을 펴는 일환으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를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건축사회는 작년도에도 8명의 학생에게 3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부산통합역사 국제현상설계 당선작 발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 김한중)은 지난 9월 25일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통합한 부산역사 국제현상설계 당선작으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권원과 영국 니컬러스 그림쇼사의 공동설계안을 선정, 발표했다. 당선작은 시설배치가 합리적이고 여객대합실내 기둥이 없는 시원한 공간구성이 돋보였으며 특히 2천 8백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이 확보돼 있어 효용성이 높게 평가됐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주)삼우설계, 창립20주년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주)삼우설계가 창립 20주년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유럽현대건축가 4인을 초청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가졌다.

지난 20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건축업계 및 학계 그리고 관련단체의 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대건축의 발자취가 일천한 한국의 건축문화의 발전과 세계적 수준으로의 도약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현대건축의 최근 경향과 세계화'라는 주제로 유럽의 대표적 건축가 4인을 초청하였는데, 초청된 건축가로는 영국의 Terry Farrell, 네덜란드의 Rem Koolhaas, 프랑스의 Jean Nouvel, 스위스의 Mario Botta 등 현대 유럽의 건축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중견건축가이다.

한국건축가협회 강석원 회장은 발제강연에서, 1.2차 세계대전을 거친후 폐허속에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여 70년대 중반의 포스트모더니즘의 확산

과 80년대부터 세계건축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럽의 건축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어 Terry Farrell의 'Contextualism과 Global Culture', Jean Nouvel의 'Speciality에 관하여', Mario의 '주거와 종교, 그리고 전시를 위한 디자인의 주제강연이 이루어졌다.

유럽건축가 4인의 강연이 끝난후 collaborative project 발표회가 있었으며, 삼우설계 조주환 소장의 사회로 서울대 심우갑교수, 성균관대 임창복교수, 정림건축 박승홍 소장의 토론 및 질의 시간으로 이번 심포지엄을 마감했다.

유럽현대건축의 현장을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현대건축의 디자인 철학과 그 흐름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져, 한국현대건축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기획,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유럽의 건축을 좀 더 가깝게 접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주)공간 대표 장세양회원 별세

지난 9월 5일 (주)공간건축의 장세양 회원이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49세인 고 장세양 회원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77년 공간연구소에 입사한 이래 20여년 동안 (재)김수근 문화재단 이사, 한국건축가협회 이사, 건설교통부 중앙기술 심의위원회 등을 역임하였다. 수상경력으로는 국립대구박물관 현상설계 당선, 경기도립박물관 현상설계 당선,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 등이 있으며, 최근까지 방콕 출라롱콘 왕립대학 마스터플랜을 수주받아 왕성한 창작활동을 벌인 바 있다.

대한민국예술원상 미술부문에 이광노회원 수상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조병화)은 지난 9월 10일 대회의실에서 제 41회 예술원상 시상식을 가졌다.

예술원상은 국내 예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쌓은 예술인에게 주어지게 되며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수상되는데 미술부문에서는 이광노회원(서울대 명예교수, 무예건축연구소 대표)이 선정되었다.

이씨는 서울시 문화상, 대통령표창, 대한민국 문화훈장 등의 수상경력을 지녔으며 건축가로서 6.25이후 많은 건축작품을 남겼는데, 그의 주요작품으로는 국회의사당, 영남대학 본관, 서울대학교 병원, 어린이회관, 서울대 규장각 도서관 등이 있다.

한편 이번 수상자들은 시상식에서 상장과 휘장, 부상으로 2천만원을 각각 수여 받았다.

제 5 회 건축가미술전 열려



건축가 미술전 '96

1996. 10. 11(금) ~ 10. 16(수)
PLUS 건축 서재에 화상 서울 강남구 대치동 953-10 TEL : 557-9294

제5회 건축가미술전이 오는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PLUS건축사옥내 화랑에서 건축가 미술동우회(이하 건미회)주최로 열린다.

건미회의 이번 전시회는 일반인들에게는 건축가들의 속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건축가들에게는 잠시라도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이 전시회는 화가들의 전문적인 그림장치가 아니라 건축을 만드는 일에 전념하는 이 시대의 건축가들이 삭막한 세상 바깥 일 정속에서도 틈을 내어 순수한 감성을 지켜 나가려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건미회 한창진 회장은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한창진 회장을 비롯해 20명의 회원이 출품작가로 참여하게 된다.

문의 : 557-9248